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박사 학위논문

고모음화의 방언 분포와 변화에 관한 연구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김 동 은

고모음화의 방언 분포와 변화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정 승 철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김 동 은

김동은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고는 현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종류의 고모음화를 그 적용 범위와 지리적 분포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고, 세대의 변화에 따라 고모음화의 실현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세대의 변화를 잘 나타내는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주로 1910년대생의 제보자로부터 채록한 《韓國方言資料集》(1987-1995,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40년대생 제보자의 언어를 반영한 《지역어 조사 보고서》(2005-2013, 국립국어원) 및 《지역어 보완 조사》(2017-2019, 국립국어원), 1970년대생과 2000년대생 제보자의 언어를 채집한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의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동안 일어난 한국어의 고모음화에 대해 상술하였다.

모음체계의 변화는 특정 방언에서 고모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므로 먼저 모음체계의 변화를 다루었다. 예컨대 동남 방언에서 'ㅓ'와 'ㅡ'의 음소적 대립이 없는 시기에는 자연히 'ㅓ 〉 ㅡ' 고모음화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 두 음소의 대립이 생긴 세대에서는 'ㅓ 〉 ㅡ'의 고모음화를 찾을 수 있었다.

중부 방언을 전역에서 나타나던 장모음 'ㅓ:', 'ㅖ:'의 고모음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장 큰 변화를 겪어 충청도 일부 지역으로 축소된다. 남부 방언에서 살필 수 있었던 장모음 'ㅖ:'의 고모음화 세대 간의 차이를 크게 보인다. 한편 경북 서부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어두 단모음 'ㅖ'의 고모음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비어두의 경우 'ㅓ 〉 ㅡ'가 《자료집》 이전의 시기에 중부 방언 및 서남 방언 전체에서 나타나다가, 서울 및 경기 남부 지역으로부터 이 고모음화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포착하였다. 어말의 'ㅖ 〉 ㅣ'는 어두나 비어두-비어말의 'ㅖ 〉 ㅣ'와 달리 경남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일

어난다.

또한 지금까지의 방언학 논의가 대체로 어휘 항목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구술발화 자료를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발화에서 고모음화가 실현되는 비율을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의식적인 발화보다는 자유 발화에서 고모음화가 더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고모음화가 적용 어형이나 분포상에서 축소되는 데 비해, 문법형태소에서의 'ㅟ'나 'ㅗ' 고모음화는 어형·지역·세대를 아울러 확산되는 모습도 포착하였다.

주요어 : 모음, 고모음화, 방언 분포, 자유 발화, 세대차
학 번 : 2015-30904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주제 및 목적 ····· 1
1.2. 연구 대상 및 방법 ····· 5
1.3. 선행 연구 검토 ····· 6
1.4. 논의의 구성 ····· 9

2. 고모음화와 관련된 모음체계의 변화 ····· 11
2.1. 모음 'ㅡ'와 'ㅓ'의 변별 ····· 12
2.2. 모음 'ㅖ'와 'ㅐ'의 변별 ····· 16
2.3. 단모음 'ㅟ', 'ㅚ'의 존재 ····· 21
2.4. 운소 ····· 25

3. 어두 고모음화의 방언 분포 ····· 28
3.1. 장모음의 고모음화 ····· 28
3.1.1. 장모음 ㅓ: 〉 ㅡ: ····· 28
3.1.2. 장모음 ㅗ: 〉 ㅜ: ····· 51
3.1.3. 장모음 ㅖ: 〉 ㅣ: ····· 53
3.2. 단모음의 고모음화 ····· 75
3.2.1. 단모음 ㅓ 〉 ㅡ ····· 75
3.2.2. 단모음 ㅗ 〉 ㅜ ····· 76
3.2.3. 단모음 ㅖ 〉 ㅣ ····· 76

4. 비어두 고모음화의 방언 분포 ····· 96
4.1. 어휘형태소의 고모음화 ····· 96

4.1.1. ㅓ 〉 ㅡ ····· 96
4.1.2. ㅗ 〉 ㅜ ····· 107
4.1.3. ㅖ 〉 ㅣ ····· 112
4.2. 문법형태소의 고모음화 ····· 122
4.2.1. ㅓ 〉 ㅡ ····· 122
4.2.2. ㅗ 〉 ㅜ ····· 126
4.2.3. ㅖ 〉 ㅣ ····· 128

5. 구술발화에서의 고모음화 ····· 131
5.1. 어휘형태소의 고모음화 ····· 132
5.1.1. ㅓ 〉 ㅡ ····· 132
5.1.2. ㅗ 〉 ㅜ ····· 141
5.1.3. ㅖ 〉 ㅣ ····· 141
5.2. 문법형태소의 고모음화 ····· 148
5.2.1. ㅓ 〉 ㅡ ····· 148
5.2.2. ㅗ 〉 ㅜ ····· 154
5.2.3. ㅖ 〉 ㅣ ····· 159

6. 결론 ····· 166

참고문헌 ····· 168
Abstract ····· 175

표 목 차

[표 1] ····· 2
[표 2] ····· 20
[표 3] ····· 23
[표 4] ····· 23
[표 5] ····· 24
[표 6] ····· 25
[표 7] ····· 94
[표 8] ····· 125
[표 9] ····· 133
[표 10] ····· 135
[표 11] ····· 138
[표 12] ····· 143
[표 13] ····· 146
[표 14] ····· 149
[표 15] ····· 155
[표 16] ····· 160

지 도 목 차

[지도 1] ····· 13
[지도 2] ····· 13
[지도 3] ····· 17
[지도 4] ····· 17
[지도 5] ····· 29

[지도 6] ····· 29
[지도 7] ····· 32
[지도 8] ····· 32
[지도 9] ····· 34
[지도 10] ····· 34
[지도 11] ····· 38
[지도 12] ····· 38
[지도 13] ····· 40
[지도 14] ····· 40
[지도 15] ····· 45
[지도 16] ····· 45
[지도 17] ····· 47
[지도 18] ····· 47
[지도 19] ····· 51
[지도 20] ····· 51
[지도 21] ····· 54
[지도 22] ····· 54
[지도 23] ····· 57
[지도 24] ····· 57
[지도 25] ····· 61
[지도 26] ····· 61
[지도 27] ····· 67
[지도 28] ····· 67
[지도 29] ····· 73
[지도 30] ····· 73
[지도 31] ····· 74
[지도 32] ····· 74

[지도 33] ····· 77
[지도 34] ····· 77
[지도 35] ····· 80
[지도 36] ····· 80
[지도 37] ····· 83
[지도 38] ····· 83
[지도 39] ····· 86
[지도 40] ····· 86
[지도 41] ····· 90
[지도 42] ····· 90
[지도 43] ····· 97
[지도 44] ····· 97
[지도 45] ····· 101
[지도 46] ····· 101
[지도 47] ····· 109
[지도 48] ····· 109
[지도 49] ····· 113
[지도 50] ····· 113
[지도 51] ····· 119
[지도 52] ····· 119
[지도 53] ····· 120
[지도 54] ····· 120
[지도 55] ····· 123
[지도 56] ····· 123
[지도 57] ····· 127
[지도 58] ····· 127
[지도 59] ····· 129

1. 서론

1.1. 연구 주제 및 목적

고모음화는 그동안 한국어 음운론 및 방언 연구에서 끊임없이 다루어진 주제이다. 근대국어 문헌에서 나타나는 고모음화는 단모음체계의 변화와도 관련이 깊어 해당 시기 한국어 모음의 음가나 조음 위치를 추정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자연히 현대 한국어 방언의 고모음화 역시 단모음체계의 변화 및 운소 체계의 변화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한국어의 단모음체계는 18세기 말~19세기로 추정되는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이후로 계속해서 변화를 겪고 있고 현대 한국어의 운소 체계도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지리적 차이는 물론 동일 지역 내에서도 세대나 성별과 같은 사회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급격한 변화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곽충구 2003: 59-60). 따라서 현대 한국어 방언의 모음 관련 음운 현상도 역시 큰 변화를 보인다. 근대국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음운 현상 중 하나인 고모음화도 그러한 변화의 한 줄기이며, 짧은 시간 내에 상당한 변화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대 한국어 제방언에서 나타나는 고모음화의 분포와 그 변화의 양상을 관찰하고,[1] 이를 통해 고모음

1) 본고에서 살펴볼 고모음화는 지역별 차이뿐 아니라 세대별 차이를 노정하는, 진행 중인 언어 변화이면서 공시태에서 포착할 수 있는 통시적 변화의 한 단면이다. 신승용(2004), 강희숙(2017) 등에서는 장음의 실현에 따라 고모음화가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하는 점, 예컨대 '너:서~느:서'가 수의적으로 교체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공시적인 음운 현상의 테두리에 넣고 있다. 그러나 이진호(2006: 56-58)에 따르면 공시적 음운 규칙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규칙성 조건(음운 규칙으로서의 자격을 지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조건), 공시성 조건(공시적인지 통시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에 입각하여 음운 현상을 규칙성 조건과 공시성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하면, 근대국어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된 비어두 'ㅗ > ㅜ' 고모음화의 경우 (완벽히 일반화된 조건은 아닐지라도) 규칙성 조건은 만족하고 공시성 조건은 만족하지 못한 사례가 될 것이며, 이외의 고모음화들은 대체로 규칙성 조건과 공시성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들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받아들여 현대 한국어 방언에서 나타나는 수의적 음운 현상인 고모음화를 통시적 변화의 일부로 간주할 것이다.

화를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며, 지역·세대·발화의 종류에 따라 고모음화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한국어의 고모음화는 모음체계 내에서 중모음이 고모음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현대 한국어에서 10개의 단모음체계를 가정할 때 이론적으로 고모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은 4가지이다.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ㅣ	ㅟ	ㅡ	ㅜ
중모음	ㅔ	ㅚ	ㅓ	ㅗ
저모음	ㅐ		ㅏ	

[표 1] 한국어의 단모음체계(10모음)

'ㅖ 〉 ㅣ', 'ㅚ 〉 ㅟ', 'ㅓ 〉 ㅡ', 'ㅗ 〉 ㅜ'가 바로 이론적으로 가능한 고모음화의 유형이다.[2] 그런데 이 중 'ㅚ 〉 ㅟ'의 경우 현대 한국어에서 고모음화가 실현되는 일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3] 본고의 논의는 나머지 세 유형의 고모음화를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개별 방언의 모음체계에 따라 'ㅓ 〉 ㅡ'의 고모음화가 실현될 수 없거나, 'ㅖ'의 음가가 [e]가 아닌 [E]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각 유형의 고모음화를 기술할 때 명시할 것이다.

방언 연구자들은 한국어의 제방언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방언자료집》(이하 《자료집》) 이후로, 근래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2) 한편 일부 논의에서는 'ㅏ > ㅓ'와 같은 저모음의 중모음화도 같은 '모음 상승'의 범주에 포함시켜 다루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저모음의 중모음화를 다루지는 않을 것이지만, 현대 한국어 방언에서 나타나는 'ㅏ > ㅓ'의 예를 여기에 몇 개 제시해 두고자 한다. '거꺼스로(황북 서흥)', '거볍다(황남 배천), 거붑다(황북 린산)', '껌부기(황북 토산, 전북 진안)', '거죽(황북 금천/사리원/연탄/황주, 황남 장연, 경기 여주/연천/평택, 강원 강릉/동해, 충남 연기, 충북 단양, 경북 성주/예천)' 등의 예가 나타난다.

3) 유필재(2003)에서 다룬 몇 가지 예('위:다{외다}', '뒤:게{되게}', '쥐:다{죄다}')와 《자료집》의 '뒤아지{돼지}'형 정도가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앞의 예들은 하향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이후에 일어난 변화인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고, 후자는 '돝-이-아지'의 형성 과정에서 'ㅗ > ㅜ'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단모음 'ㅚ > ㅟ'는 이 논의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보완) 조사'(이하 《지역어》)를 통해 현대 한국어 방언을 군 단위로 조사한 또 하나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게 되었다.[4] 《자료집》의 방언 자료가 채록된 시기는 대체로 1980년대 초반이며 제보자의 출생년도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1900~1910년대인 경우가 많다. 《지역어》의 방언 자료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채록되었으며, 대체로 1930~1940년대에 출생한 제보자

4) 《지역어》의 조사 지점은 다음과 같다.

도	지역어 조사(04-11)	보완 조사(15-20)	미조사 지역
경기	강화, 양평, 용인 처인, 용인 백암, 이천, 파주, 포천, 화성	가평, 시흥, 안성, 양주, 여주, 연천, 평택, 김포, 구리, 옹진, 서울, 수원, 인천(연수)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군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안산, 안양, 오산, 의왕, 의정부, 화성 (이상 경기)
강원	삼척, 양양, 원주, 인제, 정선, 홍천, 평창	강릉, 고성, 양구, 영월, 철원, 춘천, 화천, 횡성, 동해, 속초, 태백	
충남	공주, 논산, 대전, 서산, 서천, 예산, 천안	금산, 당진, 보령, 부여, 아산, 연기, 청양, 태안, 홍성, 계룡	
충북	보은, 영동, 옥천, 제천, 청주, 충주	괴산, 단양, 음성, 진천, 증평	
전남	곡성, 광양, 보성, 신안, 영광, 영암, 진도, 함평	강진, 고흥, 광주(광산), 구례, 나주, 담양, 무안, 순천, 여수, 완도, 장성, 장흥, 해남, 화순, 함평, 목포	
전북	고창, 군산, 남원, 무주, 완주, 임실	김제, 부안, 순창, 익산, 장수, 정읍, 진안, 전주	
경남	고성, 남해, 산청, 울산, 창녕, 창원, 하동	거제, 거창, 김해, 밀양, 사천, 양산, 의령, 진주, 통영, 함안, 함양, 합천, 부산(기장)	
경북	경주, 고령, 봉화, 상주, 의성, 청도, 청송	군위, 김천, 문경, 선산, 성주, 안동, 영덕, 영양, 포항, 영주, 영천, 예천, 울진, 칠곡, 경산, 울릉, 대구(달성)	
제주	제주시 건입, 구좌, 한경, 서귀포시 호근, 표선, 색달, 대정		
계	63	94	15

로부터 얻은 자료이다. 개신은 한 세대의 생존 기간 이내보다는 다음 세대로 전이할 때 증가하는 경향(Chambers & Trudgill 1998: 150)이 있는데, 이 두 자료집에 방언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들의 출생년도는 약 30년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즉 이 두 자료집의 방언 자료는 세대의 전이를 거쳐 언어적 특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자료집》의 언어 양상과 《지역어》의 언어를 비교함으로써 현대 한국어 방언의 변화를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즉 종래의 전통적인 방언학에서처럼 개별 방언 또는 특정 음운 현상의 방언 분포와 확산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이전 시기에 일어났던 언어 또는 그 현상의 특징을 살필 수 있음과 동시에, 세대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언어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동적인 변화의 모습과 방향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료집》과 《지역어》는 기본적으로 'NORM'을[5] 제보자로 삼은 조사 자료로 전통적인 방언 연구의 자료로 적합하다. 한편 본고에서는 小倉進平의 《朝鮮語方言の研究》의 상권 자료편(이하 《朝鮮語》)과 《지역별·세대별 언어 다양성 조사》(이하 《다양성》)의 자료도 보조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朝鮮語》는 小倉進平이 1910~1920년대에 보통학교 상급 남녀 생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므로, 이 제보자들의 출생년도는 《자료집》과 같은 1900~1910년대로 추정된다. 즉 《朝鮮語》와 《자료집》은 동일한 시기에 출생한 제보자들을 약 5~60년의 시차를 두고 조사한, 실재 시간을 반영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자료인 《다양성》은 해당 지역에서[6] 3대 이상 산 토박이를 제보자로 삼은 것은 동일하지만 70대 이상·50대·20대의 제보자를 조사하여 현장 시간을 반영한 자료를 산출해내었다. 따라서 본고는 기본적으로 실재 시간 연구 방법에 기대어 《자료집》과 《지역어》, 그리고 기존의 개별 방언 연구에서 드러나는 고모음화의 방언 분포상의 변화를 기술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朝鮮語》와 《다양성》의 자료를 곁들이고 고모음화의 적용 범위와 양상을 파악하며 이와 관련되는 음운론적 요소들을

5) 이주를 하지 않은(Non-mobile), 나이든(Older) 시골(Rural) 토박이 남성(Males) 화자를 의미한다.

6) 《다양성》의 조사 지점은 아래와 같다.
대전(대도시), 춘천(강원), 고양(경기), 창원(경남), 경주(경북), 무안(전남), 전주(전북), 아산(충남), 청주(충북), 제주시(제주)

함께 밝히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고의 연구 대상은 일차적으로 고모음화가 실현되는 어사들이다.[7] 《자료집》과 《지역어》의 조사 항목 중 고모음화가 실현되는 것들을 살피고, 또 같은 환경에서 고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어사의 음운론적 특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고모음화의 실현과 연관을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음운의 특징이나 음운 현상들을 확인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공시적인 생산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고모음화의 경우 주로 이전 시기의 자료를 대상으로 고모음화의 발생 기제와 그 시기에 대해 탐구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3~40년간의 시간차를 두고 조사된 《자료집》의 자료와 《지역어》의 자료, 그리고 50대·20대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는 《다양성》의 자료는 고모음화의 유형에 따라 소멸·확산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료집》, 《지역어》, 《다양성》, 개별 방언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업적들에서 제시된 고모음화와 관련 현상,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필자가 직접 조사한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한편 북한 방언에 대해서는 김태균(1986), 곽충구(1994), 김영배(1997), 최명옥 외(2002), 한성우(2006), 황대화(2007, 2011), 김춘자(2008), 오선화(2015), 곽충구(2019), 최소연(2020)에 제시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실재 시간 대비법에 기대어 《자료집》과 《지역어》의 어휘 항목 자료에 나타나는 고모음화의 양상과 그 변화에 대해 서술하고, 이 현상과 영향을 주고받는 한국어의 음운 변화 또는 음운 현상의 변화를 살필 것이다. 현대 한국어의 고모음화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에 각 자

7) 어떤 음운 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 특정 환경에서 해당 음운 현상이 일어난 경우와 그렇지 않은 사례들을 두루 살펴보아야만 음운 현상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고모음화의 경우 수의적인 음운 현상이므로 입력부와 출력부가 명백한 데 비해 그 환경을 음운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엄밀한 음운 규칙을 세우는 것보다는 대략적인 고모음화 실현의 경향성과 그 변화를 살피는 데 주목할 것이다.

료에서 확인되는 고모음화의 실현 양상을 보일 때에는 진열지도를 이용하고, 방언 구획이 필요할 때나 비율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는 해석지도를 이용할 것이다.[8] 또한 《지역어》와 《다양성》의 구술발화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자연스러운 발화에서 고모음화가 어느 정도 비율로 실현되는지도 관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 한국어 방언에서 나타나는 고모음화의 방언 분포를 살피고, 약 1~4세대 사이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모음체계와 운소 체계, 고모음화와 그에 관련된 몇 가지 음운 현상들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 한국어 방언의 모음체계와 모음 관련 음운 현상들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입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1.3. 선행 연구 검토

고모음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업적이 축적되어 있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고모음화의 발생 시기로 여겨지는 (18~)19세기 문헌에서 나타나는 초기 고모음화 사례를 짚거나, 현대 한국어의 개별 방언 음운론에서 해당 지역어의 고모음화 양상을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ㅓ 〉 ㅡ' 고모음화의 발생과 관련한 논의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병근(1970a)에서는 'ㅓ 〉 ㅡ' 고모음화가 19세기 후반부터 중부 방언에서[9] 확인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백두현(1992)에서도 역시 'ㅓ 〉 ㅡ' 고모음화가 19세기 중반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백두현(1997)에서는 1880년대 문헌에서부터 이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근대국어 문헌에서는 'ㅓ 〉 ㅡ'의 일방향적인 변화뿐 아니라 'ㅓ~ㅡ'

8) 해석지도는 방언 특징에 따라 구획된 방언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린 지도(정승철 2013: 141)이므로 특정 음운 현상과의 관계를 논하는 데 효과적이다.

9) 한국어 방언의 대방언권 구획은 정승철(2013: 158)을 따라 중부 방언(경기도, 충청도, 황해도, 강원도 영서 지역), 서남 방언(전라북도, 전라남도), 서북 방언(평안북도, 평안남도), 동남 방언(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영동 지역), 동북 방언(함경북도, 함경남도), 제주 방언(제주도)으로 나눈다. 물론 본고의 일차적 목적은 진행 중인 언어 변화의 미시적 관찰에 있으므로 군단위 자료가 존재하는 남한 방언(중부 방언, 서남 방언, 동남 방언, 제주 방언)이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고, 서북 방언과 동북 방언은 필요할 때 자료를 제시한다.

의 혼기가 나타나는데, 백두현(1992: 153-154)에서는 19세기 이후의 'ㅓ 〉 ㅡ'와 18세기 후기에 나타나는 'ㅡ'와 'ㅓ'의 혼기는 서로 다른 기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전자는 고저 대립의 불안정에서 비롯된 모음 상승이며, 'ㅡ'와 'ㅓ'의 혼기는 음성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ㅓ'와 'ㅡ'의 조음 위치와 관련된 연구로는 19세기 중부 방언을 다룬 이병근(1970a)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단음 'ㅓ'는 저설화하고 장음 'ㅓ'는 상승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ㅓ' 고모음화의 시기와 관련하여 유소연(2020)은 18세기 후반의 중부 방언(충북 영동)을 반영한 《경신록언석》,[10] 《은진송씨 송병필가 언간》을 통해 'ㅓ 〉 ㅡ'의 변화를 이르면 18세기 후반까지 소급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ㅖ 〉 ㅣ' 고모음화의 경우, 백두현(1992)에서 이 변화가 19세기 말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나고 20세기 초의 문헌에서 다수 발견된다고 한 바 있다. 이때 'ㅖ 〉 ㅣ' 고모음화의 입력부는 /e/뿐 아니라 이중모음 /je/의 /e/, /jə/〉/e/를 겪은 /e/, 움라우트를 겪은 /e/ 등으로 해당 현상이 높은 생산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변화는 19세기 중엽 'ㅖ'와 'ㅐ'의 합류 이후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백두현 1992: 144-150). 정영호(2008: 380)에서는 19세기 경상방언에서 나타나는 'ㅖ 〉 ㅣ'의 예가 'ㅖ'와 'ㅐ'의 합류를 보이는 예보다 문헌상으로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ㅖ'와 'ㅐ'의 합류가 'ㅖ 〉 ㅣ'를 이끌었다고 판단한다. 김주필(1996)에서는 'ㅖ'와 'ㅐ'가 단모음화하기 이전의 시기에도 합류가 일어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았는데, 'ㅓ', 'ㅏ'의 음가 변화와 'ㆍ'의 소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가 이 합류의 원인으로 지목받았다.

'ㅗ 〉 ㅜ' 고모음화는 'ㅗ~ㅜ'의 혼기가 나타나던 16~17세기를 지나 18세기 후반에는 일방향적인 변화로 자리잡는다(강희숙 1992, 백두현 1988, 1992). 전광현(1967), 남광우(1984), 오종갑(1986), 한영균(1990)에서는 'ㅗ'와 'ㅜ'의 혼기를 모음조화의 붕괴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백두현(1992)에서는 이를 'ㅗ~ㅜ 상호 교체'로 간주하였는데, 'ㆍ 〉 ㅡ'의 변화에

10) 이 논의에서는 《경신록언석》의 시기에 대해 '1796년본과 1880년본이 내용상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홍윤표 1986: 2, 이상규 2015: 8) 18세기 후반의 국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유소연 2020: 43).

의해 비어두에서의 대립이 붕괴되면서 'ㆍ : ㅡ'와 비례적 관계를 가진 'ㅗ : ㅜ'의 대립이 동요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16~17세기의 'ㅗ~ㅜ'가 상호 교체였다면, 18세기 후반부터 나타나는 'ㅗ 〉 ㅜ'의 일방향적 변화는 조음의 편의를 위한 폐구조음 원칙(김진우 1971: 87)에 따른 모음의 상승으로 볼 수 있다. 고저 대립을 보이던 모음들이 상승하는 이들 고모음화는 개구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데, 이러한 원칙을 이용하여 고모음화뿐 아니라 현대 한국어 방언의 모음체계가 변화하는 것 역시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현대 한국어 방언의 고모음화에 대한 논의들을 살피기로 한다. 먼저《자료집》에 나타나는 자료를 대상으로 현대 한국어 방언 전체의 고모음화를 유형화하고 각각의 특징을 살핀 연구로는 김아름(2008)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장모음의 고모음화를 장음의 조음 음성학적 특징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으로, 중부 지역에 한정하여 관찰되는 현상으로 보았으며 단모음의 고모음화는 모음체계와 관련된 음운론적 변화로 간주하였다.

현대 한국어 방언의 'ㅓ 〉 ㅡ'와 관련한 논의는 음장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중부 방언의 'ㅓ'가 길이에 따라 음가의 변화를 보이기 때문이다. 중부 방언의 '어'는 어두 장음일 때나 비어두에서는 [ə]로 실현되고, 어두 단음일 때는 [ʌ]로 실현된다(배주채 1996: 28, 김현 2007: 156). 정인호(2015)에서는 현대국어 서울방언에서 장음으로 실현되는 '어'와 단음으로 실현되는 '어'의 음성형이 다르다고 보고, 장음의 'ㅓ'가 고모음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런데 'ㅓ → ㅡ'의 변화에 있어 음장이 더이상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 전남 영광 지역어를 다룬 강희숙(2017)에서는 이 지역어에서 'ㅓ → ㅡ'의[11] 모음 상승이 중부 방언 못지 않게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ㅓ → ㅡ' 변화의 동인을 이 지역에서 활발히 나타나는 'ㅡ → ㅓ' 교체에서 찾고 있다. 16~17세기 국어 전반에서 나타났던 'ㅗ~ㅜ'의 상호 교체가 18세기 후기 이후로 'ㅗ → ㅜ'의 일방향적 교체로 자리잡은 것처럼 이 지역어의 'ㅓ → ㅡ' 상승도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20세기 전기 구어 자료를 대상으로 한 신우봉(2016)에서는 'ㅓ → ㅡ' 모음 상승이 어두 장음, 단음, 비어두 문법 형태소 '-더-'

11) 본고에서는 고모음화를 기저형의 변화로 보기 때문에 'ㅡ > ㅓ'와 같이 표기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공시론적 기술을 택한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옮겼다.

에서 모두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부터 모음 상승이 음장이라는 필요조건을 갖지 않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ㅖ 〉 ㅣ’의 변화 역시 음장과 관련지어 다루어진 사례가 있다. 최태영(1983: 125)에서는 모음 /e/가 [+long]의 자질과 결합할 때 고모음 /i/로 변화한다고 지적하였다. 또 ‘ㅖ 〉 ㅣ’의 변화를 선행 자음의 성질과 관련지은 연구로는 치조음이나 경구개음 뒤에서 ‘ㅖ 〉 ㅣ’가 적극적으로 실현된다고 지적한 도수희(1977), 충남 방언에서의 ‘ㅖ 〉 ㅣ’ 변화가 [+치찰성]인 자음 뒤에서 적극적이라는 한영목(1998) 등이 있다. 한편 곽충구(2003)에서는 남부 지역의 ‘ㅖ 〉 ㅣ’ 고모음화는 중부 지역에 비해 넓은 범위에서 실현되므로 이 지역이 ‘ㅖ 〉 ㅣ’ 고모음화의 개신의 진원지가 된다고 하였다.

‘ㅗ 〉 ㅜ’의 경우, 유필재(2003)에서 어두 장모음 ‘ㅗ:’가 ‘ㅜ:’로 상승하는 서울지역어의 사례를 다수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이 변화는 20세기에 이르러서야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현재의 방언 분포를 살펴보아도 서울을 중심으로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실현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곽충구(2003)에서는 충남 서부 지역에서도 이 ‘ㅗ: 〉 ㅜ:’가 나타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 방언과 서울 지역어를 비교한 강희숙(2005)에서는 중부 방언에서는 ‘ㅗ → ㅜ’ 모음 상승이 어두와 비어두 위치,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지만 전남 방언에서는 어휘 형태소의 비어두 위치에서만 일어난다고 지적하였다.

1.4. 논의의 구성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2장에서는 현대 한국어 방언의 모음체계와 그 변화에 대해 살핀다. 모음체계의 변화는 고모음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ㅓ’와 ‘ㅡ’의 변별이 없었던 지역에서 이 두 모음의 변별이 생긴다면, 고모음화의 입력부와 출력부가 충족됨으로써 고모음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은 모음 ‘ㅖ’와 ‘ㅐ’의 변별 여부와 그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2.2.는 모음 ‘ㅡ’와 ‘ㅓ’의 변별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ㅓ 〉 ㅡ’ 고모음화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2.3.은 단모

음 ‘ㄲ’, ‘ㅚ’의 존재에 대해 다루고, 2.4.에서는 고모음화의 실현에 영향을 주는 운소와 그 변화를 다루었다.

3장과 4장에서는 《자료집》과 《지역어》에 나타나는 고모음화의 분포를 기술한다. 먼저 방언의 분포를 면밀히 확인해야만 분포상의 변화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개별 단어의 고모음화 양상을 자세히 관찰하기로 한다. 3장은 어두의 고모음화를 다루는데 3.1.에서 장모음의 고모음화, 3.2.에서 단모음의 고모음화를 살핀다. 장모음의 고모음화와 단모음의 고모음화는 각각 그 중심지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포상의 변화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4장에서는 비어두의 고모음화를 다루는데 4.1.에서는 어휘형태소에서의 고모음화, 4.2.에서는 문법형태소에서의 고모음화 양상을 확인한다.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의 고모음화 역시 분포와 변화 양상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나누어 살펴본다.

5장에서는 《지역어》를 중심으로 구술발화 자료에서의 고모음화 양상을 살핀다. 동일한 어형이 여러 번 반복하여 등장할 수 있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실제 일상 발화에서 고모음화가 어느 정도 비율로 실현되는지를 확인한다. 5장 역시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로 나누어 분석하는데, 이 장에서는 특히 고모음화의 확산과 축소 양상을 살핀다. 대부분의 경우 고모음화는 음장의 소실이나 표준어 도입 등의 영향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지역어》와 《다양성》을 통해 현재 확산되고 있는 문법형태소의 고모음화 양상을 확인할 것이다.

6장은 결론으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2. 고모음화와 관련된 모음체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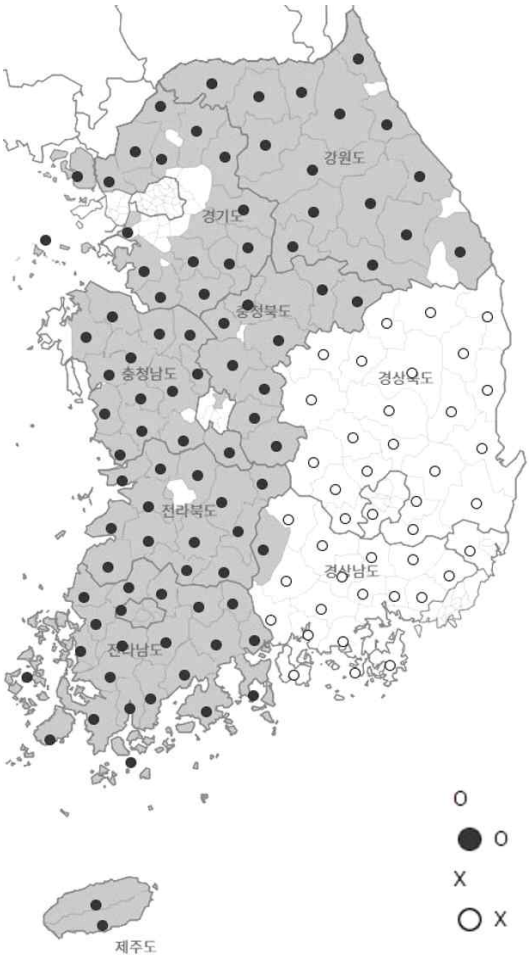
모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 및 변화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지역과 세대의 모음체계에 대해 상술할 필요가 있다. 1.2.에서 밝힌 것과 같이 이 연구의 대상은《朝鮮語》나《자료집》에 나타나는 1900~1910년대 출생자의 언어,《지역어》에 나타나는 1930~1940년대 출생자의 언어,《다양성》에 나타나는 1960~1970년대, 1990~2000년대 출생자의 언어이다.[12] 따라서 이 장에서는 각 세대의 모음, 그중에서도 고모음화와 관련된 모음의 변별 여부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한편《자료집》과《지역어》는 군 단위의 조사가 이루어진 자료이므로 이를 통한 방언 구획이 가능하지만,《다양성》은 이미 구획된 소방언권 내에서 전형적 특성을 가질 만한 한두 지점을 조사한 자료이므로 이를 통해 방언 구획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2장을 포함하여 본고의 기술에서는 먼저《자료집》과《지역어》를 통해 고모음화의 전국적 분포를 확인하고 해당 현상의 중심지를 찾는 한편,《朝鮮語》나《다양성》에 나타나는 자료를 통해 각 방언권에서 고모음화의 적용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자료집》이 노정하는 20세기 초반의 제 방언을 기준으로 삼고,《지역어》를 통해 20세기 초~중반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본 후,《다양성》에서 찾을 수 있는 후속 변화까지도 기술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의 제 방언에서 진행 중인 언어 변화의 모습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각각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ㅡ, ㅓ'의 변별 여부, 'ㅖ, ㅐ'의 변별 여부, 단모음 'ㅟ, ㅚ'의 존재 여부를 상술한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모음체계의 유형을 분류하고, 모음체계의 유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피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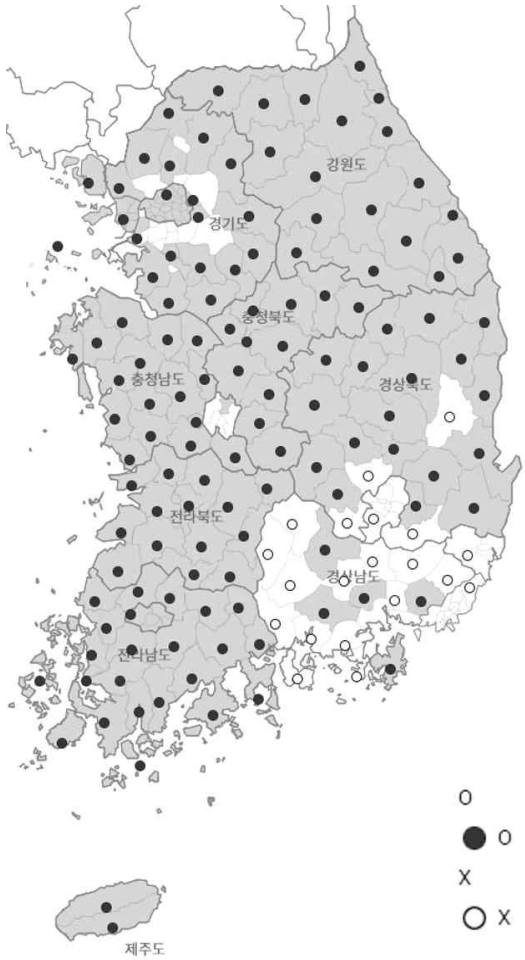
12) 2020년대를 기준으로 《자료집》은 100대 이상, 《지역어》는 80대, 《다양성》은 각각 80대, 50대와 20대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다.

2.1. 모음 'ㅡ'와 'ㅓ'의 변별

먼저 모음 'ㅡ, ㅓ'의 변별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자료집》의 단모음 목록을 살피는 데에서는 'Ⅲ. 音韻' 중 '單母音'에 의지하였고, 《지역어》에서는 조사 결과물에 기록된 모음 변별 여부와 음운 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모음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모음 'ㅡ'와 'ㅓ'는 'ㅓ 〉 ㅡ' 고모음화의 입력부와 출력부로, 'ㅡ'와 'ㅓ'의 고저 대립이 있고 그 외의 자질은 공유하고 있어야만 'ㅓ 〉 ㅡ' 고모음화가 일어날 수 있다. 즉 'ㅓ 〉 ㅡ' 고모음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ㆍ'의 소실로 인해 음가의 변화가 있었던 모음 'ㅓ'와 'ㅡ', 'ㅗ'와 'ㅜ'가 각각 혀의 높낮이 자질에서만 대립 관계를 갖게 되어야 한다. 현대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ㅓ'와 'ㅡ'의 음소적 대립이 있어야만 'ㅓ 〉 ㅡ'의 고모음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그러므로 단모음 'ㅓ'와 'ㅡ'의 변별 여부는 고모음화의 변화를 논하기에 앞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문제이다.



[지도 1] ㅡ/ㅓ의 변별(자료집)



[지도 2] ㅡ/ㅓ의 변별(지역어)

《자료집》에 따르면 경남 함양(ㅐ, ㅓ 존재)을 제외한 경남북 전역에서 'ㅡ, ㅓ'의 변별이 없다.[13] 경남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ㅡ'와 'ㅓ'를 변별한다. 한편 《지역어》에서는 'ㅡ'와 'ㅓ'를 변별하지 않는 지역이 확연히 줄어든다. 《자료집》에서 'ㅡ, ㅓ'를 변별하지 못하던 지역 중 《지역어》에서도

13) 다만 《자료집》에서는 경북 영주/울진/문경/예천/안동/상주/의성/김천/군위/성주에서 'ㅡ'의 실현을 [ㅐ(ɨ)]와 같이 표기하고, 'ㅓ'의 실현은 [ㅐ]로 전사하고 있다. 즉 이 지역에서는 'ㅡ'와 'ㅓ'가 대체로 합류한 상태로 실현되지만, 기원적으로 'ㅡ'였던 것이 원래 'ㅓ'였던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실현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는 이후의 세대에서 'ㅡ'와 'ㅓ'가 변별을 가지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경남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보이지 않는데, 이 역시 《지역어》 시기에 경남보다 경북에서 'ㅡ'와 'ㅓ'의 변별이 빠르게 확산한다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여전히 'ㅡ, ㅓ'를 변별하지 않는 지역을 살펴보자.

(1) ㄱ. 경남 거창·고성·남해·밀양·사천·산청·양산·울주·의령·창녕·창원·통영·하동, 부산 기장
ㄴ. 경북 고령·달성·울릉·청도·청송·칠곡

(1ㄱ)은 경남 전역에 산발적으로 퍼져 있으나 주로 중부와 동부에 집중되어 있다. 경북에서 'ㅡ, ㅓ'를 변별하지 않는 지역은 (1ㄴ)과 같이 주로 남부에 포진해 있다.

(2) ㄱ. 경남 거제·김해·진주·함안·함양·합천
ㄴ. 경북 경산·구미·군위·김천·문경·봉화·상주·성주·영덕·영양·영주·영천·예천·울진·의성·포항

(2)는 《자료집》에서는 'ㅡ, ㅓ'를 변별하지 않았지만 《지역어》에서는 'ㅡ, ㅓ'를 변별하는 지역이다. (2ㄱ)과 같은 경남의 남부, (2ㄴ)과 같은 경북의 중부 이북이다. 《지역어》의 자료에 한정했을 때 'ㅡ, ㅓ'의 변별 지역은 동남 방언권과 접경한 중부 방언권(강원 영서, 충북)과 서남 방언권(전북, 전남)으로부터 동남 방언권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ㅡ, ㅓ'의 비변별 지역은 경남 서부에서는 지리적 이유로 개신파가 닿지 않았으며, 경북 남부와 경남 동부에서는 대구와 부산이라는 대도시를 거점으로 하여 세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14]

《다양성》에서도 이와 비슷한 변화의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다양성》에 따르면 경북 경주와 경남 창원의 80대는 'ㅡ, ㅓ'를 변별하지 않으며, 50대는 어형에 따라 변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하고 20대는 모든 경우에 'ㅡ'와 'ㅓ'를 변별한다. 또한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ㅡ'와 'ㅓ'를 변별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15]

14) 개신의 전파는 파도형 또는 물수제비형으로 확산될 수 있는데, 핵방언의 중심 지역이 보수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ㅡ/ㅓ' 변별은 파도형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ㅡ, ㅓ’의 변별을 하지 않는 세대의 동남 방언 화자들도 대부분 ‘ㅡ, ㅓ’ 변별이 가능하던 시기의 화석형을 가지고 있는데, 예컨대 용언 어간 ‘덥-’에[16] ‘-으모[ɘmo]’가 결합할 때는 원순모음화가 일어나 ‘더부모[tɘbumo]’로 실현되지만, ‘-어서[ɘsɘ]’가 결합할 때는 원순모음화를 입지 않아 ‘더버서[tɘbɘsɘ]’로 실현된다. 이와 같이 동남 방언 화자의 음운 체계 속에도 기원적 ‘ㅡ[ɨ]’인 [ɘ]와 기원적 ‘ㅓ[ə]’인 [ɘ]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화자들이 ‘ㅓ’와 ‘ㅡ’의 변별을 더욱 잘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타진해볼 만하다.

고모음화가 혀의 높낮이와 관련된 대립 관계를 반영한 음운 현상이라는 전제를 생각하면 ‘ㅡ’와 ‘ㅓ’가 혀의 고저 자질에 의해 대립될 때 ‘ㅓ 〉 ㅡ’의 고모음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중부 방언의 ‘ㅓ 〉 ㅡ’ 고모음화의 발생과도 연관지을 수 있는데, 먼저 백두현(1997: 20-22)에서는 19세기 중부 방언에서 ‘ㅓ’와 ‘ㅡ’의 혼기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병근(1970: 303)에서는 19세기 후기 문헌에서 나타나는 ‘ᄉᆞ리지’, ‘으드리니’ 등과 같은 ‘ㅓ 〉 ㅡ’ 고모음화형은 장모음 ‘ㅓ’와 ‘ㅡ’의 안전 간격이 좁아져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19세기 중부 방언에 나타나던 ‘ㅓ’와 ‘ㅡ’의 혼기 역시 두 모음의 조음 영역이 가까워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주원(1984: 50-51)에서는 18세기 경상도 방언에서도 ‘ㅓ’와 ‘ㅡ’의 혼기가 나타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19세기 경상 방언을 반영하는 《수겡옥낭좌전》이나 19세기 전기 경북 북부지역 반촌어를 반영하는 《학봉종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보면 ‘ㅓ’와 ‘ㅡ’의 혼기는 중앙 방언과 경상도 방언에서 모두 나타났는데, 경상도 지역에서 ‘ㅓ’와 ‘ㅡ’가 혼동되던 일은 결국 두 음소의 합류라는 결과를

---

15) ‘ㅡ’와 ‘ㅓ’의 변별에 대한 개별 방언 음운론의 논의는 당연하게도 동남 방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몇 가지 연구 결과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김무식(1997): 대구·경북 지역 전 세대의 화자들이 ‘ㅐ’와 ‘ㅒ’, ‘ㅡ’와 ‘ㅓ’를 변별하지 못함.
장혜진·신지영(2006), 안미애(2012): 대구 지역 40대 이상(1970년대 이전 출생)은 ‘ㅡ’와 ‘ㅓ’ 변별하지 못하거나 혼동, 30대 이하는 ‘ㅡ’와 ‘ㅓ’ 변별.
김보미(2016): 부산 지역 40대 이하(1970년대 이전 출생)에서 ‘ㅡ’와 ‘ㅓ’ 변별.

16) 중앙 방언에서 ‘ㅂ 불규칙 활용’을 보이는 어사들은 동남 방언권에서는 대체로 규칙 활용을 한다.

낳은 반면 중앙 방언에서는 ‘ㅓ’와 ‘ㅡ’ 두 음소의 대립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ㅓ 〉 ㅡ’의 고모음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17]

2.2. 모음 ‘ㅖ’와 ‘ㅐ’의 변별

다음으로는 ‘ㅖ, ㅐ’의 변별 여부를 기준으로 《자료집》과 《지역어》를 살펴보았다. 직접적으로는 음운 목록 조사 결과를 참조하였고, 간접적으로는 ‘ㅓ’, ‘ㅏ’의 움라우트형 등을 살펴 ‘ㅖ’와 ‘ㅐ’의 변별 여부를 판단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사된 자료를 통해 ‘ㅖ, ㅐ’의 변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종합 정보’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음성 자료를[18] 통해 ‘ㅖ, ㅐ’의 변별 여부를 살폈다. 그런데 이 경우, 최소대립쌍을 통해 모음의 변별 여부를 살피기가 어려워 praat을 이용하여 음성 분석을 진행하였다.[19] F1의 상대적 위치를 살필 수 있도록 ‘베개’, ‘세배’, ‘두세 개’ 등 ‘ㅖ’와 ‘ㅐ’가 연속되는 항목 및 ‘메주-매달다’, ‘행주-헹구다’ 등 어두에서 ‘ㅖ’, ‘ㅐ’가 실현되는 항목을[20] 대상으로 하였는데, ‘ㅖ’의 F1 값과 ‘ㅐ’의 F1 값을 비교하여 화자가 두 모음을 변별하는지 파악하였다.[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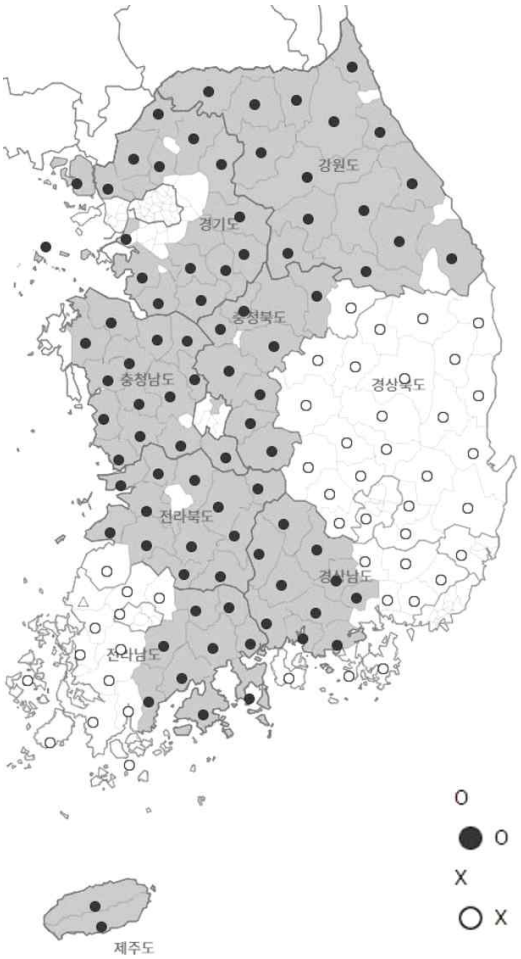
17) 한편 서북방언은 ‘ㅣ, ㅖ, ㅐ, ㅜ, ㅗ, ㅏ’의 6모음 체계를 보이며, ‘ㅡ’와 ‘ㅓ’는 각각 ‘ㅜ’와 ‘ㅗ’에 합류되었다. 즉 현대 서북방언의 경우 ‘ㅓ > ㅡ’의 입력부와 출력부가 될 음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연히 ‘ㅓ > ㅡ’의 고모음화가 일어날 수 없다. 《朝鮮語》에서도 ‘ㅓ > ㅡ’의 고모음화는 경기도와 인접한 황해도 남부에서 일부 관찰될 뿐이다. 황해도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ㅓ > ㅡ’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18) 이 음성 자료는 《지역어》에서 녹음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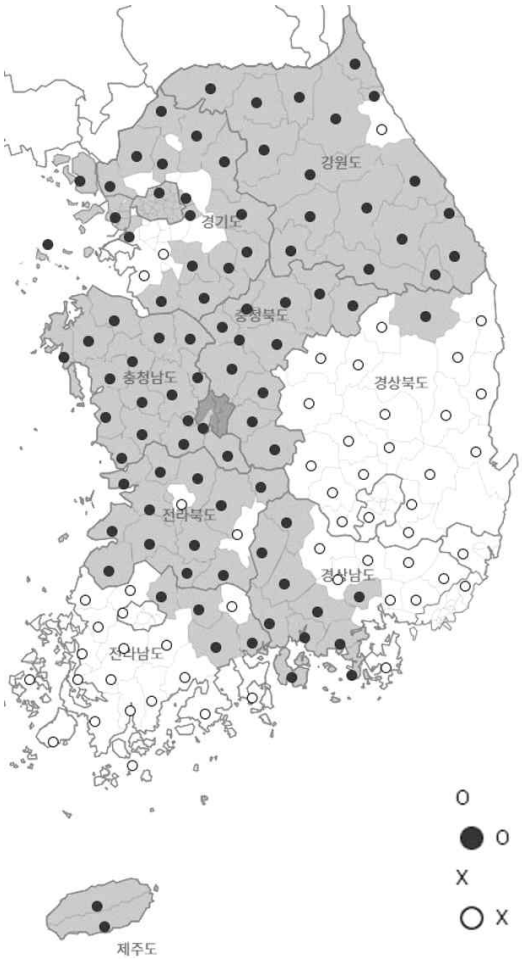
19) 한편 이러한 음성학적 방법을 동원한 것은 필자의 모음체계에 ‘ㅖ’와 ‘ㅐ’의 변별이 없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인하였다. 필자는 여느 청년층과 같이 7개의 단모음 체계(ㅣ, E, ㅡ, ㅓ, ㅏ, ㅜ, ㅗ)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보자의 입모양을 살피며 최소대립쌍을 직접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ㅖ’와 ‘ㅐ’를 변별하는지 알 수 있지만 녹음된 파일을 듣는 것만으로는 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 고모음화 등의 음운 변화에 의해 해당 항목에서 ‘ㅖ’와 ‘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사레, 물레’와 ‘가래, 빨래’처럼 음운론적 환경이 비슷한 ‘ㅖ’와 ‘ㅐ’의 F1 평균치를 비교하였다.

21) 예컨대 강원도 강릉시의 경우 ‘ㅖ’와 ‘ㅐ’의 F1이 각각 457, 545였다. 이 경우 ‘ㅖ’와 ‘ㅐ’를 별개의 모음으로 조음한다고 보았다. 한편 전라남도 강진군의 경우, ‘ㅖ’와 ‘ㅐ’의 F1이 각각 467, 490이었다. 이 경우 ‘ㅖ’와 ‘ㅐ’를 변별하지 못하는



[지도 3] ㅖ/ㅐ의 변별(자료집)



[지도 4] ㅖ/ㅐ의 변별(지역어)

[지도 3]은[22] 《자료집》에서 'ㅖ'와 'ㅐ'의 변별이 있는 지역을 음영으로 표시한 것이고, [지도 4]는 《지역어》에서 'ㅖ'와 'ㅐ'의 변별이 있는 지역을 음영으로 표시한 것이다. 《자료집》의 경우, 'ㅖ'와 'ㅐ'가 변별되지 않는 지역은 두 곳으로 나뉜다. 하나는 경남 동부 및 경북 전역과 충북 단양이고, 다른 하나는 전남 서부 및 전북 고창이다. 먼저 전자를 살펴보면, 경북 및 경남 동부에 'ㅖ', 'ㅐ'의 변별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충북 단양은 경북

것으로 간주하였다.

22) 이 지도는 2023년 현재의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군 단위의 경계가 그어져 있다. 따라서 《자료집》 조사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행정 구역도 있고(주로 서울 근교의 경기도), 《자료집》에서 광역시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조사되지 않은 구역도 있다. 이러한 지역은 기호와 음영 없이 그대로 두었다.

문경·예천·영주와 접하고 있으며 후술할 모음 현상의 측면에서도 경북 지역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지역으로, 지리적 인접성이 이 지역의 모음체계 및 음운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3] 후자는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ㅖ', 'ㅐ'의 변별 없이 [E]로 나타나는 지역이다.[24]

'ㅖ'와 'ㅐ'의 변별에 있어서 《지역어》와 《자료집》의 차이는 'ㅡ'와 'ㅓ'의 변별에 있어서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 그러나 두 시기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경남·전남 접경 지역의 'ㅖ', 'ㅐ' 변별 지역이 다소 줄어들고,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ㅖ'와 'ㅐ'가 합류하여 [E]로 실현되는 지역이 눈에 띈다.

(3) 강원 양양, 경기 수원·화성, 전남 구례, 전북 장수·전주

(3)은 여전히 'ㅖ, ㅐ'를 변별하는 방언권에서 지엽적으로 'ㅖ, ㅐ' 변별이 없는 지역이다. 해당 지역들은 방언권이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이 아니기에 방언 접촉을 통한 언어 개신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후대의 변화까지를 고려한다면 개신형을 먼저 도입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수원을 제외하면 해당 지역들은 언어 변화가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대도시도[25]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보자 개인의 언어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자료집》에 나타나던 전남 서부의 'ㅖ', 'ㅐ' 비변별 지역의 세력은 《지역어》에 이르면 동쪽으로 조금 더 전진하였다. 그러나 경남과의 접경 지역인 담양·곡성·순천·광양 등지에서는 여전히 'ㅖ'와 'ㅐ'의 변별이 유효한 것으로 드러났다.

---

23) 한편 《자료집》 전라북도편의 3장 음운 조사(267면)에서는 전북 고창에서 'ㅖ'와 'ㅐ'가 합류하여 [E]로 실현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고창의 경우, 어휘 조사에서는 [e]와 [ɛ]를 구별해 적었다. 또한 김중진(1976: 217)에서 '서{혀}'는 '세'로, '아비'는 '애비'로 각각 움라우트를 겪은 어형을 구별해 적은 사례가 있는 것을 보아도 고창의 'ㅖ'와 'ㅐ'는 변별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4) 전남 영광의 경우 i, E, ɛ, ü, ö, ɨ, ə, a, u, o의 10모음 체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미 [E]가 존재하고 또 1930년대 이후 출생한 젊은층은 E와 ɛ를 변별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부호 '△'로 표기하고 음영 표시를 하지 않았다. 주제보자인 1910~1920년대 출생자에게서는 [e]의 조음 위치가 하강하는 것을, 1930년대 이후 출생자에게서는 [e]의 하강에 더해 [ɛ]의 상승까지 겹쳐 결국 [E]로 합류하는 것을 살필 수 있다.

25) Chambers & Trudgill(1998: 172-176)에서는 언어 변화의 확산은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에서 시작되어 점차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으로 확산된다고 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서남 방언권은 동남 방언권과 접경한 동부 서남 방언의 모음체계가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전남 서부에서 'ㅔ', 'ㅐ'의 합류가 먼저 일어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접경 지역을 논외로 둔다면 《지역어》에 나타나는 'ㅔ, ㅐ'의 변별 여부에 한해서는 경북·경남·전남을 하나의 구역으로, 나머지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어》의 시기까지도 'ㅔ, ㅐ'를 변별하는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많다. 그렇다면 《다양성》에서는 각 지역의 'ㅔ, ㅐ' 변별 여부가 어떻게 드러날까?

먼저 《지역어》에서 'ㅔ'와 'ㅐ'를 변별하지 못하는 지역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다양성》에서는 경북 경주시, 경남 창원시, 전남 무안군의 20·50·80대를 조사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세 지역의 제보자들은 세대를 막론하고 'ㅔ'와 'ㅐ'를 변별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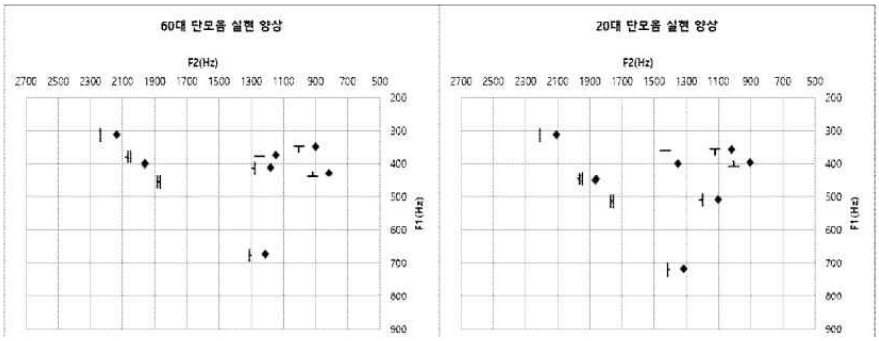
다음으로 《지역어》에서 'ㅔ, ㅐ'의 변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지역의 변화를 짚어보자. 《다양성》에서는 경기 고양시, 강원 춘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전주시, 제주 제주시, 대전광역시의 자료를 살필 수 있는데, 50대 이하의 제보자 중 'ㅔ'와 'ㅐ'를 변별하는 경우는 춘천의 50대 제보자가 유일하였으며 이마저도 선행자음에 따라 드물게 'ㅔ'와 'ㅐ'를 구별할 따름이었다. 즉 'ㅔ, ㅐ' 변별의 경우, 2020년을 기준으로 80대 이상의 제보자에게서는 지리적인 차이를 보이지만 50대 이하의 제보자에게서는 지역을 막론하고 변별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ㅔ'와 'ㅐ'의 변별이 사라지는 이유는 현대 한국어 방언의 모음체계 변화가 개구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음상의 편의를 위한 변화이므로, 비저모음 'ㅡ'와 'ㅓ'보다는 비고모음 'ㅔ'와 'ㅐ'가 먼저 합류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곽충구 2003: 77). 단모음으로서의 'ㅔ'와 'ㅐ'는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이후에야 [e], [ɛ]라는 음가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불안정성이 체계상의 변화에 촉매 역할을 할 가능성도 충분하다.[26]

---

26) 한편 후설의 비고모음 'ㅓ'와 'ㅏ'는 'ㅏ'의 개구도가 압도적으로 크고, 오랜 기간 단모음으로 존재해 왔기 때문에 'ㅔ'와 'ㅐ'의 합류보다 그 개연성이 낮다고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자료집》에서 《지역어》로, 그리고 《다양성》으로 이행하는 동안 ‘ㅖ’와 ‘ㅐ’라는 두 음소는 점차 변별이 사라져 간 데 비해, ‘ㅡ’와 ‘ㅓ’는 별개의 음소로서 명확히 자리를 잡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곧 두 변화가 서로 다른 기제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ㅖ, ㅐ’의 변별이 사라지는 것은 조음 영역상의 변화로 ‘ㅖ’와 ‘ㅐ’의 조음 위치가 겹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ㅡ, ㅓ’의 변별이 생겨나는 것은 표준어와 교육의 영향(김덕호 2001: 136, 조규태 2002: 62)으로 ‘ㅡ’와 ‘ㅓ’의 조음 영역이 서로 분리된 결과로 보인다. 이는 세대 간의 모음 변별 양상에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신우봉·신지영(2022: 207)에서는 ‘ㅡ’의 음성형을 분석할 수 있는 ‘은근히’, ‘음운론’, ‘으름장’, ‘ㅓ’의 음성형을 분석할 수 있는 ‘벗기고’, ‘어제는’, ‘허리가’를 통해 현대국어 방언 화자의 단모음 실현을 세대별로 나누어 분석한 바 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동남 방언 화자들의 ‘ㅡ’, ‘ㅓ’ 실현에서의 F1과 F2는 다음과 같다(신우봉·신지영 2022: 212-214).



		경북				경남			
		ㅡ	ㅓ	ㅖ	ㅐ	ㅡ	ㅓ	ㅖ	ㅐ
60대	F1(Hz)	372	411	401	399	443	474	434	440
	F2(Hz)	1146	1180	1962	1961	1175	1212	1967	1954
20대	F1(Hz)	400	508	450	447	376	495	434	431
	F2(Hz)	1353	1102	1868	1861	1347	1110	1951	1953

[표 2] 동남 방언 화자의 세대별 단모음 실현 양상

[표 2]에 따르면 동남 방언 60대 화자는 공히 ‘ㅖ’와 ‘ㅐ’를 변별하지 않고, ‘ㅡ’와 ‘ㅓ’ 의 경우 F1과 F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20대 화자에게서도 ‘ㅖ’와 ‘ㅐ’의 조음 위치는 거의 동일하지만 ‘ㅡ’와 ‘ㅓ’의 거리는 60대 화자의 그것보다 확실히 멀어져, 세대를 독립변수로 하고 ‘ㅡ’와 ‘ㅓ’의 F1과 F2를 종속변수로 한 t-검정 결과 경북방언 ‘ㅡ’의 F2와 ‘ㅓ’의 F1, 경남방언 ‘ㅡ’의 F1과 F2 모두와 ‘ㅓ’의 F2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즉 이러한 검증을 통해서도 개신형인 ‘ㅡ’와 ‘ㅓ’의 변별이 20대 이하의 화자들에게서는 공고히 자리잡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자료집》이나 《지역어》에서 ‘ㅖ’와 ‘ㅐ’를 명확히 변별하던 중부 방언의 경우, 20대 화자들은 ‘ㅖ’와 ‘ㅐ’가 모음 공간상의 거의 같은 지점에서 조음된다고 한다(신우봉·신지영 2022: 210). 60대의 ‘ㅖ’는 F1 값과 F2 값이 각각 419, 2025이며 ‘ㅐ’는 F1 값과 F2 값이 각각 469, 1828이다. 20대의 ‘ㅖ’는 F1 값과 F2 값이 각각 463, 1745이며 ‘ㅐ’는 F1 값과 F2 값이 각각 468, 1741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사실상 ‘ㅖ’와 ‘ㅐ’의 조음 위치가 겹친다. 즉 ‘ㅖ’와 ‘ㅐ’의 합류는 개구도를 축소하는 경향성에 힘입은 조음 공간상의 영역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ㅖ’와 ‘ㅐ’의 변별 여부는 ‘ㅖ 〉 ㅣ’ 고모음화와 연관을 맺고 있다. 주로 ‘ㅖ’와 ‘ㅐ’가 변별되지 않는 지역에서 ‘ㅖ 〉 ㅣ’의 고모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2.3. 단모음 ‘ㅟ’, ‘ㅚ’의 존재

단모음 ‘ㅟ’, ‘ㅚ’는 특히 동남 방언의 고모음화와 깊은 영향을 맺고 있다. 동남 방언에는 단모음 ‘ㅚ’, ‘ㅟ’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원적으로 ‘ㅚ’나 ‘ㅟ’를 가진 단어나 ‘ㅗ’ 또는 ‘ㅜ’가 움라우트를 겪은 이후에 생성된 ‘ㅚ’나 ‘ㅟ’가 [ö], [ü]로 실현되지 못하고 이중모음 [wE], [wi]로 실현되었다. 이 중 ‘웨[wE]’의 경우 동남 방언에서 적극적인 ‘ㅖ 〉 ㅣ’의 고모음화를 입는다. 그런데 ‘ㅟ’, ‘ㅚ’의 존재 여부에 있어서는 《자료집》과 《지역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자료집》과 《지역어》의 ‘ㅟ’, ‘ㅚ’ 실현 양상을 비교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다양성》으로 이행하면 전국의 방언에서 ‘ㅟ’, ‘ㅚ’의 실현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 점만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

다.

《자료집》과 《지역어》에서는 단모음 ‘ㅟ’, ‘ㅚ’가 동남 방언권 외의 지역에서 단모음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었다면, 《다양성》에서는 갑작스럽게 ‘ㅟ’, ‘ㅚ’가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먼저 80대의 경우, 《지역어》와 같이 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대전에서 ‘ㅟ’, ‘ㅚ’가 단모음으로 실현된다.[27] 그런데 50대 이하에서는 급격히 단모음 ‘ㅟ’, ‘ㅚ’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충북·전북·전남의 50대 화자에게서만 ‘ㅟ’, ‘ㅚ’가 단모음으로 남았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상향이중모음 [wi], [we(또는 wE)]로 실현되거나 활음이 탈락한 [i], [e(또는 E)]로 실현된다. 20대에서는 어떤 지역의 제보자도 ‘ㅟ’, ‘ㅚ’를 단모음으로 발음하지 않았다. 20대 제보자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ㅟ’를 [wi], ‘ㅚ’를 [wE]로 실현하였다.[28][29][30]

---

27) 충남 지역의 경우, 선행 자음이 없는 ‘ㅟ’는 단모음이 아닌 하향이중모음으로 실현된다.

28) 장혜진 외(2015)에서는 서울, 송인성(2021)에서는 원주 지역의 60대 이하 화자들은 ‘ㅟ’와 ‘ㅚ’를 모두 이중모음으로 조음한다고 하였다. 《지역어》에서의 결과와 차이가 있는 점은 현재의 5~60대 화자들이 ‘ㅟ’와 ‘ㅚ’의 이중모음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29) 황해도 방언(주로 1910~1920년대 출생자를 제보자로 함)의 단모음은 ‘ㅣ, ㅖ, ㅐ, ㅚ, ㅡ, ㅕ, ㅏ, ㅜ, ㅗ’로 9개로 알려져 있다(김영배 1984:289, 곽충구 2001:409, 황대화 2007: 21, 최소연2018:141). 그런데 장승익(2020)에서는 1945년 황해도 안악 출신의 제보자에게서 ‘ㅚ’가 단모음으로 실현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황해도 방언은 중부 방언보다 조금 이른 시기부터 단모음 ‘ㅚ’의 지위가 흔들린 것인데, 이는 이 지역어에 같은 계열의 단모음 ‘ㅟ’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체계상 전설 원순 모음이면서 고저의 대립을 보이는 ‘ㅟ’가 단모음으로 존재했다면 단모음 ‘ㅚ’의 지위가 보다 안정적이었을 것이지만 이 지역어에는 이미 단모음 ‘ㅟ’가 없으므로 하나뿐인 전설원순모음 ‘ㅚ’의 지위가 불안정해 변화를 빨리 입게 된 것이다.
한편 강순경(1999: 346)에서는 사리원 이남의 화자들의 음소 실현은 경기도 방언(중부 방언)이 아니라 평안도 방언(서북 방언)의 모습을 띠고 있다며, 해방 후 50여 년에 이르는 남북한 간의 단절과 북한의 문화어 보급과 같은 언어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분석하였다. 남한의 제방언에서도 나타나는, 표준어 보급의 결과로서의 평준화와 동궤의 현상인 것이다.

30) 한편 동북방언의 경우 노년층(주로 1920년대 이전 출생)은 대체로 10모음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전설원순모음 계열은 ‘ㅟ > ㅣ’, ‘ㅚ > ㅖ’의 실현을 보이기도 한다. 194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ㅟ’, ‘ㅚ’가 없는 8모음체계이며, ‘ㅗ’의 원순성 약화로 인해 후설 중모음 ‘ㅓ’, ‘ㅗ’가 변별을 잃는 경우도 눈에 띈다.

지금까지 《자료집》과 《지역어》, 《다양성》을 통해 알 수 있는 모음체계의 분포와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ㅡ/ㅓ의 변별	90대 이상	80대	50대	20대
중부 방언	O	O	O	O
서남 방언	O	O	O	O
동남 방언	X	△	△	O
제주 방언	O	O	O	O

[표 3] 단모음 'ㅡ'와 'ㅓ'의 변별 여부

'ㅡ/ㅓ'의 경우, 《자료집》에서 두 음소가 변별되지 않고 [ㅓ]로 실현되는 것은 동남 방언뿐이었다. 그런데 《지역어》에 이르면 점차 'ㅡ'와 'ㅓ'를 구별하기 시작하며, 이러한 경향은 젊은 세대로 이행할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나 20대의 동남 방언 화자들은 모두가 'ㅡ/ㅓ'의 변별을 갖게 되었다. 모음체계상에 'ㅡ'와 'ㅓ'의 대립이 생기면서 이전 시기에 동남 방언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ㅓ 〉 ㅡ'의 고모음화가 관찰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3.4.1.에서 상세히 살필 것이다.

ㅐ/ㅒ의 변별	90대 이상	80대	50대	20대
중부 방언	O	O	△	X
서남 방언	O	△	X	X
동남 방언	△	△	X	X
제주 방언	O	O	X	X

[표 4] 단모음 'ㅐ'와 'ㅒ'의 변별 여부

'ㅐ/ㅒ'의 경우, 90대 이상의 화자에게서 대체로 변별되다가 점차 모든 방언에서 그 변별을 잃어 20대 화자들에게서는 모두 [E]로 합류하였다. [E]로의 합류에 있어서는 방언에 따른 시차가 눈에 띈다. 경남 서부를 제외한 동남 방언이 가장 먼저 'ㅐ'와 'ㅒ'의 합류를 경험한 것이 《자료집》에 이미 나타나며, 서남 방언에서는 《지역어》의 제보자였던 1930-1940년대 출생자부

터 조금씩 변별력을 잃기 시작하여 《다양성》의 50대 제보자에 이르면 절대 다수의 화자들이 ‘ㅖ’와 ‘ㅐ’의 변별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ㅖ/ㅐ’ 변별과 고모음화에 대해서는 3.1.3.을 비롯하여 3장의 해당 부분에서 이야기할 것이다.

ü, ö의 존재	90대 이상	80대	50대	20대
중부 방언	O	O	△	X
서남 방언	O	O	O	X
동남 방언	X	X	X	X
제주 방언	X	X	X	X

[표 5] 단모음 ‘ㅟ’와 ‘ㅚ’의 존재 여부

ü, ö는 《자료집》에서 중부 방언과 서남 방언에 존재한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지역어》까지도 굳건하게 유지되는데, 《다양성》의 50대 제보자와 20대 제보자에 이르면 단모음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20대 화자는 모두가 ‘ㅟ’, ‘ㅚ’를 [wi], [wE]로 실현하기 때문이다. ‘ㅟ’, ‘ㅚ’와 고모음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3.1.3.과 3.2.3. 등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모음체계상의 가장 큰 변화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한국어 방언의 모음체계는 음소의 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에서는 10모음체계를 굳건하게 유지하던 중부 방언과 서남 방언 역시도 이러한 경향을 비껴가지는 못하여, 《다양성》의 20대 제보자에 이르면 ‘ㅖ’와 ‘ㅐ’의 변별이 없고 ‘ㅟ’, ‘ㅚ’ 역시 단모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방언에서 음소의 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자료집》과 《지역어》까지도 대체로 6모음체계를 유지하던 동남 방언은 《다양성》의 20대 화자에서 ‘ㅡ’, ‘ㅓ’의 변별이 생기며 7모음체계로 이행하였다. 즉 현대 한국어 화자의 모음체계는 음소의 변별이 사라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간에 7모음체계(ㅣ, E, ㅡ, ㅓ, ㅏ, ㅜ, ㅗ)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다.

2.4. 운소

이 절에서는 《자료집》과 《지역어》에 나타나는 각 지역어의 운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자료집》에 나타나는 음장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31][32]

	iː	eː	ɛː	üː	öː	ɨː	əː	aː	uː	oː
경기도	■	■	■	■	■	■		■	■	■
강원도	■	■	■	■	■	■		■	■	■
충청북도	■	■	■	■	■	■		■	■	■
충청남도	■	■	■	■	■	■		■	■	■
전라북도	■		■	■	■	■		■	■	■
전라남도	■	(서부) Eː		■	■	■	■	■	■	■
경상북도	■	■		／	／	■		■	■	■
경상남도	■	(동부) Eː		／	／	■		■	■	■
제주도	비성조·비음장 방언									

[표 6] 장모음의 존재(자료집)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부 방언의 장모음체계이다. 《자료집》에 따르면 현대 중부 방언에는 [əː]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자료집》의 경우, 장음 'ㅓ'는 조음 위치가 상승하여 [ɨː]로 실현되는 경향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31) [표 6]은 <한국방언자료집>의 'Ⅲ. 音韻' 중 '3. 音長·聲調'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32) 해당 장모음이 존재하면 음영 표시를 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비워 두었다. 한편 동남 방언에서는 단모음 'ㅚ'와 'ㅟ'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연히 장모음 'ㅚː', 'ㅟː'도 나타날 수 없다. 따라서 동남 방언의 'ㅚː', 'ㅟː'는 사선으로 표시하였다.

의미한다. 이병근(1970), 배주채(1996), 김현(2007) 등에 따르면 중부 방언의 '어'는 어두 장음일 때나 비어두에서는 [ə]로 실현되고, 어두 단음일 때는 [ʌ]로 실현된다. 그런데 이 [ə]의 음성 실현이 길어질수록 개구도가 좁아져 결국 [ɨ]로 상승하게 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표 6]인데, 장음 'ㅓ:'의 고모음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중부 방언권에서는 [ə:]가 나타나지 않고 모두 [ɨ:]로 실현되는 것이다.[33]

한편 전북은 서부를 중심으로 [e:]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전북 군산·익산·완주·김제·임실·순창), 북서부를 중심으로 [ə:]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전북 군산·익산·완주·무주·김제·부안·고창)이 많았다. 이는 전북 서부에서는 [e:]가 [i:]로 상승함을, 북서부에서는 [ə:]가 [ɨ:]로 상승함을 방증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결과적으로 전북 군산·익산·완주·김제 지역에서는 단모음單母音이 10개 실현되지만, 그중 장음은 8개만 나타난다. 전남의 경우, [e]와 [ɛ]가 합류한 전남 서부에서는 [E:]가 나타나며 전남 동부에서는 [e:], [ɛ:]가 별개의 장모음으로 존재한다.

동남 방언권은 성조 방언이지만, 상승조나 하강조 등에서 잉여적으로 장음이 실현된다. 이러한 장음은 해당 방언권에 존재하는 모든 모음에 더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모음화와의 상호 관계에 한정해 보면, 동남 방언의 잉여적 장음 실현은 이 방언의 고모음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34]

이제 《지역어》에서의 음장에 대해 살펴보면, 《자료집》보다는 훨씬 더 음장의 실현이 혼란스러워진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자료집》에서는 중부 방언에서 장음으로만 실현되던 '미:투리~미:트리{미투리}'가 《지역어》에서는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장음을 실현하고, '사:마구~사:마귀{사마귀}' 역시 《지역어》에서는 음장의 실현을 잃은 예가 다수 발견된다. 음장이 운소로서의 기능

33) 그러나 《자료집》의 어휘 항목 조사에서는 드물게 [ə:]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ə]와 [ɨ]를 잘 변별하고 있는 다른 항목들의 전사 결과를 감안한다면, 해당 어휘에서는 [ə:]가 조사자에게 명확히 인식될 정도로 낮은 위치에서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34) 한편 동북방언은 동남 방언과 유사한 성조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함북 일부 지역어는 경북과 같이 고조와 저조, 상승조를 가지고 있다. 그 외의 동북방언은 고조와 저조의 2단 체계를 보인다. 서북방언에서는 음장이 운소로 기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을 잃어가는 가운데, 여전히 음장이 실현되는 어형(또는 제보자)들과 음장이 소실된 어형(또는 제보자)가 혼재하는 상황인 것이다. 마지막으로《지역어》에서 실현되는 성조를 살펴보면, 동남 방언권의 성조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음절 내의 어떤 위치에서든 고조가 실현될 수 있으며, 경북 방언의 상성에서 잉여적으로 실현되는 장음 역시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서 살펴본 운소 중 고모음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음장이다. 성조가 고모음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같고 성조만 다른 두 어형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모음화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음장의 영향을 살필 것이며, 성조의 경우 상승조나 하강조에서 잉여적으로 실현되는 음장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하는 정도로 이용할 것이다.

3. 어두 고모음화의 방언 분포

이 장에서는 《자료집》과 《지역어》의 각 시기에 고모음화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기술한다. 먼저 어휘형태소를 대상으로 어두에서 나타나는 장모음과 단모음의 고모음화 양상을 살핀다.

3.1. 장모음의 고모음화

3.1.1. 장모음 ㅓ: 〉 ㅡ:

① ㅓ: 〉 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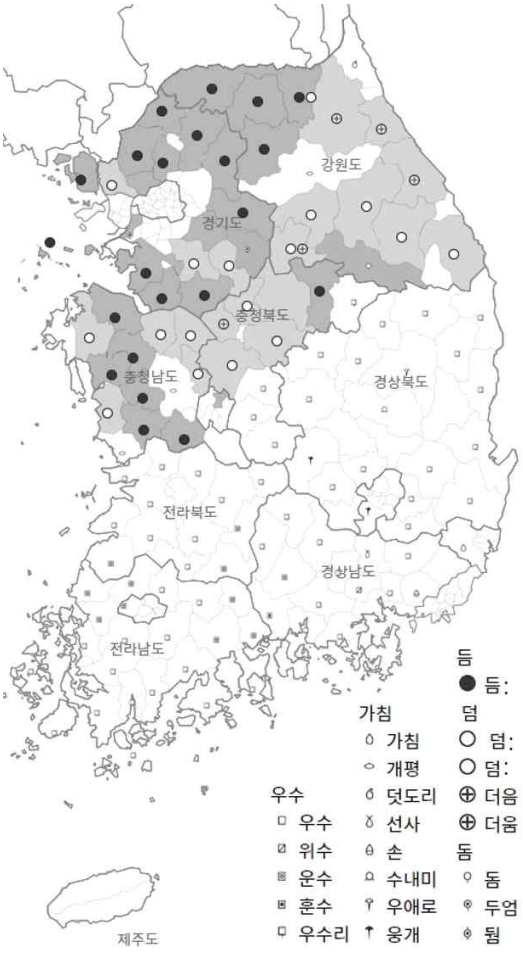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먼저 어두 장모음 'ㅓ:'의 고모음화를 살피고자 한다.[35] 《자료집》에 비해 《지역어》에서는 음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고에서는 《자료집》에서 장음으로 실현되는 어형을 기준으로 삼아 해당 어형의 변화를 살필 것이다.

먼저 어두에 장모음 'ㅓ:'를 가진 단어의 고모음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36] 이들 단어 중 《자료집》과 《지역어》에서 공히 조사된 단음절 어간은 '덤' 하나뿐인데, 중부 방언권에서는 '덤' 형태가 나타나지만 동남·서남 방언권에서는 '우수'형이 쓰이므로 전국적인 분포를 살피기에 적절하지는 않다. 그러나 장모음 'ㅓ:'의 고모음화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각 시기에 중부 방언의 어두 장모음 'ㅓ:'의 고모음화 양상을 살펴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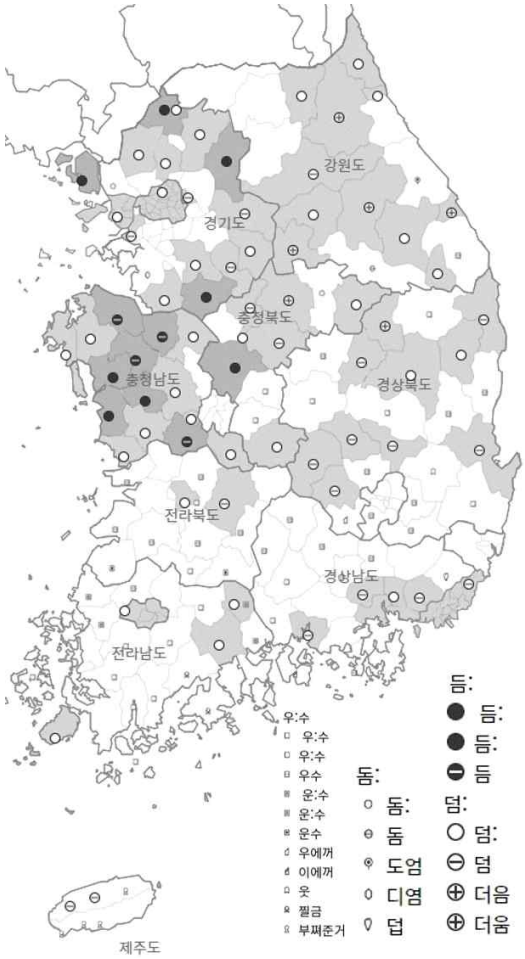
35) 여기에서 살펴본 어형은 다음과 같다. (밑줄은 《지역어》에서도 조사된 어형)
써:레(Ⅰ.015), 섣:달 그믐날(Ⅰ.558), 헝:겊(Ⅰ.183), 거:머리(Ⅰ.433), 엉:덩방아(Ⅱ.242보⑥)(《지역어》: 엉덩이), 덤:(Ⅰ.346), 덜:(小, Ⅲ.05-10)
더:럽다(Ⅲ.08F), 없:다(Ⅰ.591), 섦:다(Ⅰ.608A), 거:들다(Ⅲ.17-6B), 떫:다(Ⅰ.611)

36) 본고의 목적은 《자료집》과 《지역어》의 고모음화가 보이는 방언 분포를 기술하고 이 두 자료 사이의 변화를 밝히며 나아가 《다양성》에 나타나는 변화 양상까지를 다루는 것에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자료집》과 《지역어》에 모두 조사된 어형을 연구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자료집》에 비해 《지역어》에서는 체언 이외의 항목에 대한 조사가 빈약하나, 기존 연구에 따르면 고모음화는 단어의 문법적 성질에 크게 구애받는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체언 위주로 기술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용언의 고모음화형도 제시하였다.

있는 '덤'의 방언 분포를 기술하기로 한다.[37]



[지도 5] '_'형의 분포(덤, 자료집)



[지도 6] '_'형의 분포(덤, 지역어)

《자료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고모음화형을 관찰할 수 있다.

(1) 듬: - 강원 양구·철원·춘천·화천, 경기 가평·강화·고양·광주·안성·

37) 이후의 지도는 모두 다음과 같은 면색 체계를 가진다:
1. 고모음화가 일어난 경우 - 짙은 회색
2. 고모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으나 고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 - 연한 회색
3. 조사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다른 어형이 조사되어 고모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 흰색

양주·양평·연천·옹진·파주·평택·포천·화성, 충남 논산·당진·대덕·부여·예산·청양·홍성, 충북 제천

(1)과 같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ㅓ: 〉 ㅡ:'를 겪은 어형이 분포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인접한 충남 서부와 강원 서북부에서도 '듬:'형이 나타난다.

고모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으나 고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덤:'형은 강원 중남부, 충남 북동부 및 충북 북부에 분포한다.

(2) ㄱ. 덤: - 강원 평창·원주·정선·삼척, 경기 김포·용인·이천, 충남 서산·아산·천안·보령, 충북 음성·청원·괴산

ㄴ. 덤 - 충남 연기

(2ㄱ)은 장음이 실현되지만 고모음화를 겪지 않은 경우이며, (2ㄴ)은 장음의 실현 없이 '덤'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다.

《지역어》에서도 '듬:~듬'과 같은 고모음화형과 '덤:~덤'과 같이 고모음화를 겪지 않은 어형을 모두 발견할 수 있다.

(3) ㄱ. 듬: - 경기 가평·강화·안성·연천, 충남 보령·청양·홍성, 충북 청주

ㄴ. 듬 - 충남 논산·당진·아산·예산

(3ㄱ)을 살펴보면, 《자료집》에서는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과 강원·충남 일부 지역에서 실현되던 '듬:'형의 분포가 제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음이 실현되지 않는 (3ㄴ)의 '듬'형까지 합하더라도 《자료집》보다는 《지역어》에서 고모음화의 세력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고모음화형은 충남 서부를 중심으로 분포하며 경기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남아 있어 중심지를 특정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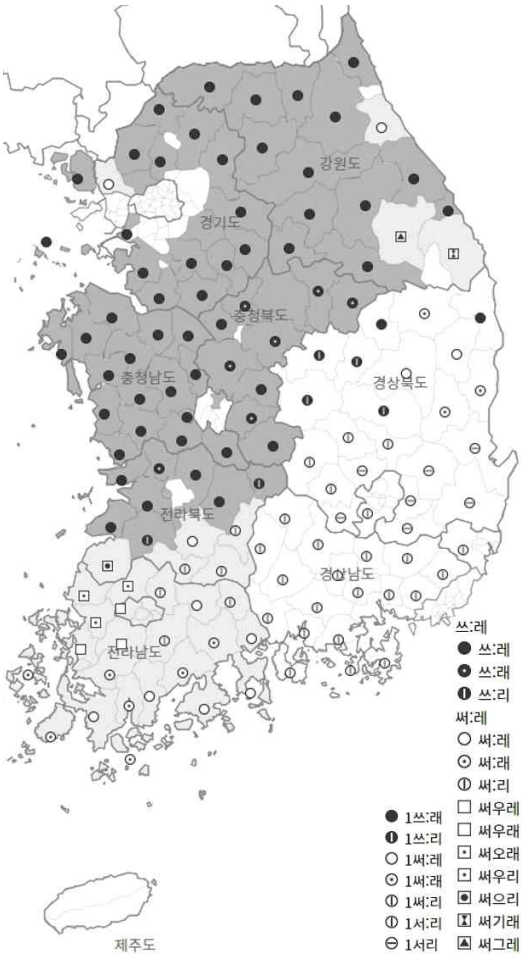
(4) ㄱ. 덤: - 강원 고성·속초·양구·정선·태백·횡성, 경기 양주·여주·연

천·용인·파주·평택·포천, 서울 종로, 인천 연수, 경남 창원, 경북 안동·영양, 전남 구례·순천·진도, 광주 광산, 전북 전주, 충남 계룡·공주·금산·부여·서산·서천·천안·태안, 충북 단양·영동·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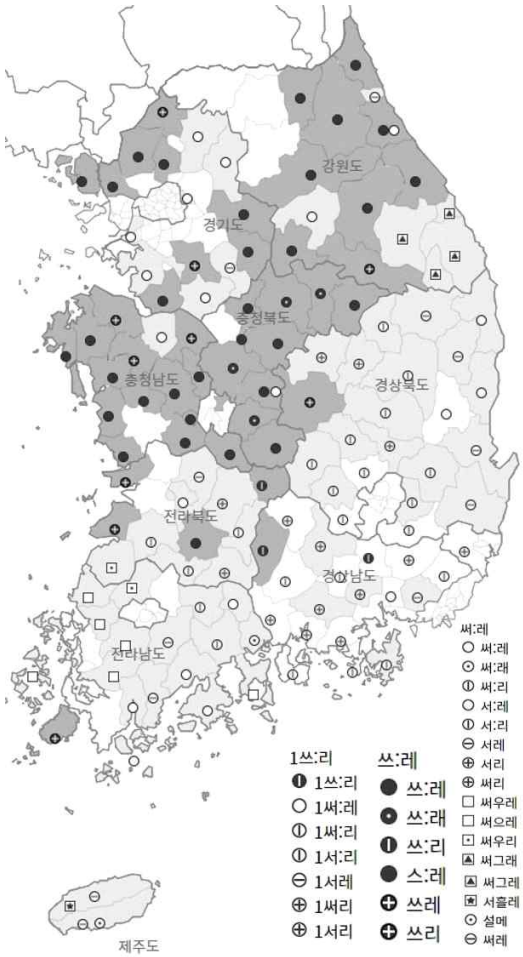
ㄴ. 덤 – 강원 홍천, 경기 구리·시흥·양평·이천, 경남 김해·사천·함안, 부산 기장, 경북 구미·군위·김천·성주·예천·울진·포항, 전북 진안, 충북 괴산·음성, 제주 건입·한경

(4)는 고모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덤:' 또는 '덤'형의 분포를 보여준다. 앞서 2.4.에서는 《자료집》의 시기에 중부 방언권에서는 [ə:]가 거의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바 있는데, 앞의 (2ㄱ)에서는 [ə:]를 관찰할 수 있다. 《자료집》만을 두고 보면 이 [ə:]의 실현을 설명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지역어》에서 '덤[tə:m]'의 실현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보면 (2ㄱ)에 나타난 《자료집》의 '덤:'형은 이 시기에 이미 몇몇 어사에서 고모음화가 약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장음이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ㅓ: 〉 ㅡ:'의 고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예이기 때문이다. (2ㄴ)의 '덤'형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전 시기의 '듬:' 또는 '덤:'형이 장음을 잃고 '덤'으로 실현되는 것이고 하나는 '우수'형의 출현 지역에서 새로이 나타나는 '덤'형이다. 전자는 《자료집》에 비해 《지역어》에서 음장이 매우 혼란스럽게 나타나며, 음장이 사라진 지역도 다수라는 점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어형들이다. 한편 후자는 《자료집》에서 '우수'형이 압도적이던 동남·서남 방언권에 중부 방언의 영향이 미친 결과로 보인다. '우수' 역시 '덤'과 같은 표준어지만, 중부 방언권에서 사용되는 '덤'이 위세형으로서 '우수'를 사용하던 지역에 전파되는 것이다. 표준어가 가지고 있는 규범으로서의 권위뿐 아니라 중부 방언권에서 사용되는 위세형이라는 점이 '덤'형의 세력 확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는 다음절 어간 중 어두 음절이 개음절인 '써레'와 '거머리'의 고모음화 양상을 살피기로 한다.



[지도 7] '_'형의 분포(써레, 자료집)



[지도 8] '_'형의 분포(써레, 지역어)

[지도 7]은 《자료집》에서 살필 수 있는 '써레'의 방언 분포이다.[38]

(5) ㄱ. 쓰:레~쓰:래 - 강원 전역(삼척·양양·정선 제외), 경기 전역(김포 제외), 충남 전역, 충북 전역, 전북 군산·김제·부안·완주·익산·진안

ㄴ. 쓰:리 - 전북 무주·정읍

(5)는 중부 방언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ㅓ: 〉 _:'의 양상을 보인다. 장음

38) 지도의 범례 앞에 숫자 '1'이 붙은 것은 합류음이다. 단, 기호가 검은색인 경우 [ɨ]로 보면 된다.

이 실현되면서 음성적인 이유로 조음 위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써레’는 본래 ‘서흐레’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18세기부터 ‘뻐흐레’ 또는 ‘써흐레’의 표기가 나타난다. 이것이 19세기 이후 ‘써레’로 나타나는데 (5ㄱ)의 ‘쓰:레’는 이 ‘써레’의 어두 장음 실현으로 인해 ‘ㅕ’가 ‘ㅡ’로 고모음화한 형태이다. 중부 방언권 전체가 고모음화형을 보이는 한편, 전북의 경우에는 똑같이 장음이 실현되더라도 경남·전남에 접경한 동남부 지역에서는 ‘ㅕ: 〉 ㅡ:’가 발생하지 않고 충남과 인접한 서북부에서는 ‘ㅕ: 〉 ㅡ:’가 나타난다. 경남·경북의 경우 《자료집》의 시기에 ‘ㅕ’와 ‘ㅡ’가 변별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ㅕ’의 고모음화가 나타날 수 없다. 그러나 ‘써레’에 대해서는 경북 영주·울진에서 ‘쓰래[s'ɨ:rE]’, 경북 문경·상주·예천·의성에서 ‘쓰리[s'ɨ:ri]’로 전사되어 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써래[s'ㅖ:rE]’ 등으로 전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충북과 인접한 경북 서북부 지역에서는 어두 음절의 모음이 [ㅖ]보다 높은 위치에서 조음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고모음화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써:레~써레’,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써:리[s'ㅖ:ri]~써리[s'ㅖri]’ 형이 나타난다. 이외에는 강원 일부 지역에서 ‘써기래(삼척)’, ‘써그레(정선)’ 등이 실현되고, 전남 서부에서 ‘써우래(광주·나주·무안)’, ‘써우리(영광·장성)’, ‘써오래(함평)’ 등이 관찰되었다.

《지역어》에서는 고모음화형이 실현되는 지역이 다소 축소되었다.

(6) ㄱ. 쓰:레~스:레 – 강원 강릉·고성·양구·원주·인제·평창·홍천, 경기 강화·김포·양주·양평·여주·파주·평택, 전북 무주·임실, 충남 계룡·공주·금산·논산·보령·서산·서천·청양·태안·홍성, 충북 전역

ㄴ. 쓰:리 – 경남 함양, 전북 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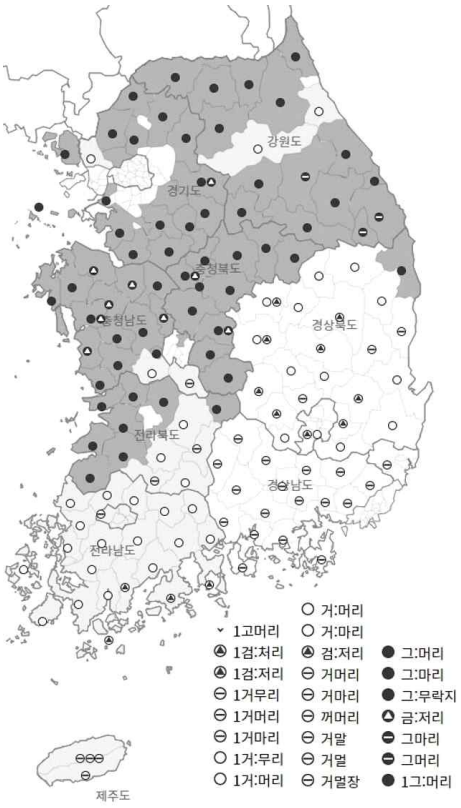
ㄷ. 쓰레 – 강원 영월, 경기 연천·용인, 전북 부안, 충남 당진·대덕·예산·천안

ㄹ. 쓰리 – 경북 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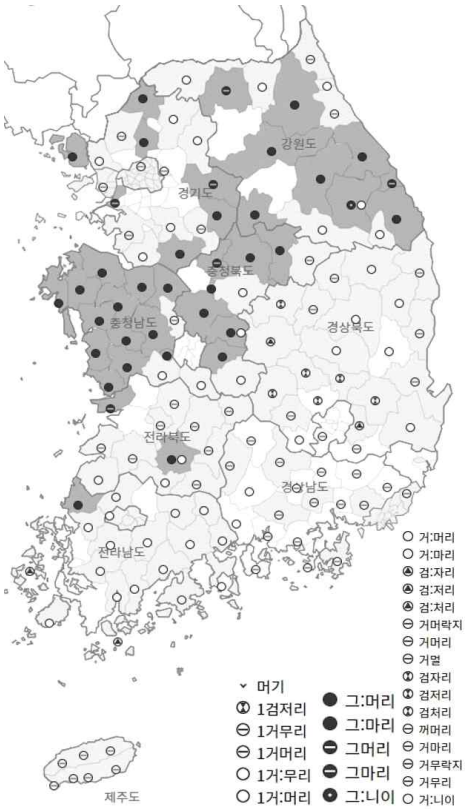
(6ㄱ)과 (6ㄴ)은 어두 장음이 실현되면서 ‘ㅓ: 〉 ㅡ:’ 고모음화가 일어난 형태이다. 《자료집》과 비교하여 가장 세력이 축소된 지역은 경기도로, 동북부와 남부에서 먼저 고모음화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 경기도 외의 중부 방언권에서는 ‘써레’에 있어서는 ‘ㅓ: 〉 ㅡ:’의 고모음화가 상당수 유지되고 있다. 한편 (6ㄷ), (6ㄹ)은 어두 장음이 실현되지 않지만 고모음화를 겪은 어형이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자료집》에서 장음의 실현과 고모음화의 적용을 함께 겪었던 지역에서 나타난다. 즉 이전 시기에 어두 장음의 실현으로 인해 고모음화된 어두 음절의 모음은 그대로 ‘ㅡ’로 남아 있고, 운소가 먼저 사라진 것이다.

고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의 경우, 경기도에서는 ‘써:레’, 경남북에서는 ‘써:리~써리’, 전남북에서는 ‘써:레~써:리’가 나타난다. 한편 강원 동남부 지역에서는 ‘써그레(강원 동해·삼척·정선·태백)’, 전남 서부에서는 ‘써우레~써우리(전남 나주·신안·여수·영광·영암·장성·함평)’형이 관찰된다.

이제 ‘거머리’의 방언 분포를 관찰해보자.



[지도 9] ‘ㅡ’형의 분포(거머리, 자료집)



[지도 10] ‘ㅡ’형의 분포(거머리, 지역어)

먼저 《자료집》에서 고모음 'ㅡ'를 가진 형태들은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인다.

(7) ㄱ. 그:머리 - 경기 전역(김포 제외), 강원 철원·춘천·횡성·원주·영월, 충북 전역, 충남 서산·천안·홍성·청양·공주·부여·서천, 전북 무주
ㄴ. 그:마리 - 강원 화천·양구·인제·고성·강릉·정선, 전북 군산·익산·완주·김제·고창
ㄷ. 금:저리 - 경기 양평, 충남 홍성·당진·대덕·보령·아산·연기·예산, 충북 보은·진천
ㄹ. 그:무락지 - 전북 부안, 정읍

(8) ㄱ. 그머리 - 강원 평창
ㄴ. 그마리 - 강원 삼척

(7ㄱ)의 '그:머리'형은 '거:머리'의 어두 장음 'ㅓ:'가 고모음화를 겪은 형태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가장 널리 분포한다. (7ㄴ)의 '그:마리'형은 《국한회어(1895)》 등에서 보이는 '거마리'형의 어두 장음이 고모음화한 형태로 보이며, 강원 영동 지방과 전북 서부에 분포하고 있다. (8ㄷ)에서 보이는 '금:저리'형이나 (8ㄹ)의 '그:무락지'형은 주로 충남 서부, 전북 서부에 분포한다.

한편 (8)에서는 장음이 아닌 '그머리', '그마리'가 나타난다. 이는 어두 장모음 'ㅓ:'가 고모음화를 입어 'ㅡ:'로 바뀐 후, 운소로서의 지위를 잃은 음장이 사라진 선구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예는 《자료집》에서는 드물게 나타나지만 《지역어》에서는 보다 많은 지역에서 나타난다.[39][40]

---

39) 《朝鮮語》에서도 '거머리'의 고모음화형을 살필 수 있다. 고모음화형이 나타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ㄱ. 그머리 - 경기 개성·장단·연천, 충북 보은·진천·괴산·충주·단양, 충남 공주·서천·홍성·천안, 경북 경주·포항·흥해·함창, 황해 금천·연안
ㄴ. 그마리 - 강원 강릉·삼척
ㄷ. 그무리 - 강원 울진·평해, 경북 영천·영덕, 경남 울산

고모음화를 입지 않는 지역에서도 어두 장모음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이에 접경한 일부 지역 외에는 대체로 장음을 유지하고 있다. 중부 방언권에서는 어두의 'ㅓ:'가 거의 모든 경우에 'ㅡ:'로 상승한 반면 전북·전남·경북에서는 장음으로 실현되는 'ㅓ:[ə:]~[ɜ:]'가 고모음화를 겪지 않은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 눈에 띈다.

《지역어》의 'ㅡ'형은 아래와 같이 분포한다.

(9) ㄱ. 그:머리 - 충남 전역(논산, 금산 제외), 경기 강화·연천·양주, 강원 홍천·원주, 충북 충주·제천·청주·보은·옥천
ㄴ. 그:마리 - 강원 인제·평창·강릉·삼척, 전북 임실, 전남 영광
ㄷ. 그:니이 - 강원 정선

(10) ㄱ. 그머리 - 경기 시흥·양평, 충북 음성
ㄴ. 그마리 - 강원 동해, 전북 군산

(9ㄱ)의 '그:머리'형은 《자료집》의 분포와 비교하여 그 세력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이에 접경한 강원도에서

ㄹ. 금자리~금저리 - 충남 공주·홍성·천안, 충북 청주·영동·괴산·충주, 경북 상주·함창·문경

《朝鮮語》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경성에서 '거머리'형이 관찰되었는데, 그 외의 경기·강원·충북·충남에서는 고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는 보고되지 않았다. 즉 1910~1920년대 중부 방언권은 'ㅓ > ㅡ' 고모음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자료집》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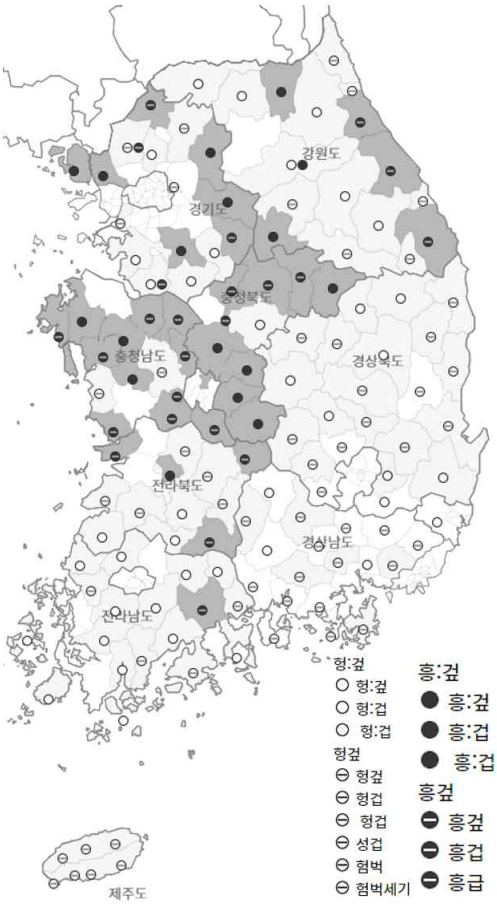
한편 경기도 장단(현재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및 황해도 장풍군 편입)에 인접한 금천, 강화도와 인접해 있는 연안까지 'ㅓ > ㅡ' 고모음화형이 나타나고 그 외의 황해도(거마리 - 태탄·장연·은율·안악·재령·황주·서흥·신계·수안·곡산), 평남(거마리 - 평양), 평북(거마리 - 박천·영변·희천·구성·강계·자성·후창), 함남(거마리 - 신고산·안변·덕원·문천·고원·영흥·정평·함흥·오로리·신흥·홍원·북청·이원·풍산·갑산·혜산, 거미 - 홍원·북청·단천), 함북(거마리 - 명천, 거미 - 성진·길주·경성·나남·청진·부거·부령·무산·회령·종성·경흥) 전역에서 'ㅓ' 형만이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ㅓ > ㅡ'의 변화는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시작되어 확산되는 중이었다는 사실을 추정해볼 수 있다.

40) 황북 금천·신계·토산, 황남 배천·연안에서도 '그머리' 형이 나타난다(황대화 2007:43). 《朝鮮語》에 보고된 것보다 다소 확산된 것으로 보이나, 개신의 세력이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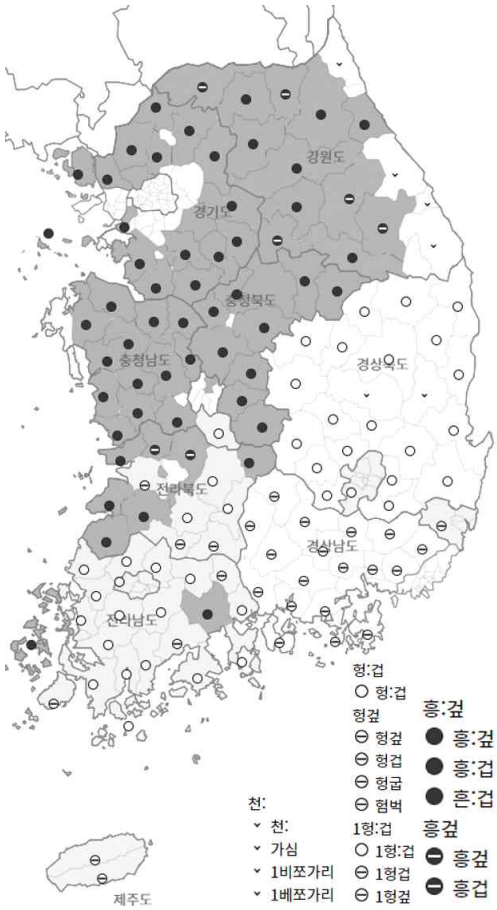
고모음화를 입지 않은 형태로 바뀌어 나타난다. (9ㄴ)의 ‘그:마리’형 역시 전북 서부에서 그 세력을 잃었으며, 강원 동부와 전남의 국지적 지역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9ㄷ)과 같이 강원 정선에서는 ‘그:니이’형이 보고되었다.

(10)은 고모음화를 입은 어두 음절에서 장음이 탈락한 경우이다. 그런데 《자료집》에서는 음장이 없는 ‘그머리’, ‘그마리’가 보고되었던 강원 평창과 삼척 지역이 《지역어》에서는 어두 장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즉 《자료집》에서 《지역어》로 이행하면서 노정하는 전반적인 경향성은 음장의 소실이지만, 아직까지 음장이 완전히 변별력을 잃은 것은 아닌 탓에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양상은 어두 음절이 폐음절이자 종성이 비음인 ‘헝겊’의 고모음화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지도 11] ‘_’형의 분포(헝겊, 자료집)



[지도 12] ‘_’형의 분포(헝겊, 지역어)

먼저 《자료집》에서 어두 장모음 'ㅓ:'가 고모음화된 어형들은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인다.

(11) ㄱ. 흥:겊 - 강원 영월·인제·춘천·홍천·횡성, 경기 광주·양평, 충북 괴산
ㄴ. 흥:겁 - 강원 양양·화천, 경기 전역(광주·양평 제외), 충남 전역(금산 제외), 충북 전역, 전남 순천·신안, 전북 고창·군산·무주·부안·정읍

(12) ㄱ. 흥겊 - 강원 정선·철원·평창
ㄴ. 흥겁 - 강원 양구·원주, 전북 완주·익산

(11ㄱ)의 '흥:겊'은 '헝:겊'의 어두 장모음이 고모음화한 것으로, 강원도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11ㄴ)의 '흥:겁'은 마찬가지로 어두 장모음이 고모음화한 유형인데 어간의 말음이 'ㅂ'으로 재구조화된 것이다. 이 '흥:겁' 형태가 중부 방언권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데, 경기·충남·충북에서는 소수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흥:겁' 형태가 나타난다.

(12ㄱ)은 '헝:겊'의 어두 장모음이 고모음화한 후 음장을 잃은 예이며, (12ㄴ)은 여기에다 어간 말음의 재구조화가 더해진 것이다. 주로 강원 남부와 전북 북동부에 위치하는데, 공교롭게도 어두 장모음이 고모음화하지 않는 지역과 접경해 있다.[41]

한편 고모음화를 겪지 않는 어형들은 대부분 '헝:겊' 또는 '헝:겁'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어두 장모음을 가지고 있지만,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그 접경 지역 일부에서는 단모음으로 실현된다.

다음으로는 《지역어》의 방언 분포를 살펴보기로 한다.

(13) ㄱ. 흥:겊 - 강원 양구·원주·홍천, 경기 양평
ㄴ. 흥:겁 - 경기 가평·강화·김포·용인, 전북 전주, 충남 서산·예선·

41) 황북 금천·토산에서는 '홍겊'이 실현되는데(황대화 2007:43), 음장의 표기가 없어 장음의 실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청양, 충북 단양·보은·영동·옥천·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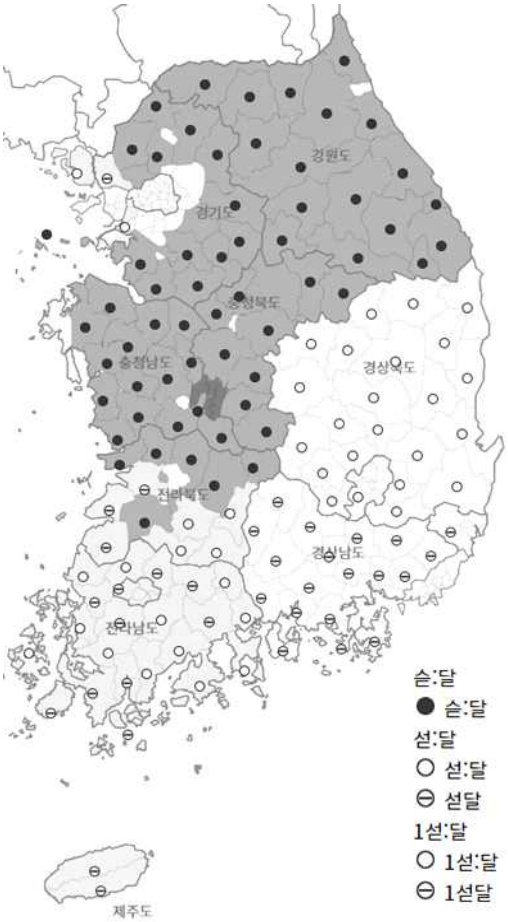
(14) ㄱ. 흥겊 – 강원 양양, 경기 여주·연천, 충남 금산

ㄴ. 흥겁 – 강원 강릉·삼척, 경기 파주·평택, 충남 계룡·논산·대덕·서천·아산·연기·천안·태안·홍성, 충북 음성·제천·증평·충주, 전북 군산·남원·무주, 전남 순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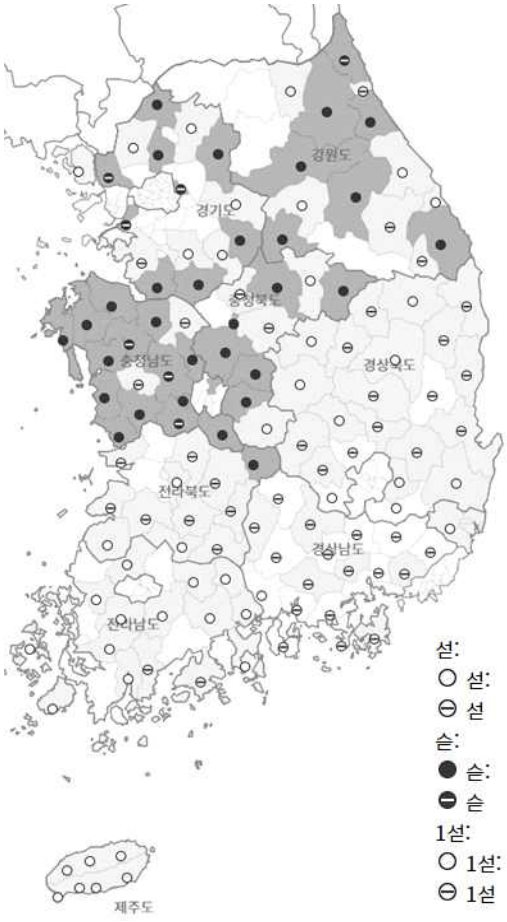
(13ㄱ)은 '흥:겊' 형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다. 강원 양구·원주의 경우, 《자료집》에서는 어두 단모음으로 실현되었으나 《지역어》에서는 장모음으로 나타나는 혼란을 보인다. 즉 《자료집》과 《지역어》가 조사되던 시기에 이미 음장의 혼란이 생긴 상태이며, 서서히 음장이 운소로서의 굳건한 지위를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13ㄴ)은 '흥:겁' 형인데, 《자료집》에 비하면 그 세력이 확연히 줄어든 사실이 관찰된다. (14)는 고모음화를 입었으나 음장을 잃은 어형들이다. 고모음화를 입은 어형 중 《자료집》에서는 어두 장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반면, 《지역어》에서는 오히려 음장을 잃은 경우가 더 많이 드러난다.

고모음화를 겪지 않는 지역에서도 어두 음절이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경상북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음장이 실현되지 않고, 강원도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음장을 잃은 사실이 관찰된다.

다음으로는 어두 음절이 폐음절이자 종성이 장애음인 '섣달(<섣ᄃᆞᆯ<섯ᄃᆞᆯ)'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도 13] '_'형의 분포(섣달, 자료집)



[지도 14] '_'형의 분포(섣달, 지역어)

(15) 슫:달 - 강원 전역, 경기 전역(김포·시흥 제외), 충남 전역, 충북 전역, 전북 군산·무주·완주·익산·정읍·진안

(15)는 《자료집》에서 나타나는 '슫:달'형으로, 고모음화가 적용된 모든 어형이 장음을 실현한다. 즉 (15)의 경우 장음의 실현을 고모음화의 필요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부 방언권 전체에서 '슫:달'형이 나타나며, 전북 북부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16) ㄱ. 섣:달 - 경기 강화·시흥, 전남 고흥·광양·구례·무안·보성·신안·

여수·영광·영암·장성·장흥·화순, 전북 남원·순창·임실·장수

ㄴ. 섣달 - 경기 김포, 전남 강진·곡성·광산·나주·담양·순천·완도·진도·함평·해남, 전북 고창·김제·부안, 제주 전역

(16ㄱ)은 《자료집》에서 어두 장음이 실현되면서도 고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이며, (16ㄴ)은 어두 장음이 실현되지 않는 지역들이다. 앞서 살펴본 다른 어사들과 동일하게 '섣달'에서도 'ㅓ: 〉 ㅡ:'는 중부 방언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전북 남부 이남에서는 장음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ㅓ: 〉 ㅡ:'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어》에서는 'ㅓ: 〉 ㅡ:'의 세력이 축소됨과 동시에 음장과 고모음화의 관계도 정연하지 않은 것을 살필 수 있다.

(17) ㄱ. 슫:달 - 강원 삼척·양양·원주·인제·평창·홍천, 경기 가평·안성·양주·여주·연천·평택, 전북 무주, 충남 계룡·금산·당진·보령·부여·서산·서천·아산·연기·태안·홍성, 충북 단양·보은·옥천·증평·청주·충주

ㄴ. 슫달 - 강원 고성, 경기 구리·김포·시흥, 충남 공주·논산·대덕·예산

(17ㄱ)과 (17ㄴ)은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음장의 소실이 어떤 지역에서 선구적으로 일어났는지 알기는 어려우나, (17ㄴ)에서 지적된 모든 지역에서 이전 시기에 실현되던 어두 장음이 'ㅓ'를 'ㅡ'로 고모음화한 후 소실된 것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자료집》과 비교해 보면 경기도를 중심으로 'ㅓ: 〉 ㅡ:'가 적용되지 않는 모습을 확연히 살필 수 있다.

(18) ㄱ. 섣:달 - 강원 강릉·동해·양구·횡성, 경기 강화·양평·용인·이천·파주·포천, 경남 하동, 경북 경산·경주·고령·구미·문경·봉화·상주·안동·청도, 전남 전역(고흥·장흥 제외),

전북 고창·순창·전주, 제주 전역

ㄴ. 섣달 – 강원 속초·정선·태백, 경기 화성, 경남 전역(하동 제외), 경북 군위·김천·성주·영덕·영양·영주·영천·예천·울릉·울진·의성·청송·칠곡·포항, 전남 고흥·장흥, 전북 전역(고창·무주·순창·전주 제외)

(18ㄱ)은 장음이 실현되지만 고모음화는 적용되지 않는 어형이다. '섣:달'의 경우, 경상도와 전북을 제외하고는 장음이 잘 유지되는 편으로 보인다. (18ㄴ)은 장음이 실현되지 않으며 고모음화 역시 겪지 않은 어형이다. 경상도와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분포하며, 그 외에도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견된다.

지금까지 《자료집》과 《지역어》에서 단음절 어간, 다음절 어간 중 어두 음절이 개음절인 경우, 폐음절인 경우에 'ㅓ: 〉 ㅡ:'가 실현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제 앞서 살펴본 방언 지도를 통하여 'ㅓ: 〉 ㅡ:'의 중심지를 찾아보기로 한다.

먼저 《자료집》을 반영한 지도들을 살펴보자. 단음절 어간인 '덤'의 경우를 제외하면 《자료집》을 반영한 지도들은 대개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흔히 중부 방언이라고 일컬어온 서울·경기·충남·충북·강원 영서 지방을 중심으로 'ㅓ: 〉 ㅡ:'가 나타나며, 남쪽으로는 전북 북서부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이들 지역에서는 앞서 살펴본 어사 이외에도 《자료집》에 나타난 거의 모든 어두 장모음 'ㅓ:'가 고모음화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9) ㄱ. 응:딩이{엉덩이}, 츠:녀{처녀}

ㄴ. 그:들다{거들다}, 드:릅따{더럽다}, 읍:따{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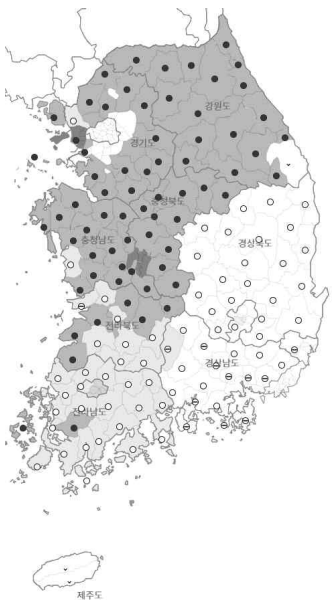
(19ㄱ)과 (19ㄴ)은 각각 체언과 용언의 어간에서 'ㅓ: 〉 ㅡ:' 고모음화가 일어난 예다. 일단 어휘형태소라면 체언이든 용언이든 고모음화가 일어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간의 음절 수나 어두 음절의 성격 역시 고모음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42]

또한 경기·충남 서부에서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ㅓ:’가 ‘ㅡ:’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로부터 이 지역이 ‘ㅓ: 〉 ㅡ:’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료집》의 시기에 중부 방언에서는 [ə:]가 관찰되지 않을 정도로 장모음 ‘ㅓ’의 고모음화가 적극적으로 일어났다.

이제 《지역어》에서의 방언 분포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지역어》에서 어두 장모음 ‘ㅓ:’가 고모음화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지역은 크게 두 곳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전북 서부 지역이며 둘째는 서울을 위시한 경기 지역이다. 두 지역 모두 음장이 변별력을 잃으며 고모음화의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방언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이 두 곳에 일어난 개신은 각자 다른 기제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지역의 방언형이 변화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텐데, 첫째는 자생적인 변화이며 둘째는 방언 접촉에 의한 개신이다. 이를 감안하여 전북 서부 지역과 서울을 비롯한 경기 지역이 어떤 변화를 입었는지 살펴보자.

먼저 《자료집》에서 전북 서부 지역을 둘러싼 방언형의 분포를 보면, ‘거마리’형이나 ‘거:마리’형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북 서부 지역은 《자료집》의 시기부터 고모음화를 입지 않는 전북 동부의 영향을 받았고, 이것이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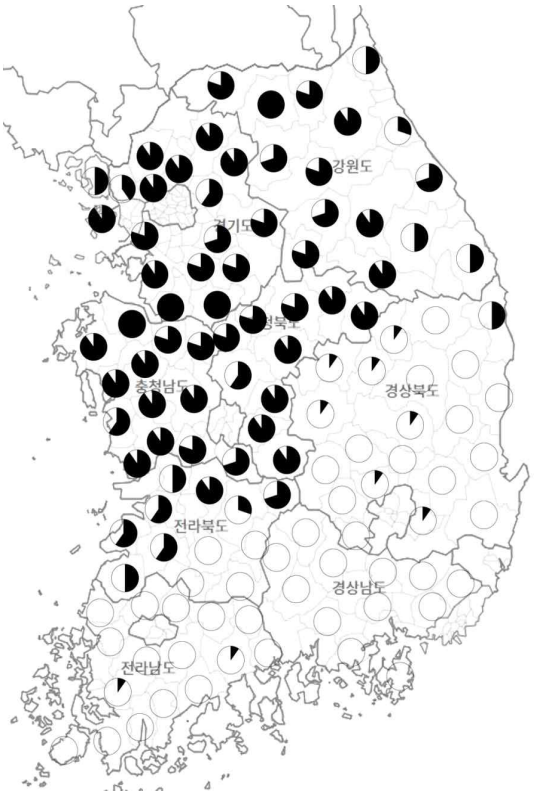
42) ‘덤’의 경우 다음절 어간보다는 고모음화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확연히 적었는데 이는 단음절 어간이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똑같은 단음절 어간인 ‘덜(小)’은 [지도 3], [지도 5], [지도 7], [지도 9]와 흡사한 분포를 보이기 때문이다. 옆의 지도에서 진한 음영은 《자료집》에서 나타나는 ‘들:’의 분포를 보인 것으로, 다음절 어간의 고모음화형 분포와 마찬가지로 중부 방언권 전체와 전북 서북부 지역까지를 영향 아래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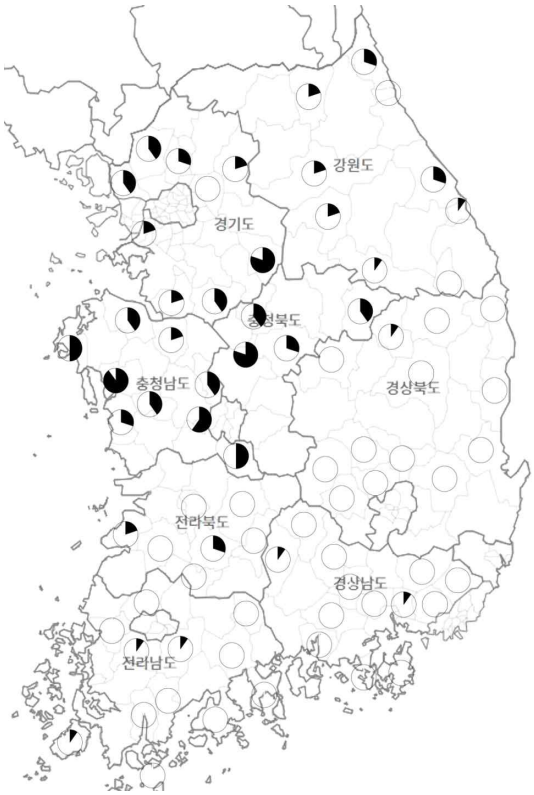
어》의 시기에 전북 서부에서도 고모음화의 세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결국 전북 서부 지역과의 방언 접촉이 전북 동부 지역의 고모음화 저지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울·경기 지역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전북 서부 지역의 변화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 서울·경기 지역에서 고모음화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은 이 지역의 자생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자료집》에서 '거머리'가 고모음화하지 않는 지역은 김포시 한 지역이었고, '헝겊'이 고모음화하지 않는 지역은 없었다. 고모음화의 소멸이라는 개신이 방언 접촉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이다. 개신은 대도시에서 먼저 일어나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데, 'ㅓ: 〉 ㅡ:'의 소멸이 바로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ㅓ: 〉 ㅡ:'의 환경이 주어졌을 때 고모음화가 실현되는 비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도 15]
'ㅓ: 〉 ㅡ:'의 실현 비율(자료집)



[지도 16]
'ㅓ: 〉 ㅡ:'의 실현 비율(지역어)

[지도 15]는 《자료집》에서 'ㅓ:'의 고모음화가 실현되는 비율을 나타낸 비율지도이며,[43] [지도 16]은 《지역어》에서 'ㅓ: 〉 ㅡ:'가 나타나는 비율을 보여주는 지도이다.[44] 개별 단어를 살필 때도 알 수 있었듯이 장모음의 고모음화는 《자료집》과 《지역어》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비율지도에서도 확인되는데, 《자료집》에서는 13개의 항목 중 고모음화를 겪는 어형이 중부 방언 전체에서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비율은 《지역어》에서는 현저히 낮아진다. 《지역어》에서는 가장 많은 고모음화형이 발견되는 충남 홍성이 83%, 경기 여주와 충북 증평이 76%로 상당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

43) 이 지도에 반영된 항목은 《자료집》에서 조사된 어두 장모음 'ㅓ:'를 가진 어형 전체로, 다음과 같다. '거:들다', '거:머리', '더:럽다', '덜:', '덤:', '떫:다', '섣:달', '쉽:다', '성:', '써:레', '없:다', '엉:덩이(엉:덩방아)', '헝:겊'.

44) 이 지도에 반영된 항목은 《지역어》에서 조사된 어두 장모음 'ㅓ:'를 가진 어형 전체로, 다음과 같다. '거:머리', '거:지', '덤:', '섣:달', '설:', '써:레', '억:새', '언:제', '엉:덩이', '점:심', '처:녀', '헝:겊'.

만 그 외에는 대개 2~30%에 그친다.

이처럼 'ㅓ: 〉 ㅡ:'의 고모음화는 《자료집》에서 《지역어》로 이행하면서 실현 비율이 크게 떨어진 것이 눈에 띈다. 후술하겠지만 비어두 'ㅓ 〉 ㅡ'나 어두 단모음 'ㅐ 〉 ㅣ'의 경우, 《자료집》과 《지역어》의 편차가 크지 않다. 모든 유형의 고모음화에 표준어의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면 'ㅓ: 〉 ㅡ:' 고모음화의 약화에 관여하는 또다른 요소가 있을 것이다. 어두 장모음 'ㅐ:'의 경우, [지도 15]에서 알 수 있듯이 음장의 실현에 의한 고모음화가 《자료집》의 시기에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 고모음화를 촉발하는 음장이 소실되면서 중부 방언에서 나타나는 장모음의 고모음화가 크게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음절의 구조나 선행 자음 등의 음운론적 요소가 표준어의 영향 및 음장의 소실을 촉발하여 'ㅓ: 〉 ㅡ:' 고모음화의 약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지역어》에서 'ㅓ: 〉 ㅡ:'의 환경이 될 수 있는 어형을 음운론적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이들이 고모음화 실현 또는 그 약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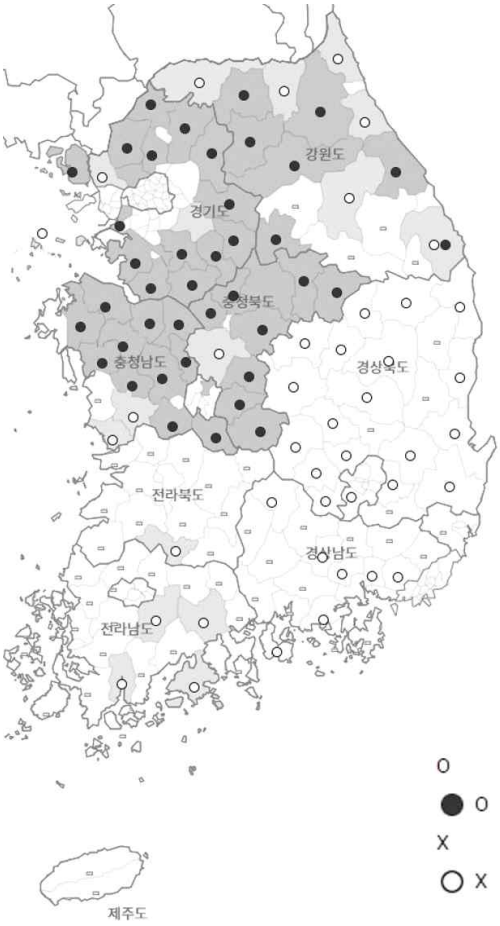
개음절은 '거머리', '거지', '써레', '처녀', 폐음절은 유음을 말음으로 가진 '벌', '설', 비음 'ㄴ'을 말음으로 가진 '언제', 비음 'ㅁ'을 말음으로 가진 '점심', 비음 'ㅇ[ŋ]'을 말음으로 가진 '엉덩이', '헝겊', 장애음을 말음으로 가진 '섣달', '억새'가 있다. 이 중 고모음화가 가장 많이 실현되는 항목은 써레(27/77)이며, 섣달·헝겊(18/77), 엉덩이~엉덩방아((14/77) 순으로 이어진다. 고모음화가 가장 적게 일어나는 항목은 벌(0/77), 처녀(4/77), 언제(5/77) 순이다. 《지역어》의 자료를 통해 살펴볼 때는 고모음화가 어간의 음절 수나 개음절·폐음절, 종성의 종류, 선행 자음의 성격 등에 특별히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② ㅕ: 〉 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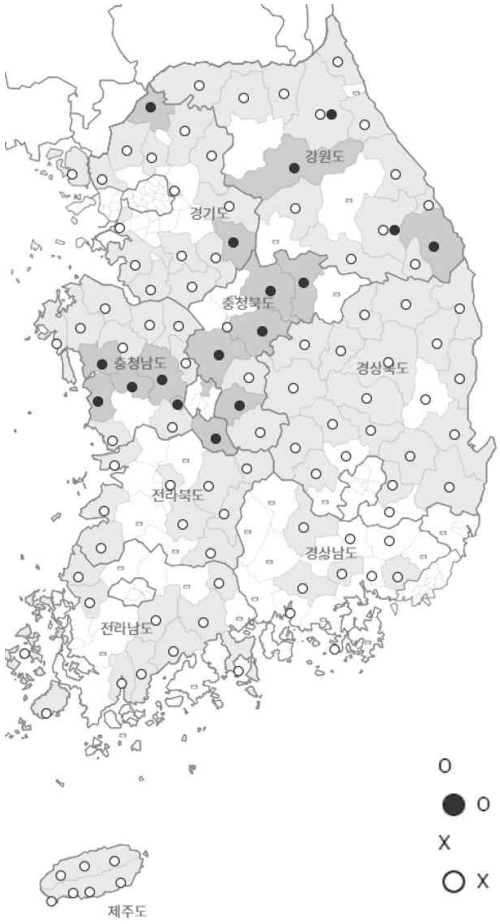
단모음 'ㅓ: 〉 ㅡ:'에서뿐만 아니라 이중모음에서도 [ə] 〉 [ɨ]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yə] 〉 [yɨ], 즉 'ㅕ: 〉 ㅖ:' 의 변화로 나타난다.[45] 여기

45) 여기에서 살펴본 어형은 다음과 같다. (밑줄은 《지역어》에서도 조사된 어형)
으:치(Ⅰ.444), 을:쇠(Ⅲ.03보⑤), 응:감(Ⅲ.03보④), 읏:보다(Ⅰ.694보①, ②)(《지

서는 ‘열쇠’의 방언 지도를 통해 《자료집》과 《지역어》에서 ‘ㅖ:’의 고모음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지도 17] ‘ᅴ’형의 분포(열쇠, 자료집)



[지도 18] ‘ᅴ’형의 분포(열쇠, 지역어)

《자료집》에서 ‘ㅖ: 〉 ᅴ:’의 고모음화를 보이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20) ㄱ. 을:쐬[yɨ:ls’ö] - 강원 원주·인제·춘천·홍천, 경기 가평·양평·용인·포천·화성, 충남 공주·금산·논산·당진·대

역어》에서는 읏:듣다), 거울(Ⅰ.228, Ⅰ.228보①, ②, ③), 블:(Ⅰ.552), 믄:화(Ⅰ.192보②)

단, ‘거울’의 방언형 ‘면:경’은 ‘ㅖ: > ㅔ: > ㅣ:’와 관련되는 지역이 더 많으므로 ‘ㅔ: > ㅣ:’에서 다루기로 한다.

덕·보령·서산·예산·천안·청양·홍성, 충북 보은·옥천·음성·중원·진천

ㄴ. 을:쒜[yɨ:ls'we] - 경기 고양

ㄷ. 을:쎄[yɨ:ls'e]~을:쌔[yɨ:ls'ɛ] - 경기 시흥·양주·여주·이천·파주, 충남 연기, 충북 단양

ㄹ. 을:때[yɨ:lt'ɛ] - 강원 강릉·삼척·화천, 경기 강화·안성·연천·평택, 충남 아산, 충북 괴산·영동·제천

(20)은 '열쇠'의 1음절 핵모음이 고모음화한 사례이다. (10ㄱ)의 '을:쐬'형이 가장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강원 영서·경기·충남·충북에서 모두 발견된다. (20ㄴ), (20ㄷ)은 2음절의 모음이 이중모음으로 발음되거나, 이중모음에서 또다시 활음이 탈락한 형태로 실현되는 예들이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분포한다. (20ㄹ)은 '열대'의 1음절 핵모음이 상승한 것으로, '열쇠'보다는 수효가 적지만 중부 방언권에 고루 분포한다.[46]

한편 고모음화를 입지 않은 '열쇠'형도 모두 어두 장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전북을 중심으로 '쇳대'형으로 실현되는 지역이 많아 'ㅖ: 〉 ㅞ:'의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점이 아쉬우나, 충남 서남부나 전북 남부, 경북 등에서 나타나는 '열쇠' 형이 어두 장모음을 유지하고 있지만 'ㅖ: 〉 ㅞ:' 고모음화를 겪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ㅖ: 〉 ㅞ:' 고모음화는 경기도를 위시한 중부 방언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지역어》에서 드러나는 'ㅖ: 〉 ㅞ:'의 분포를 살펴보자.

(21) ㄱ. 을:쐬 - 강원 홍천, 충남 공주·청양, 충북 괴산·옥천

ㄴ. 을:쐐 - 충남 홍성

46) 한가지 특기할 점이 있다면 'ㅖ: > ㅞ:'의 변화를 겪은 어형은 반드시 어두 장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앞서 살펴본 '거머리'나 '헝겊'도 고모음화를 겪을 때에는 어두 장음이 실현되었겠지만, 이후 음장이 변별력을 잃은 사례도 《자료집》에서부터 드물게 발견되었다. 그러나 'ㅖ: > ㅞ:'에서는 음장을 잃은 사례가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응:감{영감}', '읒:- {엿-(보다)}, 으:치{여치}' 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두 음절에 초성이 없는 점이 음장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ㄷ. 을:쎄~을:쌔 - 강원 삼척, 경기 여주·연천, 충남 계룡·금산·대덕·보령, 충북 제천·청주·충주

(21)을 살펴보면 《지역어》에 이르러서는 'ㅖ: 〉 ㅞ:'의 세력이 명백히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중심지를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발적으로만 보고되었으며, 충남·충북에서는 어느 정도 세력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모음화를 입지 않은 지역을 살펴보면, '열쇠' 형은 대체로 어두 장음을 유지하고 있으나 'ㅖ: 〉 ㅞ:'의 고모음화는 겪지 않는 사실이 관찰된다. 지역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ㅝ: 〉 ㅙ:'에 비해 'ㅖ: 〉 ㅞ:' 고모음화의 세력이 더욱 빨리 약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ㅝ: 〉 ㅙ:'는 선행하는 자음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반면 'ㅖ: 〉 ㅞ:'는 선행 자음이 없거나 양순음인 경우에만 일어난다. 이러한 환경의 제약은, 방언 화자들이 동일하게 교육이나 표준어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ㅖ: 〉 ㅞ:' 고모음화가 'ㅝ: 〉 ㅙ:'보다 먼저 세력을 잃게 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자료집》에서 나타나는 방언 분포를 통해 'ㅖ: 〉 ㅞ:'의 중심지를 찾아보기로 한다. 먼저 장음 'ㅖ:'의 상승은 중부 방언권 전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47] 이는 '열쇠'뿐 아니라 다음 단어들에도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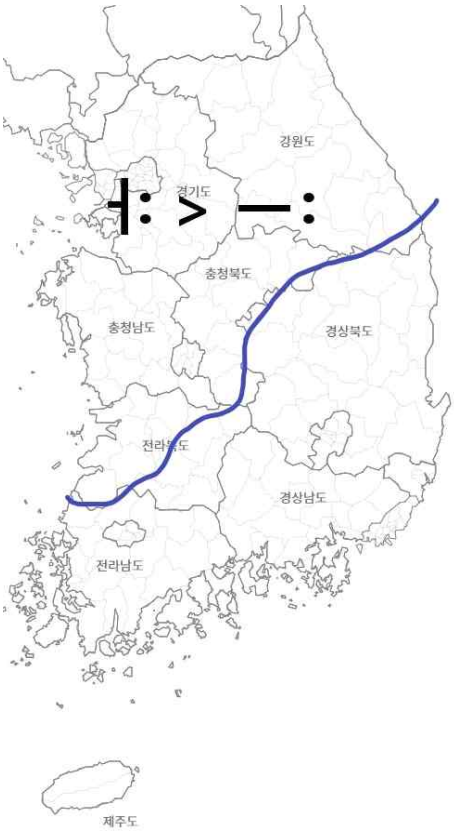
(22) 읗:감{영감}, 읒:-{엿-(보다)}, 으:치{여치}, 블:{별}, 믄:화{면화}

《자료집》의 'ㅖ: 〉 ㅞ:'는 중부 방언권 전체에서 적극적으로 실현되는데, 선행 자음이 없는 경우에는 중부 방언권의 전 지역에서 활발히 일어난다. 그 중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선행자음이 있는 '블:'이나 '믄:화'의 경우에도 'ㅖ: 〉 ㅞ:'가 실현되는 지역이 실현되지 않는 지역보다 더 많을 정도로 'ㅖ: 〉 ㅞ:'의 경향이 강하므로, 이 지역을 'ㅖ: 〉 ㅞ:'의 중심지로 판단할 수 있겠다.

47) 강원 영서 지역의 남부, 즉 횡성·영월·정선·태백에서는 '쇳대' 형이 보고되었기에 'ㅖ: > ㅞ:'를 살필 수 없었다. 그러나 '엿보다', '영감' 등에서는 'ㅖ: > ㅞ:'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에서 《지역어》로 이행하면서 'ㅕ: 〉 ㅖ:'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면 'ㅓ: 〉 ㅡ:'의 변화와 그 양상이 흡사하다. 음장의 소실이나 표준어 도입 등의 이유로 서울·경기 지역에서 고모음화의 영향력이 가장 먼저 약해지고, 인접 지역도 서서히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도 18]을 통해 《지역어》에서는 충청남도 북부부터 'ㅕ: 〉 ㅖ:'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시작된 개신파가 남쪽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까닭이다. 한편 강원도는 서울·경기에서 시작된 개신 이외에도 경상북도 북부의 영향 역시 받는 것으로 보인다. 경북과 접경한 강원 남부에서도 'ㅕ: 〉 ㅖ:'가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여, 결국에는 강원 내륙의 홍천에서 'ㅕ: 〉 ㅖ:'가 마지막까지 유지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어두 장모음 'ㅓ:' 또는 'ㅕ:'가 각각 'ㅡ:', 'ㅖ:'로 고모음화를 입는 양상을 《자료집》과 《지역어》의 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자료집》의 시기에는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 방언권 전체가 고모음화를 입었지만, 《지역어》에서는 오히려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고모음화의 영향력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도 19]《자료집》의 'ㅓ: 〉 ㅡ:'

[지도 20]《지역어》의 'ㅓ: 〉 ㅡ:'

[지도 19]와 [지도 20]은 어두의 'ㅓ: 〉 ㅡ:' 고모음화 양상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료집》에서는 중부 방언권 전체와 전북 서부까지 영향을 미치던 어두 장모음 'ㅓ'의 고모음화가 《지역어》의 시기에는 세력이 크게 줄어든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3.1.2. 장모음 ㅗ: 〉 ㅜ:

우선 《자료집》에 보고된 어형들만 보았을 때, 어두의 'ㅗ: 〉 ㅜ:' 변화는 매우 산발적으로 일어난다. 아래 몇 가지 예를 제시한다.

(23) ㄱ. 수:경{소경} - 충남 서산
ㄴ. 두:치{도끼} - 충남 보령

ㄷ. 뭇:하다{못하다} - 경기 양평·옹진, 충남 서산·당진·아산·예산·홍성·청양

‘뭇:하다’가 8개 지역에서 발견되기는 하나 어두에서 고모음화를 겪는 장모음 ‘ㅗ’의 수효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 논의를 참고하여 ㅗ: 〉 ㅜ: 의 중심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유필재(2003: 74-75)에 따르면 ‘ㅗ: 〉 ㅜ:’의 변화는 19세기 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현대 서울 지역어에서도 모든 화자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제시된 사례들을 보면 선행자음이나 음절수에 관계없이 ‘ㅗ: 〉 ㅜ:’가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I)〉을 토대로 고모음화의 실현 양상을 살핀 강희숙(2005: 23)에서는 서울말에서 나타나는 ‘ㅗ 〉 ㅜ’ 변화의 적극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두의 ‘ㅗ 〉 ㅜ’라고 밝힌 바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비어두의 ‘ㅗ 〉 ㅜ’만이 일어나는 데 비해 서울 지역어에서는 어두의 장음 ‘ㅗ:’까지도 고모음화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때 예시한 것은 ‘굴:목{골목}’, ‘둔:{돈}’, ‘뭇:허다{못하다}’, ‘숙:{속}’인데, 모두 어두의 장음 ‘ㅗ:’가 상승한 것으로 유필재(2003)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서울 이외에도 이병근·박경래(1992: 20)에서는 경기 방언에서 어두 장모음이 상승하는 것은 노년층에서는 일반적인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곽충구(2003: 78)에서는 충남 서부 지역에서 ‘ㅗ 〉 ㅜ’의 고모음화가 일반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처럼 ‘ㅗ: 〉 ㅜ:’는 한때 서울 및 경기·충남 서부에까지 이르는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다른 유형의 고모음화보다 훨씬 빨리 소멸의 과정을 거쳤다. 현대국어 단모음의 조음 위치에 대한 연구인 신우봉·신지영(2022)에 따르면 ‘ㅗ’와 ‘ㅜ’간의 거리는 상당히 좁으므로 ‘ㅗ → ㅜ’로의 변화나 ‘ㅜ → ㅗ’로의 변화 또는 ‘ㅗ, ㅜ’의 합류가 일어나지 못할 조건이 아니다. 일례로 비어두의 ‘ㅗ 〉 ㅜ’는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다양성》에 이르면 이전 시기에는 ‘ㅗ 〉 ㅜ’의 변화를 보이지 않던 지역의 20대에서도 비어두 문법형태소의 ‘ㅗ 〉 ㅜ’가 적극적으로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의 ‘ㅗ: 〉 ㅜ:’는 《지역어》와 《다양성》을 거치며 영향력을 확실히 잃은 것으로 보인

다. 다른 장모음의 고모음화와는 대비되는 이러한 과정의 근간에는 사회언어학적인 이유가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학근(1973: 281)에서는 어두의 'ㅗ 〉 ㅜ'가 나타나는 것은 계층에 따른 언어적 특징이라고 한 바 있고, 유필재(2003: 75)에서도 'ㅓ: 〉 ㅡ:', 'ㅖ: 〉 ㅣ:'는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ㅗ: 〉 ㅜ:'는 수의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나 'ㅗ: 〉 ㅜ:'의 변화를 입지 않은 화자들은 'ㅗ: 〉 ㅜ:' 고모음화형을 '자신들보다 낮은 계층의 화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유형의 고모음화가 《자료집》을 거쳐 《지역어》에 이르기까지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ㅗ: 〉 ㅜ:'가 그 영향력을 빠르게 잃은 데에는 이러한 사회언어학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유필재(2003)에서는 'ㅚ: 〉 ㅟ:' 고모음화에 대해서도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위:다{외다}', '뒤:게{되게}', '쥐:다{죄다}' 등의 고모음화가 나타난다. 장모음은 아니지만 《자료집》에서는 전북 일부 지역에서 실현되는 '뒤아지' 형이 보고되기도 하였다.[48] 그런데 이러한 'ㅚ(:) 〉 ㅟ(:)'의 고모음화는 사례가 매우 적고 단모음 [ö] 〉 [ü]의 변화인 것이 확실하지도 않기 때문에 고모음화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ㅚ', 'ㅟ'와 관련한 논의는 이러한 예를 제시하는 것에 그친다.

3.1.3. 장모음 ㅖ: 〉 ㅣ:

① ㅖ: 〉 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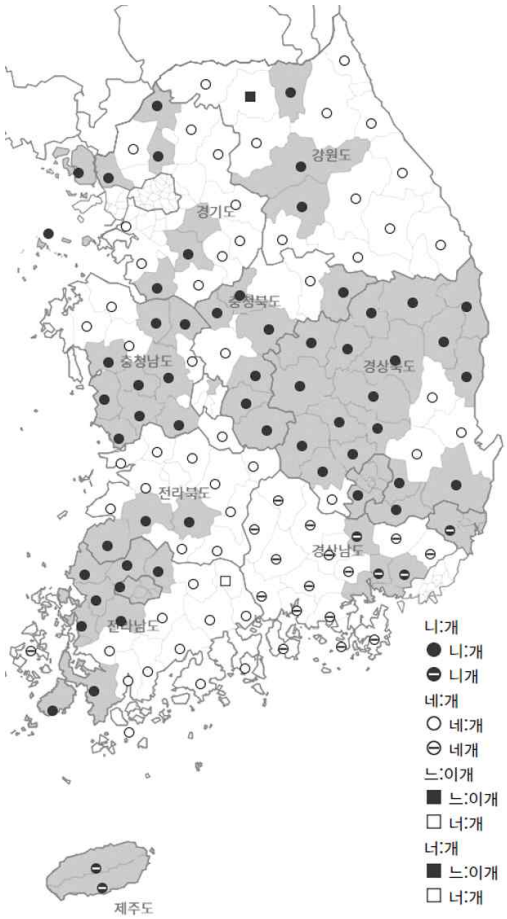
먼저 '네:개'의[49] 방언 지도를 통해 ㅖ: 〉 ㅣ: 의 변화를 기술한다.[50]

---

48) 《지역어》에서는 이와 같이 'ö > ü' 고모음화로 보일 만한 예가 발견되지 않는다.

49) '닛{넷}'을 살펴보는 것이 더 좋겠지만, 해당 어형은 동남 방언에서 [너이]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아 'ㅖ: > ㅣ:'의 양상을 더 정확히 살필 수 있는 '네 개'로 선정하였다.

50) 여기에서 살펴본 어형은 다음과 같다. (밑줄은 《지역어》에서도 조사된 어형)
넷:(Ⅰ.369), 셋:(Ⅰ.368A), 세:수대야(Ⅰ.225), 제:(~제:사)(Ⅲ.05-9)
떼:다(Ⅰ.676A), 메:다(Ⅰ.686A), 베:다(Ⅰ.124①), 세:다(Ⅰ.376) 게:(Ⅰ.419)



[지도 21] ‘ㅣ’형의 분포(네개, 자료집)

[지도 22] ‘ㅣ’형의 분포(네개, 지역어)

먼저 《자료집》의 ‘ㅖ: 〉 ㅣ:’ 고모음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1)]

(24) ㄱ. 니:개 – 강원 양구·홍천·횡성, 경기 강화·광주·김포·양주·연천·옹진·용인·평택, 경북 전역(청송·영천·포항 제외), 전남 광산·나주·담양·무안·영광·장성·진도·함평·해남, 전북 고창·임실·정읍, 충남 공주·논산·대덕·보령·부여·서천·아산·천안·청양·홍성,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음성·진천

ㄴ. 니개 – 경남 김해·울주·창녕·창원, 제주 서귀포·제주

51) 수사 또는 수관형사 ‘셋’, ‘넷’ 계열의 경우 북한에서도 고모음화를 보인다. ‘닛{넷}(황남 벽성)’, ‘시끼{세 끼}(황북 연탄)’ 등이 관찰된다.

(24ㄱ)은 어두의 장음 'ㅐ:'가 'ㅣ:'로 고모음화한 어형이다.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며, 특히 경북과 충남·충북 지역에서 우세한 분포를 보인다. 한편 (24ㄴ)은 음성 실현이 단음으로 되는 경우이다. 경남 일부 지역과 제주에서 나타나는데, 이들 지역은 모두 음장이 운소로서 기능하지 않는 곳이다. '니개'형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데, 먼저 상성인 '네'의 길이에 의해 'ㅐ: 〉 ㅣ:' 고모음화가 일어난 이후 음장을 잃었다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니개' 또는 '닛'형이 문헌 자료를 통해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는 이 지역에서는 어두 장음의 실현이 고모음화의 필요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어두 단모음 'ㅐ 〉 ㅣ'의 고모음화로 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경북과 접경한 창녕이나 울주의 경우에는 어두 단모음 'ㅐ'가 'ㅣ'로 고모음화하지만 김해나 창원, 제주의 '니개'형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자료집》에서 고모음화를 입지 않는 어형을 살펴보면, 경남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두 장음을 가지고 있는 '네:개'로 실현된다. 강원·경기·전북은 고모음화를 입지 않는 어형이 우세하고, 전남은 동부를 중심으로 고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경남의 경우 고모음화를 입은 어형과 입지 않은 어형 모두 어두의 장음이 없다. 따라서 경남 서부의 비고모음화 지역에서는 '네개'가 실현된다.

《지역어》에서는 'ㅐ: 〉 ㅣ:' 형이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나타난다.

(25) ㄱ. 니:개 – 경북 경산·고령·구미·문경·상주·영주·청도, 전남 고흥·나주·순천·완도·장성·진도·화순

ㄴ. 니개 – 경북 군위·영일·울진·포항, 경남 창녕·합천, 충남 대덕·보령, 전북 무주·전주, 제주 건입

《자료집》과는 달리 《지역어》에서는 '니:개' 형의 세력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전국적으로 분포하던 '니:개' 형은 (25ㄱ)과 같이 경북과 전남에서만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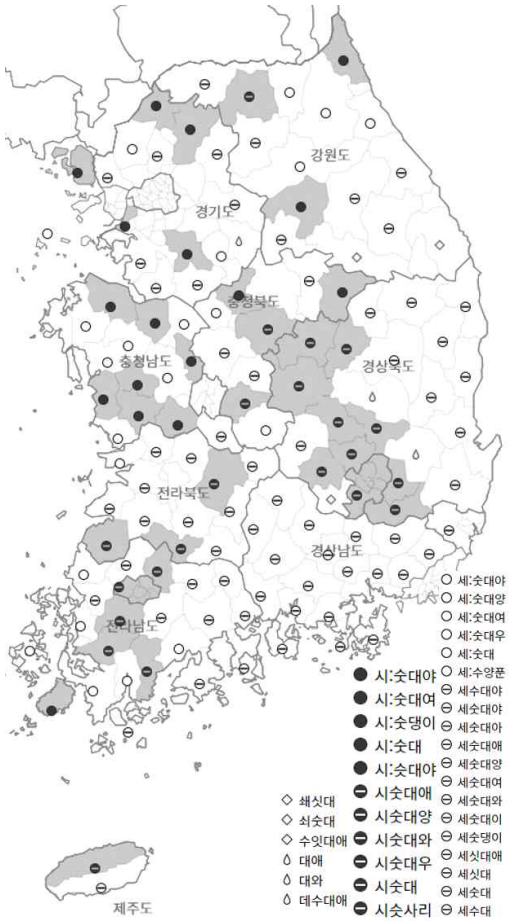
찰된다. 한편 《자료집》에서 ‘니개’는 경남과 제주에서만 관찰되었는데, 《지역어》에 이르면 (25ㄴ)과 같이 경북·경남·충남·전북·제주에서 산발적으로 관찰된다.

이제 《지역어》에서 고모음화를 입지 않는 어형을 확인해 보자. 일단 전국에서 ‘네:개’, ‘네개’가 관찰된다. 그 중 강원·경기·충북·전남에서는 어두 장음이 유지되는 ‘네:개’ 형이 우세하며, 충남·전북·경남에서는 어두의 장음이 실현되지 않는 ‘네개’형이 우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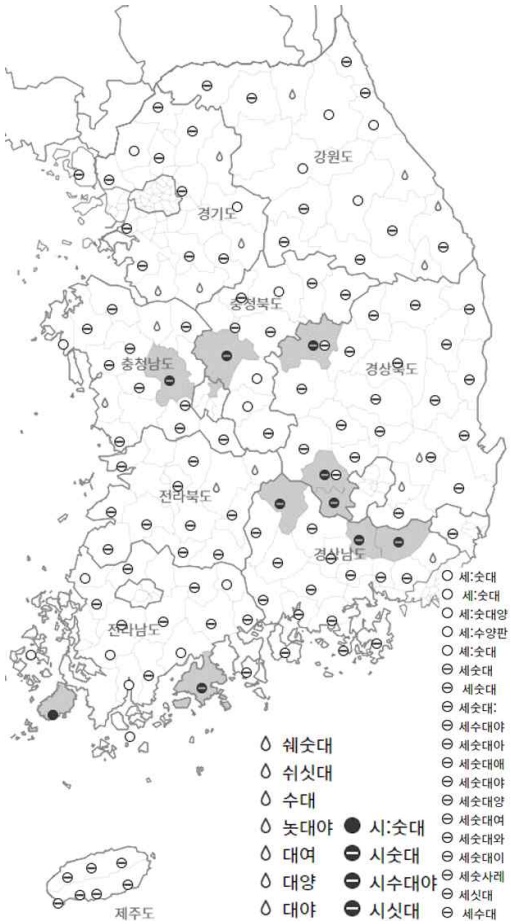
[지도 21]과 [지도 22]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정리하자면 중부 방언에서는 음장의 실현과 관계없이 ‘ㅖ: 〉 ㅣ:’ 고모음화가 거의 사라졌고, 동남 방언 및 서남 방언에서는 음장의 실현과 무관하게 ‘ㅖ: 〉 ㅣ:’ 또는 ‘ㅖ 〉 ㅣ’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52]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충남의 고모음화 양상이다. 충남 지역은 《자료집》에서는 어두 장음이 실현되며 고모음화를 겪은 형태가 우세하였는데, 《지역어》에서는 장음의 실현을 잃고 고모음화 역시도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다른 지역은 장음이 남아 있으나 고모음화를 겪지 않은 형태, 고모음화를 겪었으나 음장을 잃은 형태가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데 비해 충남은 음장과 고모음화의 소멸이 강한 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이 지역은 장음의 음성 실현이 고모음화의 실현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라고 하겠다. 또 [지도 22]에서 드러나듯이 충남을 제외한 경기·강원·충북·전북의 경우, ‘네:개’의 실현이 어두 장음을 잃은 ‘네개’보다 훨씬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니:개’로의 고모음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전 시기에는 음장의 실현에 따른 구개도의 축소가 고모음화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였지만 《지역어》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고모음화의 실현이 드물어진 것이다.

어두 장음을 가진 어형 중 ‘싯:{셋}’, ‘닛:{넷}’, ‘시:개{세 개}’ 등은 모두 ‘니:개{네 개}’와 비슷한 방언 분포를 보인다. 《자료집》과 《지역어》에서 어두 장음 ‘ㅖ: 〉 ㅣ:’의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어형 중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바로 ‘시:숫대(야){세숫대야}’ 형이다.

52) 전남 방언에서의 고모음화형은 여전히 장음을 실현하는 ‘니:개’형이 많지만, 전북 지역이나 충남 지역에 드물게 다나타는 고모음화형은 음장을 잃은 형태이다.



[지도 23] 'ㅣ'형의 분포
(세숫대야, 자료집)



[지도 24] 'ㅣ'형의 분포
(세숫대야, 지역어)

먼저 《자료집》의 방언 분포를 살펴보자.

(26) ㄱ. 시:숫대~시:숫대야~시:숫대여 – 강원 고성·횡성, 경기 강화·시흥·연천·용인·포천, 전남 진도, 충남 논산·당진·보령·부여·아산·연기·청양, 충북 단양·음성

ㄴ. 시숫대~시숫대애~시숫대양 – 강원 화천, 경북 경산·군위·달성·문경·상주·선산·성주·예천·청도·칠곡, 전남 광산·나주·담양·영암·장흥, 전북 고창·순창·진안, 제주

제주, 충북 괴산·옥천

(26ㄱ)을 보면, 전남 진도를 제외하고는 장음의 실현으로부터 촉발된 'ㅖ: 〉 ㅣ:'의 변화는 모두 중부 방언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 21]에서 '네:개 〉 니:개'의 변화가 경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관찰된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26ㄴ)은 어두 장음이 없는 '시숫대' 류가 실현되는 지역들인데, 대부분이 동남 방언권이나 서남 방언권에서 보고된 어형이다.

이제 《자료집》에서 고모음화를 겪지 않은 어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ㅖ: 〉 ㅣ:'가 나타나는 중부 방언에서는 고모음화를 겪지 않은 '세:숫대' 형이나, 어두 장음이 없는 '세숫대' 형이 모두 나타난다. 동남 방언권과 서남 방언권에서는 '세:숫대' 형이 나타나지 않으며 주로 어두 장음이 없는 '세숫대' 형으로만 나타난다. 다만 전남 서부 지역에서는 '세:숫대' 형이 관찰된다.[53]

다음으로는 《지역어》에 나타나는 'ㅖ: 〉 ㅣ:' 고모음화의 양상을 확인해 보자.

(27) ㄱ. 시:숫대 - 전남 진도
ㄴ. 시숫대~시싯대 - 경남 거창·밀양·창녕, 경북 고령·문경·성주, 전남 고흥, 충남 공주·대덕, 충북 청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7ㄱ)과 같이 어두 장모음 'ㅖ:'가 고모음화하는 경우가 전남 진도에서만 드러난다는 것이다. (27ㄴ)에 기재된 것처럼 경북 남부와 경남 북부, 충청 중부에 걸쳐 산발적으로 'ㅣ' 형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들은 모두 음장을 잃은 형태로 확인된다.

《지역어》에서 고모음화를 겪지 않은 어형은 대체로 어두에서 장음이 실현되지 않는 '세숫대' 형으로 나타나는데, 중부 방언권과 전남 서부에서 산발적으로 어두 장음이 유지되고 있는 '세:숫대'가 나타난다. 《자료집》의 시기에

53) 완전히 동일한 어형은 아니지만, 북한 방언에서도 '시수{세수}(황북 금천·평산, 황남 배천·연안·청단)'가 나타난다.

고모음화를 입었던 지역은 오히려 음장을 잃고 '세숫대'로 실현되는 반면 《자료집》에서 음장은 있으나 고모음화를 겪지 않았던 지역은 《지역어》에서도 대체로 이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지도 21]에 나타나는 고모음화형은 모두 장음의 고모음화이기 때문에 같은 기제로 일어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도 23]과 함께 살펴보면 서로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 [지도 21]과 [지도 23]에서 중부 방언은 장음이 실현되는 'ㅖ:'가 'ㅣ:'로 상승하는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이 지역의 고모음화는 음성적인 특성에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남 방언과 서남 방언의 경우, 어두 장음이 강하게 실현되는 '니:개'는 장음이 실현되면서 'ㅖ:'가 상승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방언권에서 '시숫대'는 어두 장음의 실현과 무관하게 고모음화를 입은 형태로 나타난다. 즉 이 지역의 고모음화는 어두 장음의 실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 것이다. 다만 후술할 '면경'의 고모음화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서부 서남 방언에서 하나의 공고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고모음화형은 장음이 실현되는 어형들이며, 장음이 실현되지 않는 '시숫대'의 경우 그 세력이 더욱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2.3.에서 다룰 어두 단모음 'ㅖ 〉 ㅣ'와도 그 분포가 상이한바, 남부 방언에서 나타나는 'ㅖ:'의 고모음화형과 'ㅖ'의 고모음화형은 하나로 묶어 분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지도 21]~[지도 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네개'와 '세숫대야'의 고모음화형 분포로부터 'ㅖ: 〉 ㅣ:'의 중심 지역을 찾아보자. 먼저 중부 방언과 동남·서남 방언의 'ㅖ: 〉 ㅣ:'는 그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다른 중심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료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부 방언에서의 'ㅖ: 〉 ㅣ:' 중심지는 충남이라고 할 만한데, 경기·충북·강원 영서 지역보다 고모음화가 널리 나타나며, 드물지만 《지역어》의 시기까지도 고모음화형이 유지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동남·서남 방언의 'ㅖ: 〉 ㅣ:'에 대해 살펴보면, 《자료집》에서는 경북을 중심으로 '옛:날'에서도 고모음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8) ㄱ. 잇:날 - 경북 구미·김천·문경·봉화·영양·예천, 충북 단양

ㄴ. 엣:날 - 경북 나머지 지역, 경기 양평, 충북 충주, 전북 장수
ㄷ. 엣날 - 전북 고창·부안, 전남 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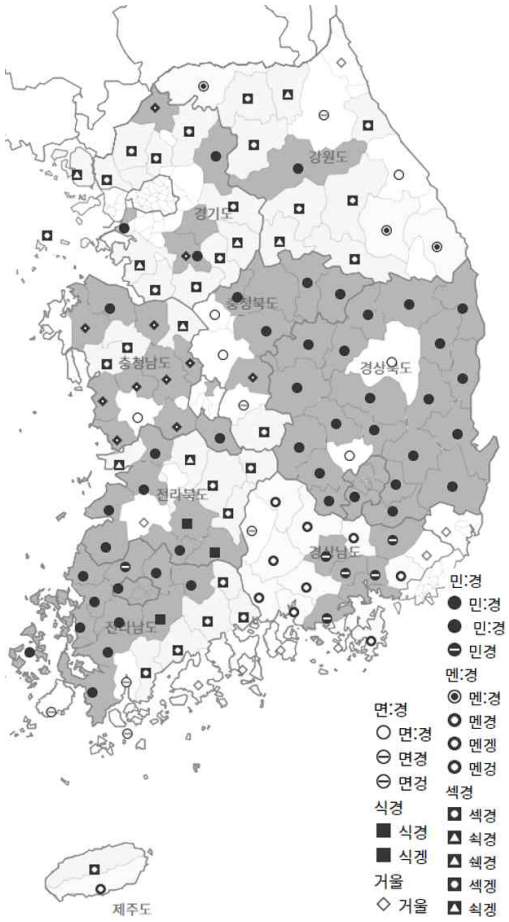
(28ㄱ)의 '잇:날'은 (28ㄴ)의 '엣:날'이 고모음화를 입은 어형이다. 경북 지역은 '옛:'이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는 예가 없기 때문에 이를 'ㅖ: 〉 ㅣ:'의 고모음화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잇:날'은 경북 일부 지역과 충북 단양에서만 관찰되는데, 《자료집》에서의 충북 단양 자료는 고모음화에 있어 경북과 그 양상을 같이하므로 이 지역에서 '잇:날'이 등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28ㄴ)의 '엣:날'형이나 (28ㄷ)의 '엣날'형은 경북 이외에도 드물게 분포하고 있지만, 고모음화를 입지는 않는다. '옛:날'에 적용되는 고모음화는 경북 지역에서만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즉 다른 지역보다 'ㅖ: 〉 ㅣ:'가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중심 지역은 경북이라고 할 수 있겠다.[54]

② ㅕ: 〉 ㅖ: 〉 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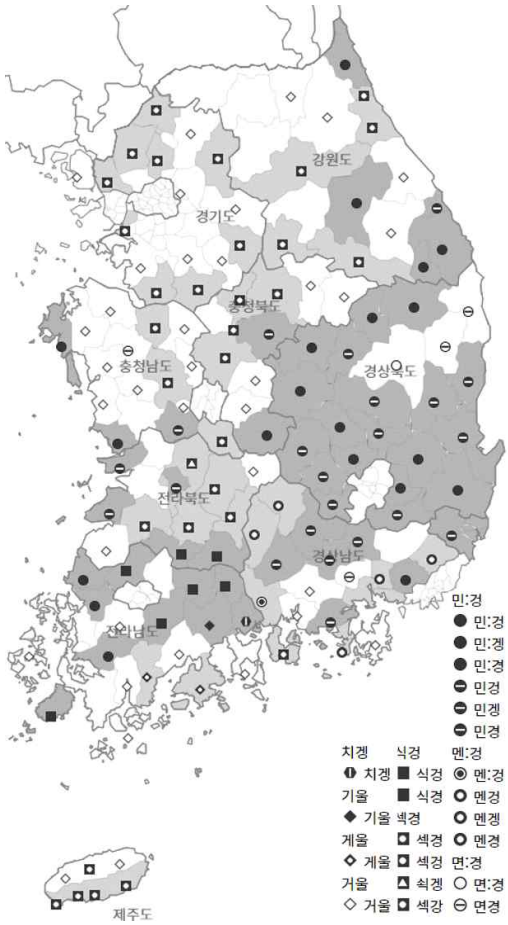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면:경{거울}'의 방언 분포와 그 변화를 살핀다.[55]

54) 영남 문헌어를 대상으로 한 백두현(2992: 144)에서도 'ㅖ>ㅣ' 고모음화는 경남보다 경북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며, 그 중에서도 경북 북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하였다. 19세기 후기~20세기 전기 경상 방언을 반영한 문헌을 대상으로 한 김예니·김명주(2014: 117)에서는 한자의 음과 훈에서도 'ㅖ>ㅣ'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5) 여기에서 살펴본 어형은 다음과 같다. (밑줄은 《지역어》에서도 조사된 어형)
거울(Ⅰ.228, Ⅰ.228보①, ②, ③), 블:(Ⅰ.552)



[지도 25] ‘ㅣ’형의 분포(면경, 자료집)



[지도 26] ‘ㅣ’형의 분포(면경, 지역어)

‘면경’의 경우는 보다 복잡하다. 먼저 《자료집》에서 나타나는 ‘면경’의 방언 분포를 살피기로 한다.

(29) ㄱ. 면:경 – 강원 강릉, 경북 안동·칠곡, 충남 부여, 충북 진천·청주
ㄴ. 면경 – 강원 인제, 경남 함양, 전남 강진·완도·진도, 충북 옥천
ㄷ. 멘:경 – 강원 삼척·정선·철원
ㄹ. 멘경~멘겅~멘겡 – 경남 거제·거창·김해·사천·산청·진주·창녕·하동·합천, 제주 서귀포
ㅁ. 민:경 – 강원 홍천, 경기 가평·시흥, 경북 전역(안동·칠곡 제외), 전남 곡성·광산·나주·담양·무안·신안·영광·영암·함평·

해남, 전북 고창·김제·부안·순창·익산, 충남 금산·당진, 충북 괴산·단양·음성·제천·중원

ㅂ. 민경 – 경남 고성·밀양·의령·창원·함안, 전남 장성

ㅅ. 믄:경 – 경기 광주·연천·용인, 충남 공주·논산·대덕·보령·서산·서천·아산·연기·청양·보은

ㅇ. 섹경~섹겡 – 강원 양양·영월·춘천·평창·화천·횡성, 경기 고양·김포·안성·양주·양평·옹진·이천·파주·평택·포천, 전남 광양·구례·보성·순천·장흥, 전북 무주·장수·진안, 제주, 충남 예산·홍성·영동

ㅈ. 쇡경~쉑경 – 강원 양구·원주, 경기 강화·여주·화성, 전북 군산·완주, 충남 천안

ㅊ. 식경 – 전남 화순, 전북 남원·임실

ㅋ. 거울 – 강원 고성, 경남 남해·양산·통영, 울산 울주, 전남 고흥·여수, 전북 정읍

(29ㅁ), (29ㅂ), (29ㅅ), (29ㅊ)을 제외한 나머지 어형의 경우 고모음화와는 관련 없지만, '면경'의 실현 양상이 매우 복잡하므로 함께 서술하기로 한다. (29ㄱ)은 '면:경'이 아무런 음운 변화를 입지 않고 실현되는 형태이며, 어두 장음 역시 실현된다. (29ㄴ)은 별다른 음운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어두의 장음만이 소실된 상태이다. (29ㄱ), (29ㄴ) 모두 산발적으로 관찰되므로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고 특정하기 어렵다. (29ㄷ)은 'ㅕ: 〉 ㅖ:'가 일어난 형태로 주로 강원 동해안에서 발견된다. (29ㄷ)이 어두의 장음을 잃으면 (29ㄹ)이 되는데 이는 경남 서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분포한다. (29ㅁ)은 여기에서 주된 분석의 대상이 되는 '민:경', 즉 'ㅕ: 〉 ㅖ: 〉 ㅣ:'가 나타나는 어형인데, 경북 전역을 위시하여 이에 접경한 충북·경남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전남·전북 서부에서도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29ㅁ)에서 어두 음장이 소실되면 (29ㅂ)의 '민경' 형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로 경남 중부에 분포한다.

한편 어두의 'ㅕ:'는 'ㅖ:'로 바뀔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 고모음화하여

‘ᄐᆞ:’가 될 수도 있다. 그 결과가 바로 (29ㅅ)의 ‘믇:경’이다. 이는 충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현되며 강원·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면경’뿐 아니라 ‘석경’류, ‘거울’류도 나타난다. (29ㅇ)은 ‘석경’이 움라우트를 입어 ‘섹경~섹겡’으로 실현되는 경우이며, (29ㅈ)은 [ü]로 실현되거나 이것이 이중모음으로 바뀌는 경우로, 동남 방언을 제외한 전국에 산발적으로 분포한다. (29ㅊ)은 (29ㅇ)의 ‘섹경’이 어두 단모음의 고모음화를 입어 ‘식경’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전남북의 일부 지역에서 보이는 사례이다. (29ㅋ)은 가장 신형인 ‘거울’으로 남해안을 따라 산발적으로 분포한다.

《지역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언 분포를 살필 수 있다.

(30) ㄱ. 면:경 – 경북 안동
ㄴ. 면경 – 경남 함안, 경북 영양·울진, 충남 예산
ㄷ. 멘:겅 – 경남 하동
ㄹ. 멘겅~멘겡 – 경남 거창·창원·통영·함양
ㅁ. 민:경~민:겅~민:겡 – 강원 고성·삼척·태백·평창, 경남 김해, 경북 경산·경주·구미·문경·봉화·상주·영주·영천·칠곡, 전남 영광·영암·함평, 충남 서천·태안, 충북 영동
ㅂ. 민경~민겅~민겡 – 강원 동해, 경남 고성·산청·울주·의령·창녕·합천, 경북 고령·군위·김천·성주·영덕·영일·예천·울릉·의성·청도·청송·포항, 전북 군산·부안·전주, 충남 논산, 충북 괴산
ㅅ. 섹경~섹겅 – 강원 속초·양양·영월·원주·홍천, 경기 가평·김포·시흥·안성·양주·여주·연천·파주·평택, 경남 남해, 전북 임실·장수·정읍·진안, 제주 대정·색달·표선·호근·건입, 충남 공주·금산·아산, 충북 음성·증평·청주·충주
ㅇ. 쇡겡 – 전북 완주
ㅈ. 식경~식겅 – 전남 곡성·구례·장성·진도·화순, 전북 남원·순창

ㅊ. 거울 – 강원 강릉·양구·인제·정선, 경기 강화·구리·양평·용인·이천·포천·화성, 경남 거제·사천·진주, 전남 강진·나주·보성·신안·여수·완도, 전북 고창·무주, 제주 구좌·한경, 충남 계룡·당진·보령·서산·연기·천안·청양·홍성, 충북 단양·보은·옥천·제천

ㅋ. 게울 – 전남 고흥·장흥

ㅍ. 기울 – 전남 순천

먼저 (30ㄱ)~(30ㄹ)의 경우, 《자료집》보다 드문 지역에서 나타난다. (30ㄹ)의 '멘겡' 형은 《자료집》의 시기에는 경남 서부에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지역어》에 이르러서는 특정한 중심 지역 없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민:경'의 경우 (30ㅁ)과 같이 충북과 전북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었지만 경북에서는 아직까지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 전남 서부에서도 음장을 유지하며 고모음화된 상태로 나타난다. 한편 (30ㅂ)은 어두 장음이 소실된 '민경'형인데 이는 경북을 중심으로 경남 중·서부에서도 확인된다. 《자료집》에서는 전남과 전북의 서부에서 동일하게 '민:경' 형이 나타났는데, 《지역어》를 살펴보면 전북에서는 어두의 음장을 잃은 '민경' 형이, 전남에서는 음장을 유지하고 있는 '민:경' 형이 관찰된다. (30ㅅ)의 '섹경' 형태는 전북 동부와 충남 동부, 충북, 경기 북부에 주로 분포한다. '쇡겡' 형은 (30ㅇ)과 같이 전북 완주에서 발견되고, 'ㅖ 〉 ㅣ'의 고모음화를 겪은 '식경'류는 전남 동부에서 확인된다. 《자료집》에서 전남 동부는 'ㅖ 〉 ㅣ'가 나타나지 않던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어》의 '식경'류가 전남 동부에서 나타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김아름(2008: 65)에서는 'ㅖ'와 'ㅐ'가 합류한 지역에서만 단음 'ㅖ 〉 ㅣ'의 고모음화가 나타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자료집》에서 단음 'ㅖ'의 고모음화가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전남 장성·화순, 전북 남원·임실). 그러나 중부 방언의 'ㅖ: 〉 ㅣ:'와 달리 동남·서남 방언의 'ㅖ(:) 〉 ㅣ(:)'에는 음장의 실현이 필요조건으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서남 방언에서 나타나는 [지도 23]의 '시숫대'나 [지도 25]의 '식경', '민경' 등은 'ㅖ'와 'ㅐ'가 합류하지 않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ㅖ 〉 ㅣ'의 예

가 될 것이다.

한편 [지도 25]에서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즉 접경 지역에서는 고모음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역어》를 반영한 [지도 26]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사라져, '민겅', '식겅~식경', '치겡(〈체경)', '기울{거울}' 따위의 어형이 동남 방언과 서남 방언의 접경 지대에서 숱하게 발견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료집》에는 '거울'이 'ㅓ 〉 ㅟ'와 같이 움라우트를 겪거나 'ㅓ 〉 ㅟ 〉 ㅣ'처럼 움라우트 및 고모음화를 겪은 어형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지역어》에서는 '거울'류의 세력이 확장되며 'ㅓ 〉 ㅟ' 또는 'ㅓ 〉 ㅟ 〉 ㅣ'의 변화를 입은 어형도 전남 일부 지역에서 발견된다. (20ㅋ)과 (20ㅍ)의 '게울', '기울'이 그 예로, 각각 전남 고흥·장흥, 전남 순천에서 확인되었다. 즉 현대국어의 제방언에서는 움라우트와 고모음화가 세력을 잃어가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지만, 새로 도입된 '거울'류에도 움라우트와 고모음화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작은 근거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어두 장음 'ㅕ: 〉 ㅟ: 〉 ㅣ:'의 중심은 경북이라 할 만하다. 《자료집》에 실린 어형 중 어두의 장음 'ㅕ:'가 실현되는 것은 3.1.1.②에서 살펴본 '열쇠', '영감', '여치', '엿보다', '별' 등이 있다. 중부 방언에서 이들은 대체로 'ㅕ: 〉 ㅡ:'의 고모음화를 보이며, 이 중 '별'의 경우에는 'ㅕ: 〉 ㅟ:'와 같은 모음 축약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ㅕ: 〉 ㅟ: 〉 ㅣ:'의 변화가 나타난다.[56] 다음 분포를 살펴보자.

(31) ㄱ. 벨: - 경기 화성, 강원 양구, 전북 정읍·순창·남원, 전남 영광·구례·함평·순천·광양·고흥·여수, 경북 포항
ㄴ. 빌: - 강원 횡성·원주·정선, 충북 진천·음성·단양·청원·보은·옥천, 충남 공주·대덕·보령·서천, 전북 익산·정읍·고창, 전

56) 《朝鮮語》에서도 '별:', '벨:', '빌:' 등의 형태가 보고되어 있다. '별:'은 경기, 황해, 함남, 평남·북에 걸쳐 나타나고, '벨:'은 경남 동부와 제주 그리고 전국에 산발적으로 나타나며 '빌:'은 전남 서부, 전북 서부, 경남 북부, 경북, 강원, 충북, 충남에 걸쳐 나타난다. 'ㅟ: > ㅣ:'가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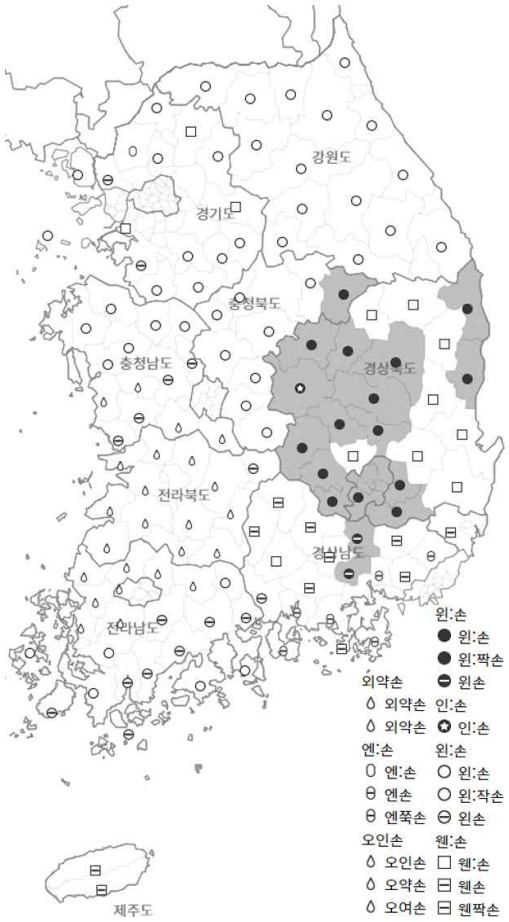
남 담양·나주·화순·영암·진도·강진·장흥·여수, 경북 전역 (칠곡, 포항 제외)

(31ㄱ)은 'ㅕ:'가 'ㅖ:'로 바뀐 결과이며, (31ㄴ)은 (31ㄱ)이 'ㅖ: 〉 ㅣ:'의 고모음화를 입은 어형이다. 이와 같이 'ㅖ: 〉 ㅣ:'는 '민:경'과 '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경북과 그에 접경한 강원·충북 지역에서 관찰되고, 전남 서남부에서 또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앞서 남부 방언의 'ㅖ(:) 〉 ㅣ(:)'는 구개도의 축소를 지향하는 폐구조음 원칙에 따른 현상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ㅖ'와 'ㅐ'의 합류가 가장 먼저 일어난 동남 방언, 그리고 《지역어》에 이르러 'ㅖ'와 'ㅐ'의 합류를 보여주는 전남 서남부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ㅖ/ㅐ' 합류와 남부 방언의 'ㅖ 〉 ㅣ' 고모음화가 모두 폐구조음 원칙을 따른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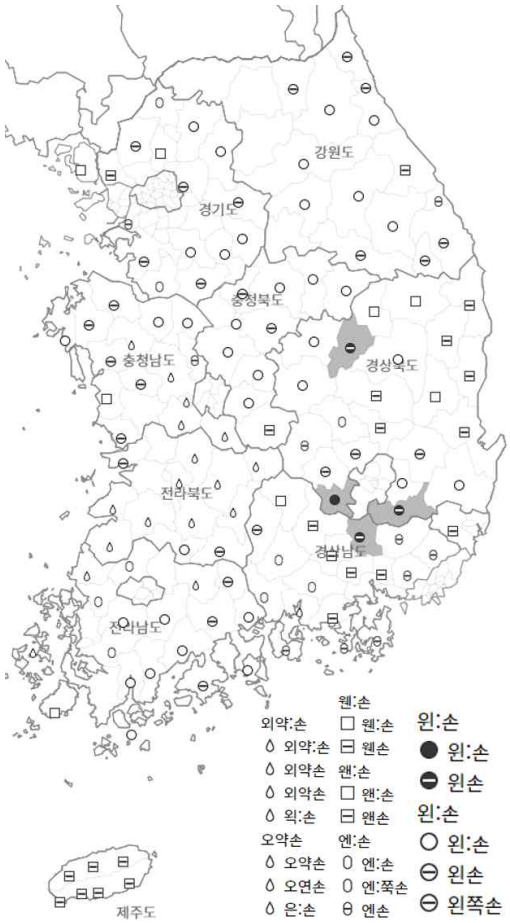
③ ㅞ: 〉 ㅟ:

여기에서는 ㅞ: 〉 ㅟ:의 변화를 살핀다.[57] 이 현상은 주로 중세국어의 하향이중모음 'ㅚ'가 [ö]로 단모음화하지 못하고 [we] 또는 [wE]로 실현되는 지역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ㅞ:'의 고모음화는 동남 방언권의 일부 지역에서 뚜렷하게 관찰되는데, 먼저 '왼손'의 방언 분포를 살펴보자.

57) 여기에서 살펴본 어형은 다음과 같다. (밑줄은 《지역어》에서도 조사된 어형)
왼손(Ⅰ.232), 왼쪽(Ⅰ.232보a), 퇴침(Ⅰ.125-1), 쇠다(Ⅰ.500보)



[지도 27] 'ㅟ'형의 분포(왼손, 자료집)



[지도 28] 'ㅟ'형의 분포(왼손, 지역어)

《자료집》에 나타나는 '왼손'의 고모음화형은 다음과 같이 분포한다.

(32) ㄱ. 윈:손[wi:nson] - 경북 경산·고령·군위·김천·달성·문경·선산·성주·안동·영덕·예천·울진·의성·청도, 충북 단양

ㄴ. 윈손[winson] - 경남 창녕, 함안

ㄷ. 인:손 - 경북 상주

《자료집》의 시기에 경북 지역은 단모음 'ㅟ', 'ㅚ'가 존재하지 않고 'ㅔ', 'ㅐ'의 변별이 없으므로 '왼:손'을 [wE:nson]으로 발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경북 동부 내륙 지역에서 이 [wE:nson]이 나타난다. 그런데 경북 서부와 동해안의 울진, 영덕에서는 [E:]가 고모음화를 입어 [i:]로 실현된다. 이 지역에서 관찰되는 것이 (32ㄱ)의 '윈:손[wi:nson]'이다. 한편 이 형태는 경남 창녕과 함안에서는 (32ㄴ)과 같이 어두의 장음 없이 '윈손[winson]'으로 실현된다. 성조방언 중에서도 상승조·하강조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이 지역어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32ㄷ)과 같이 경북 상주에서는 '인:손'이 관찰되는데, 이는 [wE:nson] 〉 [wi:nson] 〉 [i:nson]의 과정을 거친 결과일 수도 있고 [wE:nson] 〉 [E:nson] 〉 [i:nson]의 과정을 거친 결과일 수도 있다. 접경한 경북의 모든 지역이 '윈손[winson]'을 가진 지역이므로 여기에서 활음 [w]가 탈락했을 가능성도 충분하고, 상주 지역은 '니:개'나 '민:경'에서와 같이 어두 장음 'ㅖ:'가 'ㅣ:'로 고모음화하는 현상이 활발하기 때문에 '웬:손'에서 활음 [w]가 먼저 탈락한 후 'ㅖ: 〉 ㅣ:'의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경북 지역에서 '엔:손'이 발견되지 않는 점, 그리고 접경한 지역에서 모두 '윈손[winson]'이 나타나는 점에 기대어 이를 '웬:손[wE:nson] 〉 윈:손[wi:nson] 〉 인:손[i:nson]'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자료집》에서 고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형이 관찰된다.

(33) ㄱ. 윈:손[ö:nson] – 강원 전역, 경기 가평·강화·안성·양주·여주·연천·옹진·용인·이천·평택, 전남 고흥·구례·신안·여수·영암·해남, 충남 당진·서산·아산·예산·천안·홍성, 충북 전역

ㄴ. 윈손[önson] – 경기 김포·화성, 경남 하동, 전남 강진·광양·보성·순천·완도·장흥·진도·화순, 전북 무주, 충남 공주·부여·서천·연기

ㄷ. 웬:손 – 경기 광주·시흥·양평·포천, 경남 산청, 경북 경주·봉화·영양·영주·영천·청송·칠곡·포항

ㄹ. 웬손 – 경기 고양, 경남 거창·김해·밀양·울주·의령·진주·통영·

함양·합천, 제주 서귀포·제주

ㅁ. 엔:손 - 경기 파주

ㅂ. 엔손 - 경남 거제·고성·남해·사천·창원

ㅅ. 오여손~오약손~외악손~외약손 - 충남 보령·천안·논산·금산, 전남 곡성·나주·담양·무안·영광·장성·함평, 전북 전역(무주 제외)

(33ㄱ)과 (33ㄴ)은 단모음 [ö]를 가진 형태이다. 어두 장음이 실현되는 (33ㄱ)은 중부 방언권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장음이 실현되지 않는 (33ㄴ)은 전남 남부에서 관찰된다. 이들 역시 중모음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ü]로 고모음화할 수 있지만 [지도 27]에서 그러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33ㄷ)과 (33ㄹ)은 'ㅚ'가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는 예로 장음이 실현되는 (33ㄷ)은 경기 일부 지역과 경북에 주로 분포하고 단음으로 실현되는 (33ㄹ)은 경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확인된다. (33ㅁ)과 (33ㅂ)은 이중모음 [we] 또는 [wE]에서 활음 [w]가 탈락한 것으로, 경기 일부 지역과 경남에서 발견된다. 한편 (33ㅅ)은 전북을 중심으로 하여 접경한 충남 남부와 전남 북부에서 발견되는 어형이다.

이제 《지역어》에서의 고모음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34) ㄱ. 윈:손[wi:nson] - 경북 고령

ㄴ. 윈손[winson] - 경남 창녕, 경북 예천·청도

《자료집》에 비해 《지역어》에서는 '윈:손~윈손'형의 세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여전히 경북 남부의 고령·청도, 이와 접경한 경남 창녕에서 '윈:손~윈손'형이 나타나며, 경북 북부에서는 예천에서 '윈손'이 보고되었다. 《자료집》에서 어두 장음이 실현되는 '윈:손'형이 더 많이 관찰되었던 것과 달리 《지역어》에서는 어두 장음이 실현되지 않는 '윈손'이 세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다음은 《지역어》에서 고모음화를 입지 않는 어형들이다.

(35) ㄱ. 왼:손[ö:nson] – 강원 양양·인제·정선·평창·홍천·횡성, 경기 가평·여주·용인·이천·포천, 경북 경산·경주·문경·상주·안동, 전남 강진·광양·나주·보성·여수·완도·장흥·화순, 전북 무주·순창, 충남 아산·천안·태안, 충북 단양·보은·옥천·제천·증평·청주·충주

ㄴ. 왼손[önson] – 강원 고성·삼척·속초·양구·영월·태백, 경기 구리·안성·양평·파주·화성, 경남 함양, 경북 성주·영천·칠곡, 전남 고흥·구례·순천, 전북 군산·남원, 충남 당진·서산·서천·청양·홍성, 충북 괴산·음성

ㄷ. 웬:손~왠:손 – 경기 강화·양주, 경남 거창, 경북 봉화·영주·청송, 전남 진도, 충남 보령

ㄹ. 웬손~왠손 – 강원 강릉, 경기 김포, 경남 고성·울주·의령·창원·함안·합천, 경북 군위·영덕·영양·울릉·울진·의성·포항, 제주 서귀포·제주, 충북 영동

ㅁ. 엔:손~엔:쭉손 – 경기 연천·평택, 경남 산청·진주·하동, 경북 구미, 전남 영암·장성·함평

ㅂ. 엔손 – 강원 동해, 경기 시흥, 경남 거제·김해·남해·밀양·양산·통영, 경북 김천, 충남 연기

ㅅ. 오약손~외약손~외악손 – 충남 계룡·공주·금산·논산, 전남 곡성·신안·영광, 전북 전역(군산·남원·무주·순창 제외)

먼저 단모음 [ö]에 어두 장음이 실현되는 '왼:손'은 (35ㄱ)에서 알 수 있듯이 강원·경기·충북 그리고 전남에 주로 분포하며, 《자료집》에 비해서는 그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는 음장이 소실된 (35ㄴ)형의 실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북에서 고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어형이 《자료

집》에서는 모두 '웬:손'이었다면, 《지역어》에서는 음장이 없는 '웬손~왠손~왼손'이 고루 분포한다. 이외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제 'ᅰ: 〉 ᅱ:'의 중심 지역을 찾아보면 두말할 필요 없이 경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자료집》에서는 '왼손' 이외에도 '왼쪽', '퇴침' 등에서 'ᅰ: 〉 ᅱ:' 고모음화를 발견할 수 있다. 다음 예들을 살펴보자.

(36) ㄱ. 왼:쪽~왼:짝 - 경북 울진·문경·예천·안동·상주·영덕·김천·구미·군위·성주·칠곡·경산·영천·고령·달성·청도

ㄴ. 왼쪽 - 경남 창녕, 함안

(36ㄱ)은 '왼:쪽~왼:짝'으로 어두 음절의 장음이 실현되는 경우이고, (36ㄴ)은 장음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이다. 《자료집》은 음장의 실현이 비교적 정연하므로 경북에서는 '왼:쪽'이, 경남의 해당 지역에서는 '왼쪽'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ᅰ: 〉 ᅱ:'의 고모음화는 초성이 있을 때도 관찰되는데, '퇴침'의 고모음화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37) ㄱ. 퉈:침[thwi:chim~thwi:chim] - 경북 고령·봉화·영양·포항·달성·청도·칠곡

ㄴ. 퉈침[thwichim] - 경북 영주·의성·청송

ㄷ. 티:침[thi:chim] - 경북 구미·김천·문경·상주·성주·경산

ㄹ. 티침[thichim] - 경남 밀양

(37ㄱ)은 'ㅚ'가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는 이 지역어에서 'ᅰ: 〉 ᅱ:'의 고모음화를 입은 '퉈:침thwi:chim]'형이다. 경북 북부의 봉화·영양에서도 나타나지만, 주로 달성을 위시한 경북 남부에서 확인된다. (37ㄴ)은 음장이 실현되지 않는 '퉈침[thwichim]'으로 '퉈:침thwi:chim]'형보다는 조금 북쪽에서 나타난다. 한편 (37ㄷ)의 '티:침[thi:chim]'형은 '퉈:침[thwi:chim]'에서 활음[w]가 탈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티:침[thi:chim]'은 '퉤:침[thwE:chim] 〉 퉈:침[thwi:chim] 〉 티:침[thi:chim]'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거나, '퉤:침

[thwE:chim] 〉 테:침[thE:chim] 〉 티:침[thi:chim]'의 변화를 입어 형성될 수 있다. 그런데 '궤: 〉 귀:' 고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나머지 경북 지역의 경우 '퉤:침[thwE:chim]'형만 발견될 뿐 '테:침[thE:chim]'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전자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티:침[thi:chim]'형은 주로 경북 동부에 분포해 있다. 그런데 (37ㄹ)과 같이 경남 밀양에서 나타나는 '티침[thichim]'형은 'wE 〉 wi 〉 i'와 'wE 〉 E 〉 i' 중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북으로 접경한 경북 청도 지역에서는 '튀:침[thwi:chim]'이 실현되지만, 그 외에 경계를 맞대고 있는 울주·양산·김해·창원에서는 '테침[thEchim]'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어형은 경남 밀양에서만 보고되었다. '퇴침' 외에도 '되-(升)', '되-(硬)' 등이 '디:다'로 나타나는데, 전자는 경북 김천·고령에서 발견되고 후자는 경북 전역(울진·영양·경주 – 대:다, 의성·선산 – 뒤:다[twi:da])에서 확인된다.

이상의 방언형들로부터 알 수 있듯이 경북, 그중에서도 특히 경북 남부는 '궤: 〉 귀:의 중심지라고 할 만하다. 또한 《지역어》에서도 '웨(:) 〉 위(:)'가 남아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지역을 '웨: 〉 위:'의 중심지라고 하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58]

한편 하향이중모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용언 어간 '꿰-' 또는 명사 '궤짝'의 '궤'가 '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삼중모음 '궤'의 음가로부터 비롯된 문제로 보인다. 김선효(2005: 306)에서는 '호궤~호괴~호귀', '웨여~외여~위여'의 예를 들어 삼중모음과 이중모음의 혼기를 서술하고 있다. 김완진(1971)에서는 '궤'가 [oi], [uy]로 분화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를

58) 한편 이 방언에서 나타나는 'ㅚ > ㅟ'의 변화가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이전에 일어난 변화, 즉 [oj] > [uj]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먼저 장음 'ㅗ: > ㅜ:'의 변화는 근대국어 시기에 서울을 위시한 중부 지방에서 매우 강력하게 일어난 현상이지만, 동남 방언에서는 그 예를 찾기 힘들다. 단모음에서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이중모음의 핵모음에서 일어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근대국어 시기의 단음 'ㅗ > ㅜ' 변화는 전국적인 현상이었으나, 비어두-비어말 위치에서 잘 일어나며 어두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현상은 19세기에 크게 확산되었는데 체언의 경우 17세기부터도 그 예가 나타난다(김아름 2008: 38). 그런데 이 예들은 모두 비어두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어두에는 'ㅗ'가 있더라도 'ㅜ'로의 상승을 보이지 않는다. 적극적인 고모음화를 입는 19세기의 예로 '고누(<고노)', '도투리(<도토리)', '골묵(<골목)'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 비어두의 'ㅗ'만이 고모음화를 입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받아들인다면 ‘뀌-’, ‘귀짝’은 [uy]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단모음 ‘ㅚ’가 ‘ㅟ’로 상승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그러면 하향이중모음이 단모음화하여 [ü]로 나타나는 사례나 이것이 다시 이중모음화하여 [wi], 활음 [w]가 탈락하여 [i]로 실현되는 사례 등을 모두 설명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ㅖ: 〉 ㅣ:’의 고모음화와 그 분포의 변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중부 방언의 ‘ㅖ:’의 고모음화는 아래와 같은 분포의 변화를 보인다.

[지도 29] 중부방언의 ‘ㅖ〉ㅣ’(자료집)

[지도 30] 중부방언의 ‘ㅖ〉ㅣ’(지역어)

먼저 [지도 29]는《자료집》에서 ‘ㅖ: 〉 ㅣ:’, 또는 ‘ㅕ: 〉 ㅖ: 〉 ㅣ:’가 나타난 지역이다. 그런데 [지도 19]와는 달리 ‘ㅖ: 〉 ㅣ:’의 실현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라 하여도 일제히 고모음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지도 29]는 ‘ㅖ:’ 고모음화가 실현되는 지역의 대략적인 윤곽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해

야 할 것이다. [지도 30]은 《지역어》에서 ‘ㅐ:’의 고모음화형이 남아있는 지역인데 음소의 실현은 ‘ㅣ’일지라도 음장은 잃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지도 19~20]과 [지도 29~30]에서 나타나는 방언의 분포는 중부 방언에서 ‘ㅐ: 〉 ㅣ:’의 소멸이 ‘ㅓ: 〉 ㅡ:’의 소멸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음은 남부 방언의 ‘ㅐ:’의 고모음화이다.

[지도 31] 남부방언의 ‘ㅐ〉ㅣ’(자료집)

[지도 32] 남부방언의 ‘ㅐ〉ㅣ’(지역어)

[지도 31]과 [지도 32]는 각각 《자료집》과 《지역어》에서 ‘ㅐ:’의 고모음화가 나타나는 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지역어》의 시기에는 위의 [지도 29~30]과 마찬가지로 표시된 영역 내에서 ‘ㅐ:’의 고모음화가 일제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대략적인 윤곽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ㅐ:’의 고

모음화는 서남 방언에서도 어느 정도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찰된다.

한편 '웨[wE:] 〉 위[wi:]'의 경우 《지역어》에 이르면 경북 남부에서만 겨우 명맥을 잇고 있기 때문에 따로 방언 분포의 변화를 보이는 지도를 제시하지 않는다.

3.2. 단모음의 고모음화

3.2.1. 단모음 ㅓ 〉 ㅡ

어두 단모음에서는 'ㅓ'의 상승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김아름(2008: 67)에서는 장모음 'ㅓ:'의 고모음화와 달리 단모음 'ㅓ'의 고모음화는 소수 어휘에서만 나타나며 실현 지역 또한 산발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어두 장음 'ㅓ 〉 ㅡ'의 변화가 가장 적극적이었던 중부 방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원직(1996: 360)에서는 충남 서부 방언의 장모음 'ㅓ:[ə:]'는 'ㅡ:[ɨ:]'로 변하는 강력한 규칙을 만들 수 있지만, 단모음은 [ə]→[ɨ]를 입지 않는다고 서술한 바 있다. 또한 김정태(2004)에서도 천안방언의 'ㅓ' 고모음화가 어두 단모음 'ㅓ[ʌ]'에서 제약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천안 방언에서는 어두의 장음 [ə:]는 필수적으로 고모음화를 입고, 비어두 [ə]는 수의적으로 고모음화하며 어두의 단음 [ʌ]는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미 19세기 중부 방언을 다룬 이병근(1970a)에서 단음 'ㅓ'는 저설화하고 장음 'ㅓ'는 상승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배주채(1996: 28), 김현(2007: 156) 등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어두 단모음 'ㅓ'의 음가가 후설 저모음 [ʌ]라는 점에 입각하면 이것이 고모음화의 입력부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드물게 '느이{너희}'와 같은 일부 어사에서 단모음 'ㅓ'가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한편 《자료집》에서는 'ㅓ'가 'ㅡ'로 고모음화를 입었으나 음장이 실현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그러나 이는 단음 'ㅓ'가 상승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38) ㄱ. 을마{얼마} - 경기 연천·포천·강화·양주·시흥·용인·이천, 충북 중원
ㄴ. 을:마{얼마} - 경기 파주·가평·양평·안성, 충북 제천·괴산·옥천

(38ㄱ)의 '을마'는 일견 어두 단모음 'ㅓ'의 상승으로 보일 여지가 있지만 '얼마'의 소급형인 '언마'는 1음절에 상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설령 현대 한국어의 표준 발음이 단음이라 하더라도 방언에 따라 '얼마'의 1음절에 얼마든지 장음을 실현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르는 고모음화 역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원래 상성을 가지지도 않았고 현대 한국어에서도 단음으로 실현되는 어두의 'ㅓ'가 'ㅡ'로 고모음화한 예는 《자료집》과 《지역어》에서는 찾기 어렵다.

3.2.2. 단모음 ㅗ 〉 ㅜ

다음으로 어두 단모음 'ㅗ'의 고모음화를 살펴볼 것인데, 어두의 'ㅗ 〉 ㅜ'는 한국어 제방언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어두의 단모음 'ㅗ 〉 ㅜ'는 선행 연구에서도 그 사례를 흔히 찾을 수 없다. 서산 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전광현(2000: 13)에서 제시한 '푸두{포도}', 《자료집》의 '문지{먼지}', 황대화(2011: 34)에서 제시한 함북 경흥의 '굳{곳處}' 정도가 어두 단모음 'ㅗ 〉 ㅜ'의 드문 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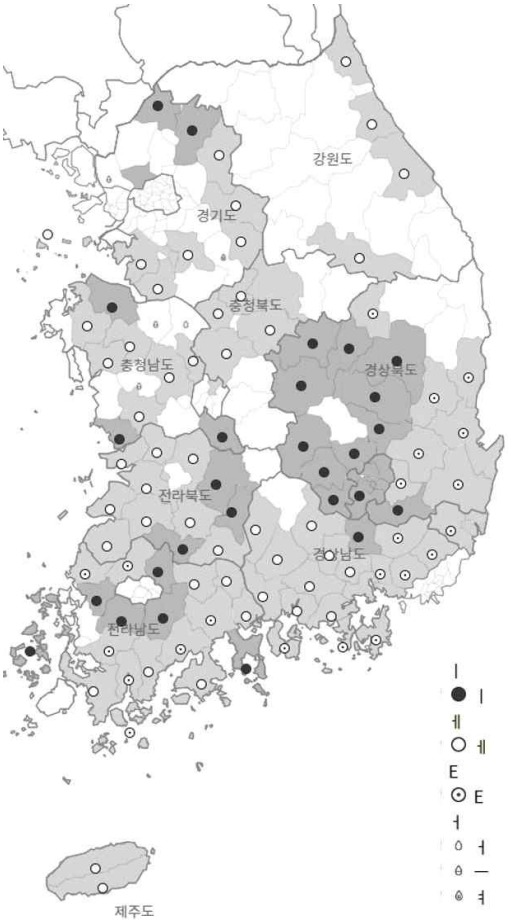
3.2.3. 단모음 ㅖ 〉 ㅣ

① ㅖ 〉 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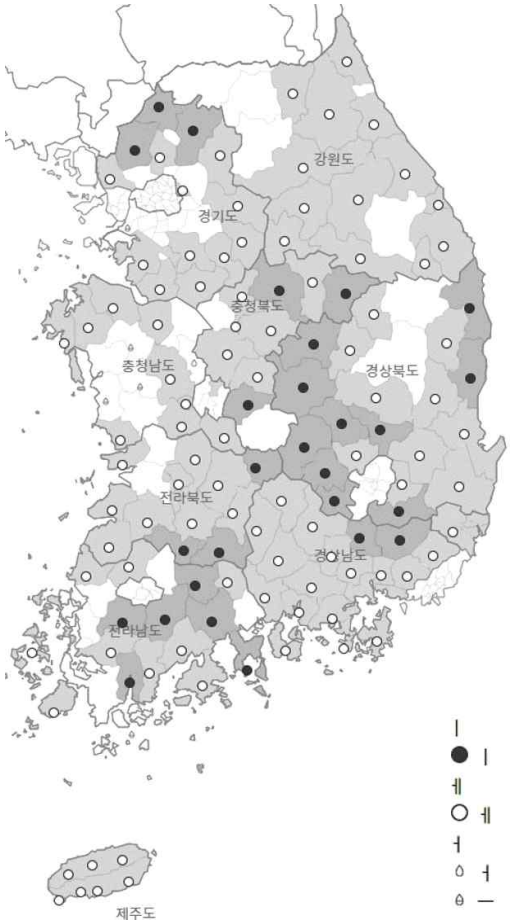
이제 어두 단모음 'ㅖ'의 고모음화를 살피기로 한다.[59] 먼저 '헹구다'의 방언 분포를 통해 어두 단모음 'ㅖ'의 고모음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관찰할

59) 여기에서 살펴본 어형은 다음과 같다. (밑줄은 《지역어》에서도 조사된 어형)
메뚜기(Ⅰ.442), 메조(Ⅰ.052보④), 베(Ⅰ.190), 떼(Ⅲ.02-1), 제(Ⅱ.02, 自己), 제기(Ⅰ.305)
헹구다(Ⅰ.640보⑤), 게으르다(Ⅲ.17-6C), 데리다(Ⅰ.710-1)

것이다.[60]



[지도 33] ‘ㅣ’형의 분포(헹구다, 자료집)



[지도 34] ‘ㅣ’형의 분포(헹구다, 지역어)

(39) 힝구다 – 경기 고양·연천·포천, 경남 창녕, 경북 고령·군위·김천·달성·문경·상주·성주·안동·예천·의성·청도·칠곡, 전남 나주·담양·신안·여수·함평·화순, 전북 순창·장수·진안, 충남 금산·당진·서천

(39)는 《자료집》에서 나타나는 ‘힝구다’형의 분포를 보여준다. ‘힝구다’는

60) ‘헹구다’는 《자료집》에서 필수 단어가 아닌 보충단어였기 때문에 ‘헹구다’형 대신 ‘가시다’형을 응답한 지역이 많았으며 선행 연구에서 조사 결과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단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헹구다’를 선택한 것은 《자료집》과 《지역어》에 모두 나타나는 어두의 단모음 ‘ㅔ’ 중 ‘ㅢ > ㅔ’의 변화를 거치지 않은 것은 ‘헹구다’가 유일했기 때문이다.

‘헹구다’의 어두에서 단모음 ‘ㅖ’가 ‘ㅣ’로 고모음화한 유형이다. 분포를 살펴보면 주로 경북 서부와 전북 동부, 전남 북부에서 발견되며 이외에 충남과 경기 북부에서도 산발적으로 관찰된다. 한편 ‘ㅖ’와 ‘ㅐ’의 변별이 없는 전남 서부와 경남 동부에서는 [E]로 실현되는 사실이 보고되었고, 전남-경남 접경 지역에서는 ‘ㅖ’로 실현되는 것을 살필 수 있다.

《지역어》에서 ‘ㅖ 〉 ㅣ’를 겪은 어형은 다음과 같이 분포한다.

(40) 힝구다 – 경기 연천·파주·포천, 경남 밀양·창녕, 경북 고령·구미·군위·김천·문경·상주·성주·영덕·울진·청도, 전남 강진·곡성·나주·순천·여수·화순, 전북 남원·무주·순창, 충북 단양·옥천·충주

(40)에서는 (39)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분포를 살필 수 있다. 대체로 경북 서부와 그에 접경한 충북·전북의 몇몇 지역, 그리고 전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힝구다’형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료집》에서는 19세기 이전에는 ‘ㅚ’로 실현되던 어두의 단모음 ‘ㅖ’가 ‘ㅣ’로 고모음화하는 예가 다수 발견된다.

(41) ㄱ. 미띠기~미뛰기 - 강원 삼척, 경북 달성·문경·예천·안동·상주·의성·김천·선산·군위·칠곡·고령, 전북 순창
ㄴ. 미조~미서숙{메조} - 경북 전역(봉화·울진·고령·경주 제외)
ㄷ. 띠{떼(群)} - 경북 전역(봉화·울진·청송·경주 제외)

(41ㄱ)의 ‘메뚜기’는 19세기 전까지 ‘묏도기’로 나타나던 것이 양순음 뒤에서의 ‘ㅚ 〉 ㅖ’를 입어 19세기 말부터 ‘메독이〈한불ᄌᆞ뎐 230〉’로 나타난다. (41ㄴ)은 ‘메조’ 또는 ‘메서숙’의 ‘ㅖ 〉 ㅣ’ 고모음화형으로 역시 경북 동부의 일부 지역과 고령을 제외한 경북 전역에서 나타난다. (41ㄷ)은 ‘떼’의 고모음화형으로 경북 동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북 전역에서 관찰된다. 《자료집》과 《지역어》에서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어두 단모음 ‘ㅖ 〉 ㅣ’의 중심 지역

은 경북 서부 및 전남 북부라 할 수 있겠다.

한편 경북 지역에는 단모음 'ㅚ'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양순음 뒤에서의 'ㅚ 〉 ㅟ'를 입은 후에 고모음화된 유형 뿐 아니라 'ㅅ' 뒤에서도 'ㅚ 〉 ㅞ 〉 ㅟ 〉 ㅣ'를 살필 수 있다.[61] 《자료집》에 나타나는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42) ㄱ. 싯대~쉿대{열쇠} - 경북 경주·고령·구미·김천·청도, 경남 창녕·밀양

ㄴ. 시고기{쇠고기} - 경북 예천

ㄷ. 시죽{쇠죽} - 경북 김천·달성

먼저 (42ㄱ)의 '싯대'는 '열쇠'를 의미하는 '쇳대'를 원형으로 하는데, 이 지역어에는 단모음 [ö]가 없으므로 '쇳대'의 실현은 '쉣대[swEt'E](청송·영천)'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어두 음절의 'ㅟ 〉 ㅣ' 고모음화가 일어나면 '쉿대[swit'E]'로 실현되며, 다시 약화된 활음 [w]가 탈락하면 '싯대[syit'E~sit'E]'가 실현되는 것이다.[62] 주로 경북의 남부에서 관찰되며, 접경한 경남 창녕과 밀양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42ㄴ)과 (42ㄷ)은 '쇠-'의 고모음화형이다. 마찬가지로 '쉐고기[swE:gogi](경북 봉화·영덕)', '쉐죽[swEjuk](경북 봉화·영덕·포항)'형으로 실현되다가 'E 〉 i'의 변화를 겪어 '시고기', '시죽'형을 바뀐 것이다. 한편 '쉐고기[swE:gogi]~세고기[sE:gogi]'형은 경기 파주·고양, 제주에서 발견되며 '쉐죽[swEjuk]~세죽[sejuk]'형은 경기 파주, 충남 청양, 경남 진주, 제주 등지에서도 발견되는데 이들은 고모음화를 입은 경우가 없다. (42)에서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경북 서남부 지역은 어두 'ㅟ 〉 ㅣ'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6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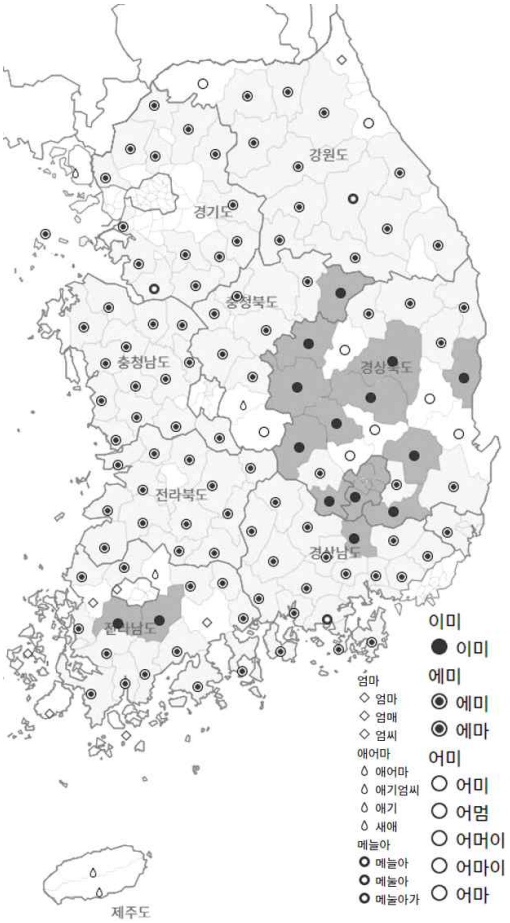
61) '되(升)'도 《자료집》의 조사 항목이며 '디'로의 고모음화를 보이지만 이는 단위명사로 앞에 수관형사가 있다. 따라서 이는 하나의 음운론적 단어 안에서 비어두 'ㅟ > ㅣ'가 일어난 사례이다.

62) 한편 이 현상은 비어두에서도 일어난다. 경북 문경·상주·칠곡·달성에서는 '열쉬[yƎ:ls^{w}i~yƎ:lsyi]'형이 나타나는데, 역시 '열쇠'의 음성 실현이 '열쇄[yƎ:ls^{w}E](경북 의성·영덕·포항·영천)'로의 변화를 입은 후 다시 'E > i'의 고모음화를 겪어 만들어진 어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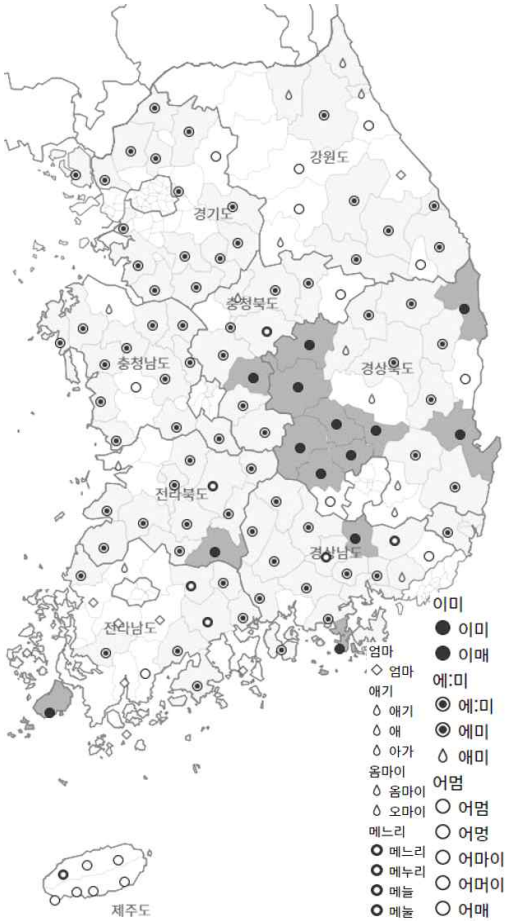
63) 북한 방언에서도 'ㅟ > ㅣ'가 발견되는데, '지철{제철}(황북 봉산)', '닉타이{넥타

② ㅓ 〉 ㅖ 〉 ㅣ

여기에서는 ‘어미’의 방언 분포를 살피고자 한다.64)



[지도 35] ‘ㅣ’형의 분포(어미, 자료집)



[지도 36] ‘ㅣ’형의 분포(어미, 지역어)

《자료집》의 경우 ‘어미’의 고모음화형 ‘이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3) 이미 - 경남 창녕, 경북 고령·구미·김천·달성·문경·상주·안동·영덕·

이}(황북 토산)’ 등이 나타난다. ‘닉타이’ 형은 이 방언에 ‘넥타이’라는 외래어가 유입된 이후에도 ‘ㅖ 〉 ㅣ’의 고모음화가 활발하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방증해 준다고 하겠다.

64) 여기에서 살펴본 어형은 다음과 같다. (밑줄은 《지역어》에서도 조사된 어형)
어미(Ⅰ.315-2), 절이다(Ⅰ.246보), 벗기다(Ⅲ.19-2B)

영천·의성·청도, 전남 나주·화순, 충북 단양

'이미'는 'ㅓ 〉 ㅖ'의 움라우트를 겪은 어형이 다시 'ㅖ 〉 ㅣ'의 고모음화를 입어 형성된 것으로 경북을 위시하여 접경 지역인 충북 단양, 경남 창녕 등에 분포하며, 전남 나주·화순에서도 발견된다.

《자료집》에서 고모음화를 입지 않는 유형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에미'형이 우세한 가운데 강원 철원·고성·양양 및 경기 고양·남양주·광주·양평에서는 '어멈'형, 경북 예천·청송·군위·칠곡·포항 및 충북 영동에서는 '어마이'형, 전남 광산·담양·순천·신안·진도에서는 '엄매' 또는 '엄씨'형이 나타난다. 전북 순창과 전남 함평에서는 신형으로서 '엄마'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특기할 만한 음운 현상을 경험하지는 않는다.

이제 《지역어》에 나타나는 '어미'의 고모음화형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44) 이미 - 경남 창녕, 경북 구미·군위·김천·문경·상주·성주·울진·칠곡·포항, 전남 진도, 전북 남원, 충북 보은

《지역어》에 나타나는 '이미'형의 방언 분포도 《자료집》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북 서부에서 '이미'형의 세력이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으며, 달성·고령·청도·경산 등 경북 남부에서는 '어마이', '오마이' 형으로 대체되었다.

고모음화를 입지 않는 어형을 살펴보면 《지역어》에서도 여전히 '에미'형이 전국적으로 가장 널리 분포하고 있다. 강원 내륙 지역에서도 '어멈'형이 나타나는 것과 전남 서부에 '엄마'형이 확산된 것이 눈에 띈다. 《자료집》에서도 강원·경기에서 산발적으로 분포하던 '어멈'형의 세력이 커진 것으로 보이며, '엄마'형은 《자료집》에서 드물게 보이던 개신형이 전파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ㅓ 〉 ㅖ 〉 ㅣ'의 중심 지역을 찾자면 역시 경북 서부라 할 만하다. '어미'뿐 아니라 '질이다{절이다}'와 같은 어형도 경북 서부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45) ㄱ. 젤이다 - 경기 파주, 강원 양구·인제·강릉·정선·삼척, 전북 군산·부안·임실·장수·고창, 전남 구례·순천·여수, 경북 영주·안동·영덕·영천·달성·청도·경주, 경남 합천·창녕·밀양·울주·하동·진주·창원·김해·양산·사천·고성·남해·통영·거제

ㄴ. 질이다 - 전남 곡성·함평·화순·해남, 경북 문경·예천·상주·김천·선산·칠곡·경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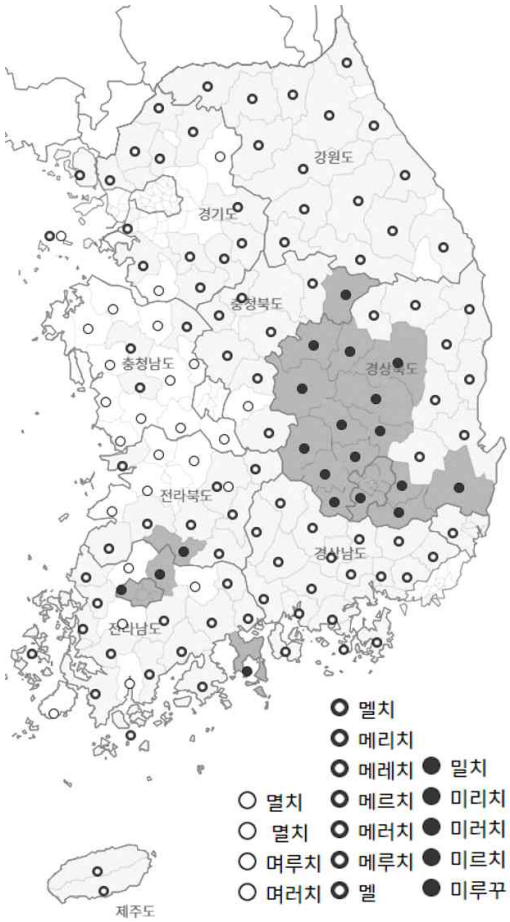
'절이다'의 어두 음절이 움라우트를 겪어[65] (45ㄱ)의 '젤이다'가 된 후 고모음화를 입은 형태가 바로 (45ㄴ)의 '질이다'이다. [지도 35]의 분포와 다르지 않게 경북 서부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남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일어난다. [지도 36]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어》에서도 경북 서부에서 'ㅓ 〉 ㅖ 〉 ㅣ'가 가장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지역을 'ㅓ 〉 ㅖ 〉 ㅣ'의 중심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③ ㅕ 〉 ㅖ 〉 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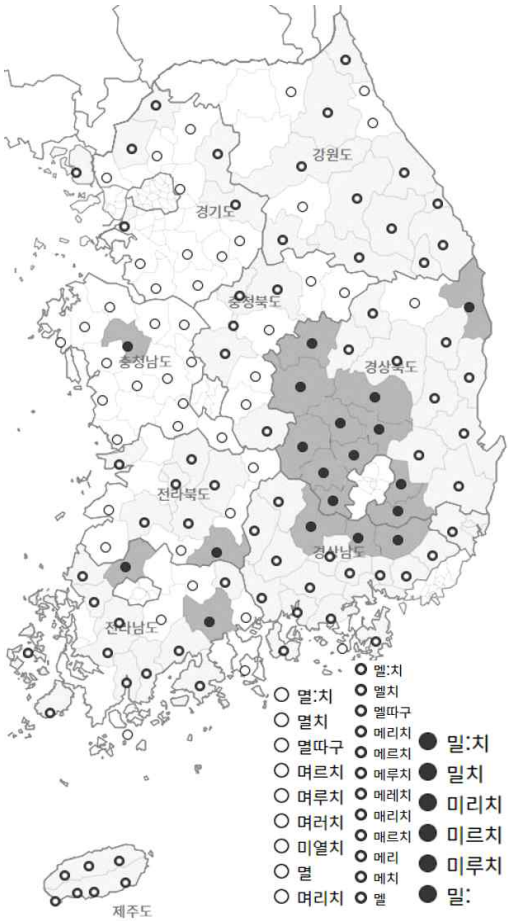
이제 '멸치'의 방언 분포와 그 변화를 통해 ㅕ 〉 ㅖ 〉 ㅣ의 양상을 살펴보자.[66]

65) 많은 방언에서는 개재자음이 'ㄹ'인 경우에도 움라우트를 입는다.

66) 여기에서 살펴본 어형은 다음과 같다. (밑줄은 《지역어》에서도 조사된 어형)
<u>며느리(Ⅰ.322), 멸치(Ⅰ.415), 벼룩(Ⅰ.425), 벼슬(Ⅰ.466), 벼락(Ⅰ.564), 벽(Ⅰ.130),</u> 병(Ⅰ.365), 뼈(Ⅰ.248), 변소(Ⅰ.156)
벼리-(Ⅰ.349-2)



[지도 37] ‘ㅣ’형의 분포(멸치, 자료집)



[지도 38] ‘ㅣ’형의 분포(멸치, 지역어)

먼저 《자료집》에서의 ‘ㅕ 〉 ㅖ 〉 ㅣ’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6) ㄱ. 미리치 – 경북 경산·고령·구미·군위·김천·달성·성주·안동·예천·의성·칠곡, 충북 단양

ㄴ. 미러치[mirƎchi] - 경북 문경·상주·청도

ㄷ. 밀치 – 전남 광산·담양·여수, 전북 순창

ㄹ. 미루꾸 – 경북 경주

(46ㄱ)의 ‘미리치’형은 ‘멸치 〉 멜치 〉 메러치 〉 메레치’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메레치’의 1, 2음절 ‘ㅖ’가 ‘ㅣ’로 고모음화한 결과로 보인다. ‘ㅖ 〉

ㅣ'가 나타나지 않는 경북 동부에서는 모두 '메레치'가 관찰되는데, 이 '메레치'가 고모음화를 입은 형태인 것이다. 한편 '미러치'형은 '멸치 〉 멜치 〉 메러치 〉 미러치'의 과정을 겪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46ㄴ)에 나타나는 것처럼 경북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다. (46ㄷ)의 '밀치'는 '멸치 〉 멜치 〉 밀치'의 과정을 겪어 형성된 것으로 전북 순창, 전남 광산·담양·여수에서 관찰된다. 경북 경주에서는 (46ㄹ)과 같이 '미루꾸'형이 보고되었다. '멸치'에 나타나는 'ㅕ 〉 ㅖ 〉 ㅣ'형은 여느 'ㅖ 〉 ㅣ' 고모음화형과 다르지 않게 경북 서부를 중심으로 포진하고 있다.

그러면 《자료집》에서 고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은 어떨까? 전남 강진·곡성·나주·장성·진도, 전북 김제·부안·완주·익산, 충남 전역(예산·천안·청양 제외), 충북 옥천에서는 '멸치'형이 나타나며, 경기 가평·광주·평택에서는 '며루치'형이 보고된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모두 '멜치' 또는 '메레치~메러치~메리치' 등 'ㅖ' 형이 관찰된다. 전국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은 '멜치' 또는 '메레치'등의 'ㅖ' 형이고, '멸치' 형은 충남을 중심으로 하며 '미리치' 형은 경북 서부를 진원지로 삼고 있다.

이제 《지역어》에서의 'ㅕ 〉 ㅖ 〉 ㅣ' 고모음화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47) ㄱ. 미리치~미르치~미루치 – 경남 밀양·창녕·통영·합천, 경북 경산·구미·군위·김천·문경·상주·성주·울진·의성·청도·칠곡

ㄴ. 밀:~밀치 – 경북 고령, 전남 순천·장성, 전북 남원, 충남 예산

(47ㄱ)과 같은 '미리치'형은 여전히 경북 서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이에 접경한 경남에서도 확인된다. (47ㄴ)의 '밀:~밀치'형은 충북·전북·전남에 산발적으로 분포한다. [지도 37]과 [지도 38]을 통해 살펴본 《자료집》과 《지역어》의 'ㅕ 〉 ㅖ 〉 ㅣ' 고모음화형 분포는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제 《지역어》에서 고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어형들을 확인해 볼 것이다. 먼저 '며루치~며르치'형은 강원 횡성, 경기 양주·여주·용인, 경북 봉화, 충북 괴산·단양·보은·제천에서 나타난다. '멸치'형의 세력은 《자료집》에 비해 크게

확장되어, 강원 속초·양구·양양, 경기 구리·김포·안성·이천·평택·포천·화성, 전남 곡성·광양·여수·완도·화순, 전북 고창·무주·부안·순창·장수, 충남 계룡·공주·금산·논산·당진·보령·서산·서천·아산·연기, 대전 대덕, 충북 옥천에서 나타난다. 《자료집》에서도 '멸치'형을 주도했던 충남을 중심으로 경기·충북·전북·전남에 이르는 '멸치'형의 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히 중부 방언권을 중심으로 '멜치'형의 영향력은 크게 줄었다. 다만 강원·경남에서는 《지역어》에서도 '메르치~메레치~메리치'형이 우세하였다.

《자료집》에서 'ㅕ 〉 ㅖ 〉 ㅣ'의 중심 지역을 찾아보면 물론 경북 서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멸치' 외에도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어형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예를 들어 보이자면 다음과 같다.

(48) ㄱ. 빙{병} - 전남 순천, 경북 경산·경주·고령·구미·군위·김천·달성·문경·상주·성주·안동·영덕·영천·예천·의성·청도·청송·칠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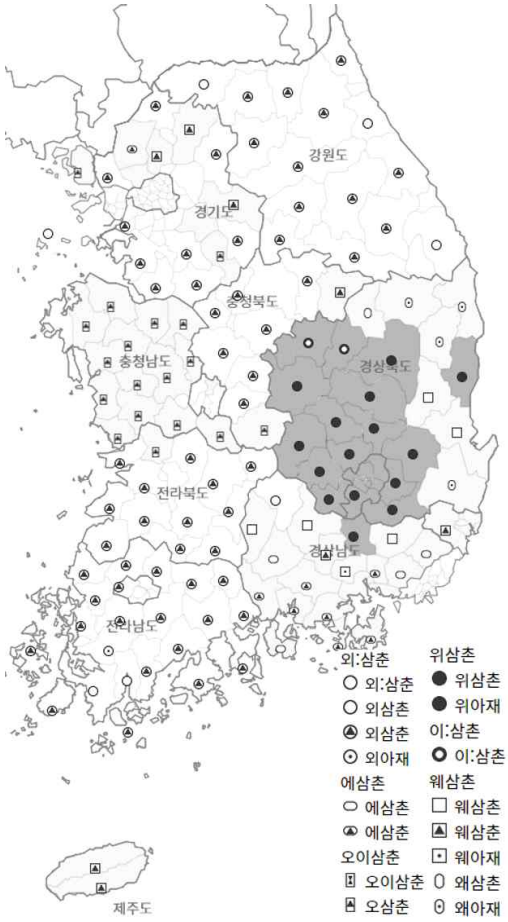
ㄴ. 미느리{며느리} - 전북 순창, 전남 광산·나주·담양·무안·여수·화순, 경북 경산·경주·고령·구미·군위·김천·문경·상주·성주·안동·영천·의성, 경남 창녕

ㄷ. 길혼{결혼} - 경북 경주·고령·김천·문경·안동·영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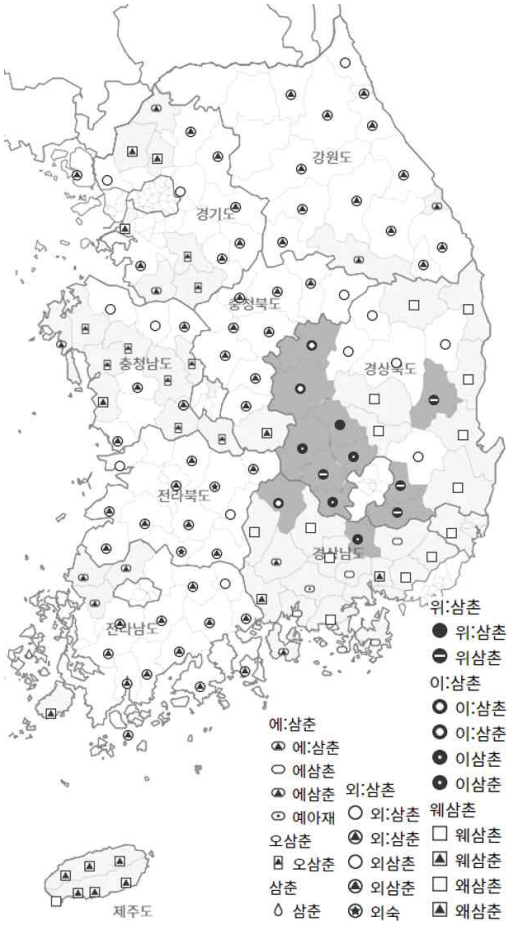
(48)의 사례들은 모두 'ㅕ 〉 ㅖ 〉 ㅣ'가 실현되는 어형들이다. (48ㄱ)은 '병(甁) 〉 벵 〉 빙'의 결과로 도출된 것이며, 경북 전역(영주·봉화·울진·영양 제외)에서 나타난다. (48ㄴ)은 '며느리 〉 메느리 〉 미느리'와 같은 과정을 겪어 형성된 것으로, 전남과 경북에서 주로 확인된다. (48ㄱ), (48ㄴ)과 같이 양순음 뒤에서의 'ㅕ 〉 ㅖ 〉 ㅣ'는 경북 지역 외에도 산발적으로 분포하지만, (48ㄷ)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연구개음 뒤에서의 'ㅕ 〉 ㅖ 〉 ㅣ'는 경북에서만 확인된다. 《지역어》의 시기에 이르러서도 경북 서부는 'ㅕ 〉 ㅖ 〉 ㅣ'형이 가장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다.

④ ㅚ 〉 ㅞ 〉 ㅟ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ㅞ 〉 ㅟ’ 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67] 다음은 ‘외삼촌’의 방언 분포이다.



[지도 39] ‘ㅟ’형의 분포(외삼촌, 자료집)



[지도 40] ‘ㅟ’형의 분포(외삼촌, 지역어)

《자료집》에서 나타나는 ‘ㅞ 〉 ㅟ’의 변화를 ‘외삼촌’의 방언 분포를 통해 알아보자.

(49) ㄱ. 위삼촌[wisamchon] – 경남 창녕, 경북 경산·구미·군위·김천·상주·성주·안동·의성·청도

ㄴ. 이:삼촌 – 경북 문경·예천

67) 여기에서 살펴본 어형은 다음과 같다. (밑줄은 《지역어》에서도 조사된 어형)
외삼촌(Ⅰ.336-1), 외양간(Ⅰ.455), 회충(Ⅰ.432), 고기(Ⅰ.403-3), 포기(Ⅰ.356)

ㄷ. 위아재 - 경북 고령·영덕·영천·칠곡·달성

(49ㄱ)의 [wisamchon]은 단모음 [ö]가 존재하지 않는 이 지역에서 '외삼촌'이 [wEsamchon]으로 실현되고, 여기에서 'E 〉 i'의 고모음화를 겪어 도출된 것이다. 경북 서부를 중심으로 분포하며, 접경한 경남 창녕에서도 [wisamchon]형이 확인된다. (49ㄴ)은 [i:samchon]으로 '[wE:samchon] 〉 [wi:samchon] 〉 [i:samchon]'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리라 판단된다. 이 장에서 다룰 어두 단모음의 고모음화는 아니지만, [지도 27]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지역은 어두 장음 'ㅞ: 〉 ㅟ:'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이상하지 않다.

고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유형도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다음은 그 예다.

(50) ㄱ. 오이삼춘~오삼춘 - 경기 강화·광주·이천, 충남 전역, 충북 영동, 전북 익산

ㄴ. 웨삼춘~웨삼촌 - 경기 고양·양주·양평·포천, 충북 단양, 경남 밀양·울주·의령·함양·합천, 경북 영주·청송·포항, 제주 전역

ㄷ. 웨아재 - 경남 함안, 경북 경주·봉화·영양·울진

ㄹ. 에삼춘~에삼촌 - 경기 파주, 경남 거제·고성·김해·남해·사천·산청·양산·진주·창원·통영·하동

(50ㄱ)과 같이 경기 남부와 충남에서는 'ㅚ'가 하향이중모음으로 실현되는 '오이삼춘' 또는 여기에서 [j]가 탈락한 '오삼춘'형이 나타난다.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는 '웨삼춘'형은 (50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경기와 경남 일부 지역 및 제주도에서 눈에 띄며, (50ㄷ)의 '웨아재'형은 '위삼촌' 또는 '위아재'로의 고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북 동부 지역에서 주로 확인된다. (50ㄹ)은 이중모음 [wEsamchon]에서 활음 [w]가 탈락한 형태로 주로 경남에서 보고되었다. 상기 나열된 지역 외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강원·경기·충북·전북·전남)에서는 단모음 'ㅚ'가 실현되는 '외삼춘'형이 나타난다.

다음으로는《지역어》에서 나타나는 'ᅰ 〉 ᅱ'의 변화를 살피기로 한다.

(51) ㄱ. 위삼촌~위:삼촌 - 경북 경산·구미·성주·청도·청송
ㄴ. 이삼촌~이:삼촌 - 경남 거창·창녕, 경북 고령·김천·문경·상주·칠곡

《자료집》에 나타나던 '위삼촌'형이《지역어》에서도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51ㄱ)에서와 같이 경북 서남부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이삼촌'형은《자료집》에서보다 오히려 세력이 확산되었는데 (51ㄴ)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경북 서부, 아래로는 경남 거창과 창녕에 이르는 분포를 보인다.

고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2) ㄱ. 오삼춘 - 경기 안성·용인, 충남 공주·금산·논산·대덕·서산·예산·연기·홍성
ㄴ. 웨삼춘~웨삼촌 - 경기 시흥·양주·파주, 경남 고성·김해·양산·울주·의령·창원·하동·함양·합천, 경북 경주·군위·봉화·영덕·울릉·울진·의성·포항, 전남 진도, 제주 전역, 충남 보령, 충북 영동
ㄷ. 에삼춘~에삼촌 - 강원 동해·영월, 경기 연천·평택, 경남 거제·남해·밀양·사천·산청·통영·함안, 전남 영광·장성·함평, 충남 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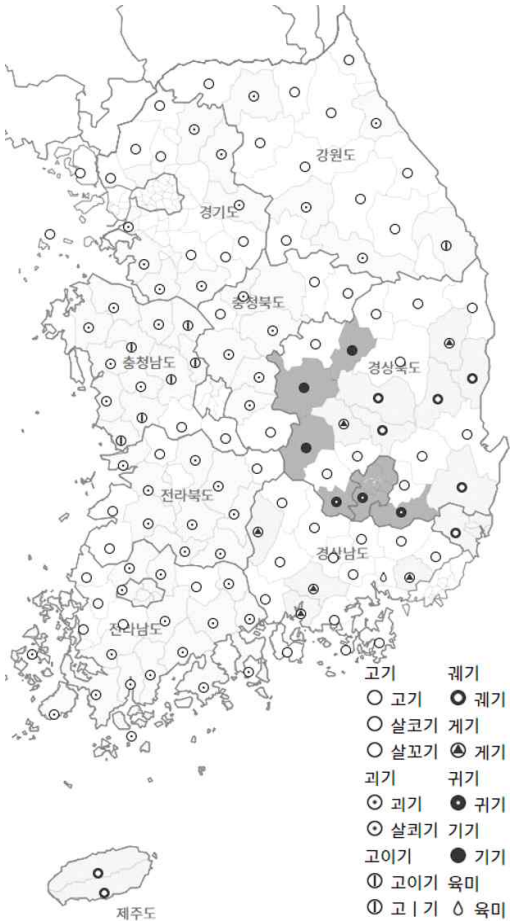
먼저 하향이중모음 '오이삼촌'형은 나타나지 않으며, 충남 전역에서 나타나던 '오삼춘'형의 세력도 (52ㄱ)에 나타나는 것처럼 상당히 줄어든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오삼춘' 형의 중심은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으로 판단된다. (52ㄴ)의 이중모음형은《자료집》에서보다 널리 분포하고 있다. 주로 동남 방언권과 제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발견된다. 이중모음에서 활음이 탈락한 (52ㄷ)은 경남 서부를 중심으로 하며 이외의 지역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이제 ‘궤 〉 귀’의 중심이 되는 지역을 살펴보자. 《자료집》에서는 원래 이중모음 ‘궤’를 가진 ‘궤’의 고모음화형을 살필 수 있는데, 이 경우 고모음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 더 넓다. ‘귀[kwi]’형이 영풍·봉화·안동·김천·선산·군위·성주·칠곡, 경남 창녕에서 나타나고, ‘기[ki]’형이 문경·예천·상주·의성·청송·영덕·경산·고령·달성·청도·경주, 경남 밀양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경북 전역에서 고모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이전에 삼중모음 ‘궤’를 가진 탓에 음가가 명확하지 않아서인지 또는 선행 자음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자료집》에 조사된 ‘궤’를 가진 어형 중 고모음화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이 ‘궤’뿐이기 때문이다. 한편 《자료집》과 《지역어》 모두 경북 서부를 중심으로 ‘궤 〉 귀’의 세력이 형성되어 있고, 이 지역에서는 ‘위양간{외양간}(경북 칠곡)’, ‘휘충{회충}(경북 상주·선산·경산·고령·청도)’등이 실현된다. 따라서 ‘궤 〉 귀’의 중심 역시 경북 서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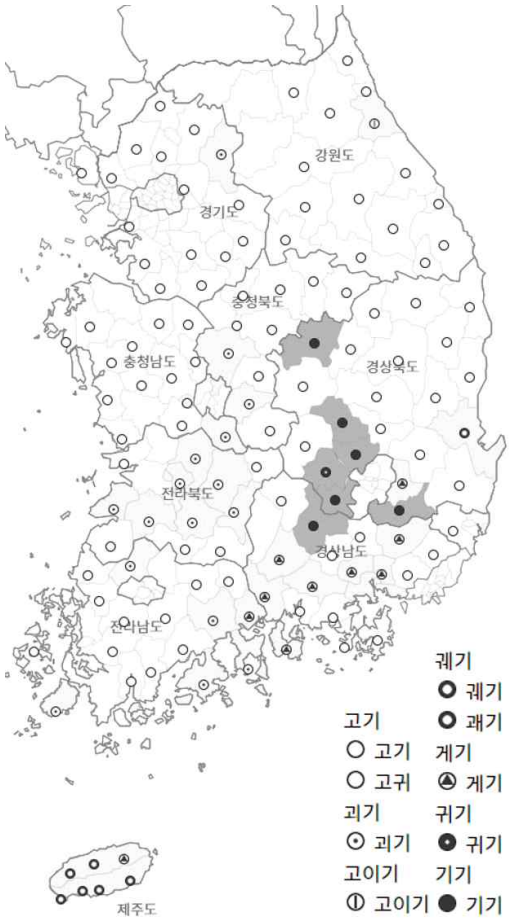
한편 어두 장음 ‘궤 〉 귀’ 이후의 활음 탈락, 즉 [지도 27]과 [지도 28]에서 확인한 ‘인:손{왼손}’의 경우를 함께 고려했을 때 경북 북서부 지역인 문경·상주·예천에서만 활음 [w]의 탈락이 나타나는데, ‘인:손’은 《지역어》의 시기에 이르러 아예 사라지지만 ‘이삼촌’형은 《지역어》에서 세력이 확산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⑤ ㅗ 〉 ㅚ 〉 ㅞ 〉 ㅟ

‘ㅞ 〉 ㅟ’가 나타나는 환경은 ‘ㅚ 〉 ㅞ 〉 ㅟ’뿐만이 아니다. ‘ㅗ’가 움라우트를 통해 ‘ㅚ’로 변하고, 이 ‘ㅚ’가 이중모음 ‘ㅞ’로 실현되는 지역에서 또 하나의 ‘ㅞ 〉 ㅟ’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아래에서 ‘고기’의 방언 분포를 살펴보자.



[지도 41] 'ㅣ'형의 분포(고기, 자료집)



[지도 42] 'ㅣ'형의 분포(고기, 지역어)

먼저 《자료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형이 발견된다.

(53) ㄱ. 귀기[kwigi] - 경북 고령·달성·청도
ㄴ. 기기[kigi] - 경북 김천·상주·예천

(53ㄱ)의 '귀기'는 'o〉(ö)〉wE〉wi'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고기[kogi]'형이 움라우트를 입고, 이것이 이중모음으로 실현되어 '궤기[kwEgi]'가 도출된다. 이때 'E 〉 i'의 변화를 겪어 도출된 것이 바로 '귀기[kwigi]'이다. '귀기'형은 경북 서남부의 고령·달성·청도에서 확인되었다. (53ㄴ)은 (53ㄱ)의 '귀기[kwigi]'에서 활음 [w]가 탈락한 형태로, 경북의 서

부에서 발견된다.

《자료집》에서 고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서는 어떤 어형이 발견되는지 살펴보자. 먼저 '궤기[kwEgi]' 형은 경북 의성·군위·청송·영덕·경주에서 나타나고, '게기[kEgi]'형이 경북 구미·영양에서 확인된다. '게기[kEgi]'형은 경남 함양·진주·사천·김해에서도 보고되었다. 한편 '고기'의 움라우트형 '괴기[kögi]'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며, 특정 지역이 움라우트의 중심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루 분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모음 'ö'가 존재하지 않는 경남·경북에서 '궤기[kwEgi]'~'게기[kEgi]'형이 관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중 'E 〉 i' 고모음화의 세력이 강한 경북 지역에서는 '귀기[kwigi]'나 '기기[kigi]'형이 발견되고, 경남 지역에서는 '게기[kEgi]'형이 나타나는 것이다. 움라우트를 겪지 않은 어형인 '고기[kogi]' 역시 전국에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68)69)] 또한 충남 일부 지역에서는 하향이중모음형이 [koygi]도 발견된다.

다음으로는《지역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귀기[kwigi]', '기기[kigi]'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54) ㄱ. 귀기[kwigi] - 경북 성주
ㄴ. 기기[kigi] - 경북 고령·구미·문경·청도·칠곡, 경남 합천

(54ㄱ)의 '귀기'형은 경북 성주에서 발견되며, (54ㄴ)의 '기기'형은 경북 서남부를 중심으로 접경한 경남 합천까지 분포하고 있다.《자료집》에 비해 특별히 세력이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경북 지역의 'ㅟ 〉 ㅣ'가《지역어》시기까지도 공고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

68) 경북이나 경남의 이 어형은 《자료집》에서 이미 신형(新型)으로서 '고기'가 보고되었다. '기기'나 '귀기', '궤기'형을 보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것이 '고기'로 이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과는 다르게 《지역어》에서도 여전히 '귀기', '기기'형이 확인된다. 수많은 방언형들을 제보하는 가운데 비단 이 어형에 대해서만 신형을 언급했다는 것은 제보자 스스로 '귀기', '기기'형이 '표준어와 다르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69) 한편 단모음 ü가 존재하는 지역에서도 ü가 i로 바뀌는 예가 관찰된다. 예컨대 비어두에서는 움라우트를 겪어 형성된 단모음 ü가 i로 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메뚜기>메뛰기>메띠기'형은 전국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역어》에 따르면 경북 지역에서 고모음화가 나타나지 않는 '궤기[kwEgi]'형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남 방언 이외의 지역에서 움라우트형 '괴기[kögi]'의 분포가 크게 줄어든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고기'형이 중부 방언권에서 움라우트형을 거의 밀어낸 것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어》에서는 전북에서 '괴기[kögi]'형, 경남에서 '게기[kEgi]'형이 우세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기'형이 발견된다.

《자료집》에서는 '피기{포기}'도 발견할 수 있다.

(55) 피기 - 경북 경산·경주·고령·구미·군위·달성·문경·안동·영천·예천·의성·청도·청송·칠곡

'피기'의 경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15세기부터 나타나던 '퍼기'형이 움라우트를 겪어 '페기phegi'가 되고, 어두 음절의 모음 e가 상승하여 i로 변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포기〉푀기〉풰기〉페기〉피기'의 과정이다. 움라우트와 이중모음으로의 변화를 겪은 'phwegi'가 활음 탈락으로 'phegi'가 되었다가 고모음화를 겪는 것이다. 경북 울진·영덕에서는 하향이중모음 'phoygi'형이 나타나는데 이 어형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움라우트가 전제된다. 따라서 두 번째 과정 역시 설득력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기기'의 경우 '귀기[kwigi]'와 같은 중간형이 존재하므로 'o〉(ö)〉wE〉wi〉i'를 유추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피기'의 형성은 '풰기[phwegi]'나 '퓌기[phwigi]'가 관찰되지 않아 어떤 과정을 거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한편 형태소 경계에서의 움라우트가 일어나는 양상을 살펴보면 '교통(交通)-이'는 '고팅이[kothiŋi]'(안동/의성/김천/경산)로 실현되는 지역이 있으며, '곰(熊)-이'는 '기미[kimi]'(김천)로 실현되기도 한다. 즉 경북 지역에서는 'ㅗ'의 움라우트형이 이중모음으로 실현되고, 그 형태가 고모음화의 입력부가 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즉 '포기'의 경우도 '포기〉푀기〉풰기〉페기〉피기'의 과정을 거쳐 '피기'가 표면에 드러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어두 단모음의 고모음화를 살펴보았다. 현대 한국어 방언에서 나타나는 어두 단모음의 고모음화는 대부분 'ㅐ 〉 ㅣ'의 변화였다. 이 현상은

경북 서부를 중심지로 하고 있으며, 고모음화형이 나타나는 범위가 다소 위축되기는 하나 《자료집》과 《지역어》 사이에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제 《자료집》과 《지역어》에서 관찰되는 어두의 고모음화를 정리해 보자면, 'ㅓ', 'ㅗ'의 고모음화에 비해 'ㅖ'의 고모음화 양상이 복잡하다. 왜냐하면 'ㅓ'는 어두 장모음일 때만 고모음화를 입고 단모음일 때는 고모음화를 모르며, 'ㅗ'는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두에서 고모음화를 입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두 'ㅖ 〉 ㅣ' 고모음화의 경우는 이보다 복잡하다.

먼저 중부 방언의 'ㅖ:' 고모음화는 《자료집》에서 음장을 그 실현 조건으로 가지며, 'ㅓ:'의 고모음화에 비해서는 수의적으로 일어난다. 《자료집》에서는 단음인 'ㅣ' 형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지역어》에서는 단음 'ㅣ' 형이 눈에 띈다. 고모음화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던 《자료집》의 시기에도 단음 'ㅣ'형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역어》의 시기에 어두 단모음 'ㅖ'의 고모음화가 새로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또한 현대 한국어에서 음장이 점차 운소로서의 기능을 잃어간다는 사실까지 감안한다면, 《지역어》의 단음 'ㅣ' 형은 이전 시기에 실현되던 장모음의 고모음화형이 음장을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즉 중부 방언의 'ㅖ: 〉 ㅣ:'는 장음의 실현을 조건으로 하는 고모음화로 분류할 수 있겠다.

한편 어두 단모음 'ㅖ' 고모음화의 경우 경북 서부를 중심지로 하며 《자료집》과 《지역어》 간의 차이도 크지 않다. 'ㅓ 〉 ㅖ 〉 ㅣ'와 같이 움라우트를 통해 만들어진 'ㅖ'의 고모음화나 'ㅕ 〉 ㅖ 〉 ㅣ'처럼 축약에 이은 고모음화의 경우 드물게 서남 방언에서도 실현되는데, 모두 분산되어 있으며 수효도 많지 않으므로 어두 단모음 'ㅖ 〉 ㅣ'는 동남 방언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다.

이제 'ㅖ 〉 ㅣ' 고모음화의 분류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자. 《자료집》에서 나타나는 어두 장모음 'ㅖ:'의 고모음화는 어두 단모음 'ㅖ'의 고모음화와는 그 분포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장모음 'ㅖ:'의 상승은 청송·영천·포항을 제외한 경북 전역에서 일어난다. 단모음 'ㅖ'의 고모음화가 경북 서부를 중심으로 하며 경북 동부 지역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것과 대비되는 분포를 보인다. 서남 방언에서의 분포 또한 [지도 31~32]에서 관측할 수

있는 것처럼 전남 북서부, 전북 남서부를 위주로 명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어두 단모음 'ㅖ'의 고모음화 실현형이 특정한 중심지 없이 서남 방언의 중부~동부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것과 대비된다. 즉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동남·서남 방언에 있어 'ㅖ'의 고모음화와 'ㅖ:'의 고모음화를 같은 현상으로 보기 어렵게 한다.

결론적으로 어두의 'ㅖ 〉 ㅣ' 고모음화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ㅖ 〉 ㅣ' 고모음화	
유형 1	'ㅖ:'의 고모음화(중부 방언)
유형 2	'ㅖ:'의 고모음화(동·서남 방언)
유형 3	'ㅖ'의 고모음화(동남 방언)

[표 7] 'ㅖ 〉 ㅣ' 고모음화의 분류

한편 이러한 'ㅖ 〉 ㅣ' 고모음화의 동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ㅖ'와 'ㅐ'의 합류가 'ㅖ 〉 ㅣ'를 촉발했다는 가설을 살펴보자. 백두현(1992: 144-150)에 따르면 동남 방언의 'ㅖ 〉 ㅣ'는 19세기 후기에 '이루기(〈이루게)'와 같은 소수 사례를 보이다가 20세기 문헌에서 다수 관찰된다. 즉 이 변화는 19세기 중엽을 즈음하여 발생하였을 것이며, 이 지역어의 'ㅐ', 'ㅖ' 합류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오종갑(1998) 역시 'ㅖ'와 'ㅐ'의 합류가 'ㅖ 〉 ㅣ'보다 먼저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기갑(1998)에서는 전남 방언을 대상으로, 'ㅖ'와 'ㅐ'가 합류한 중서부 전남에서 'ㅖ 〉 ㅣ' 고모음화가 주로 일어나며 'ㅖ'와 'ㅐ'가 변별적으로 기능하는 전남 동부 일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바, 'ㅖ'와 'ㅐ'의 합류가 'ㅖ 〉 ㅣ' 고모음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로 'ㅖ 〉 ㅣ'의 변화가 'ㅖ'와 'ㅐ'의 합류를 이끌었다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 서보월(1982: 21)에서는 'ㅓ'가 'ㅡ'로 상승함에 따라 'ㅖ' 역시 'ㅣ'로 상승하였고, 이에 'ㅐ' 역시 상승하면서 체계의 균형을 이룬다고 보았으며 최명옥(1982: 36)에서도 'ㅖ 〉 ㅣ'가 'ㅖ/ㅐ'의 합류 이전에 일어났다고 보았다. 박창원(1997: 60-61)에서는 경북 방언에서는 'ㅖ 〉 ㅣ'가 먼

저, 경남 방언에서는 'ㅡ/ㅓ'의 합류가 먼저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제 현대국어 모음체계의 변화가 개구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지적한 곽충구(2003)이나 이 폐구조음 원칙을 먼저 이야기한 김진우(1971)로 돌아가 보자. 개구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는 자음의 경우 구개음화, 모음의 경우 각 유형의 고모음화로 나타날 것이다. 음장이 관여하지 않는 'ㅖ'의 상승은 대체로 동남 방언, 그중에서도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은 'ㄱ 〉 ㅈ'의 구개음화나 'ㅎ 〉 ㅅ'의 구개변이음화가[70]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며 또한 'ㅖ'와 'ㅐ', 'ㅡ'와 'ㅓ'의 합류 역시 일찍이 일어난 지역이므로, 폐구조음 원칙을 가장 강하게 따르는 방언권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이 'ㅖ 〉 ㅣ' 고모음화의 원인을 밝혀 주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개구도의 축소를 강하게 나타내는 방언이라는 이유로 'ㅖ 〉 ㅣ' 고모음화가 일어난다면, 경남 방언에서 어두의 'ㅖ 〉 ㅣ'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과 경북 동해안 방언에서 어두의 'ㅖ 〉 ㅣ'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북에서 나타나는 'ㅖ 〉 ㅣ'에 대하여, 최명옥(1982: 36), 서보월(1984: 37), 백두현(1992: 144)에서는 경북 북부 지역에서 'ㅖ 〉 ㅣ'의 고모음화가 활발하다고 서술하였으며, 오종갑(1999: 12)에서는 경북 북부의 문경과 상주를 'ㅖ 〉 ㅣ'의 개신지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ㅖ 〉 ㅣ'의 개신지가 경북 북부이므로 이로부터 지역적인 거리가 먼 경남 지역이나 중간에 태백산맥을 두고 있는 경북 동해안 지역에 개신파가 닿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방언의 분포를 밝히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경북 북부에서 왜 'ㅖ 〉 ㅣ'가 촉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70) 음성적 구개음화인 'ㅎ' 구개음화는 'ㅅ'의 경구개변이음으로 실현되므로, 구개음화와 구별하여 구개변이음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4. 비어두 고모음화의 방언 분포

이 장에서는 비어두에서 나타나는 고모음화의 방언 분포를 살핀다. 어휘형태소의 비어두에서 실현되는 고모음화와 문법형태소에서 실현되는 고모음화의 양상을 고루 확인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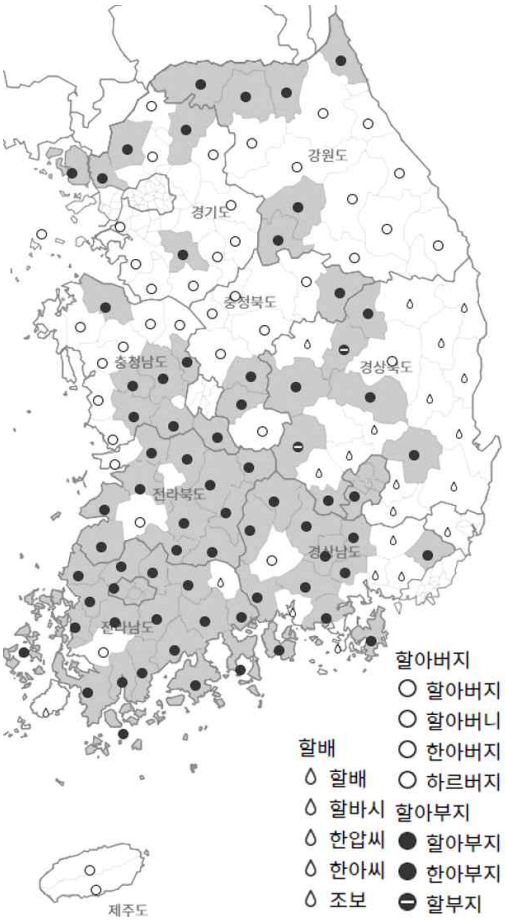
4.1. 어휘형태소의 고모음화

먼저 어휘형태소의 비어두에서 관찰되는 'ㅓ', 'ㅗ', 'ㅐ'의 고모음화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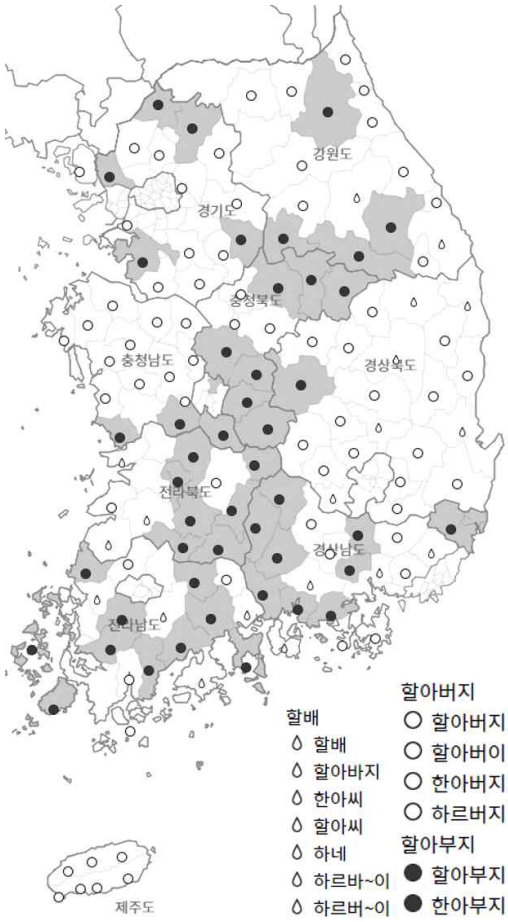
4.1.1. ㅓ 〉 ㅡ

먼저 비어두의 모음 'ㅓ'가 'ㅡ'로 고모음화하는 예를 살펴보자.[71] 비어두 'ㅓ'의 고모음화는 어두 단모음의 고모음화보다는 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지만, 방언 분포상의 특징이나 개신의 중심지를 찾기에는 규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인호(2006: 137-138)에서는 전남방언에서 단모음 'ㅓ'의 고모음화는 '비어두-비어말 위치'에서만 가능하고, 어말 위치에서는 제약을 받는다고 하였다. 《자료집》에서는 비어두 'ㅓ'의 고모음화가 '비어두-비어말 위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중 여기에서는 '할아버지'와 '땅거미'의 방언 지도를 살피기로 한다.

71) 여기에서 살펴본 어형은 다음과 같다. (밑줄은 《지역어》에서도 조사된 어형)
할아버지(Ⅰ.318), 할머니(Ⅰ.317), 아버지(Ⅰ.316), 어머니(Ⅰ.278), 땅거미(Ⅰ.551보)



[지도 43] ‘ㅜ’형의 분포
(할아버지, 자료집)



[지도 44] ‘ㅜ’형의 분포
(할아버지, 지역어)

‘할아부지’는 ‘할아버지’의 ‘ㅓ’가 고모음화를 입어 ‘ㅡ’로 바뀐 뒤, 양순음 뒤에서의 원순모음화를 통해 ‘ㅜ’로 실현되는 예이다. 《자료집》에서 고모음화를 입은 어형과 지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56) ㄱ. 할아부지 – 강원 고성·양구·원주·철원·화천·횡성, 경기 강화·김포·용인·파주·포천, 전북 고창·김제·남원·무주·부안·순창·완주·익산·임실·장수·진안, 충남 공주·금산·논산·당진·부여·연기·청양, 충북 단양·보은·옥천 (cf. 경남 거제·거창·고성·남해·양산·의령·진주·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 경북 고령·상주·영주·영

천·의성·달성, 할부지 – 경북 김천·선산·예천)

ㄴ. 한아부지 – 전남 전역(구례·진도(한압씨), 영암(한아버지) 제외)

(56ㄱ)은 고모음화를 입은 어형 중 가장 널리 분포하는 '할아부지' 형으로, 강원·경기·충남·충북·전북에 거쳐 고르게 발견된다. (56ㄴ)은 '할아버지'의 고형인 '한아버지'가 고모음화와 원순모음화를 겪은 어형으로, 전남에서만 관찰된다.

한편 경남 동부와 경북 동부에서도 '할아부지' 형이 나타난다. 이 '할아부지'형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둘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ㅓ'와 'ㅡ'의 합류가 일어나기 이전 시기에 '할아부지'형이 이미 형성되었고 이것이 동남 방언에서 화석형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ㅓ'와 'ㅡ'가 이미 [ɘ]로 실현되던 시기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 'ㅜ'로 바뀌었다는 가능성이다.

먼저 전자의 분석을 따르면, 동남 방언에서 'ㅡ'와 'ㅓ'가 합류한 것이 'ㅓ 〉 ㅡ'의 고모음화보다 늦은 시기에 일어난 현상이기만 하다면 이 방언의 '할아부지' 역시 'ㅓ 〉 ㅡ 〉 ㅜ'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양순음 뒤의 원순모음화는 17세기 《譯語類解》로부터 발견되며 현대 한국어의 공시적인 음운 현상으로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남 방언에서 'ㅡ'와 'ㅓ'의 합류는 19세기 중엽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72] 받아들여지며, 'ㅓ 〉 ㅡ' 고모음화의 발생 역시 19세기 중엽 이후로[73]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섣불리 '할아부지'가 'ㅓ 〉 ㅡ 〉 ㅜ'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한편 유소연(2020: 46)에서는 《경신록언석》의 예를 통해 18세기 후반에 이미 'ㅓ 〉 ㅡ'의 변화를 살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비록 '-더- 〉 -드-'와 같이 문법형태소에서 나타난 사례지만, 비어두에서의 'ㅓ 〉 ㅡ'라는 조건은 '할아버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렇다면 'ㅓ'와 'ㅡ'의 합류가 일어나기 전에 '할아부지'형이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

---

72) 백두현(1992: 129-136)에서는 동남 방언의 'ㅡ~ㅓ' 혼기가 19세기 후기의 '어럼빙' 등에서부터 나타나 20세기에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점을 들어, 이 방언에서 'ㅡ'와 'ㅓ'는 19세기 중엽 정도에 합류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73) 이병근(1970)에서는 중부 방언에서 19세기 말부터, 백두현(1998, 1992)에서는 영남 지역어에서 19세기 중반부터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ㅡ'와 'ㅓ'가 이미 합류한 결과인 [ㅕ]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ㅜ'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방언에서는 'ㅓ'와 'ㅡ'가 모두 [ㅕ]로 실현되므로 '할아부지'형의 형성을 되짚어보기 위해서는 [ㅕ]가 원순모음화의 입력형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신승용(2004: 67)에서는 동남 방언의 '어무니', '아부지' 등과 같은 어형을 /ㅕ/ 원순모음화의 산물로 보고 있다. 즉 동남 방언에서 'ㅡ'와 'ㅓ'가 합류한 결과인 [ㅕ]는 체계상 후설 고모음인 /ㅜ/, 후설 중모음인 /ㅗ/과 동시에 대립을 보이기 때문에 /ㅕ/가 원순모음화의 피동화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원순모음화는 이전 시기의 'ㅡ'가 합류한 /ㅕ/에서만 일어나는데, 이는 이전 시기의 음운론적 사실이 화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최명옥 1988: 77). 이 점에 입각하면 '할아부지'형은 'ㅡ/ㅓ' 합류 이전 시기의 'ㅓ'가 'ㅡ'로 고모음화한 사실이 화석처럼 남아있기에 원순모음화를 입은 'ㅜ' 형태로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ㅕ]로 실현되는 과정이 추가되었지만 고모음화와 원순모음화를 입은 어형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고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을 살피면, 강원·경기·충남·충북 지역에서는 '할아버지'가 별다른 음운 변동을 겪지 않고 실현된다. 경남·경북 서부를 중심으로는 '할배' 형,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한아씨'형이 나타나므로 고모음화의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제 《지역어》를 보면, 《자료집》에 비해서는 세력이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할아부지', '한아부지' 형이 나타난다.

(57) ㄱ. 할아부지 – 강원 영월·원주·인제·정선, 경기 김포·여주·연천·포천·화성, 경북 상주, 전남 곡성·나주·보성·순천·장흥, 전북 남원·무주·순창·완주·임실·장수·전주, 충남 금산·논산·서천, 충북 단양·보은·영동·옥천·제천·청주·충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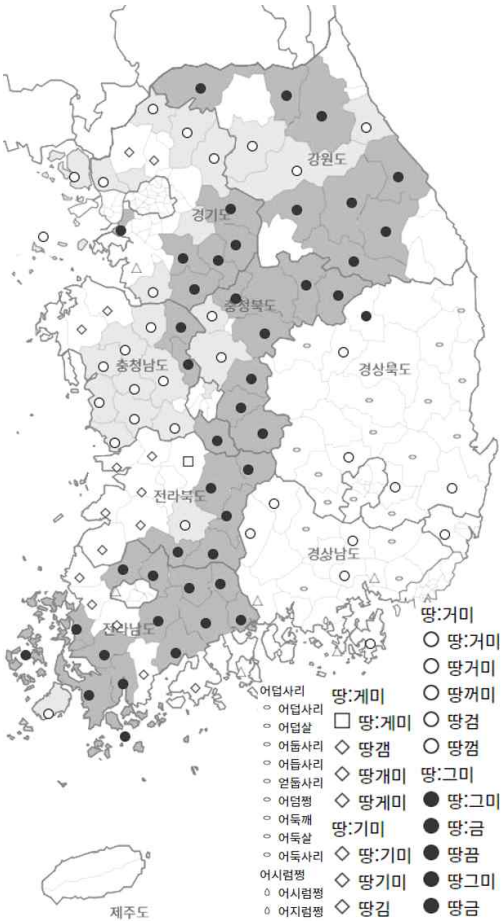
ㄴ. 한아부지 – 전남 신안·여수·영광·영암·진도

(57ㄱ)에서는 '할아부지'의 분포를 살필 수 있다. '할아부지'형이 관찰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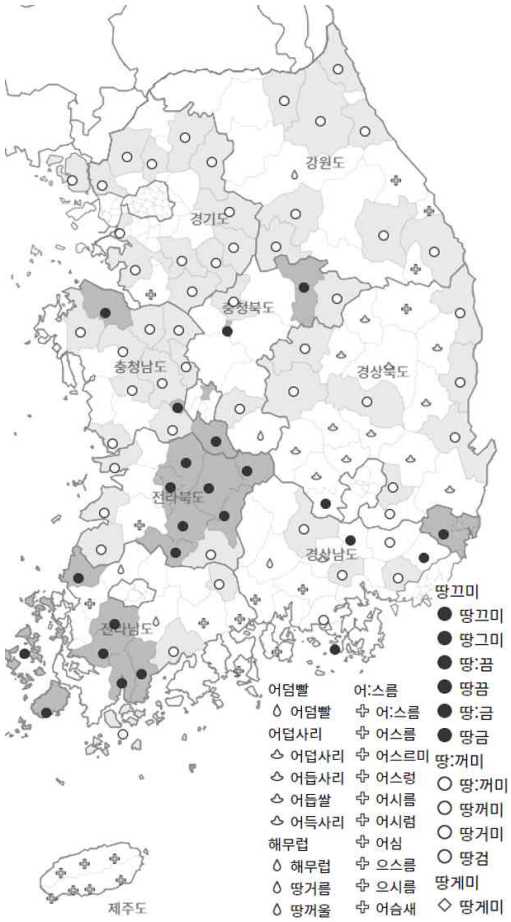
지역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7ㄴ)을 통해서는 《자료집》에서 '한아부지' 형이 우세하게 나타나던 전남 지역에서 '한아부지'의 세력은 약화되고 '할아부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역어》의 고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서는 대체로 '할아버지' 형이 실현된다. '할배'나 '한아씨' 형은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할아버지'형은 '할배'형이 장악하고 있던 경북 동부 지역을 지나 경남 지역에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원래 '할아버지'형, '할아버지' 형이 'ㅓ 〉 ㅡ' 고모음화와 원순모음화를 입어 형성된 '할아부지'형이 공존하던 중부 방언권은 《지역어》에 이르러 대체로 '할아버지'를 실현하면서도 '할아부지'형이 실현되는 잔재 지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이 '할아버지'형이 나타나는 경북 동부 지역에서는 '할아부지'형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ㅓ 〉 ㅡ' 고모음화와 그에 이은 원순모음화가 《자료집》과 《지역어》 사이의 시기에는 이미 생산성을 크게 잃은 것을 증명한다고 하겠다.

'할아부지'형이 고모음화에 이어 원순모음화까지 입은 어형이었다면, 이제 비어두의 'ㅓ 〉 ㅡ' 고모음화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땅그미~땅금'의 방언 분포를 살펴보자.



[지도 45] '_'형의 분포(땅거미, 자료집)



[지도 46] '_'형의 분포(땅거미, 지역어)

《자료집》에서 비어두 'ㅓ 〉 _'를 보이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58) ㄱ. 땅:그미 - 경기 시흥
ㄴ. 땅그미 - 강원 철원, 경기 양평
ㄷ. 땅:금 - 강원 횡성, 경기 용인, 전북 진안
ㄹ. 땅금~땅끔 - 강원 강릉·양구·영월·인제·정선·평창, 경기 안성·여주·이천, 경북 영주, 전남 강진·곡성·광양·구례·담양·무안·보성·순천·신안·영암·완도·장성·해남·화순, 전북 남원·무주·순창·장수, 충남 금산·연기·천안, 충북 전역(진천·청주 제외)

(58)을 살펴보면 비어두의 'ㅓ 〉 ㅡ'는 어두의 장음 'ㅓ: 〉 ㅡ:'와는 분포가 사뭇 다르다. 'ㅓ'와 'ㅡ'의 변별이 없는 경북·경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고루 분포하기는 하지만, 어두 장음 'ㅓ: 〉 ㅡ:'의 중심이라 할 만했던 충남 및 경기 지역에서 비어두의 'ㅓ 〉 ㅡ'는 특히 잘 일어나지 않는다.[74] 오히려 전남 및 전북 동부에서 비어두의 'ㅓ 〉 ㅡ'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모음화를 입지 않는 지역을 살펴보면, 동남 방언을 제외한 전 방언에서는 '땅거미' 형이 어떤 음운 변동도 겪지 않고 그대로 실현되거나 '땅게미' 등의 움라우트를 입은 어형으로 실현된다. 움라우트가 일어난 어형은 전북 서부를 중심으로 확인되며, '땅게미' 또는 '땅게미'의 2음절 'ㅖ'가 'ㅣ'로 고모음화한 '땅기미' 형이 관찰된다. 개재자음이 'ㅁ'이므로 충분히 움라우트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인데, 움라우트의 영향을 받은 지역과 고모음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 명확히 대별되는 것이 전북·전남 지역인 점이 흥미롭다. 강원·경기·충청의 중부 방언권에서는 '땅거미' 형이 우세한 반면 서남 방언권에서는 고모음화형과 움라우트형이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움라우트가 적용된 이후에 또다시 고모음화를 입은 '땅기미' 형도 전북 익산과 전남 나주·함평, 경기 양주에서 나타난다.

(59) ㄱ. 땅게미 – 경기 파주, 전남 영광, 전북 고창·군산·김제·부안·완주·정읍, 충남 당진·서산
ㄴ. 땅기미 – 경기 양주, 전북 익산, 전남 나주·함평

이와 같이 전북 서부와 전남 북서부에서는 비어두의 'ㅓ'가 고모음화보다 움라우트를 먼저 입은 형태가 발견되었다. 'ㅓ'에 적용되는 움라우트와 'ㅓ 〉 ㅡ' 고모음화는 출혈순의 관계를 갖고 있지만, (59ㄴ)과 같은 'ㅖ 〉 ㅣ' 고모음화형은 움라우트와 급여순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74) 'ㅓ'와 'ㅡ'의 변별이 없는 동남 방언권에서 'ㅓ > ㅡ'가 관찰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이 지역은 '땅거미' 대신 '어덥살[ƎdƎpsal]~어덥사리[ƎdƎpsari]' 형이 주로 나타났다.

이제 《지역어》에 나타나는 비어두 ‘ㅓ 〉 ㅡ’의 양상을 살피기로 한다.

(60) ㄱ. 땅:금~땅:끔 – 전남 신안, 전북 임실·전주, 충북 제천
ㄴ. 땅금~땅끔 – 경남 양산·창녕·통영, 경북 고령, 전남 강진·나주·영광·영암·장흥·진도, 전북 무주·순창·완주·진안, 충남 계룡·금산·대덕, 충북 증평

《지역어》의 시기에 이르러 ‘땅거미’ 형의 고모음화는 [지도 44]에 확인되는 ‘할아버지’형의 고모음화보다 훨씬 협소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료집》에서 경기 남부 및 강원도, 충북 전역에서 관찰되던 ‘땅금’ 형은 전북 이남으로 그 영향권이 줄어들었다.

또 하나 눈여겨 볼만한 것은 《지역어》에 이르러 움라우트형 ‘땅게미’는 충남 태안 한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자료집》에서 움라우트형의 중심지였던 전북 서부에서 자취를 감추었다는 점이다. 전북 동부의 ‘땅금’형이 《지역어》에까지 공고히 유지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즉 이 지역에서는 움라우트의 소멸이 고모음화가 영향력을 잃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을 살피면, 강원·경기·충청을 아우르는 중부 방언권에서는 ‘땅거미’가 별다른 음운 변동을 겪지 않고 실현된다. 경북 지역의 경우 《지역어》에 이르러 ‘ㅓ’와 ‘ㅡ’의 변별이 생긴 곳이 많으므로 이론적으로는 ‘ㅓ 〉 ㅡ’가 일어날 수 있다. ‘어덥사리’와 ‘어듭사리~어듭살~어득사리’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61) ㄱ. 어덥사리 – 경북 청송
ㄴ. 어듭사리~어듭살~어득사리 – 경북 경주·구미·군위·김천·성주·안동·영양·영주·영천·예천·울릉·칠곡, 경남 의령

(61ㄱ)처럼 경북 청송에서는 ‘어덥사리’, (61ㄴ)에 나열된 여타 지역에서는

‘어듭사리~어듭살~어득사리’로 나타난다. 《자료집》에서는 공히 [ƎdƎpsari]로 나타나던 것이 《지역어》에 이르러 ‘어덥사리’와 ‘어듭사리’류로 나뉜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어둡-’의 고형은 ‘어듭-’으로, ‘어듭게〈월석2:21〉’나 ‘어드운〈능엄2:28〉’ 등의 형태가 문증된다. 따라서 ‘어듭사리’가 ‘어듭-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비어두 ‘ㅓ’의 고모음화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원래 ‘어듭사리’이던 것이 ‘ㅡ’와 ‘ㅓ’의 변별이 되지 않는 시기에 [ƎdƎpsari]로 실현 및 인식되다가 ‘ㅡ’, ‘ㅓ’의 변별이 생기자 다시 ‘어듭사리’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북 청송의 ‘어덥사리’형이 [Ǝ]가 ‘ㅡ’와 ‘ㅓ’로 나뉘는 과정에서 하강한 형태라고 보는 방향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경북 지역에서도 ‘땅거미’형이 나타나는데, 경북 고령에서 ‘땅끔’형이 관찰되는 것을 제외하면 ‘ㅓ 〉 ㅡ’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할아버지’와 ‘땅거미’의 방언 분포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비어두 ‘ㅓ 〉 ㅡ’의 상승은 해당하는 어형이 다양하지 않고, 방언 분포와 그 변화를 통해 중심 지역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대체로 ‘아부지{아버지}’, ‘할무니{할머니}’ 등 친족명칭에서 나타나거나 ‘땅거미’처럼 몇 안 되는 단어에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료집》의 한정된 자료 안에서 비어두 ‘ㅓ 〉 ㅡ’의 중심지를 찾아보자면 전남 지역이라 할 만하다. 아래 단어들이 비어두의 ‘ㅓ 〉 ㅡ’를 보이는 예들이다.

(62) ㄱ. 아부지{아버지} - 경기 강화·김포·남양주·여주·파주(아브지), 강원 삼척·영월·원주·화천, 충북 단양·영동·옥천·청주, 충남 금산·논산, 전북 전역(익산 제외), 전남 전역(강진·영암 제외), 경북 전역(봉화·영풍·칠곡 제외), 경남 전역(거제·남해·산청·울주·함안·합천 제외)

ㄴ. 어무니{어머니} - 전남 고흥·광양·나주·무안·순천·여수·영광·장흥, 경북 경산·고령·김천·달성·안동·의성·청송·포항, 경남 밀양·양산·통영·함양

ㄷ. 할무니{할머니} - 강원 철원, 전북 남원, 전남 강진·고흥·곡성·

광산·광양·무안·여수·장흥·함평, 경북 경산·고령·김천·달성·선산·성주, 경남 거제·거창·고성·남해·양산·의령·진주·창녕·창원·함양·합천

(62ㄱ)의 '아부지'는 [지도 43]에 나타난 '할아부지'와 그 분포가 유사하여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분포를 보인다. (62ㄴ)의 '어무니' 형은 전남과 경남·경북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앞서 논의한 것처럼 동남 방언의 '어무니' 형은 그 외 방언권의 '어무니' 형과는 그 형성 과정이 다르다. 따라서 여기에서 다루는 'ㅓ 〉 ㅡ'는 전남을 중심으로 일어난다고 할 것이다. (62ㄷ)은 '할무니'로 역시 전남을 중심으로 관찰된다. 이들은 전남에서도 남부 지역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지역어》를 살펴보면 비어두 'ㅓ 〉 ㅡ' 형은 다음과 같이 분포한다.

(63) ㄱ. 아부지 – 강원 영월, 경기 여주·연천, 충북 괴산·증평, 충남 금산·아산, 전북 임실·장수·전주·정읍, 전남 강진·고흥·순천·완도·여수·장흥·진도·함평·화순, 경북 경산·구미·군위·김천·성주·안동·울릉·울진·칠곡·포항, 경남 거창·김해·밀양·사천·양산·진주·통영·함안·함양

ㄴ. 어무니~어무이 – 경기 여주, 전남 여수, 경북 김천·안동·영덕·영양, 경남 양산·통영

ㄷ. 할무니 – 경기 여주·연천, 전북 임실·전주, 전남 여수, 경남 사천·함양·합천

(63)을 살펴보면 《자료집》에 비해 고모음화의 세력이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63) 또한 전남·경남을 중심으로 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므로, 비어두 'ㅓ 〉 ㅡ'의 중심 지역은 전남을 위시한 남부 방언이라고 판단된다.

비어두 'ㅓ 〉 ㅡ'에 한해서는 고모음화의 소실이 서울 및 경기 지역을 비롯하여 충남 서부, 전북 서부에서 먼저 나타나는 점이 흥미롭다. 어두 장음

‘ㅓ: 〉 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모음화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중부 방언부터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75][76]

한편 《지역어》에서는 어말 위치의 ‘ㅓ’가 ‘ㅡ’로 나타나는 다른 사례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는 그 예다.

(64) ㄱ. 간지름{간지럼} - 강원 강릉·영월·홍천·횡성, 경기 시흥·연천·평택, 경북 영덕·영양·예천·울진, 전남 장성·함평, 전북 순창, 충남 보령·연기·청양·홍성, 충북 단양

ㄴ. 부스름~부시름{부스럼} - 충남 계룡·청양·태안, 충북 단양, 경북 영덕·문경·영양

ㄷ. 꾸지름{꾸지람} - 전남 나주·완도, 경북 김천·영주, 경남 의령 (cf. 꾸지럼 – 충북 증평, 경북 성주)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바로 경북에서 ‘ㅓ 〉 ㅡ’로 보이는 어형들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자료집》에서 경북 지역은 ‘ㅡ’와 ‘ㅓ’의 변별이 없던 지역이었으므로 ‘ㅓ 〉 ㅡ’ 고모음화가 일어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지역어》에 이르러 ‘ㅓ’와 ‘ㅡ’의 변별이 생겨났으므로 이론적으로는 ‘ㅓ 〉 ㅡ’ 고모음화가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4)의 예들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ㅓ 〉 ㅡ’의 대립이 점차 생겨나면서 ‘ㅓ 〉 ㅡ’ 고모음화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을 분석해보면 섣불리 고모음화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64ㄱ)의 ‘간지름’은 동사 어간이

75) 북한 방언의 경우, 황해 방언에서 비어두 ‘ㅓ > ㅡ’가 다수 관찰된다. ‘버슷{버섯}(황북 수안/황주, 황남 강령/벽성/옹진/태탄)’, ‘싱급다{싱겁다}(황북 곡산/봉산/토산)’, ‘기끗{기껏}(황북 봉산)’ 등이 보고되었다(황대화 2007: 44). 함북 육진 방언에서는 ‘다슷{다섯}(함북 경흥)’, ‘망근{망건}(함북 경원)’, ‘아브님{아버님}(함북 경원)’, ‘슬큳{실컷}(함북 경원)’ 등이 보고된 바 있다.

76) 한편 황해도 방언에서는 ‘ㅓ > ㅡ’의 변화를 겪은 어형도 흔히 관찰되고 반대로 ‘ㅡ > ㅓ’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어형도 숱하게 보고된다. ‘거네{그네}’, ‘거림{그림}’, ‘컨아바이{큰아버지}’, ‘너리다{느리다}’, ‘더나덜다{드나들다}’, ‘터림{트림}’, ‘헌적{흔적}’, ‘엉석{응석}’, ‘너거럽다{너그럽다}’, ‘그럭{그릇}’, ‘가넝하다{가능하다}’, ‘오런손{오른손}’, ‘우섭다{우습다}’ 등 어두·비어두, 선행자음의 성격과 관계없이 ‘ㅓ > ㅡ’가 일어난 어형이 많이 관찰된다.

‘간지르-’이므로, 여기에 명사형 어미 ‘-ㅁ’이 결합했다고 하면 고모음화를 입은 것이 아니게 된다. (64ㄴ)의 ‘부스름’은 현대국어의 ‘부스럼’이 본래 ‘브스름’으로부터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 시기의 ‘ᅳ’가 동남 방언 화자에게서 [ɜ]로 실현되다가 ‘ᅳ’, ‘ㅓ’의 변별이 생기며 다시 ‘ᅳ’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4ㄷ)의 경우 ‘구지럼/구지람〉ᄭᅮ지람〉꾸지람’이 일반적이지만 18세기 문헌에서는 ‘ᄭᅮ디ᄅᆞᆷ〈五倫兄07b〉’, 19세기 문헌에서는 ‘ᄭᅮ지름〈한불213〉’이 드물게 발견되는데 이것이 ‘꾸지름’형의 직접적인 소급형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고모음화와는 전연 관계없는 어형이 된다. 한편 ‘꾸지람’이 어떤 연유에서든 ‘꾸지럼’으로 나타나고(‘ᄭᅮ지럼〈독립신문1899〉’ 형의 전승 등), 이 ‘ㅓ’가 다시 고모음화를 입어 ‘ᅳ’로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경북 방언에서 나타나는 ‘ㅓ’와 ‘ᅳ’의 혼란은 고모음화가 실현된 형태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음소 ‘ㅓ’와 ‘ᅳ’의 대립이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만은 확인할 수 있다.[77]

4.1.2. ㅗ 〉 ㅜ

여기에서는 비어두 ‘ㅗ’의 고모음화를 살피기로 한다. 정인호(2006: 347)에 따르면 ‘ㅗ 〉 ㅜ’의 고모음화는 단어 내의 위치에 영향을 받는데, ‘비어두-비어말’ 위치에서 ‘ㅗ 〉 ㅜ’가 가장 잘 일어난다. 그런데 이 조건의 단어들은 이미 《자료집》 이전의 시기에 거의 고모음화가 완료되었고 또한 규범에 반영된바, 전 방언에서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므로 《자료집》과 《지역어》를 대비하여 보일 필요가 없다. 한편 정인호(2006)에서는 ‘비어두-비어말’ 위치인데도 ‘ㅗ 〉 ㅜ’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선행음절에 ‘ㅗ’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 경우 고모음화가 수의적으로 일어나 방언차를 살필 수 있고 《자료집》과 《지역어》 사이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77) 한편 백두현(1998: 697)에서는 《국한회어》에서 ‘ㅡ’와 ‘ㅓ’의 합류는 [+coronal], [+anterior] 자음 뒤에서 먼저 일어났음을 밝히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22)에서 ‘ㅡ’와 ‘ㅓ’의 변별을 증명하는 예는 모두 [+coronal]이며 [+anterior]인 ‘ㄹ’ 뒤에서 실현된다. 치조음과 ‘ㅡ’, ‘ㅓ’의 변별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는 이 조건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도토리'의 방언 분포를 살펴보고, 또 비어두-비어말의 'ㅗ 〉 ㅜ' 변화로 추정되는 '나묵신{나막신}'의 분포를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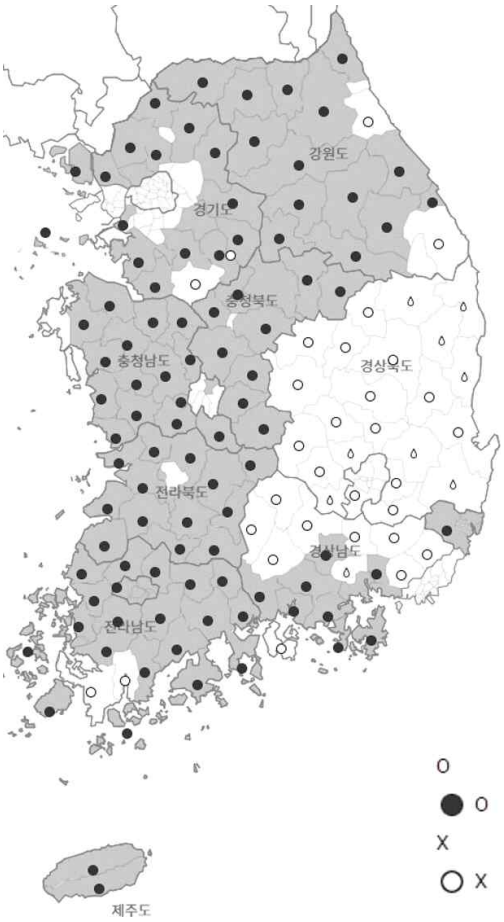
(65) ㄱ. 도투리 - 경기 옹진·용인, 경북 달성·봉화·상주·영덕·영양·영주·예천, 전남 여수, 전북 군산, 제주 제주, 충남 당진·서산·아산·예산·홍성, 충북 단양
ㄴ. 나묵신 - 경북 봉화·울진·군위·경산, 경남 거창·합천, 전북 완주·부안·임실·순창·남원, 충남 아산

먼저 (65ㄱ)은 《자료집》에 나타나는 '도투리'의 방언 분포로, 경북 북서부와 충남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65ㄴ)의 '나묵신'은 '나목신〈국한55〉'의 'ㅗ 〉 ㅜ' 고모음화형으로 추정되는데, 주로 전북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65)의 예들을 살피면 'ㅗ 〉 ㅜ' 고모음화는 19세기부터 발견되는 문헌상의 'ㅗ 〉 ㅜ'가 그렇듯이 전국에서 고루 일어나며 지역적인 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는 《지역어》의 시기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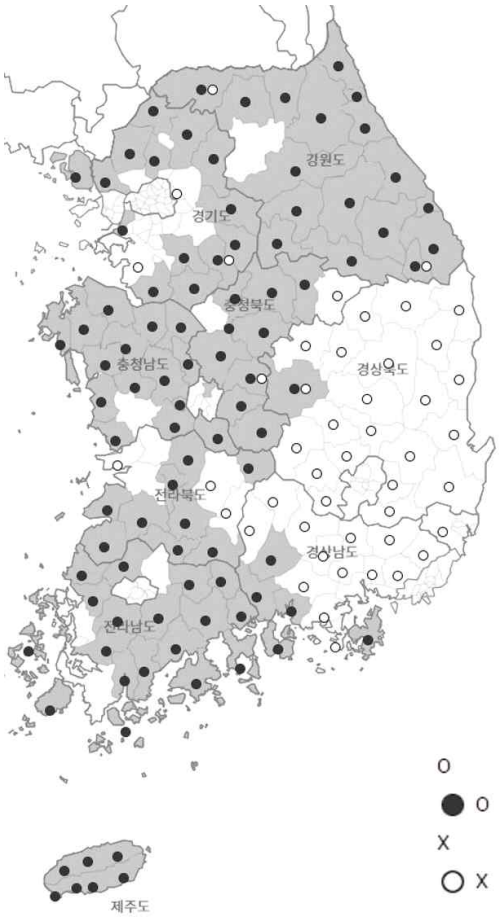
(66) ㄱ. 도투리 - 경기 여주, 전남 완도, 전북 순창·진안, 충남 보령·서산·아산·태안
ㄴ. 나묵개 - 전북 진안·장수·임실, 충남 금산

(66)의 예들은 《자료집》에 비해 그 분포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ㅜ'형의 분포는 충남 서부와 전북 남부에 어느 정도 모여 있기는 하지만, (65)과의 공통점이나 다른 'ㅜ'형의 사례 등이 발견되지 않아 특별히 중심지를 찾기 어렵다. 이는 '도투리'나 '나묵신' 등의 고모음화형 자체가 19세기부터 시작된 비어두 'ㅗ 〉 ㅜ'의 폭발적인 확산에 끼지 못한 잔재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어말 위치의 'ㅗ 〉 ㅜ' 고모음화를 반영하고 있는 '삼촌'의 방언 지도이다.



[지도 47] ‘ㅜ’형의 분포(삼촌, 자료집)



[지도 48] ‘ㅜ’형의 분포(삼촌, 지역어)

먼저 《자료집》에서 ‘삼춘’의 분포를 살펴보기로 한다.

(67) 삼춘 – 강원 전역, 경기 전역(안성 제외), 충북 전역, 충남 전역, 전북 전역, 전남 전역(해남·강진 제외), 경남 거제·고성·사천·울주·의령·진주·창원·통영·하동

(67)은 ‘삼촌’의 ‘ㅗ 〉 ㅜ’ 고모음화형인 ‘삼춘’이다. 동남 방언을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며, ‘ㅗ 〉 ㅜ’가 일어나지 않은 지역을 찾는 것이 빠를 정도로 우세한 어형이다.[78] 경남 서부에서는 ‘삼춘’형이 발견된다. 경북은 ‘ㅗ 〉 ㅜ’

78) 북한 방언에서도 발견되는데, 황북 린산/봉산/송림/연탄/은파/평산, 황남 전역, 함북 경흥 등에서 ‘삼춘’형이 보고되었다.

가 일어나지 않기도 하지만 '아재[ajE]'형도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지역어》에서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68) 삼춘 - 강원 전역, 경기 전역(구리·화성 제외), 충북 전역(단양 제외), 충남 전역, 전북 전역(군산·진안·장수 제외), 전남 전역(무안·해남 제외), 경북 상주, 경남 산청·하동·사천·남해·거제

《지역어》에서의 '삼춘'형 역시 전국에 고루 분포하며, 동남 방언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절대적으로 우세한 양상을 보인다. 전국에 산발적으로 '삼촌'형이 존재하지만 특정한 방언권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동남 방언권과 접경한 지역(전북 진안·장수, 충북 단양)에서는 '삼촌'형이 보고된다. 이 중 충북 단양은 고모음화에 있어 경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므로 방언 접촉에 의한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북 진안·장수와 경남 거창·함양은 사이에 덕유산과 지리산을 두고 있고, 특별히 양 지역의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역어》에 나타나는 전북 진안·장수의 '삼촌'형이 방언 접촉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는 전국에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삼촌'형처럼 개인어거나 방언 조사라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79]

어말 'ㅗ 〉 ㅜ'의 중심지를 찾기 위해서는 다른 어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춘'형 외에 《자료집》에 나타나는 '눈곱', '고모', '이모' 등의 고모음화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69) ㄱ. 눈꿉 - 경기 가평·강화·고양·광주·김포·남양주·여주·파주·화성,

79) 한편 《지역어》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아재'형은 사라지고 '삼촌'형만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료집》에서는 동남 방언에서 '아재[ajE]'형이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였는데 이들이 모두 '삼촌'형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지역어》의 경우 동남 방언에서 '아재'는 친족이 아닌 일반적인 명칭 '아저씨'의 방언형으로 주로 나타났으며, '숙부'를 뜻하는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삼촌'만이 나타났다(극소수의 지역에서는 구형으로서의 '아재{숙부}'가 보고되기도 함). 방언 접촉에 있어서 일종의 '의미의 변경'이 일어난 셈이다.

강원 양양·원주, 충북 단양, 전북 군산·무주·부안·완주·익산·진안, 경남 창녕·함양

ㄴ. 고무 – 경기 여주, 강원 화천, 충북 영동, 충남 금산, 전북 고창·순창·장수, 경북 상주, 경남 고성·김해·양산·의령·진주·창원·통영·합천

ㄷ. 이무 – 강원 홍천·화천

(69ㄱ)은 '눈곱(〈눉곱)'의 2음절 'ㅗ'가 'ㅜ'로 고모음화한 '눈꿉'형인데, 경기·전북에서 가장 흔히 나타난다. 각각 '고모'와 '이모'의 어말 고모음화형인 (69ㄴ)의 '고무'와 (69ㄷ)의 '이무'는 이보다는 분산된 분포를 보인다. '고무'의 경우 오히려 경남에 집중된 분포를 보이기도 하며, '이무'는 강원 화천과 홍천에서만 예외적으로 나타난다. 정인호(2006: 348)에 따르면 어말 'ㅗ 〉 ㅜ'는 한자어인 경우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눈꿉'보다 '고무', '이무'의 실현이 비교적 제한적인 데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어》에 나타나는 어말의 'ㅗ 〉 ㅜ' 양상은 《자료집》과는 사뭇 다르다.

(70) ㄱ. 눈굽 - 경기 양평·파주, 충남 논산, 경남 고성·산청·창원, 제주 구좌

ㄴ. 손묵 - 경기 파주, 경북 상주·영주·예천, 경남 사천, 전남 완도·곡성·보성(폴묵)

ㄷ. 고무 - 경기 시흥·양평·여주, 강원 삼척, 충북 증평, 충남 홍성, 전북 임실, 전남 장성·진도·함평, 경북 고령·구미·김천, 경남 고성·사천·산청·의령·진주·창녕·함안·합천

(70ㄱ)과 (70ㄴ)은 어말의 폐음절에서 'ㅗ 〉 ㅜ'의 고모음화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눈굽'은 《자료집》에 비해 세력이 크게 축소되어 《지역어》에 이르러서는 중심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분포를 보인다. (70ㄴ)은 《자료집》에서는 조사되지 않은 어형인데, 이 사례 역시 《지역어》의 분포를 통해 중심지를 찾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산발적으로 확인된다. 반면 (70ㄷ)의 '고무'형은 《지역어》에서도 상당히 넓은 지역에 분포한다. 정인호(2006: 347)에서는 비어두 'ㅗ'의 고모음화와 관련하여 '오'가 어말 개음절에 위치할 때는 대부분 고모음화를 겪고, 어말 폐음절에 위치할 때는 수의적으로 고모음화를 입어 쌍형어를 이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무'는 한자어로 'ㅗ 〉 ㅜ' 고모음화에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어말 개음절의 'ㅗ'이므로 고모음화가 촉진될 이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무'의 경우 《지역어》에서도 비교적 그 세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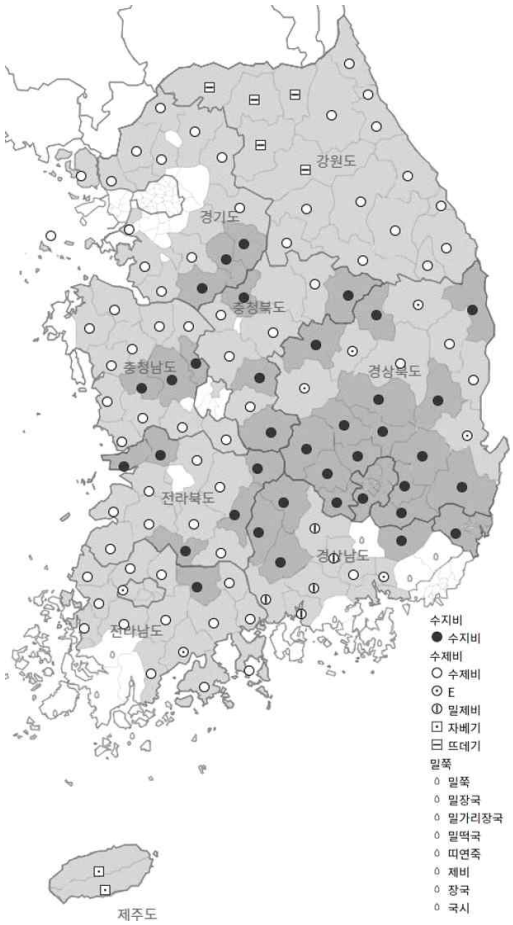
4.1.3. ㅖ 〉 ㅣ

여기에서는 비어두-비어말 위치의 'ㅖ 〉 ㅣ'를 확인한다.[81] 비어두-비어말의 'ㅖ 〉 ㅣ'를 보이는 어형은 대체로 움라우트나 비원순모음화 등 다른 음운 현상을 겪은 경우가 많다. 원칙대로라면 이들을 제외하고 본래 'ㅖ'를 가진 것 '구레나룻'이나 '얼레빗(〈얼에빗)'의 고모음화 분포를 보이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들은 '굴레쉬염'계열이나 '어림빗'계열 등 다른 어형으로 실현되는 일이 많아 분포와 그 변화를 살피기에 적절치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차선책으로 'ㅕ 〉 ㅖ 〉 ㅣ'를 보이는 '수제비(〈슈져비)'의 고모음화를 살피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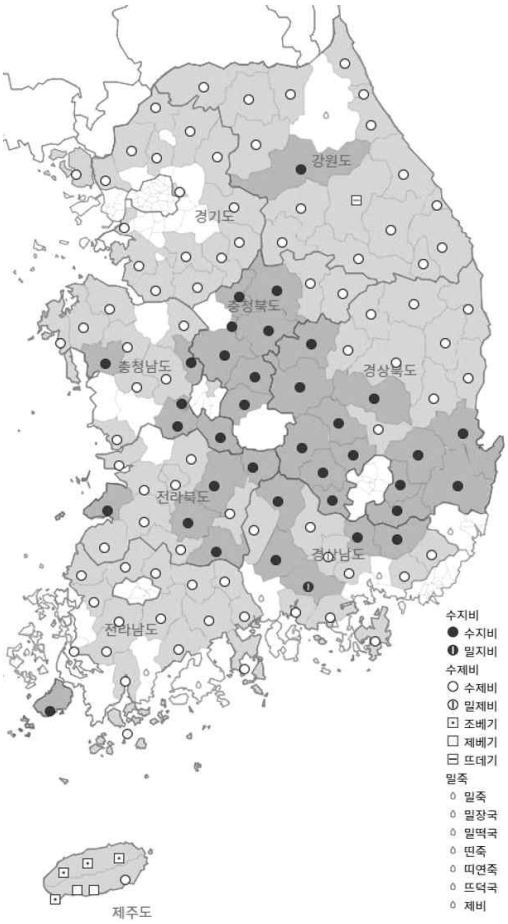
---

80) 북한 방언의 경우에도 비어두 'ㅗ > ㅜ'가 많이 관찰된다. 최명옥 외(2002), 황대화(2007: 45, 2011), 오선화(2015) 등에 따르면 '저구리{저고리}(황북 서흥, 황남 전역)', '손툽{손톱}(황남 전역)', '사둔{사돈}(황해도 전역)', '고무{고모}(황북 린산/봉산/송림/은파/평산, 황남 전역)', '모주리{모조리}(황북 사리원/송림, 황남 전역)', '일분{일본}(함북 경흥/경원)', '풍죽{풍족}(함북 경원)', '단우{단오}(함북 경원/회령)' 등 'ㅗ > ㅜ'가 흔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남한 방언과 마찬가지로 조사 '-로', '-도', 어미 '-고' 등도 모두 고모음화를 겪은 형태로 나타난다. 한자어에서는 남한 방언보다도 적극적으로 'ㅗ > ㅜ'를 입은 것이 확인된다.

81) 여기에서 살펴본 어형은 다음과 같다. (밑줄은 《지역어》에서도 조사된 어형)
구레나룻(Ⅰ.204-3), 수제비(Ⅰ.089), 어레미(Ⅰ.047), 번데기(Ⅰ.195), 얼레빗(Ⅰ.229-1), 굼벵이(Ⅰ.436), 써레(Ⅰ.015), 어제(Ⅰ.556), 이레(Ⅰ.399)



[지도 49] 'ㅣ'형의 분포(수제비, 자료집)



[지도 50] 'ㅣ'형의 분포(수제비, 지역어)

[지도 49]는 《자료집》을 토대로 '수제비(〈슈져비)'의 고모음화형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보여준다.

(71) 수지비 – 경기 안성·여주·이천, 경남 거창·밀양·산청·울주·함양, 경북 경산·경주·고령·구미·군위·김천·달성·문경·성주·영주·영천·울진·의성·청도·청송·칠곡, 전남 곡성, 전북 군산·무주·순창·익산·장수, 충남 공주·연기·청양, 충북 단양·보은·영동·음성

(71)은 비어두-비어말의 'ㅖ(〈ㅕ)'가 고모음화를 겪은 어형으로, 주로 경북 중남부에 분포하며 인접한 경남/전북/충북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

다. 한편 경기 남부 및 충남 동부 일부 지역에서도 ‘수지비’형이 관찰된다.

고모음화를 겪지 않는 어형 중에서는 ‘수제비’가 전국에 고루 분포한다. 강원 서북부에서 ‘뜨데기’형이 나타나고 경남 서부에서는 ‘밀제비’형이 분포하며 제주도에는 ‘ᄌᆞ베기’가 나타나는데, 이들 역시 ‘수제비’와 마찬가지로 비어두-비어말에 ‘ㅖ’가 위치하지만 고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고모음화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어형 중에서는 전남의 서남부의 ‘밀죽’, 경남 동남부의 ‘밀장국’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어》에서는 ‘ㅖ 〉 ㅣ’ 고모음화형이 두 가지 발견된다.

(72) ㄱ. 수지비 – 강원 홍천, 경남 거창·밀양·산청·창녕, 경북 경산·경주·고령·구미·김천·문경·상주·성주·영천·의성·청도·칠곡·포항, 전남 진도, 전북 남원·무주·부안·임실·진안, 충남 계룡·금산·논산·연기·홍성, 충북 괴산·보은·옥천·음성·증평·청주·충주

ㄴ. 밀지비 – 경남 진주

(72ㄱ)은 ‘수제비’가 ‘ㅖ 〉 ㅣ’를 입은 어형이며, (72ㄴ)은 ‘밀제비’가 고모음화한 것이다. 이들의 분포는 《자료집》에서와 큰 변화가 없으며, 경북 중남부를 중심으로 하되 충북에서 고모음화형이 이전 시기보다 더 많이 보고되어 있다. ‘수제비’의 고모음화형은 경북과 충북을 중심으로 하여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어두의 ‘ㅖ 〉 ㅣ’는 어두 ‘ㅖ 〉 ㅣ’보다는 조금 더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집》에서 어두 ‘ㅖ 〉 ㅣ’의 중심지인 경북 서부는 비어두 ‘ㅖ 〉 ㅣ’ 역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지역어》 역시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한편 경북 서부 이외에도 북쪽으로는 충북, 남쪽으로는 경남까지 넓은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전북으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료집》에서는 ‘수제비’ 외에도 ‘번데기(〈본도기)’, ‘굼벵이(〈굼벙이)’, ‘어레미(〈어러미)’ 등의 비어두 ‘ㅖ’가 ‘ㅣ’로 고모음화한 방언형들이 관찰되

는데, 이들은 모두 움라우트를 입은 어형이 비어두의 'ㅐ 〉 ㅣ' 고모음화를 겪은 경우이다.[82] 이들의 분포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73) ㄱ. 번(:)디기~뻔(:)디기 - 강원 양양·영월·원주·평창, 경기 강화·양주·양평·여주·연천·용인·이천·평택, 경남 김해·밀양·양산·의령·함양·합천, 경북 고령·달성·상주·예천·울진·청도·청송, 전남 장성, 전북 무주·부안·순창·완주·익산·임실, 충남 금산·대덕·연기, 충북 전역(옥천 제외)

ㄴ. 본디기~뽄디기 - 경남 거제·울주·창녕·창원·통영·함안, 경북 경산·경주·구미·김천·성주·칠곡, 전북 군산

ㄷ. 꼰디기 - 경남 고성·남해·사천·산청·진주·하동, 경북 군위·문경·안동·영양·의성

ㄹ. 굼빙이 - 경기 안성·용인, 강원 영월, 충북 보은·영동·음성·진천, 전북 순창·익산, 전남 곡성·담양, 경북 경산·고령·군위·김천·달성·문경·상주·선산·성주·영천·예천·울진·월성·의성·청도·청송·칠곡, 경남 전역

ㅁ. 얼기미 - 경기 여주·이천, 충북 단양·보은·영동·음성, 충남 공주·연기, 전북 무주·순창·임실·장수, 전남 곡성·담양, 경북 전역(봉화·영덕-어르미, 안동 어리미 제외), 경남 전역(함양 제외)

(73ㄱ)의 '번디기'류는 '번데기'의 2음절 'ㅔ'가 'ㅣ'로 고모음화한 결과이며, 충북-경북-경남을 중심으로 넓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어두 장음이 실현되는 '번:디기', 어두경음화를 겪은 '뻔디기', 어두 장음이 실현되며 어두경음화를 겪은 '뻔:디기' 등의 어형이 나타난다. (73ㄴ)은 고형인 '본도기'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본데기'의 2음절 'ㅔ'가 'ㅣ'로 고모음화하여 형성되었다.

82) 이 사실은 곽충구(2003), 김아름(2008)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역시 어두경음화를 겪은 '뽄디기'형도 나타나며, 주로 경남 중부와 경북 서남부에서 확인된다. (73ㄷ)의 '꼰디기' 계열은 경남·경북에서만 확인되는데, 고모음화를 겪지 않은 '꼰데기' 형은 전남 동부에서도 관찰된다.[83] (73ㄹ)은 '굼벙이〉굼벵이〉굼빙이'의 과정을 거친 어형으로 역시 경남·경북, 그리고 경북에 인접한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경기·강원·전라도에서도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73ㅁ)은 '얼게미'의 고모음화형인데, 마찬가지로 경남·경북을 중심으로 하며 중부 방언권과 서남 방언권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73)에서 살펴본 고모음화형들은 모두 남부 방언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기·충북·충남에서도 'ㅐ 〉 ㅣ' 고모음화형을 찾아볼 수 있다.[84] 중부 방언권에서 일어나던 비어두 'ㅐ 〉 ㅣ' 고모음화는 《지역어》에서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번디기', '굼빙이', '얼기미'의 경우 《지역어》에서는 아래와 같이 분포한다.

(74) ㄱ. 번디기~뻔디기 – 강원 영월·인제·정선, 경기 시흥·여주·이천·파주, 경남 거제·남해·밀양·사천·산청·창녕·창원·통영·함양, 경북 경주·고령·구미·문경·상주·성주·의성·청도·칠곡, 전남 진도, 전북 무주·순창·임실·장수·전주, 충남 계룡·금산·논산·연기, 충북 괴산·보은·영동·음성·제천·증평·청주·충주

ㄴ. 본디기~뽄디기 – 경남 의령, 울산 울주, 경북 군위, 전북 군산

ㄷ. 꼰디기~꼰디이 – 경남 고성·진주·하동

ㄹ. 굼빙이 – 경기 시흥, 강원 동해, 충남 계룡, 충북 음성·증평

---

83) '번데기'류의 고모음화형은 북한에서도 널리 관찰되는데, 황북 금천과 황남 전역에서는 '번디기'형이, 황북 서흥에서는 '본디기'형이 관찰된다. 한편 황해도 방언에서는 '드리박{두레박}(황북 곡산·수안·신계·신평·연탄)', '디리박{두레박}(황북 봉산·사리원·서흥·수안·연산·연탄·은파·황주, 황남 전역)', '지릿대{지렛대}(황북 곡산·신평)' 등이 나타난다.

84) 곽충구(2003: 78)에서는 중부 방언권에서의 비어두 'ㅐ > ㅣ' 고모음화가 주로 움라우트를 입은 어형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ㅁ. 얼기미 – 경기 여주, 강원 인제, 충북 전역(옥천 제외), 충남 계룡·논산·서산·연기

《지역어》에 나타나는 고모음화형 중 대부분은 (74ㄱ)의 '번디기'형이다. '번디기'형은 여전히 충북-경북-경남에서 관찰되는데, 경북 동부에서 확연히 세력을 잃은 점이 눈에 띈다. 경북 서부에서 어두 'ㅐ 〉 ㅣ'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데 비해 경북 동부는 어두의 'ㅐ 〉 ㅣ'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 비어두의 'ㅐ 〉 ㅣ'가 먼저 소멸하는 것도 같은 궤의 현상으로 보인다. 한편 (74ㄴ)의 '본디기'형은 《자료집》에서 경남 중부-경북 서남부에 이르는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데 비해 《지역어》에서는 매우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74ㄷ)의 경우 경남 서부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나 《자료집》에 비하면 훨씬 한정된 지역에서만 나타난다.

(74)에 나타나는 세 가지 어형은 경기·강원보다는 충남·충북에서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강원에서는 《자료집》의 시기부터 비어두 'ㅐ 〉 ㅣ'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역어》에 이르러서는 더욱 약화된 것이 눈에 띈다. 반면 충남·충북의 경우 《자료집》에서도 비어두 'ㅐ 〉 ㅣ'형이 상당히 널리 분포했으며 이 세력이 《지역어》의 시기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어》에는 '족제비(〈죡져비)'의 고모음화형도 나타나는데, '쪽지비'형이 충남 계룡·연기·홍성, 충북 괴산·음성·증평과 경남북 전역에서 나타난다. 역시 충남·충북에서 비어두 'ㅐ 〉 ㅣ'가 세력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이다.

이처럼 비어두 'ㅐ 〉 ㅣ'의 고모음화는 움라우트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 고모음화의 실현을 통해 20세기 초에 움라우트가 전국에서 적극적으로 실현되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를 추가할 수 있다. 바로 '지렁이'의 예를 통해서다.

'지렁이'가 등장한 최초의 기록은 〈독립신문(1896)〉으로, '돌핑이는 몸이 지렁이 모양으로 보드랍고 징그러우나'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후 20세기 초에도 '디룡', '지룡' 형이 다수 등장하며 '지렁이'는 〈조선어사전〉에만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아직까지 '지렁이'형이 이전의 '디룡', '지룡'을

대체할 만큼 확산되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20세기 초 '지렁이'는 새로이 등장한 단어로, 이 단어가 고모음화를 겪는지 살피면 해당 시기 고모음화의 생산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다. 《자료집》에 따르면 '지링이'형은 경기 이천/안성, 충북 음성, 충남 청양·세종·대덕, 경북 영천·청도, 경남 거창·창원·고성·남해에서 발견된다. 비어두에서 움라우트를 통해 형성된 'ㅐ'가 'ㅣ'로의 고모음화를 겪는 것은 경기·강원 남부 이남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서남 방언 제외)이므로 '지링이'형의 실현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이처럼 19세기 말에 등장한 '지렁이'가 1900~1920년대생이 대부분인 《자료집》 제보자의 언어에서 이미 '지렝이, 지링이'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은 20세기 초 움라우트와 'ㅐ 〉 ㅣ' 고모음화가 강력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좋은 예다.

한편 움라우트와 'ㅐ 〉 ㅣ'의 고모음화는 급여순일 때도 있고 출혈순일 때도 있다. 이와 같이 음운 현상이 적용되는 순서가 고모음화의 분포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도 51]과 [지도 52]를 살펴보자.

[지도 51] ‘땅거미’의 방언 분포(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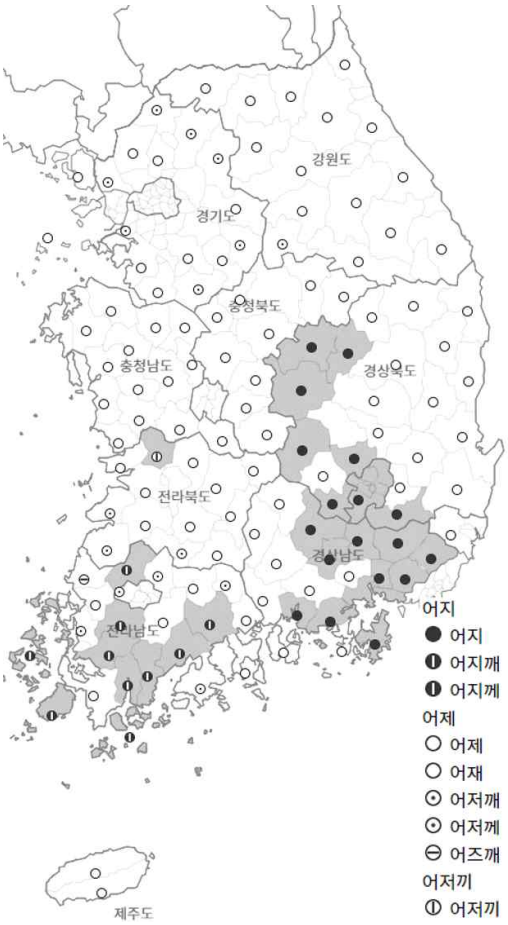
[지도 52] ‘땅거미’의 방언 분포(지역어)

[지도 51]은 ‘땅거미’의 방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움라우트와 고모음화의 관계이다. 먼저 ‘땅거미’형에 대해 움라우트와 비어두 ‘ㅓ 〉 ㅡ’는 출혈순이다. 전북 서부의 예와 같이 움라우트가 먼저 일어나 ‘땅게미’가 되면 자연히 비어두 ‘ㅓ 〉 ㅡ’는 일어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 움라우트는 또다른 고모음화인 ‘ㅔ 〉 ㅣ’와 급여순을 가지고 있다. ‘땅거미’에서 움라우트가 일어나 ‘땅게미’로 실현되어야만 비어두의 ‘ㅔ 〉 ㅣ’ 고모음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ㅔ 〉 ㅣ’ 고모음화가 실현된 어형은 전남 서부의 일부 지역에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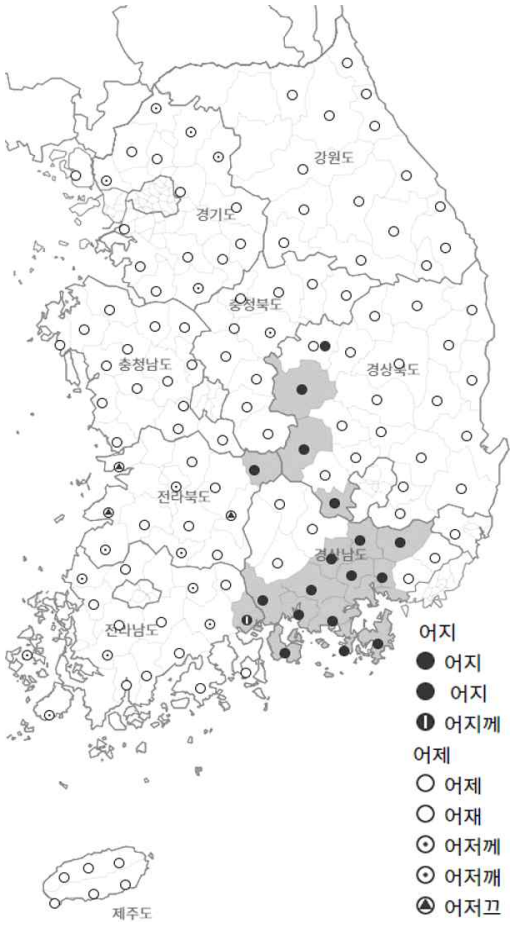
[지도 52]를 보면, 《지역어》에 이르러 움라우트형 ‘땅게미’는 《자료집》에서 움라우트형의 중심지였던 전북 서부에서 자취를 감추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북 동부의 ‘땅금’형이 《지역어》에까지 공고히 유지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즉 이 지역에서는 움라우트의 약화 또는 소멸이 고모음화가 영향력을 잃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나게 된 것이다. ‘땅게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땅기미'로의 'ㅐ 〉 ㅣ' 고모음화 역시 일어날 수 없다.

이제 어말 위치의 'ㅐ 〉 ㅣ'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어제'의 방언 분포를 살핀다.



[지도 53] 'ㅣ'형의 분포(어제, 자료집)



[지도 54] 'ㅣ'형의 분포(어제, 지역어)

《자료집》에 나타는 'ㅣ'형은 다음과 같이 분포한다.

(75) 어지 - 경남 거제·고성·김해·밀양·사천·양산·의령·창녕·창원·합천, 경북 고령·김천·달성·문경·상주·예천·청도·칠곡

(75)의 ‘어지’는 ‘어제’에서 ‘ㅖ 〉 ㅣ’의 고모음화가 일어난 결과로, 경남 중·동부와 경북 서부에서 확인되는 어형이다. 한편 전남 남부를 중심으로는 ‘어지께’가 나타나는데, 이는 ‘어저께(〈어져씌)’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전남 영광에서는 ‘어즈께’가 실현되는 점, 전남은 비어두 ‘ㅓ 〉 ㅡ’의 상승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저께 〉 어즈께’의 ‘ㅓ 〉 ㅡ’ 고모음화형이 ‘어즈께 〉 어지께’의 전설모음화를 겪어 ‘어지께’로 실현되는 어형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다. 비록 여기에서 살펴볼 ‘ㅖ 〉 ㅣ’ 고모음화형은 아니지만 ‘ㅓ 〉 ㅡ’의 세력이 약해짐에 따라 《지역어》에서는 ‘어저께’로 나타나거나 신형인 ‘어제’가 도입되는 것이 눈에 띈다.

고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서는 대체로 ‘어제’가 실현된다. ‘어제’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경기 일부 지역에 ‘어저께’가 나타나는 것, 전남과 이에 접경한 전북 남부에 ‘어저께’형이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가장 우세한 어형이다.

다음으로는 《지역어》에서 나타나는 ‘ㅣ’형을 살피기로 한다.

(76) 어지 – 경남 거제·고성·남해·밀양·사천·의령·진주·창녕·창원·통영·하동·함안, 경북 고령·김천·문경·상주, 전북 무주

《지역어》에서도 전체적인 분포 양상은 《자료집》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경남 중·동부, 경북 서부를 중심으로 ‘어지’형이 나타난다. 경남 서부로 ‘어지’의 세력이 조금 확산된 것이 눈에 띄며, 전북 무주 역시 ‘어지’형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모음화를 입지 않는 어형 중에서는 ‘어제’형이 전국에 분포하는 가운데 산발적으로 ‘어저께’형이 확인된다. 전남을 중심으로 하나의 영향권을 형성하고 있던 ‘어지께’는 전남 광양 한 곳에서만 실현되고, 전남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어제’ 혹은 ‘어저께’가 발견된다.

어말 위치의 ‘ㅖ 〉 ㅣ’ 고모음화는 경남, 그 중에서도 경남 중부를 중심으로 분포한다. 경남 동부의 일부 지역에 ‘어제’로의 개신이 영향을 미친 것과 경남 서부로 세력이 다소 확장된 것이 《자료집》과 《지역어》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이며, 분포상의 큰 변화는 눈에 띄지 않는다.

4.2. 문법형태소의 고모음화

이 장에서는 문법형태소의 고모음화를 살피기로 한다. 《자료집》에서는 'Ⅱ. 문법', 《지역어》에서는 '제3편 음운'과 '제4편 문법'에 수록된 자료 그리고 구술발화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각각의 자료에서 동일한 문법형태소를 여러 번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비율지도를 통해 문법형태소에서의 고모음화가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현되는지, 그리고 《자료집》과 《지역어》가 노정하는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85][86]

4.2.1. ㅓ 〉 ㅡ

먼저 《자료집》과 《지역어》에 나타난 문법형태소에서의 'ㅓ 〉 ㅡ' 고모음화가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알아보자.[8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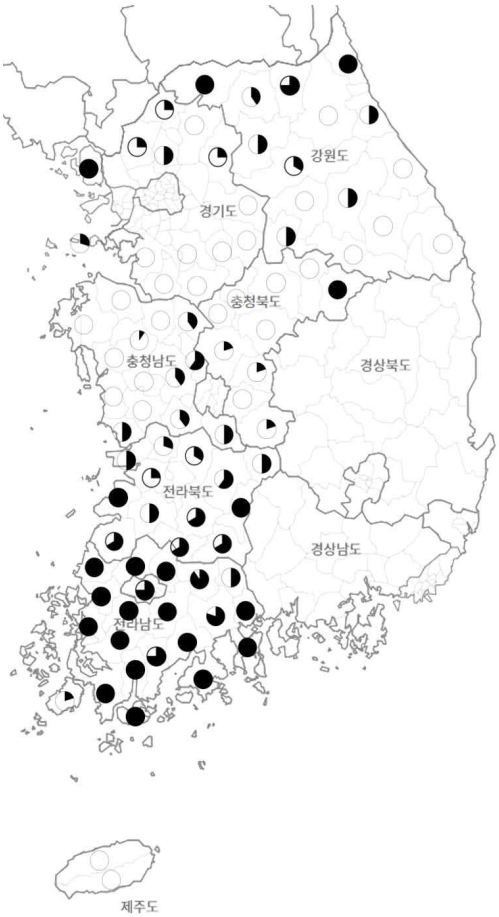
---

85) 앞서 살펴본 어휘형태소의 경우, 어휘 항목 자료에서는 단 한 번씩만 나타나며 구술발화 자료에서는 해당 어형이 등장하지 않거나 등장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고모음화형이 실현되는 비율을 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문법형태소의 경우, 구술발화 자료에서는 충분히 반복해서 출현하므로 고모음화가 실현되는 비율을 계산할 수 있었다. 일상 발화에서 고모음화형이 얼마나 실현되는지 알려주는 척도가 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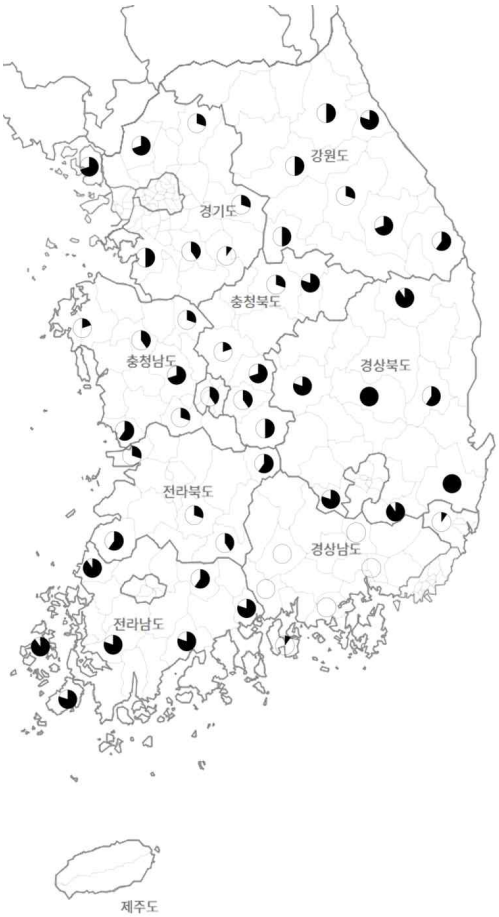
86) 《지역어》의 경우,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조사에서 문법형태소를 조사하였고 구술발화 자료도 전사되어 있어 이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다. 구술발화 자료는 지점당 최소 12시간 이상의 녹음 파일을 전사한 자료로, 총 60개 지점의 자료가 있으므로 720시간 이상의 발화 자료이다. 2011년 이후의 자료에는 문법형태소 조사가 없는 관계로 어휘형태소와 같이 군 단위로 항목을 모두 표기한 지도는 그릴 수 없지만, 복수의 어형에서 고모음화가 실현되는 비율을 살필 수 있다는 점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87) 《자료집》에서 살펴본 어형은 다음과 같다.
-더-(Ⅱ.38①, 잡더냐), -더-(Ⅱ.38②, 오겠더라), -었/았던(Ⅱ.39-1, 먹었던), -았/었던(Ⅱ.41보②, 작았던), -었던(Ⅱ.41보④, 왔었던)
《지역어》의 경우 다음 항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40408 - 더라도, 40608 먹더라, 40609 먹더냐, 구술발화

88) 《자료집》에 따르면 문법형태소에서의 'ㅓ > ㅡ' 고모음화는 모음으로 시작하



[지도 55] ‘-드-’형의 분포(자료집)



[지도 56] ‘-드-’형의 분포(지역어)

[지도 55]는 《자료집》에 나타나는 문법형태소에서의 ‘ㅓ 〉 ㅡ’ 고모음화 비율을 나타낸 비율지도이다. 먼저 ‘ㅓ 〉 ㅡ’의 고모음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경상도의 경우 《자료집》에서는 ‘ㅓ’와 ‘ㅡ’의 변별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지역으로, 당연히 ‘ㅓ 〉 ㅡ’가 관찰될 수 없다. 이를 제외하고 [지도 55]를 살펴보면 ‘ㅓ 〉 ㅡ’의 실현이 서남 방언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런데 전남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ㅓ 〉 ㅡ’가 일어나는 데 비해, 전북에서는 ‘ㅓ 〉 ㅡ’가 실현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아진 것

는 어미에서는 쉽게 살펴보기 힘들다. ‘-어야 > -으야’가 충남 일부 지역에서 관찰될 뿐, ‘-어서, -어라, -었-’ 등은 고모음화한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김아름 2008: 74). 따라서 이 장에서는 《자료집》과 《지역어》에서 나타나는 자음어미 ‘-더-’의 고모음화 양상을 살피기로 한다. 한편 《지역어》에서는 ‘-어-’계 모음어미의 고모음화도 드물지 않게 관찰되는데, 이는 5.2.1.에서 살피기로 한다.

을 알 수 있다. 전남과 접경한 전북 남부에서는 대체로 70%에 육박하는 'ㅓ 〉 ㅡ' 실현율을 보이지만, 전북 북부의 김제·완주 등지에서는 25%에 그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충남·충북을 지나 경기도 쪽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강해지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그보다 북쪽의 경기 북부에서는 다시 'ㅓ 〉 ㅡ'가 나타난다. 또 강원도에서도 강원 남부보다 북부에서 문법형태소의 'ㅓ 〉 ㅡ'가 적극적으로 일어난다. 이와 비슷한 분포를 앞서 어휘형태소의 비어두 고모음화를 나타낸 [지도 45]에서 확인한 바 있는데, 이러한 분포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도 45]와 [지도 55]에서 나타나는 'ㅓ 〉 ㅡ'의 환경과 방언 분포를 따져 보았을 때, 적어도 《자료집》의 시기까지는 비어두 'ㅓ 〉 ㅡ'는 어휘형태소든 문법형태소든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분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서남방언권 이외에도 경기도 북부, 강원도 북부에서도 'ㅓ 〉 ㅡ'의 고모음화가 적극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단순한 이격 분포일까?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비어두 및 문법형태소의 'ㅓ 〉 ㅡ'가 실현되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먼저 유소연(2020: 46)에서는 18세기 후반의 중부 방언을 반영한 《경신록언석》에서 문법형태소의 고모음화가 나타나는 예를 보고한 바 있다.

(77) ㄱ. -드-(-더-): ᄒᆞᆫ ᄋᆞᄃᆞᆯ을 주ᄂᆞ니라 하**드**라 ᄒᆞ더니 〈경신록언석 41b〉
ㄴ. -든-(-던-): 셤기**든** 바ᄅᆞᆯ ᄇᆡ반ᄒᆞ며 〈경신록언석2b〉

(77ㄱ)은 '-더-', (77ㄴ)은 '-던'에서 'ㅓ 〉 ㅡ' 고모음화 현상이 실현된 예다. 서울 지역에서는 (77)과 같이 문법형태소의 고모음화가 나타났으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세기의 자료를 다룬 논의로 넘어가면, 강희숙(2002: 179)에서 서울말을 반영한 박태원의 《천변풍경》에서 살필 수 있는, 문법형태소 '-던'이 '-든'으로 상승한 예를 보이고 있다.

(78) -든(-던): 전세루 집 한 채 얻어 줬**든** 걸(8)

(78)을 통해 20세기 초의 서울말에서도 '-던'의 고모음화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의 자료를 다룬 신하영(2013: 11)에서는 비어두의 'ㅓ 〉 ㅡ' 실현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몇 개를 가져와 보이면 다음과 같다.

(79) ㄱ. 죠기졋이 잇**드**래도〈무쌍 205〉
ㄴ. 담엇**든**〈무쌍 8〉

(79ㄱ)은 '-더-'가 고모음화를 입은 예이며, (79ㄴ)은 '-던'에서 고모음화가 실현된 예다. '-던 〉 -든'의 고모음화는 경기도 방언에서도 나타난다(김봉국 2004:43). 즉 문법형태소에서의 'ㅓ 〉 ㅡ' 고모음화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던 음운 현상인 셈이다.

한편 신우봉(2016: 248)에서는 '20세기 전기 구어 자료' 중 서울·경기 지역 화자의 발화 자료를 대상으로 모음 상승의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문법형태소에서의 'ㅓ 〉 ㅡ' 상승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구분	/ㅓ/ → /ㅡ/
실현 환경	문법형태소
모음상승 비율	22.8% (122회)
모음상승 실현형	-드(〈더), -든(〈던), -든가(〈던가), -드니(〈더니) 등

[표 8] 문법 형태소의 'ㅓ 〉 ㅡ' 상승(20세기 전기 구어 자료)

이 논의에 따르면 20세기 전기의 구어 자료에서 문법형태소의 'ㅓ 〉 ㅡ' 고모음화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Ⅰ)》을 대상으로 한 강희숙(2005: 19)에서는 어휘형태소의 비어두 위치에서 나타나는 서울 방언의 'ㅓ 〉 ㅡ' 고모음화를 예시

하고 있다.

(80) 너무 오래 살어 **걱증**이야 〈서울F2, 219〉
인제 **공읍** 지대루 돼 가지구 〈서울M2, 241〉
따리 밑으루 갔단 **그른** 얘기야. 〈서울M1, 175〉

(80)의 예들은 각각 '걱정', '공업', '그런'과 같은 비어두 위치에서 'ㅓ 〉 ㅡ'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예들은 서울·경기를 비롯한 중부 방언에서 비어두·문법형태소의 'ㅓ 〉 ㅡ'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지도 45]와 [지도 55]에서 보이는 'ㅓ 〉 ㅡ'의 분포는 단순한 이격 분포가 아니라 그 중간에 개신의 중심이 위치한 탓에 나타난 이별 분포인[89] 셈이다. 결론적으로 현대 한국어의 문법형태소에서 나타나는 고모음화의 분포를 살폈을 때, 18세기 말~20세기 초의 중부 방언에서도 어휘형태소의 비어두 및 문법형태소의 고모음화가 실현되었으나 서울을 위시한 중부 방언의 중심지로부터 이 고모음화가 약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어》까지 이어진다. [지도 56]에서도 경북을[90] 제외하면 전남에서 'ㅓ 〉 ㅡ'의 세력이 가장 강하고, 충남·충북을 거쳐 경기도 쪽으로 올라갈수록 그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2. ㅗ 〉 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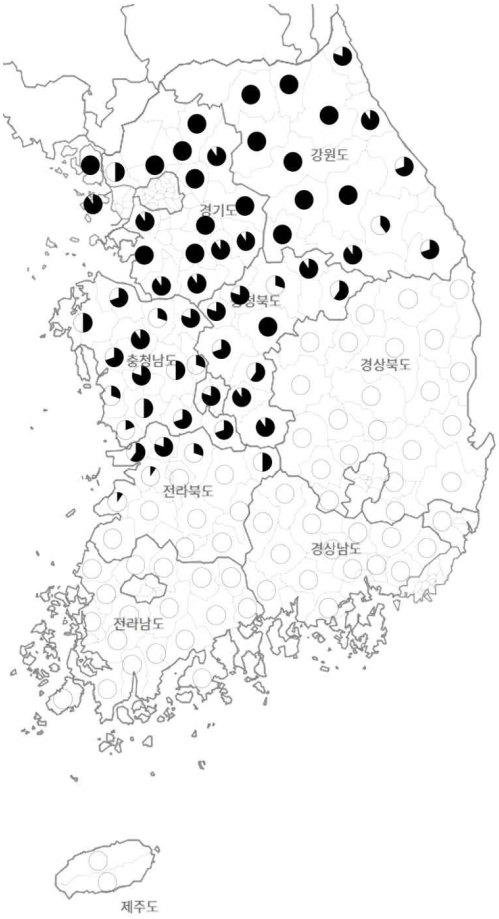
이제 격조사 '-(으)로', 보조사 '-도', 연결어미 '-고' 등에서 나타나는 'ㅗ 〉 ㅜ' 고모음화를 살펴보기로 한다.[91] [지도 57]은 《자료집》에서 관찰할 수

89) 정승철(2013: 211)에 따르면 이별 분포란 동일한 방언 특징을 보이던 지역들이 새로이 발생한 어떤 다른 개신파에 의해 관통되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게 된 분포를 일컫는다.

90) 경북을 제외하는 이유는 5.2.1.에서 후술한다.

91) 《자료집》에서 살펴본 어형은 다음과 같다. 이 목록은 김아름(2008: 43)에서 제시한 목록과 같다.
① -고: 꼬-고(I.029-1A), 삶-고(I.628A), 졸-고(I.272-1보), 어렵-고(I.595A), 굴리-고

있는 문법형태소의 'ㅗ 〉 ㅜ' 실현 비율을 나타낸 비율지도이다.



[지도 57] 'ㅗ 〉 ㅜ'의 분포(자료집)

[지도 58] 'ㅗ 〉 ㅜ'의 분포(지역어)

[지도 57]에서는 중부 방언에서 'ㅗ 〉 ㅜ'가 매우 활발하게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부 방언에서도 경기도와 강원 북서부에서 'ㅗ 〉 ㅜ'의 영향이 가장 강하여 거의 100%에 가까운 고모음화 실현 비율을 보인다. 충남/충북

(I.314보), 식히-고(I.630A), 굽-고(I.627A), 먹-고(I.626A), 쉽-고(I.594A), 춥-고(I.602A), 붓-고(I.632A)

② -도: 닭-도(I.465), 흙-도(I.544B), 손-도(Ⅲ.15-1C), 발-도(Ⅲ.15-1C), 삯-도(Ⅲ.11-2), 값-도(Ⅲ.11-1), 밥-도(Ⅲ.15-1A), 떡국-도(Ⅲ.15-1A)

③ -(으)로: 팥-으로(I.051), 누구-로(Ⅱ.01④), 뒤-로(I.577), 위-로(I.574B), 빗-으로(I.229)

《지역어》에서 살펴본 항목은 다음과 같다.

3.2.1. 활용 1) 기초항목, 구술발화

의 북부에서는 80%~100%의 고모음화 실현율이 나타나고, 남부로 갈수록 50%~70%의 고모음화 실현 비율을 살필 수 있다. 이에 인접한 전북 북부의 군산·익산·완주·무주 등에서도 다소간 'ㅗ 〉 ㅜ' 고모음화가 실현되는 것을 살필 수 있다.

4.1.2.의 [지도 47]에서는 어휘형태소에서의 비어두 'ㅗ 〉 ㅜ'를 살핀 바 있는데, 중부 방언권 전체에서 'ㅗ 〉 ㅜ'가 일어나는 것은 [지도 57]과 동일하지만 서남 방언권의 고모음화 양상이 서로 다르다. [지도 47]에서는 서남 방언권도 모두 'ㅗ 〉 ㅜ' 고모음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전남 동부와 접경한 경남 서부까지도 '삼춘'형을 실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문법형태소의 경우, 서남 방언권에서는 'ㅗ 〉 ㅜ'가 거의 실현되지 않는다.

한편 동남 방언권과 전남, 제주도에서는 'ㅗ 〉 ㅜ'가 거의 실현되지 않는다. 이는 4.1.2.에서 살펴본 어휘형태소의 'ㅗ 〉 ㅜ' 고모음화와 일맥상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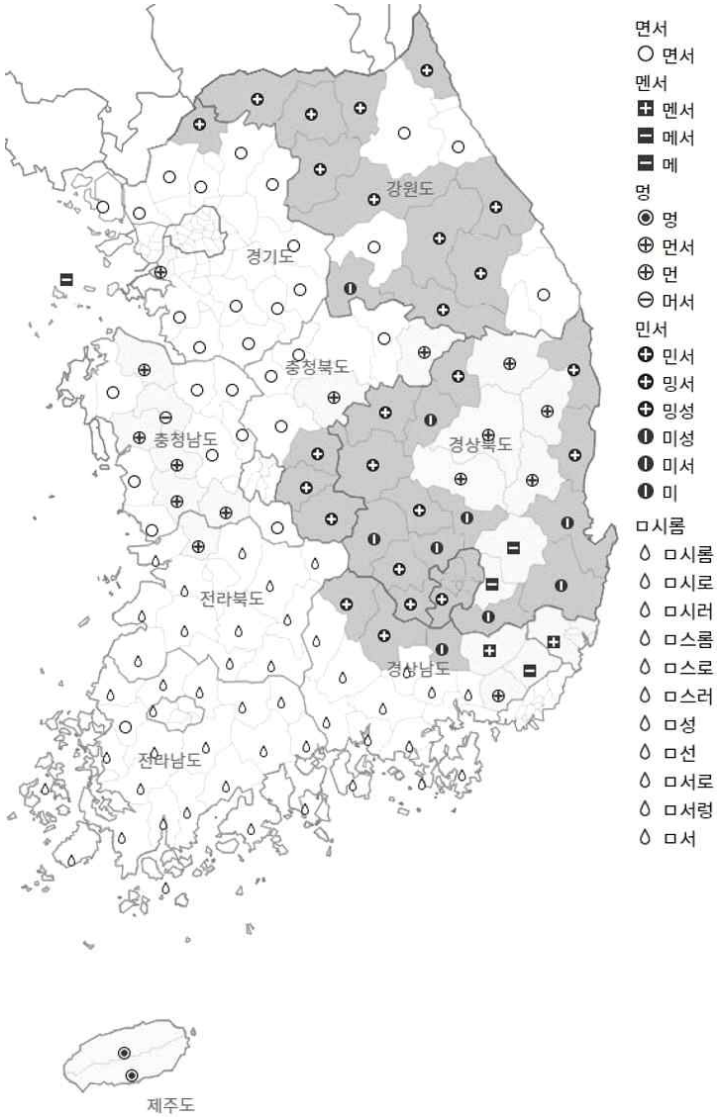
[지도 58]은 《지역어》에서 관찰할 수 있는 'ㅗ 〉 ㅜ' 고모음화의 실현율이다. 중부 방언권은 대체로 [지도 57]에 비해 고모음화의 실현율이 낮아졌으나 경북 지역은 'ㅗ 〉 ㅜ'의 영향을 새로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92]

4.2.3. ㅖ 〉 ㅣ

문법형태소에서의 'ㅖ 〉 ㅣ'는 표면적으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처격 조사 '-에'가 '-이'로 실현된다거나, 연결어미 '-게'가 '-기'로 실현되는 등 많은 사례가 나타난다. 그런데 처격 조사의 경우 중세국어에서 설소축의 모음과 결합할 때는 '-의(目連이 耶倫ㅅ 宮의 가 보니〈석보 6:2〉)'로 나타나고, '-게' 역시 '-의(化人ᄋᆞᆫ 世尊ㅅ 神力으로 ᄃᆞ외의 ᄒᆞ샨 사ᄅᆞ미라〈석상 6:7〉)'또는 '-긔(제 스승을 곧 닛긔 ᄒᆞ니〈월곡 112〉)'로 나타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법형태소들은 고모음화를 겪은 어형인지 또는 그 기원이 다른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한편 '-면서'의 경우 그 기원이 '-며셔'로 정확

92) 이러한 경향은 어휘 항목보다는 구술발화 자료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나므로, 5.2.2.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하고 현대 한국어 방언에서 ‘-민서’로 나타나는 예가 있다. 또한 ‘ㅕ 〉 ㅖ 〉 ㅣ’의 중간 과정으로 추측되는 ‘-멘서’ 형도 나타나므로 이 어형의 고모음화를 살펴보고자 한다.[93]



[지도 59] ‘-면서’ 방언형의 분포(자료집)

93) 《자료집》에서 살펴본 어형은 다음과 같다.
II. 53 -(으)면서
‘-(으)면서’의 경우 방언형이 다양하여 ‘ㅖ > ㅣ’의 실현 비율을 산정할 만한 수효가 충족되지 않기에 비율지도 대신 진열지도를 이용한다.
한편 《지역어》의 어휘 항목 조사 자료에서는 ‘-(으)면’을 찾을 수 없었다. 《지역어》의 구술발화 자료에서 나타나는 ‘-(으)면’은 5.2.3.에서 후술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자료집》의 ‘ㅖ > ㅣ’ 양상만을 살피기로 한다.

(81) ㄱ. -미: 경북 경주·군위·청도, 경남 창녕
ㄴ. -미서: 강원 원주, 경북 김천·예천·칠곡·포항
ㄷ. -민서: 강원 강릉·고성·양구·영월·정선·철원·춘천·평창·홍천·화천, 경기 연천, 경남 거창·합천, 경북 고령·달성·문경·상주·선산·성주·영덕·영주·울진, 충북 보은·영동·옥천

(81)은 '-며', '-면서'가 'ㅕ 〉 ㅖ 〉 ㅣ'를 겪어 도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어형들이다. 어두나 비어두의 'ㅖ 〉 ㅣ'에서 공통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경북 서부는 문법형태소에서도 역시 '-미'형을 가장 많이 노정하고 있으며, 강원도 북부까지도 '-민서'형을 찾아볼 수 있다. 어휘형태소의 경우 경북 서부 및 남부, 여기에 접경한 경남 북부 일부 지역에서만 'ㅖ 〉 ㅣ'가 나타났던 것에 비해 '-민서'형이 나타나는 범위가 훨씬 넓다. 한편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내륙 지역에서는 '-면서'에서 활음이 탈락한 형태인 '-먼서'가 나타난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도 '-미', '-민서'형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면 경북 내륙은 일종의 언어섬이 되는 것이다.

충남·충북은 움라우트를 겪은 비어두의 'ㅖ 〉 ㅣ' 현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역인데, [지도 59]에서는 충북 남부인 보은·영동·옥천 외의 지역에서는 '-미/민서' 형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충남 지역에서는 '-며/면서'에서 활음이 탈락한 후 'ㅕ 〉 ㅡ (〉 ㅜ)'가 적용되어 '-믄서', '-문서' 형이 나타난다. 한편 '-메'형은 인천 옹진, 경북 경산·영천에서 나타났으며, '-멘서'형은 경남 밀양·양산·울주에서 나타난다.

경남 서부와 서남 방언 전역에서는 '-면서'의 첫 음절 모음이 탈락하여 고모음화 여부를 알아낼 수 없다. 이 지역에서는 주로 '-ㅁ서, -ㅁ시로, -ㅁ스로' 등의 어형이 관찰된다.

제주도에서 어미 '-면서'는 모두 '-멍'으로 실현된다. 이 지역의 '-(으)면'은 '-(으)민'으로 실현되는데, 이는 5.2.3.에서 살피기로 한다.

5. 구술발화에서의 고모음화

지금까지 《자료집》과 《지역어》의 방언 자료를 이용하여 각 시기 개별 단어의 고모음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3·4장에서의 논의는 어휘 항목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방언을 다룬 기존의 논의에서는 대체로 이러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는 어휘 항목 조사 자료가 동일한 단어에서 관찰되는 음운이나 음운 현상의 차이를 살펴보는 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구어 코퍼스가 잘 관리되고 있는 현대 서울말과는 달리 적절한 조건을 가진 방언 제보자의 자유 발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탓이기도 하다.[94] 그런데 본고에서 이용한 《지역어》의 경우 어휘 항목 조사 자료와 함께 구술발화 자료가 전사되어 있다. 이 자료는 각 도에서 5~7지점을 조사한 것으로, 지점당 12시간 이상의 주제별 자유 발화를 녹음하여 전사한 것이다. 방언 제보자로서의 조건을 갖춘 제보자를 찾아 전국의 여러 지점에서 조사한 이 자유 발화 자료는 어휘 항목에 비해 관찰자의 모순이[95] 영향을 덜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자유 발화에서 나타나는 고모음화의 실현 양상을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로 나누어 살펴보고, 어휘 항목 자료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논하기로 한다.

---

94) 예컨대 국립국어원에서는 2019~2021년에 걸쳐 <일상 대화 말뭉치>를 구축하였으며 참여자를 선정하는 데 인구통계학적 분포(연령, 성별, 주 성장지)를 고려하였으나 '토박이 여부', '외지 생활 여부', '학력' 등 방언 자료를 수집할 때 필수적인 조건들은 충족하지 않았다. 물론 해당 사업의 목적이 방언 자료 확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건 방언을 바탕으로 한 논의에서 이러한 구어 말뭉치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은 아쉬운 일이다.

95) Labov(1972: 209)에서는 언어학적 연구의 목적은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관찰되고 있지 않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즉 관찰자의 존재 자체로 화자는 평소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며, 관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조사자의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발화의 주제만을 제시)에서 제보자의 발화를 이끌어내는 구술발화 자료는 어휘 항목 조사 자료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언어를 노정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5.1. 어휘형태소의 고모음화

5.1.1. ㅓ 〉 ㅡ

여기에서는 구술발화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어휘형태소 중 'ㅓ 〉 ㅡ'를 보이는 예를 살피기로 한다. 여기에서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덜', '어른', '없-', '얼마', '아버지'이다.[96] 이중 '덜', '어른', '없-'은 어두 장음을 지닌 것이고, '얼마'는 본래 단음이며 '아버지'는 비어두음절이므로 음장을 가질 수 없다.

우선 '덜'의 실현을 살펴보기로 한다.

96) 《지역어》에서 구술발화가 조사된 지점이 총 60지점이므로 단순하게 계산하여 지점당 3회 이상, 즉 최소 180회 이상 나타난 어형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자유 발화 자료이므로 특정 어형이 모든 지역에서 균일한 횟수로 등장하지도 않고, 해당 어형의 발화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도 있다. 이러한 점 역시 고려하여 60지점 중 최소 50지점 이상에서 관찰된 어형만을 선정하였다.

	덜	덜:	들	들:	비율		덜	덜:	들	들:	비율
강원삼척	2	0	0	0	0	전남곡성	2	1	0	0	0
강원양양	0	0	2	1	1	전남광양	1	4	0	0	0
강원원주	0	0	1	1	1	전남보성	0	1	0	0	0
강원인제	0	0	2	0	1	전남신안	5	4	0	0	0
강원정선	1	0	3	0	0.75	전남영광	0	1	0	1	0.5
강원평창	0	0	0	0		전남영암	0	3	0	0	0
강원홍천	1	0	0	0	0	전남진도	2	3	0	0	0
강원도	**4**	**0**	**8**	**2**	**0.714**	**전라남도**	**10**	**17**	**0**	**1**	**0.036**
경기강화	0	1	2	4	0.857	전북고창	1	0	1	0	0.5
경기양평	4	0	8	2	0.714	전북군산	2	0	1	0	0.333
경기용인	0	0	0	0		전북남원	0	0	0	0	
경기이천	7	0	1	1	0.222	전북무주	8	0	16	0	0.667
경기파주	4	0	1	0	0.2	전북임실	0	0	2	0	1
경기포천	0	0	0	0		**전라북도**	**11**	**0**	**20**	**0**	**0.645**
경기화성	2	2	2	2	0.5	서귀대정	5	0	0	0	0
경기도	**17**	**3**	**14**	**9**	**0.535**	서귀색달	6	0	0	0	0
경남고성	0	0	0	0		서귀표선	2	0	0	0	0
경남남해	0	0	0	0		서귀호근	3	0	0	0	0
경남산청	2	0	0	0	0	제주건입	0	0	0	0	0
경남울주	6	0	0	0	0	제주구좌	0	0	0	0	0
경남창녕	2	0	0	0	0	제주한경	3	0	0	0	0
경남창원	2	0	0	0	0	**제주도**	**19**	**0**	**0**	**0**	**0**
경남하동	1	0	0	0	0	충남공주	0	0	1	0	1
경상남도	**13**	**0**	**0**	**0**	**0**	충남논산	0	0	3	0	1
경북경주	3	2	0	0	0	충남대전	0	0	7	0	1
경북고령	7	1	0	0	0	충남서산	0	0	3	2	1
경북봉화	5	12	0	1	0.056	충남서천	0	0	3	2	1
경북상주	0	1	0	2	0.667	충남예산	0	0	5	2	1
경북의성	3	5	0	0	0	충남천안	4	0	1	1	0.333
경북청도	5	8	0	1	0.071	**충청남도**	**4**	**0**	**23**	**7**	**0.882**
경북청송	0	0	1	0	1	충북보은	0	0	1	8	1
경상북도	**23**	**29**	**1**	**4**	**0.088**	충북영동	0	0	0	1	1
						충북옥천	0	0	1	1	1
						충북제천	0	0	0	3	1
						충북청원	0	0	0	1	1
						충북충주	0	0	0	0	
						충청북도	**0**	**0**	**2**	**14**	**1**

[표 9] '덜'의 고모음화 실현 비율(지역어/구술발화)

먼저 도 단위로 살펴보면, 충청도에서는 고모음화형의 실현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충북에서는 100%, 충남에서는 약 90%의 고모음화 실현율을 보인다. 충북의 경우 장음의 실현을 동반한 고모음화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충남은 장음이 실현되지 않는 고모음화형이 더 흔히 관찰되었다.

강원도와 경기도, 전북 역시 50% 이상의 고모음화 실현율을 기록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양양·원주·인제·정선에서 고모음화형이 나타난다. 이 중 양양은 《자료집》에서 고모음화가 관찰되지 않은 어형(덤·써레·거머리)이 있어 고모음화가 적용되는 비율이 주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지도 15]. 그런데 《지역어》의 자료를 살피면, 다른 지역에서는 'ㅓ 〉 ㅡ' 고모음화의 실현 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데 비해 양양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구술발화 자료에서는 [표 9]의 '덜'이나 후술할 '어른'에서의 'ㅓ 〉 ㅡ' 고모음화 역시 상당한 비율로 실현되고 있는데, 이는 곧 이 지역에서의 'ㅓ 〉 ㅡ'는 《지역어》의 시기까지도 활발히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덜'이 아예 관찰되지 않은 곳이 있어 지역적인 특성을 말하기는 어렵다. 지리적 특성 또는 장음의 실현과 고모음화의 상관성 등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 전북을 살펴보면, 어휘 항목 자료에서는 'ㅓ 〉 ㅡ'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구술발화 자료의 경우에는 수효가 적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ㅓ 〉 ㅡ'가 관찰되었다. 이들은 대개 음장을 동반하지 않은 형태로 실현되었다.

전남/경북/경남/제주에서는 10% 미만의 고모음화 실현율을 기록하였으며, 음장의 실현 여부는 고모음화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구술발화 자료에서 관찰할 수 있는 '덜'의 고모음화 실현율은 '충북〉충남〉강원〉전북〉경기〉경북〉전남〉경남=제주'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어휘 항목의 'ㅓ 〉 ㅡ' 실현 비율의 순서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대체로 구술발화의 고모음화 적용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다음은 '어른'을 살펴보기로 하자. '어른'은 의외로 구술발화 자료에서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데 총 685회가 관찰되었다.

	어른	어:른	으른	으:른	비율		어른	어:른	으른	으:른	비율
강원삼척	3	1	5	0	0.556	전남곡성	7	8	0	0	0.000
강원양양	1	1	8	8	0.889	전남광양	4	5	0	0	0.000
강원원주	2	0	7	0	0.778	전남보성	0	0	0	0	
강원인제	2	0	3	4	0.778	전남신안	0	2	0	0	0.000
강원정선	9	2	1	0	0.083	전남영광	0	7	0	0	0.000
강원평창	0	0	1	0	1.000	전남영암	0	8	0	0	0.000
강원홍천	1	0	2	0	0.667	전남진도	7	3	0	0	0.000
강원도	**18**	**4**	**27**	**12**	**0.639**	**전라남도**	**18**	**33**	**0**	**0**	**0.000**
경기강화	0	0	0	1	1.000	전북고창	8	1	2	0	0.182
경기양평	1	2	0	3	0.500	전북군산	1	0	25	0	0.962
경기용인	5	0	0	1	0.167	전북남원	3	0	4	0	0.571
경기이천	6	1	0	1	0.125	전북무주	28	0	33	0	0.541
경기파주	0	0	0	2	1.000	전북임실	8	0	3	0	0.273
경기포천	2	0	0	0	0.000	**전라북도**	**48**	**1**	**67**	**0**	**0.578**
경기화성	1	0	2	3	0.833	서귀대정	1	0	0	0	0.000
경기도	**15**	**3**	**2**	**11**	**0.419**	서귀색달	7	0	0	0	0.000
경남고성	7	1	0	0	0.000	서귀표선	16	0	0	0	0.000
경남남해	8	0	0	0	0.000	서귀호근	11	0	0	0	0.000
경남산청	9	0	0	0	0.000	제주건입	10	0	0	0	0.000
경남울주	12	1	0	0	0.000	제주구좌	23	0	0	0	0.000
경남창녕	26	0	0	0	0.000	제주한경	6	0	0	0	0.000
경남창원	7	0	0	0	0.000	**제주도**	**74**	**0**	**0**	**0**	**0.000**
경남하동	16	4	0	0	0.000	충남공주	2	0	3	0	0.600
경상남도	**85**	**6**	**0**	**0**	**0.000**	충남논산	2	0	3	0	0.600
경북경주	2	0	0	0	0.000	충남대전	1	0	29	0	0.967
경북고령	7	0	0	0	0.000	충남서산	1	0	4	1	0.833
경북봉화	19	1	0	0	0.000	충남서천	13	0	8	3	0.458
경북상주	22	1	0	0	0.000	충남예산	1	0	12	1	0.929
경북의성	10	3	0	0	0.000	충남천안	5	0	23	1	0.828
경북청도	30	1	0	0	0.000	**충청남도**	**25**	**0**	**82**	**6**	**0.779**
경북청송	28	0	2	0	0.067	충북보은	3	3	2	5	0.538
경상북도	**118**	**6**	**2**	**0**	**0.016**	충북영동	0	0	0	0	
						충북옥천	0	0	0	1	1.000
						충북제천	0	0	1	2	1.000
						충북청원	1	0	0	0	0.000
						충북충주	0	0	1	3	1.000
						충청북도	**4**	**3**	**4**	**11**	**0.682**

[표 10] ‘어른’의 고모음화 실현 비율(지역어/구술발화)

‘어른’의 경우 충청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경기도 등에서 고모음화형 ‘으른’의 실현이 관찰되었다. 먼저 충청도에서는 대체로 ‘으:른’ 또는 ‘으른’의 고모음화형이 50% 이상 나타났으며, 특히 충남에서는 표본 자체가 113회로 상당히 많으면서도 ‘으른’의 실현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에는 ‘어른’형이 아예 나타나지 않은 지역(영동)과 1회만 나타난 지역(옥천·청원)이 있었는데, 이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고모음화형의 실현이 우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충북의 경우 고모음화형의 실현 비율이 68%에 달하는 가운데 ‘으:른’이 11회, ‘으른’이 4회 나타난다. ‘덜’과 마찬가지로 충북에서 음장의 실현이 더 잘 유지되는 것이다.

강원도의 경우에도 표본이 적지 않은데, ‘으른’이나 ‘으:른’과 같은 고모음화형이 약 64%를 차지하고 있다. 장음이 실현되는 예가 12회, 실현되지 않는 예가 27회 나타나는 것을 통해 《지역어》의 시기에는 자유 발화에서도 음장의 실현과 고모음화의 실현이 큰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강원도는 《자료집》과 《지역어》 사이의 방언 구획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자료집》에서는 태백산맥을 분수령으로 영동 지역과 영서 지역의 고모음화 실현 비율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고성·양양·강릉·삼척 등의 영동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모음화의 실현이 적었고, 그외 영서 지역에서는 고모음화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이다. 그런데 《지역어》의 어휘 항목 자료에서는 이러한 구획이 다소 변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영서 지역의 활발했던 고모음화의 실현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어 양양의 고모음화 실현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정선이나 삼척 등 강원 남부 지역에서는 고모음화의 세력이 더욱 약해진 것을 살필 수 있는데, 이는 ‘덜’이나 ‘어른’의 고모음화 실현 양상을 반영한 구술발화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정선·삼척의 고모음화 실현 비율이 나머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전북은 어휘 항목 조사 자료에 비해 구술발화 자료에서 고모음화의 실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데, ‘어른’의 경우에도 고모음화형 ‘으른’이 나타나는 비율이 약 58%를 기록하였다. 한편 충청도와 강원도, 경기도에서는 고모음화형 ‘으른’과 장음이 실현되는 ‘으:른’이 모두 나타난 데 비해 전북에서는

장음을 동반한 ‘으:른’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3.1.1.의 어휘 항목 비교에서도 잘 드러났는데, 《자료집》에서 장음의 실현이 비교적 정연했던 데 비해 《지역어》에서는 전북 지역의 장음이 거의 실현되지 않거나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를 구술발화 자료에서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고모음화를 겪은 어형보다 그렇지 않은 어형이 소폭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1~2회만 나타난 지역을 제외하면, 용인·이천에서는 고모음화를 겪지 않은 어형이 우세하고 화성·양평에서는 고모음화가 실현되는 비율이 높다. 지리적 특성이나 인구 구성의 특징 등과 고모음화 실현율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고모음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경북 청송에서 ‘으른’이 2회 관찰되기는 하나 아주 미미한 수준이며, 이외의 지역에서는 고모음화형이 아예 보고되지 않았다.

‘어른’의 경우 고모음화의 실현율은 ‘충남〉충북〉강원〉전북〉경기〉경북〉전남=경남=제주’순으로 나타난다. ‘덜’의 순서에서 충남과 충북이 서로 자리바꿈했을 뿐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인다. 또한 전체적으로 ‘어른’의 고모음화 실현율이 ‘덜’의 그것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인다.

이제 용언 어간 ‘없-’을 살펴보기로 한다. ‘없-’은 ‘덜’이나 ‘어른’에 비해 훨씬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데, 고모음화가 실현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없	없:	읎	읎:	비율		없	없:	읎	읎:	비율
강원삼척	54	1	45	2	0.461	전남곡성	95	19	0	0	0.000
강원양양	43	14	25	8	0.367	전남광양	17	15	1	0	0.030
강원원주	23	12	23	11	0.493	전남보성	46	122	15	21	0.176
강원인제	44	4	53	10	0.568	전남신안	44	72	1	5	0.049
강원정선	69	3	1	4	0.065	전남영광	46	36	5	31	0.305
강원평창	29	6	3	10	0.271	전남영암	31	107	0	0	0.000
강원홍천	66	1	48	1	0.422	전남진도	34	94	0	0	0.000
강원도	**328**	**41**	**198**	**46**	**0.398**	**전라남도**	**313**	**465**	**22**	**57**	**0.092**
경기강화	32	3	7	5	0.255	전북고창	77	0	61	1	0.446
경기양평	104	11	7	4	0.087	전북군산	89	1	15	0	0.143
경기용인	89	1	2	0	0.022	전북남원	101	0	8	0	0.073
경기이천	90	2	0	0	0.000	전북무주	208	1	55	0	0.208
경기파주	86	5	88	17	0.536	전북임실	89	0	10	1	0.110
경기포천	156	7	3	2	0.030	**전라북도**	**564**	**2**	**149**	**2**	**0.211**
경기화성	104	10	1	2	0.026	서귀대정	13	0	0	0	0.000
경기도	**661**	**39**	**108**	**30**	**0.165**	서귀색달	54	0	0	0	0.000
경남고성	3	0	0	0	0.000	서귀표선	22	0	0	0	0.000
경남남해	22	0	1	0	0.043	서귀호근	37	0	0	0	0.000
경남산청	43	1	2	0	0.043	제주건입	50	0	2	0	0.038
경남울주	86	3	0	1	0.011	제주구좌	19	0	0	0	0.000
경남창녕	85	0	1	0	0.012	제주한경	4	0	0	0	0.000
경남창원	21	0	0	1	0.045	**제주도**	**199**	**0**	**2**	**0**	**0.010**
경남하동	21	0	1	5	0.222	충남공주	14	0	35	1	0.720
경상남도	**281**	**4**	**5**	**7**	**0.040**	충남논산	22	0	31	0	0.585
경북경주	24	4	0	0	0.000	충남대전	53	0	87	0	0.621
경북고령	93	3	0	0	0.000	충남서산	41	0	22	2	0.369
경북봉화	71	22	2	0	0.021	충남서천	29	0	14	0	0.326
경북상주	140	0	0	0	0.000	충남예산	51	0	31	0	0.378
경북의성	88	43	1	0	0.008	충남천안	17	0	35	0	0.673
경북청도	65	10	0	0	0.000	**충청남도**	**227**	**0**	**255**	**3**	**0.532**
경북청송	117	6	0	0	0.000	충북보은	48	1	0	2	0.039
경상북도	**598**	**88**	**3**	**0**	**0.004**	충북영동	40	0	0	0	0.000
						충북옥천	34	1	1	0	0.028
						충북제천	17	5	2	3	0.185
						충북청원	11	0	0	0	0.000
						충북충주	13	2	0	0	0.000
						충청북도	**163**	**9**	**3**	**5**	**0.044**

[표 11] '없-'의 고모음화 실현 비율(지역어/구술발화)

‘없-’은 본래 장음의 실현을 동반하는데, 《지역어》의 구술발화 자료에서는 전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장음이 실현되지 않는 형태가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모음화를 겪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약 54%가 고모음화를 겪은 형태로 나타났다. 또 이 지역에서는 고모음화가 적용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장음의 동반은 거의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97]

한편 충북의 경우 ‘덜’이나 ‘어른’에서 고모음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현했던 지역인 데 반해 ‘없-’에서는 고모음화형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총 180회 나타난 어형이므로 표본의 수는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고모음화를 거의 겪지 않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자료집》에 따르면 충북 지역에서는 ‘읎다[iːpt’a]’ 또는 ‘웂다[uːpt’a]’가 관찰되는데, 《지역어》의 구술발화 자료에서도 ‘웂-’이 가장 흔히 나타난다(보은 87회, 영동 49회, 옥천 206회, 제천 84회, 청원 61회, 충주 125회). 이전의 ‘읎-’과 ‘웂-’이 이미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이나 매체의 영향으로 신형 ‘없-’이 유입된 상황을 가정하면, 이 지역에서는 ‘웂-’형이 구형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읎-’이 밀려났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강원도에서는 ‘어른’이나 ‘덜’에서 그러하였듯이 정선이 낮은 고모음화 실현율을 보였고, 삼척 지역은 ‘없-’에서는 상당한 비율로 고모음화를 적용하여 발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장음이 실현될 때의 고모음화 비율과 단음으로 실현될 때의 고모음화 비율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단음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38%, 장음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53%의 고모음화 실현율을 보였다. 즉 ‘ㅓ’가 길게 발음되면서 조음 위치가 상승하여 [ɨ]로 발음되는, 음성적인 이유의 고모음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파주에서 고모음화형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을 제외하면 ‘없-’의 고모음화는 적극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강화도에서 26%의 실현율을 보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10% 미만의 경우에만 고모음화가 실현

97) 한편 ‘없-’, ‘웂-’ 외에 이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어형은 ‘읎-’이다. 공주 16회, 논산 96회, 대전 36회, 서산 113회, 서천 47회, 예산 85회, 천안 47회로 상당한 빈도를 보인다. 충북에서의 ‘웂-’ 빈도보다는 낮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되었다. 단, 장음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없:-'이 39회 나타나고 '읎:-'이 30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약 43%의 고모음화 실현율을 보인다. 이는 단음에서의 고모음화 비율이 약 14%인 것과 대비된다. 이 지역에서도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음장의 실현이 고모음화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전북·전남의 경우 고모음화 실현율의 차이는 있지만 음장의 실현과는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전남은 대체로 고모음화가 실현되는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전북 고창과 접경한 영광에서만 30%로 다소 높은 고모음화 비율을 보였다. '없-'에서뿐 아니라 '덜'이나 '어른'에서도 전북 고창과 전남 영광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전북에서 가장 낮은 고모음화 실현율을 보이는 남원은 전남 곡성과 접경하고 있는데, 곡성은 총 114회의 '없-'형이 전혀 고모음화를 겪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는 지역이다. 남원과 곡성은 섬진강 유역을 따라 바로 이어진 지역으로 서로 왕래가 잦아, 두 지역 간의 언어에 공통점을 보이는 일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경상도와 제주도에서는 '없-'의 고모음화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전남과 접경한 하동에서 '읎:-'이 5차례 보고된 것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5% 미만의 어형만이 고모음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없-'의 고모음화 실현율은 '충남〉강원〉전북〉경기〉전남〉충북〉경남〉경북〉제주' 순이다. 충북의 실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ㅓ 〉 ㅡ'와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인다.

구술발화 자료에서의 'ㅓ(:) 〉 ㅡ(:)'를 정리해 보면, 《지역어》의 어휘 항목 조사 자료에서보다는 고모음화가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료의 특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구술발화 조사에서는 조사자가 주제를 제시하면 제보자가 스스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조사자는 맞장구를 치거나 이야기를 더 이어가는 질문 등 최소한의 개입만 한다. 반면 어휘 항목 조사에서는 조사자가 명명법이나 열거법, 대치법 등의 질문법을 이용해 대화를 주도하고 제보자는 해당 단어를 대답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표준어에 가까운 어형이 나타나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지리적인 분포에 있어서는 어휘 항목 자료와 크게 다른 점이 없다. 충남·북에서 'ㅓ(:)

〉 ㅡ(:)'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경기·강원·전북이 그 뒤를 잇는 전체적인 경향성은 두 자료에서 공히 나타난다.

5.1.2. ㅗ 〉 ㅜ

앞서 3장과 4장에서 밝혔듯이 어두의 'ㅗ(:) 〉 ㅜ(:)'는 《자료집》에서도 산발적으로만 나타났으며, 비어두에서는 《자료집》 이전의 시기에 'ㅗ 〉 ㅜ'가 거의 완료되었다. 구술발화 자료에서도 일정한 수효 이상 나타나는 어형은 '돈', '속', '일곱' 정도였다.

'돈'은 총 699회로 흔히 관찰되기는 하나, 고모음화형인 '둔:'은 충남 서산에서 1회, '둔'은 충남 서산에서 8회('돈' 4회) 및 전남 영광에서 1회('돈:' 11회, '돈' 10회) 나타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분포상의 특성이나 음운론적 조건 등을 논하기 어렵다. '속' 역시 총 331회 나타나는데, 고모음화형인 '숙'은 충남 서산에서 '배차숙{배추속}'과 같이 합성어의 구성요소로서 3회 나타나는 데 그친다. 그런데 '속'이 단일어로 사용될 때는 고모음화하지 않는 형태가 4회 나타난다. 이를 감안하면 이 지역의 'ㅗ 〉 ㅜ'는 이전 시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되었으나 《지역어》의 시기에 이르면 화석으로만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일곱'의 경우 '일굽'형이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흔히 관찰된다. 그러나 'ㅗ 〉 ㅜ'의 고모음화를 겪은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둔'이나 '숙'과 달리 '일굽'형은 이것이 '닐굽〉일굽'의 과정을 거친 것인지 '닐굽〉닐곱〉일곱〉일굽'의 과정을 거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ㅗ 〉 ㅜ'의 사례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한편 선행 연구나 《자료집》에서 'ㅗ 〉 ㅜ'의 사례로 보이던 '푸두{포도}, 뭇:허다{못하다}, 두:치{도끼}, 굴:묵{골목}' 등은 《지역어》의 구술발화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5.1.3. ㅖ 〉 ㅣ

'ㅖ(:) 〉 ㅣ(:)'의 경우 '네(四)'와 '옛'이 각각 712회, 4082회 나타난다.[98)]

‘ㅕ 〉 ㅖ’처럼 다른 음운 현상을 겪어 만들어진 ‘ㅖ’가 ‘ㅣ’로 고모음화하는 예를 관찰할 수 있는 ‘며느리’의 경우 380회 등장하였다. 그런데 ‘옛’의 경우, ‘옛(:)’이나 활음이 탈락한 ‘엣(:)’의 실현이 우세한 가운데 강원도에서 종종 ‘잇:날(15/981)’, 경남 창녕·전남 신안에서 ‘잇날(4/1011)’이 나타날 뿐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고모음화형의 수효가 어느 정도 이상 관찰된 ‘네(四)’와 ‘며느리’의 고모음화 양상을 살피기로 한다.

먼저 구술발화 자료에서 나타나는 ‘네(四)’의 고모음화 실현 비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98) ‘옛날’은 일상 발화에서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단어는 아닐 것으로 추정되는데, 구술발화 자료를 살펴보면 조사자가 ‘옛날에 어떻게 사셨는지’, ‘옛날 결혼식은 어땠는지’, ‘옛날에는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등의 질문을 던진다. 주로 옛날의 이야기를 주제로 삼아 이어나가는 대화이기 때문에 ‘옛날’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이다.

	네	네:	니	니:	비율		네	네:	니	니:	비율
강원삼척	22	10	0	0	0.000	전남곡성	2	6	0	6	0.429
강원양양	4	1	1	3	0.444	전남광양	1	6	0	0	0.000
강원원주	6	10	0	2	0.111	전남보성	0	4	0	6	0.600
강원인제	1	10	0	0	0.000	전남신안	1	2	0	0	0.000
강원정선	2	6	0	0	0.000	전남영광	4	11	2	14	0.516
강원평창	4	5	0	0	0.000	전남영암	4	11	0	8	0.348
강원홍천	3	0	0	0	0.000	전남진도	0	0	0	2	1.000
강원도	**42**	**42**	**1**	**5**	**0.067**	**전라남도**	**12**	**40**	**2**	**36**	**0.422**
경기강화	0	14	1	1	0.125	전북고창	1	3	0	1	0.200
경기양평	1	2	0	0	0.000	전북군산	7	0	0	0	0.000
경기용인	3	0	0	0	0.000	전북남원	2	0	8	0	0.800
경기이천	3	8	1	1	0.154	전북무주	21	8	2	1	0.094
경기파주	10	6	1	3	0.200	전북임실	3	0	0	0	0.000
경기포천	2	4	0	0	0.000	**전라북도**	**34**	**11**	**10**	**2**	**0.211**
경기화성	1	6	0	0	0.000	서귀대정	14	0	0	0	0.000
경기도	**20**	**40**	**3**	**5**	**0.118**	서귀색달	13	0	0	0	0.000
경남고성	0	1	0	0	0.000	서귀표선	13	0	0	0	0.000
경남남해	13	0	0	0	0.000	서귀호근	18	0	0	0	0.000
경남산청	13	0	0	1	0.071	제주건입	6	0	0	0	0.000
경남울주	2	7	0	1	0.100	제주구좌	17	0	0	0	0.000
경남창녕	2	1	4	1	0.625	제주한경	5	0	0	0	0.000
경남창원	5	0	1	0	0.167	**제주도**	**86**	**0**	**0**	**0**	**0.000**
경남하동	5	1	0	1	0.143	충남공주	1	0	0	0	0.000
경상남도	**40**	**10**	**5**	**4**	**0.153**	충남논산	15	3	2	1	0.143
경북경주	3	0	0	0	0.000	충남대전	6	1	3	0	0.300
경북고령	5	0	0	2	0.286	충남서산	1	2	1	26	0.900
경북봉화	4	9	0	0	0.000	충남서천	2	4	1	2	0.333
경북상주	9	2	0	0	0.000	충남예산	7	3	2	0	0.167
경북의성	2	0	0	5	0.714	충남천안	12	6	0	0	0.000
경북청도	4	0	1	6	0.636	**충청남도**	**44**	**19**	**9**	**29**	**0.376**
경북청송	4	2	1	0	0.143	충북보은	1	5	1	19	0.769
경상북도	**31**	**13**	**2**	**13**	**0.254**	충북영동	7	5	0	2	0.143
						충북옥천	1	11	0	8	0.400
						충북제천	5	16	0	4	0.160
						충북청원	1	4	0	3	0.375
						충북충주	1	8	0	0	0.000
						충청북도	**16**	**49**	**1**	**36**	**0.363**

[표 12] '네(四)'의 고모음화 실현 비율(지역어/구술발화)

‘네(四)’는 3.1.3.에서도 비교의 대상이 되었던 단어로, 《지역어》의 어휘 항목 조사 자료와 구술발화 자료에서의 차이점을 살피기에 적절한 항목이다. 먼저 3.1.3.에서와 같이 중부 방언과 남부 방언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표 12]에 따르면 구술발화에서 충남·충북은 각각 37.6%, 36.3%로 거의 비슷한 고모음화 실현율을 보인다. 충남은 장음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17%)보다 장음이 실현되는 경우(60%)에 더 높은 고모음화 비율을 보인다. 충북의 경우에도 장음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6%)보다 장음이 실현되는 경우(42%)가 더 적극적으로 고모음화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및 경기도에서는 고모음화가 약 10% 내외로 일어났다. 어휘 항목 조사에서 고모음화형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3.1.3.에서는 남부 방언의 ‘니(:)개’가 《지역어》에서도 상당수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술발화 자료에서도 중부 방언보다는 남부 방언에서 고모음화형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남부 방언에서도 지리적으로 고루 분포하고 있지는 않다. 경상도의 경우, 경북 남부의 청도·고령과 여기에 접경한 경남 창녕에서 고모음화의 실현율이 높게 나타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고모음화가 거의 적용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전남의 경우, 음장을 동반한 ‘니:’형의 출현 빈도가 높다. 이 지역에서는 고모음화의 적용 여부와 관련없이 ‘네:’ 또는 ‘니:’와 같이 장음을 실현하는 경우가 압도적이었다(84%). 전북은

분포를 살펴보면 서로 접경한 전북 남원과 전남 곡성, 전북 고창과 전남 영광에서 ‘니(:)개’가 관찰된다. 그러나 이들이 곳곳에 무리지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포 자체가 산발적이기에 어떠한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자료집》의 시기와 연결짓는다면, 앞서 언급한 지점들은 신형인 ‘네(:)개’가 세력을 넓혀가는 중에 아직까지 구형을 고수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지도 22]에 나타나는 《지역어》의 어휘 항목 자료와 구술발화 자료를 비교해보자. 강원도와 경기도, 제주도의 경우에는 구술발화 자료에서도 고모음화형의 수효가 매우 적거나 없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어휘 항목 자료와

구술발화 자료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노정한다. 먼저 충청도를 살펴보면, 어휘 항목 조사 자료에서는 충남 보령에서 '니개'가 보고되었을 뿐 충남·충북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네:개' 또는 '네개'가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구술발화 자료에서는 40%에 육박하는 고모음화 실현율을 보여 어휘 항목 자료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전북의 고창·남원, 전남의 곡성·보성·영광·영암, 경북 의성·청송, 경남 산청·울주·창원·하동은 모두 어휘 항목 자료에서는 고모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구술발화 자료에서는 고모음화의 실현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5.1.1.에서도 언급한 어휘 항목 조사 자료와 구술발화 자료의 특성에 말미암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며느리'가 'ㅕ 〉 ㅖ'를 겪어 만들어진 '메느리'의 고모음화형 '미느리'를 살피기로 한다. 비록 '미느리'형의 분포가 제한적이고 수효가 많지 않으나 'ㅕ 〉 ㅖ 〉 ㅣ'의 중심이 되는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며느리	메느리	미느리	비율		며느리	메느리	미느리	비율
강원삼척	0	2	0	0.000	전남곡성	0	1	0	0.000
강원양양	0	10	0	0.000	전남광양	1	14	0	0.000
강원원주	0	1	0	0.000	전남보성	0	5	0	0.000
강원인제	0	0	0		전남신안	0	9	0	0.000
강원정선	0	0	0		전남영광	1	3	0	0.000
강원평창	0	0	0		전남영암	0	1	0	0.000
강원홍천	0	1	0	0.000	전남진도	0	2	0	0.000
강원도	**0**	**14**	**0**	**0.000**	**전라남도**	**2**	**35**	**0**	**0.000**
경기강화	0	4	0	0.000	전북고창	0	13	0	0.000
경기양평	0	0	0		전북군산	2	2	0	0.000
경기용인	1	3	0	0.000	전북남원	0	0	4	1.000
경기이천	3	0	0	0.000	전북무주	2	2	0	0.000
경기파주	0	10	3	0.230	전북임실	0	13	0	0.000
경기포천	1	2	0	0.000	**전라북도**	**4**	**30**	**4**	**0.105**
경기화성	2	4	0	0.000	서귀대정	1	2	0	0.000
경기도	**7**	**23**	**3**	**0.091**	서귀색달	0	0	0	
경남고성	0	3	0	0.000	서귀표선	0	8	0	0.000
경남남해	0	29	1	0.033	서귀호근	0	11	0	0.000
경남산청	0	12	2	0.143	제주건입	0	7	0	0.000
경남울주	0	1	0	0.000	제주구좌	0	43	0	0.000
경남창녕	0	2	5	0.714	제주한경	0	0	0	
경남창원	0	2	0	0.000	**제주도**	**1**	**71**	**0**	**0.000**
경남하동	0	2	1	0.333	충남공주	0	1	0	0.000
경상남도	**0**	**51**	**9**	**0.150**	충남논산	2	8	0	0.000
경북경주	1	1	0	0.000	충남대전	2	12	0	0.000
경북고령	0	0	4	1.000	충남서산	4	8	0	0.000
경북봉화	0	3	1	0.250	충남서천	0	1	0	0.000
경북상주	0	0	3	1.000	충남예산	0	8	0	0.000
경북의성	1	0	2	0.667	충남천안	0	2	0	0.000
경북청도	0	0	4	1.000	**충청남도**	**8**	**40**	**0**	**0.000**
경북청송	3	2	2	0.286	충북보은	0	10	2	0.167
경상북도	**5**	**6**	**16**	**0.593**	충북영동	0	7	0	0.000
					충북옥천	0	2	0	0.000
					충북제천	0	13	0	0.000
					충북청원	0	12	0	0.000
					충북충주	1	4	0	0.000
					충청북도	**1**	**48**	**2**	**0.039**

[표 13] ‘(며느리)메느리’의 고모음화 실현 비율(지역어/구술발화)

앞서 3.2.3.에서는 장음이 아닌 ‘ㅖ’의 고모음화가 주로 경북 서남부를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는데, 구술발화 자료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경북 상주·의성·고령·청도 등 서부 지역에서는 약 93%의 고모음화 실현율을 보인다. 이들 지역에서는 ‘ㅕ 〉 ㅖ’를 겪지 않은 ‘며느리’는 1회 출현하지만 ‘ㅕ 〉 ㅖ’를 겪은 ‘메느리’형은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즉 ‘ㅕ 〉 ㅖ’가 일어나면 ‘ㅖ 〉 ㅣ’도 따라 일어나는 양상을 보이므로, ‘ㅖ 〉 ㅣ’의 실현율은 100%로 산정된다. 한편 봉화·청송·경주 등 동부 지역에서는 어떠한 음운 현상도 겪지 않은 ‘며느리’형이 4회, ‘ㅕ 〉 ㅖ’를 경험한 ‘메느리’형이 6회, 여기에서 ‘ㅖ 〉 ㅣ’의 고모음화가 적용된 ‘미느리’형이 3회 등장한다. 즉 ‘ㅖ 〉 ㅣ’ 고모음화의 실현율은 33% 정도로 계산되며, 경북 서부의 100%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3.2.3.에서 살펴본 ‘ㅓ 〉 ㅖ 〉 ㅣ’나 ‘ㅕ 〉 ㅖ 〉 ㅣ’, ‘ㅞ 〉 ㅟ’ 등도 모두 경북 서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한편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북 남원, 경남 창녕 등지에서 ‘(ㅕ〉)ㅖ 〉 ㅣ’를 적극적으로 실현한다.[99] 전북 남원은 어휘 항목 조사 자료에서 ‘밀치{멸치}’, ‘이미{어미}’등이 실현되던 지역으로 ‘ㅖ 〉 ㅣ’의 세력이 존재하는 곳이다. 경남 창녕은 경북 서부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 경남 창녕은 고령·대구·청도와 인접해 있으며 《자료집》에서부터 이들 지역과 같은 언어 현상을 보인 지역이므로 ‘ㅖ 〉 ㅣ’가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한편 전남은 어휘 항목 조사 자료에서 ‘ㅓ 〉 ㅖ 〉 ㅣ’가 나타나기도 하고(진도-이미{어미}), ‘ㅕ 〉 ㅖ 〉 ㅣ’가 보고되기도 하였다(순천/장성-밀치{멸치}). 그런데 구술발화 자료에서는 이러한 고모음화형이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지점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도 하고, 해당 어휘 항목이 구술발화에서 아예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

99) 한편 충북 보은과 경기 파주 역시 드물게 ‘ㅖ > ㅣ’의 실현을 보인다. 먼저 충북 보은의 경우는 조사상의 문제로 보인다. 제보자 중 한 명의 선대 거주지가 상주시 모동면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방언 조사의 제보자가 3대 토박이라는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제보자 선정의 문제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경기 파주의 경우, ‘어미’나 ‘멸치’, ‘벼’ 등에서는 고모음화를 실현하지 않고 ‘미느리’형에서만 약 23%의 고모음화 실현율을 보인다. 이는 《자료집》 과의 연관성을 찾기도 어렵고 다른 어형과의 공통점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데서 개인어로 해석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구술발화 자료에서 살필 수 있는 'ㅕ 〉 ㅖ 〉 ㅣ'는 《지역어》의 어휘 항목 조사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경북 서부를 중심으로 하며, 전북 남원이나 경남 창녕·산청·하동 등 남부방언권에 산발적으로 분포한다.

5.2. 문법형태소의 고모음화

이제 문법형태소에서의 고모음화를 살피기로 한다. 문법형태소는 어휘형태소에 비해 표본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고모음화의 실현 비율을 보다 정확히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2.1. ㅓ 〉 ㅡ

다음 [표 14]는 《지역어》의 구술발화 자료에서 '-더(ᄃᆞ)-'의 고모음화 실현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더-	-드-	실현 비율		-더-	-드-	실현 비율
강원삼척	10	17	0.62963	전남곡성	9	12	0.57143
강원양양	13	42	0.76364	전남광양	3	15	0.83333
강원원주	19	20	0.51282	전남보성	3	11	0.78571
강원인제	15	14	0.48276	전남신안	10	59	0.85507
강원정선	2	4	0.66667	전남영광	3	29	0.90625
강원평창	24	12	0.33333	전남영암	7	25	0.78125
강원홍천	44	48	0.52174	전남진도	3	12	0.8
강원도	**127**	**157**	**0.55282**	**전라남도**	**38**	**163**	**0.81095**
경기강화	4	10	0.71429	전북고창	25	35	0.58333
경기양평	65	23	0.26136	전북군산	73	32	0.30476
경기용인	10	6	0.375	전북남원	12	9	0.42857
경기이천	117	8	0.064	전북무주	11	14	0.56
경기파주	28	69	0.71134	전북임실	24	11	0.31429
경기포천	54	24	0.30769	**전라북도**	**145**	**101**	**0.41057**
경기화성	122	108	0.46957	서귀대정	0	0	0
경기도	**400**	**248**	**0.38272**	서귀색달	13	1	0.07143
경남고성	9	0	0	서귀표선	1	0	0
경남남해	39	2	0.05128	서귀호근	1	1	0.5
경남산청	24	0	0	제주건입	4	0	0
경남울주	8	1	0.125	제주구좌	10	0	0
경남창녕	14	1	0.00892	제주한경	1	0	0
경남창원	17	0	0	**제주도**	**29**	**2**	**0.06451**
경남하동	11	0	0	충남공주	1	2	0.66667
경상남도	**122**	**4**	**0.03278**	충남논산	129	57	0.30645
경북경주	0	3	1	충남대전	38	23	0.37705
경북고령	2	10	0.83333	충남서산	33	6	0.15385
경북봉화	9	101	0.91818	충남서천	64	87	0.57616
경북상주	25	115	0.82143	충남예산	10	6	0.375
경북의성	3	60	0.95238	충남천안	24	12	0.33333
경북청도	1	11	0.91667	**충청남도**	**299**	**193**	**0.39228**
경북청송	2	3	0.6	충북보은	33	82	0.71304
경상북도	**42**	**303**	**0.87826**	충북영동	42	49	0.53846
				충북옥천	49	39	0.44318
				충북제천	18	57	0.76
				충북청원	97	25	0.20492
				충북충주	16	7	0.30435
				충청북도	**255**	**259**	**0.50389**

[표 14] '-더-'의 고모음화 실현 비율(지역어)

'-더-'의 고모음화 실현 비율은 '경북〉전남〉강원〉충북〉전북〉충남〉경기〉제주〉경남'순으로 나타난다. [표 14]를 살펴보면 경상북도의 'ㅡ'형 실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지역어》의 시기는 경상북도에서 완전히 'ㅓ'와 'ㅡ'의 변별이 자리잡은 시기라기보다는 오히려 'ㅓ'와 'ㅡ'가 서서히 변별되어가기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후설 중모음 'ㅓ'가 상승하여 'ㅡ'와의 조음 위치가 겹쳐지고, 이러한 이유로 'ㅓ'와 'ㅡ'가 합류하여 [ㅓ]로 실현되던 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ㅓ[ə]'와 'ㅡ[ɨ]'로 완전히 변별력을 가지게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양성》에서 50대, 20대로 갈수록 'ㅓ'와 'ㅡ'의 변별이 일상적인 발화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 역시 이를 방증한다.[100]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어》의 구술발화 자료에서 나타나는 'ㅓ 〉 ㅡ'의 면면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지역어》에서 'ㅡ'와 'ㅓ'를 변별한다고 보고된 경북 봉화·상주·의성의 경우 아래와 같은 예가 나타난다.

(82) ㄱ. 으, 그'마끔 **에'릅뜨라**, 구게'요. {어, 그만큼 **어렵더라고요**, 그게요.} (봉화)
ㄴ. 일쩨 때 맨드'러따 **카'드라**. {일제 때 만들었다고 **하더라**.} (의성)
ㄷ. 그거또요, 솜씨시 자라는 사람이꼬 잘 몯하마 시고 떨꼬 가튼 그글로 헤도 **그르트라고요**. {그것도요, 솜씨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면 시고 떫고, 같은 그것으로 해도 **그렇더라고요**.} (상주)

(82ㄱ)은 폐음절 뒤에 결합한 '-더라'에서 고모음화가 실현된 예다. (82ㄴ)은 개음절에 결합한 '-더라'에서 고모음화가 나타난 사례이고, (82ㄷ)은 'ㅎ' 말음 어간에 연결된 '-더라'가 고모음화를 겪은 형태이다. 이들은 음운론적 환경에 관계없이 'ㅓ 〉 ㅡ'의 고모음화를 겪은 형태로 관찰된다.[101] 경북에

100) 또한 이러한 변별은 자유 발화보다는 격식적인 발화에서 먼저 나타나게 마련이며, 따라서 음소 목록 조사에서는 'ㅓ'와 'ㅡ'를 변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 발화에서는 [ㅓ]에 가깝게 실현된다. 이는 'ㅓ', 'ㅡ'가 음소로서 변별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1980년대 출생의 ('ㅓ[ə]'와 'ㅡ[ɨ]'를 변별하는) 조사자에게는 대체로 'ㅡ'에 가깝게 들렸을 가능성이 크다.

서는 다음과 같은 'ㅓ 〉 ㅡ' 고모음화도 발견된다.

(83) ㄱ. 내'가 일: 련', 예을 **드'르서** 일 련 농'사 지: 주'며는 {내가 일 년, 예를 **들어서** 일 년 농사 지어 주면은} (상주)
ㄴ. **아'르서** 쭉: 꼼능' 기느이. {**알아서** 쭉 꽂는 거야.} (의성)
ㄷ. 그'이 **보'믄서이** 시스마'끔 하'이께네. {그래 **보면서** 스스로 하니까.} (봉화)

(83ㄱ)은 '들-어서'에서 'ㅓ 〉 ㅡ'의 고모음화가 적용된 사례로, 이들 지역에서는 '절'므서(〈젊-어서)', '더'브서(〈덥-어서)', '부트서(〈붙-어서)' 등의 예가 발견된다. (83ㄴ)의 경우 어간 '알-'에 결합한 어미 '-어서'의 두음이 'ㅡ'로 바뀐 것이다. 김동은(2020)에 따르면 의성 지역의 모음조화는 이미 의식적인 발화와 자유 발화 모두에서 말음절에 'ㅏ'를 가진 폐음절 어간 뒤에 '-어X' 계열의 어미가 결합하는 예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자'버(執), 따'껀는데(扶), 사'러(生), 마너'요(多)). 따라서 (83ㄴ)의 예를 'ㅓ 〉 ㅡ'의 고모음화로 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83ㄷ)은 어미 '-면서'에서 활음이 탈락하고 고모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다시 [표 14]로 돌아가면, 'ㅓ'와 'ㅡ'의 음가 문제에서 자유로우면서 'ㅓ 〉 ㅡ'의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라고 하겠다. [표 14]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총 201회 중 163회, 비율로는 약 81%의 고모음화 실현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본 자체가 적지 않으면서 고모음화가 실현되는 비율도 전 지역에서 균일하게 높다. 구술발화 자료에 있어서는 문법형태소의 고모음화가 가장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강원도에서는 강원 동부의 양양, 남부의 정선·삼척에서 고모음화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전체적으로는 약 55%의 고모음화 실현율을 보인다. 평창에서 33%의 낮은 고모음화 실현 비율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50%에 육박하거나 50%를 상회하고 있다.

---

101) 경북 봉화의 경우 어간 '에릅-'에서도 비어두 'ㅓ > ㅡ'의 고모음화가 실현된 것을 살필 수 있다. 이 지역은 대개 자음과 활음이 공기하지 못하므로 '에럽-'이 되고, 여기에 'ㅓ > ㅡ' 고모음화가 적용되어 '에릅-'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체로 50%에 육박하는 고모음화 실현율을 보인다. 충북 50%, 전북 41%, 충남 39%, 경기 38% 정도로 엇비슷하다. 그러면서도 경기 남부보다 경기 북부에서, 충남 서부보다 충남 동부에서 'ㅓ 〉 ㅡ' 고모음화의 실현율이 높은 것은 [지도 55]와 상통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 남부의 화성이나 용인에서도 40% 안팎의 실현율을 보이고, 충남 예산 및 충북 제천/옥천 등에서도 작지 않은 비율로 고모음화가 실현되는 것을 보면 구술발화에서의 'ㅓ 〉 ㅡ' 고모음화 영향력은 상당히 공고히 유지되고 있다고 하겠다.

경상남도와 제주도는 공히 문법형태소의 'ㅓ 〉 ㅡ'를 찾을 수 없는 지역이었는데, '짜드라{짜더라}(울주)', '하드라꼬{하더라고}(남해)'와 같은 극소수의 예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고모음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일상적인 발화 상황에서 발견되는 예외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경남 지역은 《지역어》의 시기까지도 'ㅓ'와 'ㅡ'의 변별이 없는 곳이 많으므로 당연히 'ㅓ 〉 ㅡ'가 나타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주는 회상의 선어말어미 '-더-'가 '-아/어-', 또는 '-라-'로 실현되는 관계로 신형인 '-더-'의 출현 자체가 많지 않아, 'ㅓ 〉 ㅡ'의 예를 찾기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와는 달리 '-어-'계 문법형태소의 고모음화는 《자료집》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역어》의 구술발화에서는 그 예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84) ㄱ. 그라구 인재 드르니까루 그른 서워애넌 타:인두 **이쓰야** 댄대요. {그러고 이제 들으니까 그런 서원에는 타인도 **있어야** 된대요.} (충북 보은)

ㄴ. 나 모단다구 **자빠저쓰야는디** 다 사다 줘떠니 아 인자 암두 아날라구 지라라네 그래가꾸.{나 못한다고 **자빠졌어야** 했는데 다 사다 줬더니 아, 이제 아무도 안 하려고 지랄하네 그래갖고.} (충남 논산)

ㄷ. 그 때는 삼년 보글 **버스야자나**, 긍게 인자 보글 **버스야** 게로늘 헌다고 히가꼬 게로늘 모더고 인자.{그 때는 삼년 복을 **벗어야잖**

아, 그러니까 이제 복을 벗어야 결혼을 한다고 해 가지고 결혼을 못 하고, 이제.} (전북 군산)

ㄹ. 우실우실 춥:꼬 기양 모:다거낄레 이만저만헤서 네가 주꺼씅께 두루눠:쓰, 누:쓰야 쓰거따고 그랑께는 그라라고 헤:싸틈만. {으실으실 춥고 그냥 못 하겠기에 이만저만해서 내가 죽겠으니까 드러누웠어, 누웠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는 그러라고 해 쌓더구먼.} (전남 영암)

(85) ㄱ. 그때 어디 병워내 가 이쓰서 병워내 갈쭈럴 아라 멀: 아라. {그때 어디 병원에 가 (병원이) 있어서 병원에 갈 줄을 알아 뭘 알아.}(충북 옥천)

ㄴ. 그 저니 엄니 사르서는 해써 엄니는 하라거 하라고 해서. {그 전에 어머니 살아서는 했어, 어머니는 하라고 하라고 해서.}(충남 대전)

(84)와 (85)는 각각 '-어야'와 '-어서'에서 고모음화가 실현된 어형을 보여준다.[102] 김아름(2008: 74)에서는 '-더-'계 어미의 고모음화형이 '-어-'계 문법형태소의 고모음화보다 보편적으로 관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계 문법형태소는 서남 방언에서 모두 고모음화되었고, 경기 북부와 충남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도 상승형으로 실현되는 반면 '-어-'계 문법형태소의 경우 '-어야' 만이 충남 남부 지역에서 고모음화를 겪는다는 것이다.[103] 이

102) 공교롭게도 예문에서 '-어-'의 선행음절 말음은 모두 치조음이며 그 중에서도 'ㅆ'인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고모음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백두현(1998: 697)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한회어》에서의 'ㅡ'와 'ㅓ'의 합류가 [+coronal], [+anterior] 자음 뒤에서 먼저 일어나기도 하였고, 신지영(2000:206)에서 밝힌 것처럼 어중의 치경 경 마찰음(ㅆ)은 'ㅅ'에 비해 길이가 길고, 그러려면 혀가 높은 위치에서 더 오래 머물러야 하므로 후행하는 모음의 음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영향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구술발화 자료에서 찾은 '-어요'형은 총 8013회, '-으요'형은 총 212회였는데 이 중 선행음절 말음이 'ㅆ'인 것은 각각 5629회, 161회였다. 즉 단순히 '-어요' 앞에 'ㅆ'이 위치하는 모집단 자체가 크기 때문에 고모음화를 입은 사례가 많이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ㅆ'이 선행음절 말음인 경우의 고모음화 실현율은 2.8%,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1%로 나타난다.

103) 김옥화(2000, 2001: 48-49, 2007: 111), 최명옥·김옥화(2001: 212) 등에서는 전북 지역 '-으X'계열 연결어미의 존재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를 감안하면 《지역어》에서는 《자료집》보다 ‘ㅓ 〉 ㅡ’의 환경이 다소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104] 한편 지역별로 살펴보면 ‘-어-’계 문법형태소의 ‘ㅓ 〉 ㅡ’가 가장 적게 발견된 지역은 제주도(0/87)와 경기도(2/1615)로, 파주에서 ‘틀리믑쓰요{틀림없어요}’, ‘사랃쓰요{살았어요}’와 같이 단 2차례만 나타난다. 충북은 약 12% 정도의 고모음화 실현율을 보이며 나머지 지역은 2~4% 내외의 고모음화 실현율을 기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문법형태소에서의 ‘ㅓ 〉 ㅡ’는, 이전 시기에 그 실현율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다소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나 적용 환경과 지역은 오히려 소폭 확장된다는 양면성을 확인할 수 있다.

5.2.2. ㅗ 〉 ㅜ

이제 보조사 ‘-도’, 향격·구격의 ‘-(으)로’, 어미 ‘-고’와 같이 ‘ㅗ’를 가진 문법형태소에서 일어나는 고모음화의 양상을 살피기로 한다.

것은 《자료집》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역어》에서는 관찰되는 문법형태소에서의 ‘ㅓ > ㅡ’이므로, 전북 지역에 ‘-으X’계열 어미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논의의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104) 다만 본고에서 살펴본 《지역어》의 자료는 구술발화 자료이기 때문에 보다 비격식적인 말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ㅗ	ㅜ	실현 비율		ㅗ	ㅜ	실현 비율
강원삼척	2998	223	0.06923	전남곡성	783	7	0.00886
강원양양	35	591	0.94409	전남광양	318	8	0.02454
강원원주	447	285	0.38934	전남보성	905	4	0.00440
강원인제	185	137	0.42547	전남신안	3001	31	0.01022
강원정선	1115	242	0.17833	전남영광	451	7	0.01528
강원평창	476	92	0.16197	전남영암	1047	6	0.00570
강원홍천	439	158	0.26466	전남진도	325	1	0.00307
강원도	**5695**	**1728**	**0.23279**	**전라남도**	**6830**	**64**	**0.00928**
경기강화	332	899	0.73030	전북고창	531	5	0.00933
경기양평	535	301	0.36005	전북군산	360	173	0.32458
경기용인	892	101	0.10171	전북남원	867	37	0.04093
경기이천	195	153	0.43966	전북무주	3818	433	0.10186
경기파주	398	1562	0.79694	전북임실	1427	27	0.01857
경기포천	447	628	0.58419	**전라북도**	**7003**	**675**	**0.08791**
경기화성	161	440	0.73211	서귀대정	419	4	0.00946
경기도	**2960**	**4084**	**0.57978**	서귀색달	608	6	0.00977
경남고성	513	10	0.01912	서귀표선	538	5	0.00921
경남남해	510	13	0.02486	서귀호근	379	1	0.00263
경남산청	814	11	0.01333	제주건입	654	22	0.03254
경남울주	1244	48	0.03715	제주구좌	517	32	0.05829
경남창녕	507	5	0.00977	제주한경	221	7	0.03070
경남창원	837	8	0.00947	**제주도**	**3336**	**77**	**0.02308**
경남하동	1015	15	0.01456	충남공주	490	302	0.38131
경상남도	**5440**	**110**	**0.01982**	충남논산	372	397	0.51625
경북경주	601	19	0.03065	충남대전	379	524	0.58029
경북고령	561	61	0.09807	충남서산	308	573	0.65040
경북봉화	568	36	0.05960	충남서천	487	320	0.39653
경북상주	923	41	0.04253	충남예산	250	574	0.69660
경북의성	722	56	0.07198	충남천안	208	522	0.71507
경북청도	1268	77	0.05725	**충청남도**	**2494**	**3212**	**0.56292**
경북청송	445	29	0.06118	충북보은	57	903	0.94063
경상북도	**5088**	**319**	**0.05900**	충북영동	416	546	0.56757
				충북옥천	47	472	0.90944
				충북제천	49	824	0.94387
				충북청원	37	742	0.95250
				충북충주	41	685	0.94353
				충청북도	**647**	**4172**	**0.86574**

[표 15] '-고, -도, -(으)로'의 고모음화 실현 비율(지역어)

[표 15]는 《지역어》의 구술발화 자료에서 'ㅗ 〉 ㅜ'의 고모음화가 실현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4.2.2.에서 《자료집》에 나타나는 문법형태소에서의 'ㅗ 〉 ㅜ'를 살펴보았는데, 이때 중부 방언권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ㅗ 〉 ㅜ'가 일어났다. 여기에서도 고모음화 실현율은 크게 다르지 않아 '충북〉경기〉충남〉강원〉전북〉경북〉제주〉경남〉전남'의 순으로 나타난다.

먼저 중부 방언권부터 살펴보면, 충북에서 약 87%로 고모음화의 실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전북 무주·경북 김천과 마주하고 있는 최남단의 영동에서 약 57%의 고모음화 실현율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90%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였다. 즉 충북에서는 문법형태소의 'ㅗ 〉 ㅜ'가 매우 일반적이며, 지역에 따른 편차도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기도와 충남의 경우 약 60%에 가까운 고모음화 실현율을 보인다. 《자료집》과 비교하여 세력의 축소가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하겠다. 경기도의 경우 북서부의 파주·포천·강화 등이 높은 고모음화 실현율을 기록했고 남동쪽으로는 비교적 낮은 실현율을 보인다. 충청남도의 경우 군별로 거의 고르게 나타나기는 하나, 대체로 남부에서 비교적 낮은 실현율을 보인다. 특히 전북 군산과 접경한 서천은 공주와 함께 40%를 밑도는 고모음화 실현율을 보이는데, 전북 군산은 다른 지역이 많아야 10%의 'ㅗ 〉 ㅜ'를 기록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32%의 고모음화 실현율을 보였다.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의 고모음화 실현율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결과로 보인다.

한편 서울 방언의 경우 20세기 전기 서울 방언을 다룬 구어 자료나 21세기 초의 서울 방언을 다룬 코퍼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업적이 있다. 신우봉(2016: 252)에서는 20세기 전기 구어 자료를 이용하여 문법형태소에서의 '/ㅗ/ → /ㅜ/' 실현 양상을 살폈는데, '-구(〈-고)', '-두(〈-도)', '-루(〈-로)' 등과 같이 고모음화가 실현된 비율은 4.5%(208회)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어휘형태소 내부의 비어두에서 실현되는 모음 상승의 비율이 7.8%로 문법형태소보다 다소 높은 사실은, 어휘형태소의 비어두 위치에서 시작된 'ㅗ'의 모음상승이 20세기 전기 구어에서 문법형태소의 층위로 확대되는 것(강희숙 2002: 177)을 뒷받침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료집》의 시기

에는 중부 방언권 전체가 'ㅗ 〉 ㅜ'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감안하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기 즈음에 확산되기 시작한 문법형태소의 'ㅗ 〉 ㅜ' 고모음화가 《자료집》의 시기에 중부 방언권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고 《지역어》의 시기까지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윤은경(2020: 35)에서는 10대~40대의 서울 방언 화자의 자연 발화를 대상으로 한 22만 어절 규모의 '한국어 자연발화 음성 코퍼스(The Korean Corpus of Spontaneous Speech, Yun et al., 2015)'에서 어말의 'ㅗ 〉 ㅜ'가 실현되는 비율을 확인하였는데, 연결어미의 경우 43.8%(표본 10,790개), 조사는 52.1%(표본 8,684개), 부사는 51.3%(표본 2,129개)로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2010년대에 10~40대인 젊은 세대에서도 '-도', '-고', '-로' 등의 고모음화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수치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105] 즉 서울 방언에서의 문법형태소 'ㅗ 〉 ㅜ'는 《자료집》 이후로 상당한 수준의 실현율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하겠다.

강원도의 경우 'ㅗ 〉 ㅜ' 실현율이 상당히 낮아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강원 양양에서는 약 94%로 높은 고모음화 실현율을 기록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23%에 그치는 수치를 보인다. 강원도에서 가장 낮은 'ㅗ 〉 ㅜ' 실현율을 보이는 곳은 약 7%의 수치를 기록한 삼척인데, 삼척은 경북 봉화/울진과 접경해 있는 지역으로 경북 동해안 방언과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접경한 경북 봉화 지역은 약 6% 정도로 'ㅗ 〉 ㅜ' 고모음화가 드물게 실현되는 지역이므로, 삼척의 'ㅗ 〉 ㅜ' 고모음화가 유달리 빠르게 힘을 잃은 것은 인접 지역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우, 4.2.2.에서 보인 《자료집》의 자료를 통해서는 'ㅗ

105) 한편 이 연구에서 체언의 ㅗ>ㅜ 고모음화 실현율은 4.6%(표본 1,099개)로 나타난다. 그런데 윤은경(2020: 39)에 제시된 체언의 경우 대개 한자어거나 외래어여서 정인호(2006)에서 밝힌 바와 같이 ㅗ > ㅜ 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체언의 비어두 'ㅗ > ㅜ'가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어형은 고모음화의 결과가 이미 규범에 반영된 경우가 숱한바, 해당 논의에서 서술하는 'ㅗ > ㅜ 대체'의 입력형 자체가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체언의 'ㅗ > ㅜ' 고모음화 실현율이 낮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오히려 여기서 제시한 것과 같이 '프로', '킬로', '시라노' 등의 외래어(및 외래어 고유명사)에서도 'o > u'가 실현된다는 점은 비어두의 'ㅗ > ㅜ'가 젊은 세대에서도 적게나마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 ㅜ’의 고모음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지역어》에서는 전라북도가 약 9%, 경상북도가 약 6%의 비율로 문법형태소의 ‘ㅗ 〉 ㅜ’ 고모음화를 실현한다. 전라남도는 약 1%, 경상남도는 약 2%의 고모음화를 보인다. 이는 ‘ㅗ 〉 ㅜ’가 확산되는 초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이 개신은 중부 방언으로부터 파도형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양성》에서 경북 대구 20대 제보자의 경우, 대체로 조사(4%)보다는 어미(8%)에서 ‘ㅗ 〉 ㅜ’의 고모음화를 적극적으로 보였는데 특히 ‘가주구(27회)/가지구(2회)-가주고(92회)/가지고(3회)’의 경우 약 23%의 ‘ㅗ 〉 ㅜ’ 실현율을 보였다.

(86) ㄱ. 전 말하는 거 좋아하거든여, 막 누구 가르쳐주**구** 이런 거.{전 말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막 누구 가르쳐주고 이런 거.}
ㄴ. 그양 써도 상관 없나바여 공용인거가 그래서 거기 쓰**구**.{그냥 써도 상관없나 봐요, 공용인 건가 그래서 거기 쓰고.}
ㄷ. 그 전자렌지에 사분 돌려가주**구** 먹**구**.{그 전자레인지에 사 분 돌려가지고 먹고.}

(86)은 《다양성》에서 나타나는 경북 대구의 20대 제보자가 ‘ㅗ 〉 ㅜ’를 실현한 예들인데, 이전 시기보다 ‘ㅗ 〉 ㅜ’가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지역어》와 《다양성》의 구술발화 자료에서 나타나는 ‘ㅗ 〉 ㅜ’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자료집》의 어휘 항목 자료와 함께 비교해 보면 문법형태소에서의 ‘ㅗ 〉 ㅜ’ 고모음화는 양면적인 특성을 보인다. 압도적인 실현율을 보이던 중부 방언권에서는 서서히 그 실현율이 낮아지는 동시에, ‘ㅗ 〉 ㅜ’가 전혀 실현되지 않던 지역에서는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고모음화의 세력이 축소되는데 문법형태소에서의 ‘ㅗ 〉 ㅜ’는 왜 확산되는 것일까? 이를 조음 영역과 관련지어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모음화의 전제 조건은 해당 현상의 입력부와 출력부가 되는 음소가 혀의 높낮이 자질에 따른 대립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한국어 모음의 조음

위치는 지역별·세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신우봉·신지영(2022)에 따르면 'ㅖ'와 'ㅒ'의 조음 영역은 중부 방언과 전북 방언 60대 화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방언에서 겹쳐지며, 20대 화자의 'ㅗ', 'ㅜ'의 F1 차이는 'ㅡ'와 'ㅓ'가 변별되지 않는 경남·경북 60대 화자의 'ㅡ', 'ㅓ' F1 차이보다 작다.[106] 그러나 'ㅗ'와 'ㅜ'의 대립은 두 모음의 조음 위치가 가까워지더라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ㅖ'와 'ㅒ'의 조음 영역이 겹쳐지며 결국 합류한 것과 대비되는 일이다. 이는 모음체계상의 문제로 보인다. 2‖3-2 체계든 2‖2-2 체계든 원순모음은 본래부터 고모음과 중모음 둘뿐이므로, 'ㅗ'와 'ㅜ'가 합류하여 원순모음을 1개만 남기기에는 체계상의 압력이 이를 저지하는 것이다. 즉 'ㅗ'와 'ㅜ'의 대립이 유지되는 가운데 두 모음의 조음 영역이 가까워진 20대 화자들에게서는 이전 세대에서보다 'ㅗ 〉 ㅜ'의 고모음화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문법형태소의 'ㅗ' 고모음화에서 먼저 발견되고 있다고 하겠다.

5.2.3. ㅖ 〉 ㅣ

'ㅖ 〉 ㅣ' 고모음화에서는 4.2.3.에서 밝힌 바와 같은 이유로 '-며'와 '-면', '-면서'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구술발화 자료에서는 문어체인 '-며'의 빈도가 낮을뿐더러 등장하더라도 빠른 발화에서 '-면'의 말음 'ㄴ'이 탈락한 것이기에 여기서는 '-면', '-면서'만을 살피기로 한다.

106) 이는 어두 위치에서 실현되는 모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비어두 위치의 'ㅗ-ㅜ', 'ㅓ-ㅡ'와는 다소 차이를 보일 것이지만, 비어두에서 모음의 약화가 개구도의 축소를 불러일으키는(정인호 2006: 143) 영향력은 두 경우에 공히 적용될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면	멘	민	비율		면	멘	민	비율
강원삼척	317	3	3	0.500	전남곡성	77	0	0	
강원양양	59	1	7	0.875	전남광양	2	0	0	
강원원주	57	0	0		전남보성	14	0	0	
강원인제	17	2	20	0.909	전남신안	13	0	0	
강원정선	84	0	1	1.000	전남영광	13	0	0	
강원평창	16	0	24	1.000	전남영암	29	0	0	
강원홍천	69	0	1	1.000	전남진도	4	0	0	
강원도	**619**	**6**	**56**	**0.903**	**전라남도**	**152**	**0**	**0**	
경기강화	121	0	4	1.000	전북고창	81	6	0	0.000
경기양평	159	0	0		전북군산	102	4	0	0.000
경기용인	58	0	0		전북남원	13	0	0	
경기이천	262	0	0		전북무주	273	0	0	
경기파주	176	1	4	0.900	전북임실	12	0	0	
경기포천	97	1	0	0.667	**전라북도**	**481**	**10**	**0**	**0.000**
경기화성	179	1	0	0.000	서귀대정	15	0	24	1.000
경기도	**1052**	**3**	**8**	**0.727**	서귀색달	73	0	498	1.000
경남고성	2	1	0	0.000	서귀표선	32	0	435	1.000
경남남해	5	4	1	0.200	서귀호근	82	0	223	1.000
경남산청	4	11	4	0.267	제주건입	20	0	13	1.000
경남울주	21	0	0		제주구좌	18	0	348	1.000
경남창녕	7	6	7	0.538	제주한경	29	0	253	1.000
경남창원	7	10	2	0.167	**제주도**	**269**	**0**	**1794**	**1.000**
경남하동	29	5	0	0.000	충남공주	33	0	0	
경상남도	**75**	**37**	**14**	**0.275**	충남논산	20	0	0	
경북경주	3	0	0		충남대전	79	0	0	
경북고령	23	2	12	0.857	충남서산	82	0	0	
경북봉화	6	0	1	1.000	충남서천	130	1	0	0.000
경북상주	13	0	12	1.000	충남예산	39	0	0	
경북의성	8	0	10	1.000	충남천안	56	0	0	
경북청도	30	0	9	1.000	**충청남도**	**439**	**1**	**0**	**0.000**
경북청송	48	0	1	1.000	충북보은	12	0	94	1.000
경상북도	**131**	**2**	**45**	**0.957**	충북영동	20	0	10	1.000
					충북옥천	13	1	0	0.000
					충북제천	9	0	14	1.000
					충북청원	21	1	0	0.000
					충북충주	4	0	35	1.000
					충청북도	**79**	**2**	**153**	**0.987**

[표 16] '-멘(서)'의 고모음화 실현 비율(지역어)

먼저 강원도의 경우, 인제·평창에서는 '-면'형보다도 '-민'형이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87) ㄱ. 이건 글쎄 신나므루 되능 게 언:제 되냐 하믄 삼팔썬 **매키민** 이 홍청구느루 **드러가민** 그애, 며:니 새루 **생기민** 인제 요기 신나미 돼:찌요. {이건 글쎄 신남으로 되는 게 언:제 되냐 하면 삼팔선 막히면서 이 홍천군으로 들어가면서 그래, 면:이 새로 생기면서 이제 요기 신남이 됐:지요.} (강원 인제)

ㄴ. **이래:민서** 인제 껍떼기 다: 까지머느 쌀만 인제 나므머 그다메 쌀만 인제 이씨머느 다 인제 그거 하자먼 그 호무리 또 까저야 또 아주 하:얘지니 그 좀 까자먼, 자꾸 **찌:민** 이래 **까부민** 이래 니 그래니 주글찌게~이지 머, 아 그래니까. {이러면서 인제 껍데기 다 까지면 쌀만 인제 남으면 그담에 쌀만 인제 있으면 다 인제 그거 하자면 그 허물이 또 까져야 또 아주 하얘지니 그 좀 까자면, 자꾸 찧으면 이래 까불면 이러니 그러니 죽을 지경이지 뭐, 아 그러니까.} (강원 평창)

(87)에서는 '-민'과 '-민서'를 모두 발견할 수 있다. '-민'형은 이 두 지역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양이나 삼척에서도 드물게 발견된다. 《자료집》에서는 '-민서'가 강원도 전역에서 관찰되었는데 그에 비하면 《지역어》에서의 '-민'형은 세력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다양성》에서는 '-멘'형과 '-민'형 모두 자취를 감추고 오직 '-면'(50대 - 116회 / 20대 - 30회), '-면서'(50대 - 42회 / 20대 - 15회)만이 관찰되었다.

경기도는 '-면'형의 비율이 99%이지만, 드물게 '-민'이나 '-멘서'등이 나타난다. 경기 강화에서는 '다니민{다니면}', 파주에서는 '허민{하면}', 포천에서는 '교회멘서{교회면서}'등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멘', '-민'형의 실현 비율이나 《자료집》의 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면 이들은 빠른 발화에서 나타난 발화의 실수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경남은 '-멘'형이 '-민'형보다 빈도가 높은 유일한 지역이다. 《자료집》에서

는 '-(으)모, -ㅁ서, -ㅁ시로, -ㅁ스로' 등이 우세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지역어》에서도 여전히 유지되어, 'ㅕ 〉 ㅖ 〉 ㅣ'의 실현을 살필 수 있는 어형 자체가 많이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자료집》에서 'ㅕ 〉 ㅖ'형인 '-멘서'가 경남 동부의 일부 지역에만 나타났다면《지역어》의 구술발화에서는 창원 등 중부와 산청/하동 등 서부 지역에서도 '-멘', '-민'형이 발견되었다.

(88) ㄱ. 그 여페 자기가 **안즈멘서** 내 재종수기.{그 옆에 자기가 앉으면서 내 재종숙이.} / **이시민서** 지거는 씰라고 생가 아나고. {있으면서 제 것은 쓰려고 생각 안 하고.} (이상 경남 창원)

ㄴ. 이 신냥노가 이리 **이스민** 여: 가아새 푸리 이만치서 안드롬니꺼.{이 신작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의 풀이 이만큼씩 들어오잖습니까?} / 우리 친저:서 인자 북똥이라쿤데 목청조은데 그: **살멘서** 진주로 이새르 각꺼덩:. {우리 친정에서 인제 북동이라고 하는 데 목 좋은 데 거기 살면서 진주로 이사를 갔거든.} (이상 경남 산청)

ㄷ. 이섬서로 디리:와, 내가 이씽께 "네:가 이씽께 디러온다."면서 바테 저리 **가멘서**.{웃으면서 들어와,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으니까 들어온다."면서 밭에 저리 가면서.} (경남 하동)

(88ㄱ)은 경남 창원에서 나타나는 '-멘서', '-민서'이다. 창원은 '-면'형보다도 '-멘'형의 빈도가 더 높은 지역으로 판단된다.[107] (88ㄴ, ㄷ)은 경남 서부에서의 '-멘', '-민'형을 보여준다.《지역어》까지는 이러한 구형의 세력이 적지 않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남 역시《다양성》에서는 '-멘', '-민'형을 찾아볼 수 없다. 50대 화자는 '-면'을 193회, '-면서'를 81회 실현하면서도 '-멘', '-민'형은 한 번도 발화하지 않았으며 20대 화자도 마찬가지로 '-면'을 272회, '-면서'를 90회 발화할 뿐이었다. 한편 원래 경남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실현되던 '-모' 역시《다양성》에서는 그 세력이 크게 축소

107) 그러나 표준어의 문법형태소 '-면'에 대응하는 어형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단연 '-모'로, 332회 등장하였다. '-면', '-멘', '-민'형을 모두 합해도 19회밖에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모'의 세력이 압도적(95%)이라고 하겠다.

되었다. 50대 화자는 '-모'를 25회 실현하였고 20대 화자에게서는 '-모'를 찾아볼 수 없었다.

경북은《자료집》에서도 '-민'형이 흔히 관찰되었던 지역으로,《지역어》구술발화 자료에서도 적지 않은 예를 보인다.

(89) ㄱ. 수, 수매로 **함멘** 일'려'넨 제 가을' 때' 데가짇, 데'며는 {수, 수를 매기려고 하면 일 년에 저기 가을 때 되어 가지고, 되면은} / 미테느 싱:딩'기불 내갇 피아노코 인자 말랴' **가민서** 또 강꼬, **말랴가민성** 감능기라. {밑에는 센 등겨불을 내어서 피워놓고 인제 말려 가면서 또 감고 말리면서 감는 것이라.} (경북 고령)

ㄴ. 그레가이고 막 **춥따카민** 평풍으로 처가이곧 또 막 인젇 옌나렌 카테니나 이써여?{그래가지고 막 춥다고 하면서 병풍으로 쳐가지고 또 막 인제 옛날엔 커튼이나 있어요?} (경북 상주)

ㄷ. 산'자, 머:가 산'자거 **하'민** 자 나무' 쪼갱' 걸{산자, 무엇이 산자냐 하면 저 나무 쪼갠 것을} (경북 청도)

(89ㄱ)에서와 같이 고령 지역에서 '-멘'형이 두 번 나타날 뿐, 경북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멘'형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89)의 '-민'형들 역시《다양성》에서는 자취를 찾기 어렵다.《다양성》의 경북 화자의 경우, 20대는 '-면'을 207회, '-면서'를 24회, 50대는 '-면'을 321회, '-면서'를 98회 발화하지만 '-멘'형이나 '-민'형은 전혀 실현하지 않았다.

전남과 전북을 막론하고 서남 방언에서는 'ㅖ 〉 ㅣ'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ㅕ 〉 ㅖ'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전북 고창과 군산에서 '-멘서'형이 각각 6회, 4회 관찰될 뿐이며 '-멘'형은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어휘형태소의 비어두에서 'ㅓ 〉 ㅖ'와 같이 움라우트를 겪은 경우에는 'ㅖ 〉 ㅣ' 고모음화 역시 적용되는 비율이 높았는데, 문법형태소 '-면(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소수의 사례에 '-멘서'가 등장하더라도 이것이 'ㅖ 〉 ㅣ' 고모음화를 입는 경우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즉 이 지역은 비어두 문법형태소의 'ㅖ 〉 ㅣ'를 전혀 모르는 지역이라 하겠다. 이 지역과 인접한 충남 역시 서천에서

‘놔두멘{놔두면}’이 1차례 발견되는 것 외에는 ‘ㅕ 〉 ㅖ’나 ‘ㅖ 〉 ㅣ’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충북 역시 지리적으로는 충남 및 전북과 인접해 있지만, 이 지역에서는 ‘ㅕ 〉 ㅖ’ 및 이를 뒤따르는 ‘ㅖ 〉 ㅣ’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자료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주로 충북 남부 지역에서 ‘-민서’형이 보고되었다. 《지역어》의 구술발화에서는 충북 남부의 보은·영동 뿐 아니라 북부의 제천·충주 등에서도 ‘-민’형이 발견되었다.

(90) ㄱ. 전부 산애 가 소까지 해다가서 **돌리가민** 꼬꾸선 {전부 산에 가서 솔가지 해다가 돌려가면서 꽂고는} / 어: 지금 손자가 지금 거기 저: 이:평 아빠뜨애 **살민서** 괄리럴 하구 이써요 지금 손자가. {어 지금 손자가 지금 거기 저 이평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손자가.} (충북 보은)

ㄴ. 개새가 이쓰먼 잉애때는 기냥 **올라가민** 인재 이캐 두. {개새가 있으면 잉앗대는 그냥 올라가면서 이렇게.} / 그건 **둘루민서** 자: 꾸 이래 이래 이래 제끼더라고요. {그건 돌리면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젖히더라고요.} (충북 영동)

ㄷ. 그 몸, 모르겐네, 내 그건. 그 저 이베 **돌:민서두** 머. {그 모, 모르겠네, 내 그것은. 그 저 입에 돌면서도 뭐.} (충북 제천)

ㄹ. 보롱가널 **댕기민** 하루 한 차래씩 치믈 놔:서 그래 해구 그랜대 {보름간을 다니면서 하루 한 차례씩 침을 놓아서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충북 충주)

(90)과 같이 충북의 여러 지역에서 ‘-민’형이 관찰된다. 보은·제천·충주와 같은 지역에서 ‘-면’형보다도 ‘-민’형의 빈도가 높은 것은 인접한 경북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한편 충북 옥천에서는 ‘나가멘서두{나가면서도}’형이 1차례 등장하기는 하나, 일반적인 형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역에서는 ‘-면’에서 활음이 탈락한 ‘-먼’이 가장 높은 빈도(605회)를 보이는데, 활음 탈락과 ‘ㅕ 〉 ㅖ’는 출혈순이므로 ‘-먼’형의 세력이 강할수록 ‘-멘’형은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주 방언에서 조건의 어미 '-(으)면'이 '-(으)민'으로 실현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순음 아래에서 'j'계 이중모음이 단모음화한다는 규칙(정승철 1995: 73)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자료집》보다도 훨씬 이전의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료집》에서 '-(으)면'이 모두 '-(으)민'으로만 나타나던 것에 비해 《지역어》의 구술발화 자료에서는 신형 '-(으)면'이 도입되어 약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준어형이 도입되어 확산되는 과정은 《다양성》에서 더욱 확실히 살필 수 있다. 제주 함덕의 50대 화자는 '-(으)면'형을 54회, '-(으)민'형을 단 1회 실현하는 데 그쳤고(1.8%) 20대 화자는 '-(으)면'형만을 172회 발화하였으며 '-(으)민'형은 전혀 실현하지 않았다. 1900~1910년대생의 제보자들에게서 0%로 추정되던 '-(으)면'형의 실현은 1930~1940년대 출생자들에 이르면 약 13% 정도 나타나다가, 1960~1970년대생 제보자들에게서는 98.2%로 크게 확산되었다. 1990~2000년대 출생자들은 아예 구형인 '-(으)민'형을 실현하지 않으므로, '-(으)면'형의 실현율이 100%라고 할 것이다. 문법형태소의 실현에 있어 지역 방언을 표준어가 완전히 대체하는 데 약 4세대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술발화 자료를 통해 살펴본 문법형태소의 고모음화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3장 및 4.1.에서 확인한 어휘형태소의 고모음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문법형태소에서의 'ㅓ 〉 ㅡ', 'ㅗ 〉 ㅜ'류의 고모음화는 세대가 바뀌면서 실현율이 작아지는 동시에 음운론적 환경에서나 지리적인 분포에서는 확산세를 띠고 있는 것이다. 반면 'ㅐ 〉 ㅣ'는 《자료집》에서 《지역어》, 그리고 《다양성》의 시기로 이행하면서 그 세력이 확연히 축소되었으며 《다양성》의 20대 화자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문법형태소에서의 고모음화 중 가장 먼저 소멸해버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6. 결론

지금까지 《자료집》과 《지역어》를 대상으로 현대 한국어 고모음화의 방언 분포를 기술하고, 그 개신의 중심과 변화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살펴보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자료집》과 《지역어》, 그리고 《다양성》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대 한국어 방언의 모음체계와 그 변화에 대해 다루었다. 《자료집》에서는 10모음체계를 유지하던 중부 방언과 서남 방언이 《지역어》에 이르면 'ㅖ'와 'ㅐ'의 합류를 보이기 시작하고, 《다양성》의 20대에 이르면 결국 'ㅣ, ㅔ, ㅡ, ㅢ, ㅏ, ㅜ, ㅗ'의 7모음체계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기술하였다. 한편 《자료집》에서는 6모음체계를 가지고 있던 동남 방언은 《지역어》에서부터 점차 'ㅡ'와 'ㅢ'를 변별하기 시작하여 《다양성》의 20대에서는 중부 방언 및 서남 방언과 마찬가지로 7모음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즉 'ㅡ'와 'ㅢ'의 변별이 없었던 세대의 동남 방언 화자는 고모음화를 실현할 수 없었는데, 20대 화자에 이르러서는 'ㅢ 〉 ㅡ'의 고모음화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충족된 것이다. 《자료집》에서 'ㆍ'를 포함한 9모음체계를 가지고 있던 제주 방언은 'ㆍ'의 소멸과 'ㅖ', 'ㅐ'의 합류를 거쳐 역시 7모음체계로 수렴한다. 운소의 경우, 《자료집》에서는 중부 방언의 장음 'ㅢ'가 [ɨ:]로만 실현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역어》에 이르면 음장의 변별력은 점차 사라져 이전 시기에는 정연하던 장음의 실현이 혼란스러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동남 방언에서는 성조에 따라 잉여적으로 실현되는 비시차적 자질로서 음장이 존재한다.

3장과 4장에서는 고모음화의 분포를 기술하고, 그 변화에 대해 논하였다. 《자료집》의 시기에 중부 방언에서 널리 실현되는 장모음의 고모음화는 《지역어》에 이르러서는 충청도 일부 지역으로 축소된다. 어두 장모음 'ㅖ:'의 고모음화는 경북을 중심으로 한 동남 방언과 전남·북의 서부에서 나타나는데, 이 역시 《지역어》의 시기에는 경북 서부 및 전남 일부 지역으로 축소된다. 어두 단모음의 고모음화는 경북 서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으로 대부분의 경우 《지역어》에서도 계속 실현된다. 비어두 'ㅢ 〉 ㅡ'는 어휘형태소나 문법형태소

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자료집》 이전 시기에는 동남 방언을 제외한 전국에서 실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자료집》부터는 서울·경기에서부터 'ㅓ 〉 ㅡ' 고모음화가 소멸되는 모습을 보인다. 어휘형태소의 비어두 'ㅗ 〉 ㅜ'나 'ㅖ 〉 ㅣ'는 실현 지역이 조금 축소되기는 하나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5장에서는 《지역어》와 《다양성》의 구술발화 자료를 주된 대상으로 삼아 일상 발화에서 고모음화의 실현율을 산정하였다. 구술발화 자료는 어휘 항목 조사 자료보다 자연스러운 대화 상황을 채집한 것으로, 실제 발화에서 고모음화가 어느 정도 실현되는지 분석할 수 있다. 어휘형태소의 경우, 어휘 항목 조사 자료에서와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다만 몇몇 동일한 어형의 비교를 통해 어휘 항목 조사 자료에서보다 구술발화 자료에서 고모음화의 실현이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문법형태소의 'ㅓ 〉 ㅡ'와 'ㅗ 〉 ㅜ'는 이 고모음화가 이미 실현되는 지역에서는 그 실현율이 낮아지지만, 지역적으로나 음운론적 환경에 있어서는 다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다.

본고는 현대 한국어 방언에서 나타나는 모음체계의 변화와 고모음화 현상의 변화를 세밀하게 살핀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방언 분포와 그 변화를 통해 각각의 고모음화가 가진 특성을 밝히고, 구술발화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발화에서의 고모음화 실현율을 분석한 데서 새로운 점이 있다고 하겠다. 다만 필자의 한계로 인하여 고모음화가 촉발되는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점과, 더 많은 방언 자료를 이용하여 고모음화가 실현되는 모든 조건(형태소의 성격, 선행 음절의 음운론적 성격, 선행 음절 자음의 종류 등)을 살피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한국어 고모음화의 면면을 낱낱이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강순경(1999), 황해 방언의 모음체계, 언어24-3, 한국언어학회, 335-356.

강순경(2001), 북한어 모음체계의 실험 음성학적 연구, 한국문화사.

강희숙(2002), 천변풍경의 음운론, 국어학40, 국어학회, 171-194.

강희숙(2005), 고모음화의 실현과 방언 분화 - 전남방언과 서울말을 중심으로, 우리말글33, 우리말글학회, 1-32.

강희숙(2017), '어→으' 모음 상승과 음운 변이 - 전남 영광 지역어를 중심으로, 영남학63, 영남학연구원(영남대), 397-425.

강희숙(2018), '어→으' 모음 상승의 통시적 발달과 방언 분화, 어문연구95, 5-28.

곽충구(1994), 함북 육진 방언의 음운론, 태학사.

곽충구(2001), 황해도 방언, 방언학 사전, 태학사, 409-414.

곽충구(2003), 현대국어의 모음체계와 그 변화의 방향, 국어학41, 국어학회, 59-91.

곽충구(2019), 두만강 유역의 조선어 방언 사전, 태학사.

국립국어원 편(2005-2013), 지역어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편(2015a), 전국 방언 지도 제작,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편(2015b),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편(2016), 지역어 종합 정보 체계 구축,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편(2017-2020), 지역어 보완조사,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편(2021),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 국립국어원.

권경근(2001), 현대국어에서의 모음체계 변화의 움직임에 대하여, 언어학30, 29-48.

권경근(2011), 구어의 음운현상 연구, 우리말연구28, 5-22.

김덕호(2001), 경북방언의 지리언어학, 월인.

김무식(1997), 현대국어의 모음체계 변화의 움직임에 대하여, 언어학30, 한국언어학회, 29-48.

김보미(2016), 부산 지역어 단모음 /ㅡ/와 /ㅓ/의 세대 간 차이, 우리말학회

학술대회지, 우리말학회, 61-75.
김봉국(2004), 고모음 탈락 현상과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43, 국어학회, 37-61.
김선효(2005), 각 지역 방언을 통한 통시적 음운현상 고찰-“가을, 파리, 꿰다”를 중심으로-, 사림어문연구15, 사림어문학회, 295-312.
김수영(2021), 한국어 자음 말음 어간의 형태음운론적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아름(2008), 국어 고모음화 현상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규(2019), 한국어 방언접촉 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배(1984), 황해도지역방언 연구: 음운체계를 중심으로, 평안도방언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267-332.
김영배(1997), 증보 평안방언연구, 태학사.
김예니·김명주(2014), 19세기 후기~20세기 전기 경상 방언을 반영한 문헌어의 음운 현상 연구, 국어학71, 국어학회, 93-125.
김옥화(2000), 전북방언 ‘-어X’계 어미의 재구조화, 국어학36, 국어학회, 97-131.
김옥화(2001), 부안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옥화(2007), 옥구지역어의 음운과정과 음운론적 특징 -부안지역어와의 대조를 바탕으로-, 배달말40, 배달말학회, 99-126.
김완진(1971), 국어음운체계의 연구,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김유겸(2012), 인제 지역어의 음운론-방언 접촉 현상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태(2004), 천안 방언 ‘어→으’의 모음 상승에 대하여, 한글266, 한글학회, 49-75.
김주원(1984), 18세기 경상도 방언의 음운 현상: 몇몇 불서를 중심으로, 인문연구6,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31-56.
김주필(1996), 경상도 방언의 ㅐ와 ㅔ의 합류 과정에 대하여,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16-137.

김중진(1976), 전북 고창 지역어의 경어법 연구, 국어문학18, 국어문학회, 175-223.
김진우(1971), 국어음운론에 있어서의 공모성, 어문연구7, 87-94.
김춘자(2008), 함경남도 삼수지역어의 음운론, 역락.
김태균(1986), 함북방언사전, 정훈출판사.
김한별(2015), 19세기 전기 국어의 음운사 연구 - 〈의성김씨 학봉 종가 언간〉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현(2007), 비원순모음화와 'ㅗ'의 저설화, 진단학보103, 진단학회, 143-165.
남광우(1984), 한국어의 발음연구I, 일조각.
도수희(1977), 충남방언의 모음변화에 대하여, 이숭녕선생고희기념논총, 탑출판사.
박지윤(2011), 서울 지역 세대 간 /ㅖ/와 /ㅐ/ 모음의 포먼트 측정: 조음 음성학적 특징과 스펙트로그램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88, 한국국어교육학회, 295-314.
방언연구회 편(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배주채(1996), 국어음운론개설, 신구문화사.
백두현(1992),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태학사.
백두현(1997), 19세기 국어의 음운사적 고찰: 모음론, 한국문화2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서울대), 1-47.
백두현(1998), 《국한회어》의 음운현상과 경상방언, 방언학과 국어학(청암 김영태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693-712.
서보월(1982), 동남 방언의 모음체계에 대하여, 문학과언어3, 문학과언어연구회, 3-24.
송인성(2021), 원주 지역어의 세대 간 단모음 실현 양상, 민족문화연구9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451-475.
신승용(2004), ㅓ 원순모음화 현상 연구, 국어학44, 63-88.
신우봉(2015), 제주 방언 단모음과 어두 장애음의 음향 음성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우봉(2016), 20세기 전기 구어 자료에 나타난 모음 상승 연구, 어문논집 76, 민족어문학회, 233-261.
신우봉·신지영(2022), 현대국어 단모음의 방언별 음가 변화, 언어와 정보 사회47,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01-232.
신지영(2000), 말소리의 이해, 한국문화사.
안미애(2012), 대구 지역어의 모음 /ㅡ/와 /ㅓ/에 대한 사회음성학적인 연구, 문화와 융합34, 한국문화융합학회, 65-83.
오선화(2015), 연변 방언 연구, 박문사.
오종갑(1998), 'ㅖ, ㅐ'의 변화와 관련된 영남방언의 특성과 그 전개, 방언학과 국어학, 태학사.
오종갑(1999), 영남방언의 음운론적 특성과 그 전개, 한민족어문학35, 145-210.
유소연(2020), '어→으' 고모음화 현상과 '오→우' 고모음화 현상의 차이에 대하여 - 중부 방언을 반영한 자료를 중심으로 - , 국어사연구30, 41-69
유필재(2000), 서울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필재(2003), 서울지역어의 음운변화 몇 가지, 서울말연구2.
윤은경(2020), 어말 위치 /ㅗ/의 /ㅜ/ 대체 현상에 대한 문법 항목별 출현빈도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12, 한국음성학회, 33-42.
이금화(2007), 평양지역어의 음운론, 역락.
이문규(2009), 음운 규칙의 공시성과 통시성, 한글285, 한글학회, 71-96.
이병근(1970a), 19세기 후기 국어의 모음체계, 학술원논문집9, 대한민국학술원, 375-390.
이병근(1970b), 경기지역어의 모음체계와 비원순모음화, 동아문화9,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51-167.
이병근·정승철(1989), 경기·충청 지역의 방언분화, 국어국문학102, 국어국문학회, 45-77.
이병근·박경래(1992), 경기방언에 대하여, 남북한의 방언 연구, 15-40.
이상신(2020), 언어 및 방언의 접촉과 이에 따른 변화, 방언학32, 한국방언

학회, 35-64.
이원직(1996), 충남 방언 연구: 충남 서부 방언의 모음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어학3, 353-382.
이진호(2006), 음운 규칙의 공시성을 바라보는 시각, 국어학47, 국어학회, 39-63.
이진호(2014), 개정판 국어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이진호(2017), 국어 음운론 용어 사전, 역락.
이혁화(2009), 방언사의 현황과 과제 - 방언음운사를 중심으로, 국어학54, 국어학회, 303-324.
이현정(2008), 산청 지역어의 음운론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현주(2022), 충남방언의 모음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석규(2007), 경북 북부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박사학위논문(서울대).
장승익(2019), 황해도 방언 연구의 회고와 전망, 방언학30, 한국방언학회, 93-118.
장승익(2020), 황해도 안악 출신 북한이탈주민 발화의 음운론적 특징, 한국언어문학114, 29-52.
장혜진 외(2015), 서울 방언 단모음의 연령별 실현 양상, 음성·음운·형태론 연구21, 한국음운론학회, 341-358.
장혜진·신지영(2006), 대구 방언 단모음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음향 음성학적 연구, 말소리57, 대한음성학회, 15-30.
전광현(1967), 십칠세기 국어의 연구: 특히 표기 음운 형태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어연구19.
전광현(2000), 충청남도 서산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 국문학논집17,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1-24.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태학사.
정승철(2010), 방언 접촉과 언어 변화, (최명옥선생정년퇴임기념)국어학논총, 태학사, 369-388.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정영호(2008), 19세기 경상방언의 모음상승 현상 고찰, 한국어학38,

371-399.
정인호(2006), 제2음절 이하의 ‘ᄋᆞ’ 변화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101, 진단학회, 341-357.
정인호(2015), 현대국어 모음 ‘어’의 음가 고찰, 방언학22, 한국방언학회, 203-225.
정일진(1997), 표준어 단순 모음의 세대간 차이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분석 연구, 방언학22, 한국방언학회, 203-225.
조규태(2002), 모음체계, 경남방언 연구(경남문화연구총서 3), 한국문화사, 49-68.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학교 출판부.
최명옥(1986), 동남 방언의 연구와 특징에 대하여, 국어생활7, 국어연구소, 103- 115.
최명옥(1988), 국어 UMLAUT의 연구사적 검토, 진단학보65, 63-80.
최명옥(1995), 경남 합천지역어의 음운론, 대동문화연구3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333-358.
최명옥·김옥화(2001), 전북방언 연구, 어문학73, 한국어문학회, 203-224.
최명옥·곽충구·배주채·전학석(2002), 함북 북부 지역어 연구, 태학사.
최상홍(2006), 국어 단모음 /에/와 /애/의 세대와 성별 차이에 대한 음성학적 연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21, 반교어문학회, 87-106.
최소연(2018), 황해도 안악 지역어의 모음조화 연구, 어문연구46-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39-161.
최소연(2020), 황해도 안악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영순(1996), 함안군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중호(1984), 고성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모음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태영(1983), 방언음운론-전주지역어를 중심으로-, 형설출판사.

최학근(1973), 국어방언학, 형설출판사.
하영우(2019), 전남 방언의 단모음체계와 음가 변화, 민족문화연구8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577-60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1995),《한국방언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성우(2006), 평안북도 의주 방언의 음운론, 월인.
한성우(2011), 강화 토박이말 연구, 인천학연구원.
한영균(1990), 모음조화의 붕괴와 ‘ㆍ’의 제1단계 변화, 국어학20, 국어학회, 113-136.
한영목(1998), 충남방언의 현상과 특징에 대한 연구, 방언학과 국어학, 태학사.
황대화(2007), 황해도 방언 연구, 한국문화사.
황대화(2011), 1960년대 육진방언 연구 : 자료편, 역락.
小倉進平(1973), 朝鮮語方言の研究 上卷, 아세아문화사.[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 上卷, 東京: 岩波書店.]
小倉進平(2009), 한국어 방언 연구(이진호 역), 전남대학교출판부.[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 下卷, 東京: 岩波書店.]
Bailey, C. J. N.(1973), *Variation and Linguistic Theory*, Washington: Georgetown University Press.
Chambers, J. K. & Trudgill, P.(1998), *Dialectology*(2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bov, W.(1972), *Sociolinguistic Pattern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bov, W.(1981), Resolving the Neogrammarian Controversy, *Language* 57-2,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267-308.
Trudgill, P. (1986), *Dialects in Contact*, New York: Basil Blackwell.
Trudgill, P. (2004), *New-dialect Formation: the Inevitability of Colonial English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ang, W.(1969), Competing Changes as a Cause of Residue, *Language* 45-1,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9-25.

Abstract

A Study on the Distribution and the Change of High-Vowelization in Korean

Kim, Dongeu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dialectal distribution of high-vowelization in Korean. This dissertation also describes how the dialectal distribution changes in compliance with generation differences.

In this study, research materials on 《韓國方言資料集》(Korean Dialect Archives), 《지역어 조사 보고서(A Report on the Dialect Vocabulary of Korean) & 지역어 보완 조사(A Report on the Supplementation Survey of Korean Dialects)》 and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Language Variation Survey by Generation & Gender on Korean Dialects)》 were used to indicate the distribution and linguistic change. There are approximately 30 years between each research. Therefore it would be effectual to compare these

materials by the real time contrast method.

First of all, the change of vowel system may affect the input and the output of high-vowelization. Therefore this research examined the vowel system of Korean dialects. For example, in Gyeongsang-dialect of《자료집》, the speakers were not able to distinguish between 'ㅓ' and 'ㅡ'. In this case, high-vowelization was not supposed to appear. However, in《지역어》-one generation after《자료집》-, 'ㅓ' and 'ㅡ' began to be distinguished. Then it was able to find the examples of 'ㅓ' high-vowelization.

After giving a description of the change of vowel system, this research described the distribution of high-vowelization on the word-initial position. In《자료집》, 'ㅓ:' high-vowelization appeared in the entire Central dialect. As time passed, the distribution of high-vowelization reduced continuously. Hence, in《지역어》, 'ㅓ:' high-vowelization is distributed only in southern Gyeonggi and part of Chungcheong. 'ㅖ:' high-vowelization of Central dialect and Southern dialect also decreased in《지역어》whereas 'ㅖ' high-vowelization in Southern dialect showed no difference between《자료집》and《지역어》. In other words, there are greater generation differences in the high-vowelization of long vowels than short vowels.

In the non-word-initial position, 'ㅓ' high-vowelization was widespread in Central dialect and Southwestern dialect before the time of《자료집》. In《자료집》, the distribution of high-vowelization started to disappear from Seoul and southern Gyeonggi dialect. In《자료집》, the 'ㅖ' high-vowelization of the final syllable was found in Gyeongsangnamdo. This 'ㅖ' high-vowelization has not changed much over the years.

By this time, most of dialectal researches used only word data

for their arguments. This study used spontaneous speech data, so it was able to figure out how the high-vowelization occurs in genuine conversation. As a result, high-vowelization occured more frequently in spontaneous speech than in the word list data. Moreover, it is found that ‘ㅐ’ high-vowelization and ‘ㅢ’ high-vowelization in grammatical morpheme increased in spontaneous speech whereas most type of high-vowelization decreased consistently.

keywords : vowel, high-vowelization, dialectal distribution, spontaneous speech, generation differences
Student Number : 2015-30904